



내고장 삶의 뿌리를 찾아서

용인 자연마을 기행 2

우상표 지음

용인시민신문사



지은이 **우상표**

1963년 경기도 용인 삼배울 마을에서 태어났다. 한국외대를 나와 한양대 대학원 문화인류학과에서 종교·민속을 공부했다. 한 때 사회운동에 몸담기도 했으나 풀뿌리 지역언론인 용인시민신문 창간에 참여해 편집국장을 거쳐 대표이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역사회 향토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용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와 향토문화연구회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다.

용인
자연마을
기행 2

내고향 삶의 뿌리를 찾아서

용인 자연마을 기행 2

우상표 지음

용인시민신문사

두번째 글머리에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었다. 단순히 <1편>의 반복이어선 안 된다는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능력에 부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발췌 판 것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게 되었다. 그나마 시간과 공력을 들인 결과물이니 변명은 좀 해야겠다.

그간 향토사회를 조명하는 연구는 각 분야에서 꾸준히 진척되었다. 특히 문헌을 중심으로 해 온 사학계에서는 많은 자료를 발굴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지역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웬만큼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마을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민족지 쓰기'가 나의 목적은 아니었다. 관심과 출발점은 공동체 문화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자 우리가 터 잡고 살아가는 마을, 가장 실질적인 사회생활 율타리인 마을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삶터는 우리 문화의 원형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더불어 우리의 정서적 뿌리이자 생기의 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의식주와 인분, 자연환경, 마을 유래나 구비전승식의 나열을 피했다. 사회생활사 측면에서 짚어야 할 주제라면 자연마을 단위를 뛰어넘어 인근지역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 하나 밝힐 것은 시대환경으로 인해 드러내기 어려웠던 곡절도 슬쩍 양지쪽으로 끌어내는 시도를 해 보았다. 한국동란과 관련된 일들이 그 예다. 전체적으로는 각 마을의 특징적인 것들만을 다뤘다. 마을을 다 모아놓고 보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했다. 즉 조각을 맞춰 나가는 방식을 택하였다. 초점은 역시 사람이었다. 한 사회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행문 형식인 이 책은 태생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충실한 기록에 의한 민족지로서의 사료적 가치도 떨어지게 됐다. 그렇다고 마냥 웃으며 읽을 수 있는 재미거리도 별로 없을 듯싶다.

그럼에도 많은 도움과 참여의 결과임은 분명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마을 어른들의 증언이 실질적인 뼈대다. 또한 지역 연구에 헌신하시는 여러 선배님들과 연구자들의 축적된 성과 자료가 그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메일을 통해 방향을 잡아주신 공주대 이해준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재직 중인 <용인시민신문>임직원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다면 아예 시도조차 못했을 것이다. 기꺼이 자료를 제공해준 <용인신문>역시 고마울 뿐이다. 전문기자 이연선님이 원고를 봐 주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탓일 뿐이다.

용인관련 각종 문헌을 부록에 첨부한 것은 혹시라도 지역학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개인 출판물도 소중한 지역사회의 지적 산물이기에 실었다. 다만 어쩔 수없이 많은 부분 누락됐음을 양해하리라 믿는다.

가끔 드는 생각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힘들지만 내 운명에 감사한다. 이 사회는 자신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고 떠난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루어 온 것임을 믿는다. 나의 아버지를 포함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06년 늦가을
우상표

■ 글머리에

1장 처인구

쌍령산 바위전설과 미륵세상 꿈 안은 지혜의 삶터 ● 원삼면 목신리 무애기 마을	12
해주오씨 종족촌으로 반외세 항쟁역사간직 ● 원삼면 죽농리 청룡말	20
향촌의 푸근함 속에 감춰진 역사적 상흔 ● 원삼면 좌향리 좌전·황골	28
자연을 가꾸며, 부농을 일구며 ● 백암면 가창리 내창	35
백암장과 백암순대의 고장 ● 백암면 백암리 배개미	43
뜨거운 향토에 면면이 이어져 ● 백암면 석천리 황새울	50
남한강이 발원하는 전원주택 1번지 ● 양지면 평창리 평촌	58
박은과 박용의 낮은 가로쟁이 ● 양지면 식금리 식송	64
치소 있던 행정 교육의 중심지 ● 양지면 양지리 교동	72
골골이 전설로 이어지는 전통의 맥 ● 포곡읍 송문리 반정	80
에버랜드 들어서며 새롭게 탈바꿈 ● 포곡읍 전대리 앞꼬지	87
천년골살에 찻긴 비위계목, 그 풍적에서 한 수가 자랄로 ●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부계울)	95
태화산 자락 병풍삼아 풍치 좋게 자리한 마을 ● 모현면 갈담리 갈월	102
전통 이어온 해주오씨 종족촌 ● 모현면 오산리 본동	110
한전 이재선생의 곳곳한 기상 면면히 흘러 ● 이동면 전리 샘골	120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부농 일궈 ● 이동면 서리 상덕	128
만추에 익어가는 고풍古風의 마을 ● 이동면 시미리 남진말	136
보리타작 소리에 넘쳐나는 대동의 힘 ● 이동면 묘봉리 상리	144
세월의 변화에 빛 잃은 도공의 예기(藝技) ● 이동면 화산리 요산골	151
차인승첨 아끈 자궁심 태대로 흘러 ● 남사면 아곡리 아곡	160
찾아와 안주하고 싶은 마을 ● 남사면 원장리 중동	168
너른 들판 거친 땅 농촌 현실 그대로 ● 남사면 원암리 후암동	176
전설 같은 바닷가 매향의식 간직한 농성구씨 종족촌 ● 남사면 통삼리 통골	183
성산줄기에 감싸 안긴 장수마을 ● 유림동 버드실	189
옛 정취 간직한 도심속 농촌 ● 역북동 음터골	196

2장 기흥구	누대 터전 사라지고 동백지구로 새 사람 담아 ● 어정동 초당골	203
	새원 풍상에 한미성도 허물어지고...마운도 사라지고... ● 어정동 백현마을	212
	마운지킴이 신앙의 완벽한 공간 ● 상하동 민재궁	221
	활미지석재 이어가는 전통 깊은 마을 ● 상하동 하지석말	228
	맑은 물에 인심도 따라 혼렸던 사라진 마을 ● 구성동 물푸레울(덕수동)	236
	새원 앞에 변한 게 어디 끊어진 산허리 뿐이라 ● 마북동 마골	242
	교통요충지 마을공간 변화의 상징 ● 신갈동 상미	249
	음에 이자선생과 기묘명현의 숨결 다시 느껴져 ● 상갈동 지곡	255
	홍덕지구 택지개발에 흔적마저 사라지고 ● 영덕 덕골·잔다리	264
	고난의 역사에도 천년을 살아 숨쉬는 석탑 ● 기흥동 공세를	271
	지역가림 뛰어넘은 용광고 공동체 ● 기흥동 원고매	278

3장 수지구	상전벽해 속에서도 십정현 흔 길이 남아 ● 죽전동 대지	283
	망교산 발치 범기도량의 흔 서린 마을 ● 신봉동 서봉말	292
	천혜의 자연조건 갖춰 전원주택지 주류 ● 고기동 교분재·배나무골·셋말	298

■ 부록	참고문헌	308
	용인관련 문헌자료	310

원삼면 목신리 무애기 마을

쌍령산 바위전설과 마루세상 꿈 안은 지혜의 삶터

용인과 안성의 경계를 이루는 남동쪽 끄트머리 마을 무애기. 8년 전, 처음 그리로 향하는 6월의 아스팔트길에는 폭염이 쏟아지고 있었다. 질푸른 산야가 시야에 가득해 그나마 마음만은 시원했던 기억이 새롭다. 원삼면 용담고개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흐르다 서해안으로 빠지는 안성천은 죽농리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로와 함께 달린다.



무애기 마을 전경. 뒤로는 쌍령산 줄기가 감싸고, 앞에는 구봉산의 험한 기벽이 병풍처럼 둘러넘친다. 한 때 목악의 구심 역할을 했다.

시선은 자연 그리로 향한다. 물고기들이 수면위로 솟아 잔물결을 만들어내면서 마치 유유히 흐르는 냇물조차 더위에 지쳐 숨을 쉬는 듯한 광경도 여전하다. 다만 마을로 통하는 목신2교 앞 다리 밑에서 팬스레 보는 이까지 동심으로 잡아끌었던 천렵꾼들의 모습은 그저 추억 속에만 있을 뿐이다.

무애기는 쌍령산을 진산(鎭山)으로 하고 굽이굽이 기세 좋게 뻗어있는 구봉산을 안산으로 삼았으니, 이만한 삶의 공간도 흔치 않을 터다. 목신 3리인 무애기는 신촌으로도 불리지만 ‘숫점말’이라는 지명이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본래 양지현 목악면(木岳面)지역인데, 1399년에 현 양지면 전체를 포함해 용인시내의 마평동, 해곡동, 운학동은 물론 죽산의 고안부곡, 목악부곡 등을 편입해 만들어진 드넓은 권역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목악부곡, 즉 죽산 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옛 지명 목악이다. 아마도 무애기라는 지명은 목악의 변음으로 여겨진다. 또 고지도의 목악부곡은 현 목신리와 일치한다. 마을 어른들에 따르면 “‘무애기’는 근동 이 십리 정도를 통칭하는 말로도 불렸어. 그래서 ‘무애기 안골에 삽니다’ 해야 더욱 정확히 알아들었지.” 이를 통해 볼 때 목악부곡이 지금의 리(里) 규모에 불과했으며, 안골은 숫점말(신촌)로 자연촌락을 이룬다고 봐야 맞다.

이 마을이 근동의 중심기능을 했을 것이란 추측은 여러 정황을 통해 가능하다. 숫점말이란 지명에서 알 수 있듯, 1백여 년 이전에 커다란 무쇠 솥을 만들던 곳이다. 마을 중심부인 618번지 일대 텃밭에서는 녹인 쇳물이 엉켜 붙어 생긴 쇳조각 덩어리를 지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새터말 쪽으로는 농기구를 버리던 대장간이 있었다. 쌍령산 줄기가 경수산으로 이어지는 사이 계곡인 귀골에는 지금도 상당량의 사기그릇 무더기가 널려 있는데, 사기막점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규지묘 바로 위에 있다.

맨 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스승골이라 하는데, 옛날 한 선비가 이곳에 초막을 짓

고 살면서 어린 학동들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마을 남쪽에 강서방골은 강씨들이 집성했던 곳으로 보인다. 지금도 밭을 갈다가 두텁고 투박한 기와가 나오곤 한다. 향교 터로 알려진 곳은 깊은 계곡이면서도 큰 길이 훤히 보이는 좋은 위치다. 읍택지로도 명당자리이건만 향교 터라서 다시 쓰지 말라는 선대 어른들의 뜻을 주민들은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보에 있는 석조여래 입상. 현실의 고단함과 절망을 이기고자 미래불인 미륵은 마을로 내려왔다.



천년 전설 안은 쌍령산 바위들

튼튼한 등줄기가 아흔아홉 봉에 이른다는 구봉산이야 백암 용천리와 경계로 삼고 있으니, 자주 대하게 되는 산이다. 반면 문수봉으로부터 이어져 안성과 경계를 이루는 쌍령산雙嶺山의 진면목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몇 해 전, 우연한 계기가 찾아왔다. 안성 미리내 성지를 갔던 차에 오뚝한 두 봉우리로 버티고 서 있는 쌍령산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짐짓 놀란 적이 있다. 왜 이 같은 위용이 용인방향에선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눈을 들어 보지만, 북쪽이나 동쪽에선 등만 드러난다. 그나마 남동방향인 마을 앞 안성천 독길에 서야 편안해 보이는 두 봉우리를 볼 수 있다.

명산은 좋은 바위를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바위

는 수천 년을 이어가며,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본다. 사람들은 또 바위에 이름을 짓고 그에 얽힌 설화를 전승해 후대에 남기기도 한다. 경수산에서 쌍령산으로 이어지는 등줄엔 남쪽부터 감투바위, 가마바위, 족도리바위, 말바위가 이어져 있다. 감투바위엔 전설이 있다.

어느 오래전 구봉말에 큰 잔치가 있었다. 여기에 참석했던 쌍령말 사람들과 솥점말 사람들이 산에 올라 장난 끝에 감투 바위를 떠밀어 버렸다. 그 후로 감투를 쓴 형상의 이 바위는 웬지 동네를 향하지 않고 멀찌감치 안성의 고삼 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 후론 이 마을 사람 중에 여러 방면의 인재가 나긴 했어도 국록을 먹은 큰 감투를 가진 인물이 없었다. 쌍령말은 그 반대가 되었다.

간단하면서도 웬지 열개가 영성하기까지 한 이 전설은 그래도 많은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나뉘고 왕래가 뜸하다. 하지만 오히려 큰길이 없던 시절, 산 넘어 안성 쌍령과 이곳 목신리 사람들은 대소사를 서로 챙길 정도로 이웃으로 지냈다는 것이 확인된다. 아울러 바위를 해함으로써 마을에 큰 인물이 안 나왔다는 교훈을 주어 그 신성성을 부여하고 자연물의 영험함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전설은 마을 주민들의 처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단합과 향토애를 강조해 통합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위로 가면 가마바위다. 이어 족도리 바위와 말 바위가 있다. 족도리를 쓴 여쁜 색시가 가마에 앉아 가고 그 앞에 듭직한 신랑이 말을 타고 가는 형상을 누가 만들 수 있었으랴. 자연의 조화는 이처럼 아름다운 애깃거리를 만들어준다.

미륵세상 꿈꾸며 시름 달랬던 옛 흔적

원삼일대 문화유적을 둘러 본 사람이라면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 미륵 신앙물과 그에 얽힌 얘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사암리 안골 선돌과 두창리 골안 선돌 그리고 미평리 약사여래 입상에 이르기까지 그 본래적 기능과는 별개로 추후 섬김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런 방면에서 우리는 목신리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무애기 맞은편인 구봉말에서 요즘 새로 조성되는 구봉전원마을 입구 구룡에 이르면 목신리 보살입상이 보호각안에 안치돼 있다. 용인시 향토유적 제55호로 보존되고 있는 보살입상은 예로부터 ‘언청이미륵’으로도 불려 왔다. 기자신앙祈子信仰의 영향으로 코 부분의 마모가 심한 탓이다. 머리에는 창이 넓은 둥근 관갓冠을 쓰고 있으며 이마에는 희미하게나마 화불 조각이 나타난다. 전체적인 조형감과 양식을 통해 볼 때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안내간판의 내용이다. 또 하나의 석불입상은 이보마을에 있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우시장이 설 정도로 유명했던 ‘이보장터’ 거리는 주소지는 용인이되, 행정서비스는 안성 보개면이 관할하는 경계마을로서의 예외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벼랑모퉁이에 숨겨져 있는 치도바를 지나 천주교 공원묘지 길 맞은편, 마을 가운데 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62호로 보호되는 이 석불입상의 손 모양은 불가에서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의미의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시대의 양식으로 추정하는데 특이한 것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뒤편에 나뒹굴고 있는 둥근 머릿돌, 즉 보관을 씌울 생각조차 안한다는 점이다. 늘 궁금했던 차에 마을 어른께 이유를 물었다. “모잘 씌우면 여자들이 바람난다는 속설이 있어서 내버려 두는 거지.”

이쯤해서 다시금 왜 원삼일대, 특히 목신리 주변에 동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미



용인시 향토유적 제55호 보살입상, 기차신앙의 영향으로 코 부분이 삼하여 언청이 마뜩으로도 볼린다.



마을 길을 뒀을 때마다
세운 치도비.

특이 산재해 있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자연마을 기행 1』 원삼면 미평리 미륵뜰 편에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다. 요지는 궁예와의 연관성인데 『삼국사기 열전』 「궁예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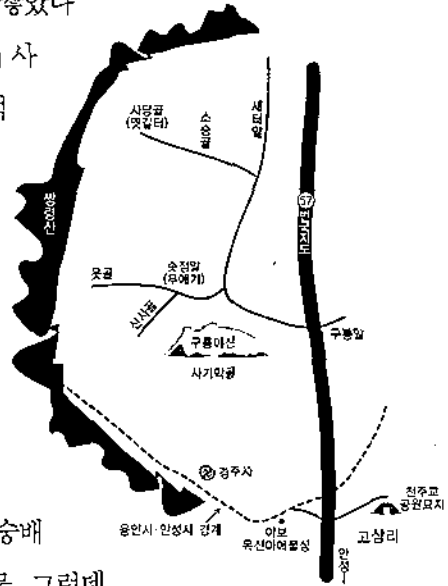
신라말에 정치가 거칠어지고 백성들이 분산되었는데, 곳곳에서 도적들이 별떼 처럼 일어났다. 이를 본 선종(궁예)이 생각하기를, 이 어지러운 때를 타서 무리를 끌어 모으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에 죽주에 있는 반란군 괴수 기훤에게 갔다. 그러나 기훤이 오만무례하므로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기훤의 부하 원희 등과 결탁하여 벗을 삼았다. 마침내 선종(궁예)은 892년, 복원(원주)의 적 양길梁吉에게 가니, 양길은 궁예를 잘 대우해 주고 일을 맡기었다.

신라 왕손이었지만 버림받고, 세달사에 들어와 선종이란 범명으로 중이 됐던 궁예. 그가 마침내 후고구려의 왕이 돼서 미륵신앙을 통치 이념화 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록 그가 죽주(지금의 안성일대)에서 기훤에게 의탁했던 기간은 짧았지만 삼죽면 기솔리 국사봉 궁예미륵을 비롯해, 옛 죽주 권역은 그 영향으로 미륵신앙이 가장 활발했다. 그리고 이곳 목신리는 바로 옛 죽주 땅의 일부다.

또 하나 재미있는 유물은 궁예가 왕건에게 쫓기며 쌓았다
 는 포천 반월성터에 남아있는 궁예미륵이다. 우연히 사
 진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 카메라에 담아온 이보 석
 불입상과 너무도 빼닮았다. 미륵불이 출현하는 세
 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의
 절망을 이겨내고자 했던 기층 민중들의 미륵신앙
 이 고려시대 전반기에 널리 폭 넓게 퍼졌다는 것
 을 말해주고 있다.

흔히 절간이나 들판에서 머리에 관을 쓰고 서있
 는 들부처 미륵. 대체로 일그러지고 조형미도 없으
 며 어설피 보이는 미륵. 더구나 미신이나 주술적 숭배
 대상이란 오명을 쓰고 일부의 외면을 받았던 조형물. 그런데
 어떤 이는 반대로 “한국인의 원형질이요, 대표적인 문화양식이다”라고 까지 말했
 다. 자신의 내면이 투영된 모습이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못난 자신을 일깨워주
 는 거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물과 역사 유물은 그 생성과정과 배경을 이
 해하고 애정으로 대하면 달리 보이게 마련이다.

오늘도 무예기 주민들은 거칠고 딱딱지 못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 큰 부
 자도 없다. 마을 형상이 '삼태기 형' 이라, 담긴 곡물을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부자와 국록을 먹는 큰 인물이 나진 않았어도, 욕심 없이 편안
 한 모습으로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그 지혜가 선대들의 미륵신앙을
 닮았다.



원삼면 죽능리 청룡말

해주오씨 종족촌으로 반외세 항쟁역사 간직

빠른 도시화로 향촌사회가 무너지면서 특정 성씨가 한 마을의 지배적인 인구를 차지하는 사례는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돼 가고 있다. 특히 수지구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몇 해 전까지 성북동 초입에는 웅장하게 잘 지어진 ‘龍星齋’라는 용인이씨 재실이 있었다. 최근 아파트 부지로 수용되면서, 끝내 철거 이전 되고 말았다.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나는 종족촌의 해체라는 상징성을 드러내 주



청룡말 전경. 청룡말을 포함한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는 해주오씨 종족촌으로 알려져 있다.

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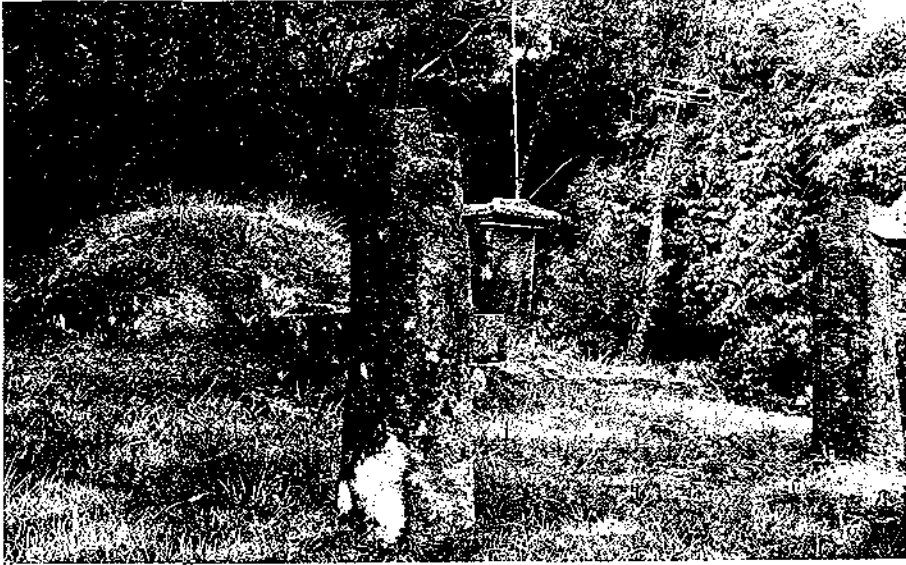
그나마 처인구 지역에서는 향촌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종족촌, 다른 말로 집성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마을이 바로 죽능리 청룡말이다. 용인에 세거했던 여러 재지사족在地士族 가운데 눈에 띄게 번성한 해주 오씨는 아직도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일대에 집성촌락을 이루고 있다.

최근 제작한 전화번호부 책을 놓고 일일이 확인해 보니, 청룡말은 25호 가운데 10호가 이들이다. 죽능리를 이루고 있는 어현 31호 중 7호, 후평 34호 중 8호, 승죽 20호 중 7호, 능말 37호 중 5호 등이다. 전체 147호 가운데 37호이니, 죽능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얼추 넷 중 한명은 오씨인 셈이다. 이 같은 양상은 목신리와 학일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희보 입학조 삼아 600여년 세거

종족촌은 마을생활사 연구에 핵심을 이루는 부분 중 하나이자 흥미로운 주제다.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됐는지, 종족촌이 향촌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변화해 왔는지, 타성 집단과의 관계설정은 어떠한지 등등 살펴볼 거리가 많다. 먼저 정만조의 『조선시대 용인지역 사족의 동향』이란 논문을 잠시 인용해 보자.

해주오씨는 17세기 들어 새롭게 용인지역에 이거해온 명문가로서 계파를 보면 회문계(回文系)인데, 이들은 회문 다음대인 윤점(允謙) 이후 크게 번성하여 윤점을 파조(派祖)로 하는 추탄공파로 불린다. 해주오씨의 경우 이에 앞서 광주 토당이나 죽산, 양성 등지에서 세거하였으며, 임란 이전에는 가문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16세기 후반 회문이 연안이씨 이정수(李廷秀)의 여식을 취하면서 용인으로 이



해주오씨 입향조인 호군공 오희보 묘역. 용인에 산개한 오씨 일문의 시조 격이다.

겨, 이후 정착하였으며, 처가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가문이 성장하였다.

죽능리 일대에 세거하게 된 입향조는 고려말 대호군을 지낸 호군공護軍公 오희보吳希保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질 않아 알 수는 없으나, 여말선초麗末鮮初 시대적 격변기에 혼란을 피해 용인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이 후손들의 전언이다. 수백에 이르는 후손들을 남겼지만, 집안이 재지사족으로서 그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쇄미록鎖尾錄을 지은 오희문와 그의 아들 추탄공 오윤겸에 이르러서 부터다. 호군공으로부터 각각 5세손과 6세손이다. 호군공 이후 9개 파종으로 나뉘는데, 추탄공의 후손들은 주로 모현면 오산리 본동에 집성하고 있다. 반면 원삼일대에 세거하고 있는 이들은 범 호군공파護

匪公派의 후손으로 그 중 판서공 오윤수의 후손들이 5할 정도를 차지한다.

해주 오씨가 청룡말을 포함한 원삼 3개리를 중심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기반을 빼놓을 수 없다. 오윤점은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세운 인조반정으로 서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사헌을 시작으로 이조판서와 좌의정, 영의정 등 중앙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정치적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 후로 아들 달천이 이조판서, 손자 도일이 병조판서 등을 역임했으니, 그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하는 향촌 내 영향력이 대단했을 것이란 짐작은 쉽게 할 수 있다. 실제 추탄공 대에 이르러 쌍령산과 구봉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인근 야산들이 종중재산이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향촌과 연계를 맺어가며 삶을 이어왔을까. “6.25전까지만 해도 죽능·목신·학일리에 걸친 세거지 종족원들은 전체주민 400여 호 가운데 약 80% 정도를 차지했다”는 오민근 종중회장의 말을 통해 볼 때 수백 년에 이르는 종족촌 유지는 흔치 않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힘은 무엇이였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일단의 상상력이 불가피하다. 아마도 기본적인 종중의 경제적 기반이 바탕이 됐을 것이다. 아울러 조상숭배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데다, 농경사회였던 관계로 두레 등 마을 주민 간 협업에 의해 노동력으로 해결해 나갔던 점에서 이주 또는 분화의 원심력이 크지 않을 것 이란 생각이다. 그런 가운데 일부 유민들이 주변 마을의 일원이 되면서 관계가 유지돼 왔을 것으로 보인다.

힘께나 쓰던 계방촌

여기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사실은 ‘계방미(契房米)’의 존재다. 오 회장에 따르면

“종중원은 물론이고 타 성씨들도 3개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했으며, 매년 쌀 한 말씩 오씨 종중에 내고 인근 산에서 마음대로 나무 땔감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본래 계방이란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빈약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군역과 잡역 등 공역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부호나 마을로부터 쌀이나 돈을 받는 것을 이르는 말로 알려져 있다. 계방촌이란, 요즘말로 돈으로 ‘뺨’ 쓰는 힘 있는 마을인 셈이다. 아마도 예로부터 계방촌이었던 이 마을은 후일에도 그 전통을 살려 계방미를 거두어 종종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신, 땔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사유지 산에서는 땔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몰래 하다가 쫓겨나거나 더 멀리 지계를 지고 나가야 했던 것을 회상해 보건데, 계방미는 차라리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겠다.

느티나무 거목이 버티고 서 있는 능말을 지나 풍수상 ‘좌청룡’에서 지명이 유래됐다고 한다. 안성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른다. 차량왕래를 빼면 농촌의 정경 그대로다. 옛 농가의 모습대로 멩석을 말아 세워둔 모습과 흙벽돌로 지은 구식 연초전조실도 보인다. 10여년 전 28호이던 마을은 24호로 줄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주민 역시 요즘은 9호에 불과하다. 대신 담뱃가게, 슈퍼마켓, 역뚝집, 자라음식점, 제분소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소 늘었고, 보건소 직원, 건설업자, 농협 RPC직원, 목사 등의 직업군으로 구성원이 확대됐다. 여전히 외지 유입인구가 근래 단 한 가구에 불과한 청룡은 단합이 잘되는 것으로 주위에 알려졌다. 1946년 개교해 근 50여년 동안 1,212명을 배출한 청룡초교는 분교로 전락하더니, 지난 94년에 영원히 문을 닫았다. 젊은 층이 마을에 드물다보니, 취학 학생이 아예 끊기다시피 한 탓이다.



오인수, 오광선, 이회영·오희옥으로 이어지는 '3대 독립운동가문'은 용인의 큰 자랑이다. 이곳을 참배하는 학생들.

역사에 빛나는 3대 독립운동가문

마을 앞으론 쌍령산과 문수봉으로 이어지면서 큰 울타리에 둘러싸인 이곳은 곳곳에 반외세 항쟁의 흔적이 산재해 있다. 2004년 12월, '이 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돼 그 충절을 다시금 새겼던 상애 임시 의정원 의원 오의선도 죽능리 출신이다. 특히 죽능리는 자랑스러운 '3대세 항일투사'를 배출한 곳이다. 오인수의 병장, 그의 아들 오광선 장군 그리고 그의 여식 회영, 희옥과 사위 광복군 참령 신송식이 그들이다.

여러 문헌 기록과 오희옥 여사의 증언 그리고 생전 그의 동생 고오영결 선생에 따르면 3대의 가족사는 국운이 땅에 떨어져 풍전등화에 놓여 민족 반 백년사 바로 그 자체이자, 투쟁사에 다름 아니다. 오인수(1868~1935) 의병장은 원삼면 죽능리에서 태어나 명포수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의

병 300여명을 인솔하고 안성·죽산·양지 등지에서 일본 헌병대, 경찰 주재소를 습격해 헌병과 경찰관 수십 명을 사살하는 등 활약했던 인물이다. 그의 피체 과정은 비열한 반역자의 모습과 또 한명의 독립운동가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실탄을 소진하고 굶주림 속에 야음을 틈타 집으로 찾아든 오 의병장을 덮친 것은 일본 헌병이 아니라 일진회장 송병준의 아들 송종현이 이끌고 온 토벌대였다. 이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11살의 소년이 바로 오광선이다. '조선 광복' 결의로 개명하고 해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그의 삶은 아버지의 그 길을 되밟은 것이었다. 오 의병장이 서대문 감옥에서 10년 형을 언도받고 8년을 복역하는 동안 삼악 학교와 YMCA 청년학원 등에서 배움에 정진하던 그는 압록강을 건너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한다.

일제 강점기 우리민중의 고단하고 서러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맞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에서 주인공 방대근이 다녔던 바로 그 무관학교다. 그곳에서 교관을 거쳐 늘 선두에 서있던 그는 광복 후 귀국해 국내지대 광복군 사령관을 지내면서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대를 이은 독립운동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맏딸 오희영은 남편 신승식과 함께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青年戰地工作隊)에 입대해 활동했고, 광복군이 창설되자 정식 여군으로 입대해 아버지와 함께 간부로서 일했다. 생존해 있는 동생 오희옥(79) 선생 역시 공작대와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활약했다. 오 선생은 지금도 노구를 이끌고 용인에서 열리는 3.1절 행사와 8.15행사에는 꼭 참석하시어, 우리들을 감동케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오광선 장군의 막내아들 오영걸(1933~2001) 전 광복회 재정부장을 잇을 수 없다. 용인에 오면 "어려서 일본 놈에 잡혀 사형당한 줄

만 알고 지내던 아버지를 본 것은 해방 후인 1946년 5월 서울 원남동 집에서였다”며 그는 눈물짓곤 했다. 그리고는 “아직껏 친일·부일협력자가 독립유공자로 둔갑하고 아직도 기독교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진정한 독립은 멀었다”며 일갈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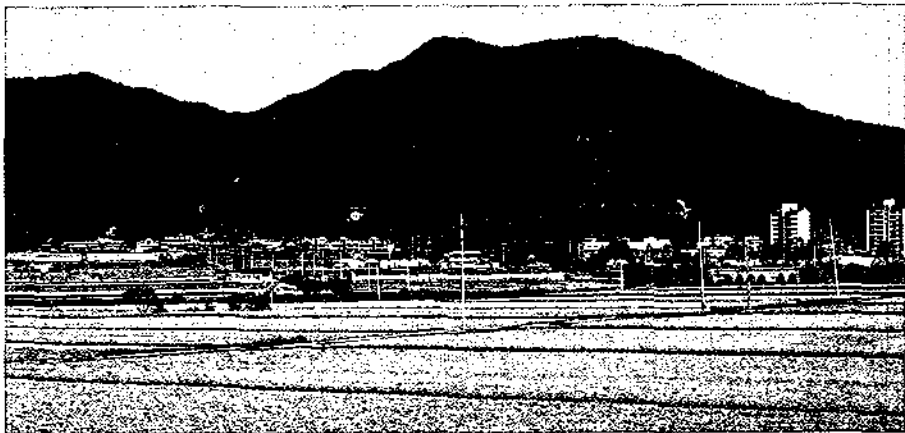
오씨 입향조 오희보의 이름을 따고 그 후손들이 영원히 번성하라는 뜻으로 세워진 ‘보령재保寧齋’. 능말로 올라가는 그 곳에 이르면 오희보로 시작해 3대 독립운동 가문에 이르기까지, 무려 600여년 해주오씨의 숨결이 진하게 느껴진다.



원삼면 좌향리 좌전 · 황골

향촌의 푸근함 속에 감춰진 역사적 상흔

독조봉을 정점으로 남쪽을 향해 커다란 두 날개를 힘차게 뻗은 듯한 산줄기가 원삼과 백암 일대를 감싸고 있다. 그 안에 펼쳐진 들판은 용인의 가장 너른 곡창 지대다. 이처럼 거대한 산줄기와 들이 시작되는 곳에 황골 마을이 들어앉아 있다. 마치 이곳 형상이 '마을을 품은 학 같다' 해서 학골(鶴谷)로 불리다 황골로 변음 됐다는 설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황골에는 고려 때 대곡부곡(大谷部曲)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대곡의 우리말 표현인 한골 즉, 큰 고을이 변음된 것으로 보는 게 옳을 듯싶다.



황골 전경. 너른 들을 끼고 독조봉을 진산으로 삼은 황골은 풍요와 함께 역사의 슬한 시련이 거쳐 간 곳이다.

마을 뒤로 우뚝 솟은 독조봉은 이 마을의 상징으로 동편 어깨쯤에 좌전고개가 있다. 영남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다가 조령(鳥嶺)(문경새재)을 넘어 계속 오르막으로 이어지는데 그 꼭짓점이 좌전고개다. 이곳으로부터 서울까지는 반대로 계속 내리막길이어서 독조봉이 있는 좌전고개를 '조선지고(朝鮮之高)'라 칭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실제 영남대로는 한강의 지류인 탄천·청미천·달천, 낙동강과 그 지류 하천 계곡과 분지를 따라 건설되었다. 따라서 조령(638m), 팔조령(398m) 등을 제외하면 200m 넘는 지형적 장벽이 없을 정도로 완만한 지형이다. 그렇다보니 영남대로의 구간별 지형단면을 보면 부산에서 팔조령과 문경새재 그리고 음성의 임오치 정도가 좌전고개보다 높을 뿐이다. 서울 남쪽에 다리내 고개는 좌전고개보다 한참 아래다.

산맥은 물길을 가르다. 영남대로를 따라 흐르는 강줄기도 소맥산맥을 경계로 한강과 낙동강이 역으로 흐르니 말이다.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맞게 된다는 독조봉(獨鳥峯). 그 허리를 통과하는 좌전고개 역시 물길을 가르다. 남쪽으로 흐른 물은 청미천을 거쳐 백암과 죽산을 지나 장호원, 여주로 흘러 남한강을 이룬다. 북쪽으로는 양지천, 경안천을 거쳐 결국 팔당상수원에서 그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합류한다.

이처럼 큰 물길을 가르는 작은 논배미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이별배미'라 부르는 곳이다. 지금은 도로와 골프장 건설로 인해 없어졌지만, 마치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만물의 이치와 같이 '이별 배미'는 운치는 물론이요, 애뜻하고도 감미로운 문화 예술적 소재로도 훌륭할 듯하다. 여러해 전 이 얘기를 무용가 정기옥 선생에게 했더니, 끼가 넘치는 그답게 춤으로 표현해 보겠노라며 좋아했던 기억이 새롭다.



마을의 관문 좌찬역

영남대로에 접하고, 더구나 좌찬역이 마을과 이어져 있다는 것은 황골을 이해 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문명발달의 기본적인 시설이자, 생활사의 보고(寶庫)이기도 한 도로. 그 가운데 영남대로는 우리나라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총연장 380km로서,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동래(부산)를 잇는 최단 코스였다. 이미 18세기 이 길을 따라 형성된 한양, 충주, 상주, 선산, 대구, 밀양, 동래 등은 당시 인구분포도를 통해 보더라도 매우 밀집된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또 영남대로는 자원과 인재가 모였던 영남과 역사상 가장 전략적 요충지였던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대동맥이었다. 이처럼 중요한 영남대로에는 물류와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중앙통치력을 전국적으로 고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통신

땅이 있었으니, 우역제도에 의한 역驛이다. 산재한 역들은 7~8개 군현을 묶어 관할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했는데,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역道驛인 양재도(후에 영화도)에 속한 주요지점이 바로 좌찬역佐贊驛이다. 지금은 좌전(좌향2리)으로 불리는 곳인데, 옛 이름은 역촌驛村이다.

본래 '좌찬'은 벼슬 직위로, 조선 건국 초기 제2차 왕자의 난의 중심인물이자, 백암 비두리에 유허지가 있는 박포의 좌찬성左贊成 관직명을 딴 것이라 전하나, 근거는 정확치 않다. 소설가의 눈에는 관직명을 딴 고개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이재운 선생은 『소설 토정비결』에서 이 일대를 사실 묘사하면서도, 유독 이 좌찬고개만 '꿀딱재'로 바꾸어 버렸다.

아무튼 고려조로부터 이어져온 좌찬 역촌은 황골마을과의 관계설정과 미친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먼저 살펴야 할 곳이다. 사회신분을 생업과 관련해서 묶어놓았던 조선사회에서 교통요지의 노변취락에 배치되어 거주했던 역촌주민들은 양인에 속하면서도 세습적으로 고된 국가적 천역賤役에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따라서 '신양역천身良役賤'의 특수신분으로 분류됐다는 것이 관련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이들 역민에게는 역둔토가 주어졌으며, 능력에 따라 문자를 해독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자는 사무직에 임명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마필을 돌보거나 관물의 수송 등 육체적 노역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종족촌과 마찬가지로, 마을을 형성했던 점인데, 한 자료에 따르면 1900년대 초 좌찬역의 가구 수는 18호, 그 중 이씨가 33%, 김씨가 20%, 기타 성씨가 47%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역에 귀속된 역민으로 한정했을 때 그러할 뿐, 1760년(영조36)에 낸 여지도서輿地圖冊 죽산현 편을 통해 볼 때 당시 좌찬역촌이라는 자연촌락은 큰

마을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무려 167호에 남자 364명, 여자가 441명이나 되었다. 이는 인근의 맹동孟洞의 그것(104호, 남248명, 여411명)에 비교해 보더라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아마도 고려조부터 커지기 시작한 대로변 역촌을 중심으로 일반민들의 마을이 확대된 것으로 보여진다.

평산신씨 집성한 황골

“옛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인데, 최창락 전 동력자원부 장관의 부친인 최중악씨가 놀러오면 아버님이 ‘주막거리 역촌 놈 왔나? 하고 농을 던지곤 했지’

신효철 용인산림조합장의 말을 빌어볼 때, 평산신씨 종족촌 격인 황골에 사는 이들이 좌전 역촌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역촌으로 발달한 좌전은 후일 역촌이 폐지된 후 주막거리로 불렸지만, 양민 내지 천민들의 집성지역으로 업신여김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다.

황골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씨가 입향한 것이 대략 150년 안팎에 불과할 뿐더러, 고문서에도 줄곧 ‘좌찬역촌리’만 표기돼 있다. 1894년에 편찬한 기전읍지畿甸邑誌에 이르러서야 향곡(황골)이란 마을명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마장면 오천에서 옮겨 온 평산신씨는 단기간에 대표적인 집성을 이룬 셈이다. 이 마을은 많은 인물을 냈는데, 신동준 전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농대 교수,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 신효철 용인산림조합장 등이며, 최창락 전 동자부 장관이 좌전 출신이다.

문의환이 봐도 요새처럼 보이는 분지형 울타리 안에 너른 들판을 끼고 있는 이곳은 수려한 산수와 함께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마을이다. 특히 독조봉은 진산답게 많은 전설과 함께 역사적 시련을 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산제사를 모시기도

했던 마을의 영산 독조봉이 올면 비가 내린다는 민담이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마파람이 안성 삼죽을 거쳐 크게 벌린 팔 안으로 밀려들어 마침내 독조봉을 할킨다. 수북하게 쌓인 갈잎이 뒤집히면서 ‘췌에~’ 하는 소리를 내게 되는데, 비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은 늘 앞서게 마련이니 틀린 얘기가 아니다.

좌찬 일대는 용인의 그 어느 지역보다 전란의 흔적을 많이 남긴 곳이다. 영남대로는 바로 왜군들이 임진왜란 당시 주요 침투로 이용한 곳이다. 양재역 등 주요 찰방역과 역점은 전쟁 시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되는 만큼 핵심 타격지점이 되기도 했다. 특히 지형적으로 천혜 요새인 이곳은 주요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 같은 사실은 마을지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마을서편에 원삼과 백암으로 이어지는 큰 들판이 시작되는 작은 들이 진벌이다. 이곳은 의병들의 ‘진터’에서 유래되었다. 그 옆으론 둔덕이 동남방향으로 누워있다. 이를 ‘두둑기’라고 하는데, 진터에 진을 치고 복을 두둑기며 의병들의 작전을 신호하던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마을 서남쪽으로 두둑기를 넘어가면 삼포 밭이 있는 역터골 산57번지. 점토가 많은 이곳에 말 무덤이 있다. 전장에서 죽어간 말을 묻었다고 한다. 더 넓게 보면 맹리 일원의 행군이 토성, 태봉산 산성터, 건지산 봉수 등이 모두 전란과 관련된 흔적들이다.



신효철 가옥은 안채가 못 하나 없이 지어진 집이다. 늘 대문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게 이채롭다.

민족 수난사와 함께 한 독조봉

이처럼 민족 수난사와 늘 함께 했던 마을은 굵은 함쟁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구한말 의병활동이 그랬고, 1919년 독립만세 시위 때 관내에서 가장 먼저 횃불을 든 곳이 여기다. 용인항일독립운동 기념탑과 기념관이 들어설 만세공원을 굳이 이곳에 조성하는 이유도 이 같은 역사성과 현장성을 높이 평가한 때문이다.

역사적 상흔을 애써 감추려는 듯 마을의 외양은 향촌의 푸근한 맛이 한껏 느껴진다. 안길을 따라 심어진 은행나무, 특히 감나무와 들담이 많은 마을이다. 북편으로 활처럼 싸고 있는 산령이 북풍을 막아준다. 돌은 마을의 상징이다 시외 여겨졌다. 옷말을 돈돌매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땅을 파면 삽날 한 길이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다. 이처럼 거칠고 황량한 천수답 돌무지 땅을 경작지로 바꾸면서 거둬낸 많은 돌을 담장으로 이용하는 지혜를 보여줬다. 대개 번듯한 양옥집들이 들어섰지만 이 운치 있는 돌담은 양옥의 차가운 느낌을 지워준다.

4월 마지막 휴일이면 이곳에 뿌리를 둔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든다. '리민의 날' 행사다. 어느 때면 민 행사보다 더 성황일 정도다. 그리고 신명이 오르면 어른들은 독특한 몸짓의 똥둥이춤과 절구춤을 추어댄다. 그리고 마무리는 꼭 어깨를 걸고 함께 함창을 한다. 애향가다.

“맑은 산 고운 물 한데 모이고 깨끗한 공기를 담백이 싣고 우리가 살고 있는 좌향리. 높고 높다 독조산봉, 넓고 넓다 앞 안뜰...”



백암면 가창리 내창

자연을 가꾸며, 부농을 일구며

멀리서 보면 커다란 삼태기가 마을을 둘러싼 듯하다. 그 속에 움푹하게 등지를 틀고 곳곳한 인심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백암면 가창리 내창이다. 행정지명으로는 '내창 4리'에 해당하는데, 불리진 '안창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환곡미를 저장하던 곳간이 두 개 있었는데 동구 밖에 있는 것은 바깥창고, 마을 안에 창고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 내창이다. 내창을 찾아가는 길은 시내에서 백암면 소재지에 다다를 무렵 왼편으로 접어들어야 한다. 여러해 전에는 긴 등처럼



가창리 전경. 들판이 넓어 풍요롭기도 하지만, 특히 좁은 층이 마을을 지키는 희망의 마을이다.

이어진 슬밭이 있어 이정표 노릇을 했는데, 소나무는 사라지고 그 자리는 큰 떡거리 집이 들어섰다.

제일약품 용인공장을 지나 오리쭈름 가다보면 마을에 이르는 길은 여럿이 된다. 그 중 가장 운치 있는 길은 셋골고개를 넘는 거다. 나지막한 산등성이 거의 등을 맞대고 있는 사이로 고개를 하나 넘어 고갯마루에 서보라. 단아하고 오붓한 모습으로 자리 잡은 마을이 흰히 들어온다. 그리고 그 뒤로 건지산 봉우리가 오뎅 솥아있고 서편으로는 수정산이 병풍을 두른 듯 펼쳐져 있다. 들판을 질러 소화산이 수려한 자태로 누워있다. 어느 산이나 예사로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조물주의 완벽한 작품을 이곳에 만들어놓은 듯, 삶터 공간으로는 그만이다.

군사통신 네트워크, 건지산 봉수대

건지산은 용인에서 몇 채 안에 드는 높은 산으로, 조선시대 통신수단인 봉수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건지산은 남쪽 망이산과 서북쪽 석성산 봉수대 사이에서 연락을 취하던 곳이다. 용인을 통과하는 노선은 동래 - 영천 - 의성 - 봉화 - 단양 - 제천 - 충주 - 진천 소울산 - 음성 망이산 각 봉화대를 거쳐 올라왔으며, 용인 석성산 - 성남 천림산 봉화대 - 남산으로 올라가거나 수원 - 화성으로 연결되는 경로였다. 이는 영남대로와 거의 비슷한 노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군사통신 네트워크인 봉수는 중앙 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추신경이요, 중요한 동맥인 셈이었다.

최근 들어 봉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전국적으로 봉수대를 복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역사의 주요 흔적을 복원한다는 의미와 함께, 대개 봉수대의 위치

가 시야가 훤히 트인 전망 좋은 곳이란 점을 착안한 측면도 있음은 물론이다. 몇 해 전부터 대전에 있는 한 시민단체가 제안을 해서 전국 단위로 통일기원 봉화제를 열고 있는데, 실은 용인지역 봉수꾼으로 두해동안 참여해 보았다. 10월에 열리는 데, 한 밤중에 건지산 봉수터까지는 가지 못하고, 대신 독조봉에 올라 불꽃놀이용 화약을 쏘아 올린 다음,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여 성남 천림산 봉화대에 알리는 방식을 택했다. 가장 원시적인 통신수단 중 하나인 봉수에 최첨단 통신수단을 절충한 꼴이다.

우리가 민족 문화 자존심을 살린다는 의미와 함께 지역 주민의 평안과 화합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역사 유적인 봉수대를 복원해 시민들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이질감이 적지 않은 용인 동·서북부 주민들이 각각 건지산과 석성산 그리고 광교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면서 마음을 연결하는, 그 같은 상상을 해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한 속이 풀리는 듯하다.

열반에 든 노승의 이승 흔적, 부도 탑

열반에 든 승려의 이승 흔적인 부도 탑을 보는 것은 용인에선 흔치 않다. 오래 된 것은 포곡읍 백년암에 있는 부도 탑과 가창리 정원사(精院寺)의 것이 알려졌을 뿐이다. 사찰을 여행하다보면 솔하게 보게 되는 게 부도 밭인지라 못내 아쉽긴 하지만 귀한 만큼 애정이 가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다. 마을 뒷산 수정산을 오르다 보면 새로 마련한 정원사를 지나쳐야 볼 수 있다. 안내판 내용은 대략 이렇다.

이 부도는 수정산 기슭에 1972년의 대홍수 때 산사태로 인하여 폐사된 정원사 입구에 있다. 그 형태는 화강암 1석의 석종형(石鐘形)으로, 상륜부는 연주문의 보륜



정원사 부도탑. 대홍수로 사찰과 주지는 잃었지만, 부도탑 만은 그 자리에 남아 있다. 유려하고 단순한 석
종형으로 조선시대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명문이 없어 그 주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받침을 둔 후 다시 연주문 받침을 두고 보주寶珠를 얹은 형식이다. 방형의 대좌나 기단부가 생략되어 있다. 탑신의 표면에는 명문이나 음기가 없어서 어느 고승의 부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배흘림 등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이 부도는 대략 고려 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 고승의 유골이나 사리를 안치한 둥근 돌탑인 부도. 범명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속세의 연은 부질없는 것이라 여겼을까. 더구나 그 단조로움과 순수함은 오히려 화려하고 세인들을 압도해 주눅 들도록 만드는 여느 부도 탑에 비해 감동을 전해준다. 더욱이 이름 하나에 목숨 거는 우리 아니던가.

1972년 홍수는 주민들에게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주지스님이 밖을 살피러 나온 사이, 폭우에 밀려 내려온 큰 바위가 덮쳤다. 당시 스님과 공양주 한분이 화를 당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대웅전 일부를 비껴가 후불탱화와 범종 등을 수습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불자였던 주민들은 이웃 절에서 가져가려던 불교 유물을 거두고, 새롭게 불사에 참여해 영성하게나마 정원사를 재건했다. 위치는 본래 자리에서 500여m 아래다. 이때 홍수에 상처 입은 부도를 손보게 됐는데, 이름 모를 스님이 극락왕생 하면서 탑 속에 남긴 것은 부러진 손가락과 한줌의 재뿐이었다 한다.

농촌의 미래가 보이는 흔치 않은 마을

“근동에서 제일 일해 먹기 좋다고 하긴 해...”.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는 요즘 농촌에서 이들인들 별 수 있으랴. 젊은 농업인이 인근에서 가장 많다. 비닐하우스 농법을 통해 적은 면적에서도 소득과 생산성이 높기로 유명한 마을이건만, 워낙

미래가 어둡다보니 자랑도 마지못해 미지근하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그나마 농촌의 희망을 보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젊은이가 있다. 농사짓는 40~50대가 일추 스무 명 가까이 된다. 물론 그 나이는 통념상 장년층으로 분류하지만, 농촌에선 애들 층에 속한다. 이렇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자연히 많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다는 요즘 농촌모습에선 대단히 예외적이다. 이들의 사는 수준은 어떨까. 언뜻 보기에 부촌 티는 안 난다. 그러나 마을 밖 들녘에 수천 평씩 농토를 대개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희망은 학교다. 인근에 백암초등학교 수정분교가 있다. 정원이 35명인 이 분교가 그나마 폐교를 면할 수 있는 것은 내창 마을의 힘이다. 인근 10여개 마을이 학군인데, 무려 20명 이상이 내창, 한 마을에서 다니는 학생들이다. 행정 기관 하나 없는 이곳에서 학교는 주민들이 함께해 머릴 맞대고 지역 일을 풀어나가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희망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백암 내 60여개 마을 중 젊은이가 중심인 데도 내창이고, 젊은이들이 의지할 곳도 거기다. 외부에서도 들리는 이 같은 평가는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주동과 이인호 같은 이들이다. 농사일에도 앞장 설 뿐만 아니라 학교 일에도 참여해 농촌과 학교를 연결하는데 열심이다. 최근에는 도농 상생공동체 운동인 생협 만들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종극(85)옹의 얼룩진 생애사

여기서 마을원로 한 분을 소개할까 한다.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시대의 반영이자, 그 자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종극(85)옹의 생애사는 내창 마을의 역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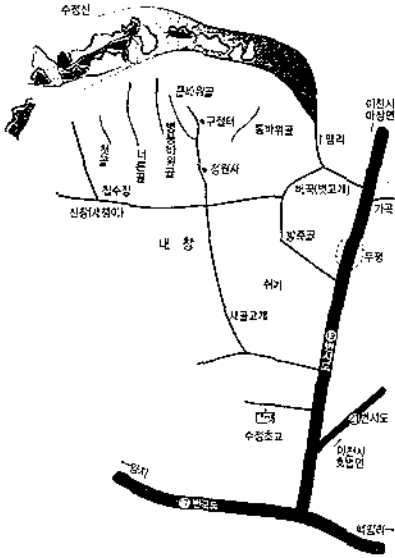
자, 농민의 모습이면서 우리 근·현대사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고향에 속하는 이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건강한 모습이였다. 그의 젊은 시절은 이 땅의 아픔과 설움이 묻어있다. 일제 강점기인 1943년(그는 소화 18년으로 더 정확히 기억한다). 징병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방되기 이태전이니까, 나이가 스물두어살 됐지 아마. 징병통지서를 받아들고 떠난 게 음력 정월 24일이었어. 용인 진흥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서울 남대문과 평양을 거친 끝에 일본으로 갔지. 도착한 데가 동경 근교 이바라끼깡이라고 하더구먼. 한 천여 명쯤 왔는데, 각각 배속부대로 나뉘고 나는 300명 정도가 같이 있었어. 한 일은 밭일이었지. 고구마 기름을 짜서 전쟁해야 했는데, 그 일을 했지.

전쟁 후 고향에 돌아와서도 죽어라 일을 해야 먹고 살았지. 동도 트지 않은 퉁퉁한 새벽녘에 일어나 물을 일일이 퍼 대면서 벼농사를 지었는가 하면, 두 내외가 단지 쌀 두서너 개 품만 사가지고 벼 1백 50가마 농사를 졌어. 농한기 겨울이라고 쉬어 보질 못했어. 겨우내 가마니를 백 개 이상 짜 봤지. 나중에 밭에 나와 보니 얼굴이 허영게 변해 있더라고.”

이용이 이처럼 억척스레 일해서 마련한 땅이 논 5천여 평, 밭 2천5백 평이 좀 넘는다. 이 땅을 일부만 남기고 두 아들에게 일찌감치 넘겨줬다. 이들 역시 농촌을 떠나지 않고 더 불리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부지런한 농심은 요즘 토지 값이 들쭉거리어도 달가워하질 않는다. ‘일한대로 사는 게 사람’이라는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치이건만 현실은 어쩔 그런 순수함이 낯설기까지 하다.

수정이 많이 나는 수정산이 뒷담처럼 싸고 있는 내창. 가공해서 값어치가 나갈 정도로 질이 좋은 것은 아니어서 개발의 흉터를 남기진 않았다. 그 산에는 명석 바위, 병풍바위, 소바위, 굴바위, 더덕바위 등 제각각 이름을 달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민 상호회적인 대동회, 친목회 성격의 내창청년회, 출향인들이 주축이 된 수정회 같은 촘촘한 조직으로 단합을 이어나가는 마을. 부지런한 전통을 이어받아 불의와 모순에 굴하지 않고 농촌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치며 걸어 나가는 젊은 농민들. 왠지 사람에게겐 고향 말고도 정이 더 가는 마을이 있다. 수려한 자연과 건강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뿜어내는 멋. 그 멋이 있을 때 정이 간다. 이 마을이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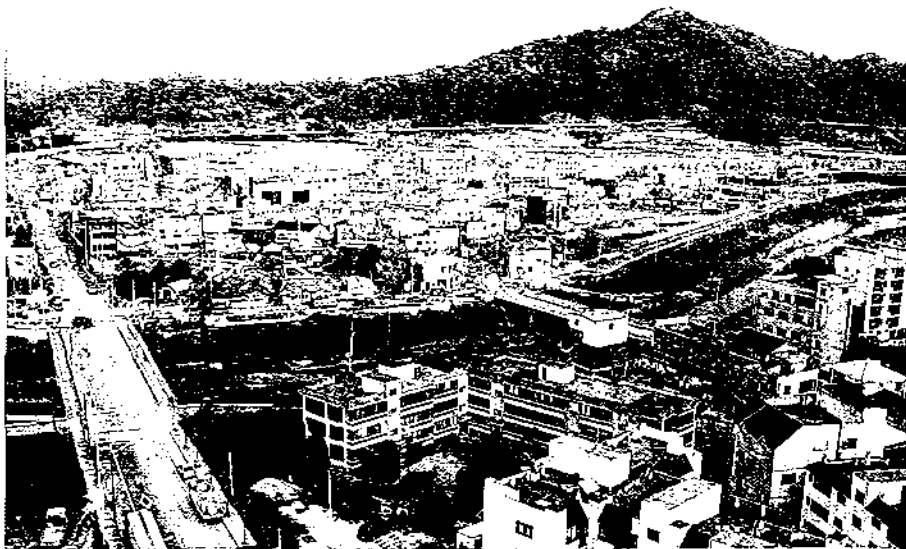
백암면 백암리 배개미

백암장과 백암순대의 고장

백암지명 유래 '흰 바위'

“신갈 처녀 백암 시집가면 부모 얼굴 찌진다.”

너른 들을 가진 백암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근의 부러움을 살만큼 부촌이었다. 척박한 땅인데다 농토가 넓지 않았던 신갈과 기름지고 너른 들판을 가진 백암



배개미 전경. 백암의 중심부인 배개미는 하천변에 조성된 대표적인 촌락이다. 멀리서 보면 하얗게 빛을 받는 쌓인 모래가 '흰 바위 같다' 하여 백암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지명유래.

이 비교되는 이 전래담은, 사정이 많이 바뀐 지금상황을 반영하긴 어렵게 됐다. 원삼까지를 포함하는 용인 동부권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곳은 '백암장'이라는 정기시장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권역이다.

본래 백암은 죽산군 근삼면의 노동老洞과 배감排甘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양지군 박곡면 기안리의 일부를 합쳐 백암이 되었다. 현재 백암은 행정편의와 자연마을 형성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데, 당촌, 기안, 지령골, 동구, 서구가 이에 해당된다.

당촌은 백암2리로 당뫼골로 불리었는데, 마을에 산신제를 지내던 당집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백암5리인 기안은 '톨안이'라 했으며, 이를 한자화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원지 자연스럽지가 않다. 지령골은 마을이 길게 형성돼 있는 모양새를 따른 것이기도 하고, 구백암으로 질러가는 골짜기에 터를 잡아 그리 부른다는 속설도 있다. 동구와 서구는 편의적 발상에 따른 방위각 개념으로 지은 재미없는 이름인데, 80년대 초반 인구가 늘어나면서 현재 백암농협이 있는 쪽과 원삼 두창리 방향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지명과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가창리에 구백암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이천시 호법과 연결하는 큰길이 그곳에 있었고, 과거 길로도 활용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민가가 형성됐을 가능성은 크다.

예로부터 '계거溪居'가 제일이라 하여 산수가 뛰어나고 외부 노출이 잘 안 되는 골짜기에 종족촌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수관이었다. 반면 백암은 미풍양속을 유지하며 노출을 꺼리는 종족촌과는 달리, 소통을 중시하는 장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왕래가 빈번한 교통요지로 점차 이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은 현재 백암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백암장터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청미천 하천 옆으로 413번지, 428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6층 건물 주변이

본래 싸전마당이었다. 그 옆으로 닭전 골목과 떡전이 형성돼 있었다. 백암장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로였던 우시장은 현 백암경로당 앞이다. 지금의 장터는 논이었으니, 장터의 축소라는 이유와 함께, 보다 유통에 유리한 공간을 찾아 옮기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 때 풍요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흥청거리기도 했던 백암. 그런데 궁극한 것 중 하나가 왜 백암일까 하는 거다. 문헌상으로는 1832년(순조 32)에 만들어진 죽산읍지에 배관장이라는 기록이 처음 등장하며 이후 '백암장'으로 변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감_{ㅈㅅ}'이라는 어원은 연결되는 의미가 없고 이를 통해서도 과거를 짐작해 보기가 쉽지 않다. 요즘 주민들은 '흰 바위'를 뜻하는 백암_{白峯}으로 굳혀 어원으로 삼고 있다. 용인을 대표하는 농악단 중 하나인 '흰바위 농악단'이라든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어울려 하는 '흰바위 축제'도 열리고 있으니 말이다.

백암장의 흥망사

시골에서 자란 40대 이후 치고, 5일장 추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기억을 더듬어보면 장날 아침, 어머니는 짚으로 정성스레 엮은 달걀 꾸러미나 텃밭에 알맞게 자란 부추를 잘라 묶어서 시장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보따리엔 집에서 사용할 공산품이 들어 있곤 했다. 빈손인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다음날 통학할 때 차비로 주시는 꼬깃꼬깃한 지폐가 내다 팔고 받은 값임을 짐작으로 알 수 있었다.

용인에는 김량장과 백암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백암장은 이천과 안성·용인을 잇는 곡창지대 5일장의 모습과 발달 과정을 잘 보여준다. 1·6자가 붙는 날에서는 백암장은 이미 조선시대 순조 32년(1832) 배관장_{僻觀場}이란 이름으로 문헌에



백암장터 모습. 한 때 우시장과 싸전이 번성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린 대표적인 5일장이다.

등장하니, 그 역사는 150여년은 족히 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성 싶다.

특히 백암장은 보통 '쇠전'으로 불리는 우시장이 유명했다. 1918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국의 우시장이 모두 655개소였는데, 경기도에 47개소가 있었다. 당시 단위시장으로 가장 큰 곳이 거래량이 25,000두 이상이었던 함북 명천장과 길주장이었는데, 그 다음이 바로 수원장과 용인 백암장으로 20,000두 이상 거래되었던 곳이다. 장날이면 전국에서 몰려든다는 수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으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쇠전의 발달은 자연스레 상인들의 소를 맡아 관리하면서, 떡이도 주고 채증 늘리는 일까지 담당하는 마방을 육성하기도 했다. 또 도축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정육점이 흥했던 것도 쇠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론 싸전이다. 백암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품질과 양에서 인근지역을 압도했다. 따라서 쇠전을 중심으로 싸전이 백암장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가운데, 곡물전, 어전, 채소전, 유기전, 각종 씨앗을 파는 종자전, 소금을 파는 염전, 각종 바늘을 팔았던 침자전, 철로 주물한 각종 물건을 판매한 철물전 등 갖가지 물건이 거래되었다. 이처럼 활력이 넘쳤던 정기 5일장, 백암장은 큰돈이 오가는 우시

장이 있었던 탓으로 제법 규모를 갖춘 유각을 비롯해 도박도 흥했다는 것이 당시를 기억하는 어른들의 얘기다. 백암 면소재지에만 23개에 달하는 다방이 남아있고, 게임방이 7개나 있는 것도 흥했던 백암장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큰 장은 역시 추석과 설날 대목장인데, 이도 백중장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는 이 마을서 대대로 살아온 대성(大姓) 김해 김씨, 김창대(66) 전 이장의 회고다.

“7월 백중장이 서면 청미천 백사장에서 씨름 대회가 열렸어. 힘깨나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었는데, 인근에서 이름 난 장사들이 나왔지. 사당패들도 이날은 백암장을 찾아 흥을 돋웠으니, 큰 잔치 날이었어.”

이처럼 시장은 본래 상거래를 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공간이자, 민속의 보고이기도 했다. 특정한 상품만이 거래되는 특수시장이 아니라 온갖 것이 거래되어온 백암시장은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마을과 주민들을 서로 연결하기도 한다. 용인을 넘어서 이천의 모가, 설성, 호법, 안성 일죽면 사람들 가운데 웬만큼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백암장을 다녔다. 이들은 백암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차원에서 주민들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는 곧 시장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하나로 묶어주는 끈 구실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번성했던 백암장도 시대의 도도한 흐름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해방 이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5일장은 1975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있다.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던 당시부터 농촌의 읍, 면 소재지까지 정기 시장이 들어섰고 상가 또는 상설시장으로 시장의 규모와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백암장이 쇠퇴의 길로 들어선 것은 우시장이 사라지면서 부터다. 1963년 6월 축협(畜協)의 가축 직거래가 이뤄지고, 유통망의 발달에 따라, 1980년대 들어 사라

치고 만 것이다. 더구나 농협 유통망을 통해 생산과 판매가 조정되다 보니, 싸전까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더욱 급격히 위축되었다. 요즘의 5일장은 상설시장 주변의 거리나 공터, 시장골목 등에서 장사꾼과 지역주민들이 벌이는 노점이 어우러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백암순대로 옛 명성 다시 찾으려나

아무래도 백암에 가면 「제일식당」이나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대개 순대국밥 한 그릇을 들게 된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식당은 주말이면 손님들로 가득하기 마련인데, 요즘은 인근에 골프장이 많이 생기자 보니 그쪽 손님들이 부쩍 눈에 띈다. 아무래도 내 고향 특산품이라 그런지, 그들 반응을 은근히 살피게 된다. 간혹 순대를 사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체로 만족스러운 표정이어서, 내가 주인인양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용인의 특산 식품으로 자리 잡은 백암순대. 백암순대는 번성한 우시장의 영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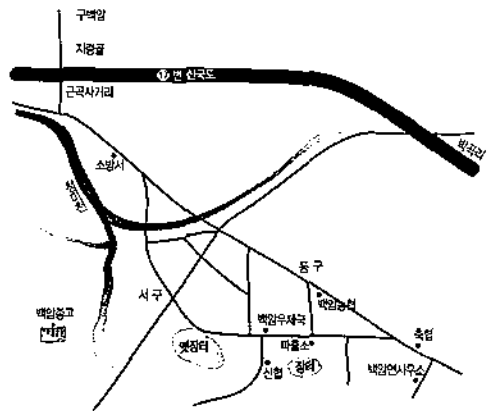
여기서 용인대표 특산음식으로 알려진 백암순대, 그 탄생배경이 자못 궁금해진다.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결국 백암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백암장이 번창하던 과거 30년 전후로 시장에는 도축 고기를 파는 정육점도 덩달아 잘 되던 시절이었다. 정육점은 돼지 내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고, 이를 순대로 만들어 팔기도 하였다.

멀게는 50년가량 되는데, 「풍성육」을 운영하던 이억조(여·1909~1996)씨가 원조로 알려져 있다. 호박과 부추,

야채를 비롯해 속을 풍성하게 다져넣어 만든 백암순대는, 맛도 맛이려니와 홍보 효과도 컸던 모양이다. 이용희 전 국회의원이 현역이었던 시절, 어느 날 그가 백암을 찾았다가 우연히 순대 맛을 봤다. 서민들의 식품인 순대는 당시만 해도 일반 시중에서는 주로 식용비닐류로 외피를 만들어 판매하던 때였다.

그에 비교해 보면 확실히 백암순대는 달랐다. 이들 상인들의 요청도 있었고, 언론계 출신으로 그 방면에 발이 넓었던 이의원은 중앙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백암순대가 홍보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 알려지고, 백암순대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내식품」(대표 신동선)이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널리 백암순대를 보급하고 있다. ‘용인전통순대’라는 브랜드 역시 전국 보급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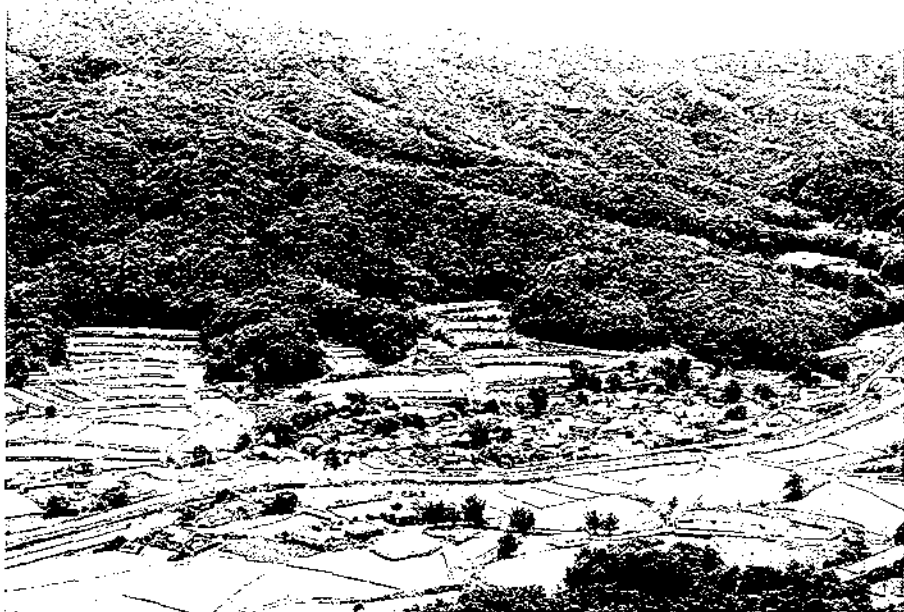
전통마을과는 달리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물자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가 교환되기도 하는 복합적인 공간 백암장. 그 장터를 중심으로 변화를 거듭해온 백암은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시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특유의 장터 전통과 배개미 정신이 있기에 그 미래를 여전히 낙관하게 된다.



백암면 석천리 황새울

뜨거운 향토애 면면이 이어져

마을에 있던 큰 소나무에 황새가 항상 깃들어서 생긴 이름이라는 황새울. 한자식 표현인 황석(黃石)이란 옛지명도 있지만, 황새울로 외부에 잘 알려진 마을이다. 황새울 관광농원이 여러 차례 매스컴을 타고, 이 마을에 머물렀던 작가 윤정모가 '황새울 편지'라는 글을 모 신문에 연재하면서 부터다. 최근에는 용인골프장이



황새울 전경, 깊은 골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너른 들판을 배후에 끼고 있어 부자들이 많았던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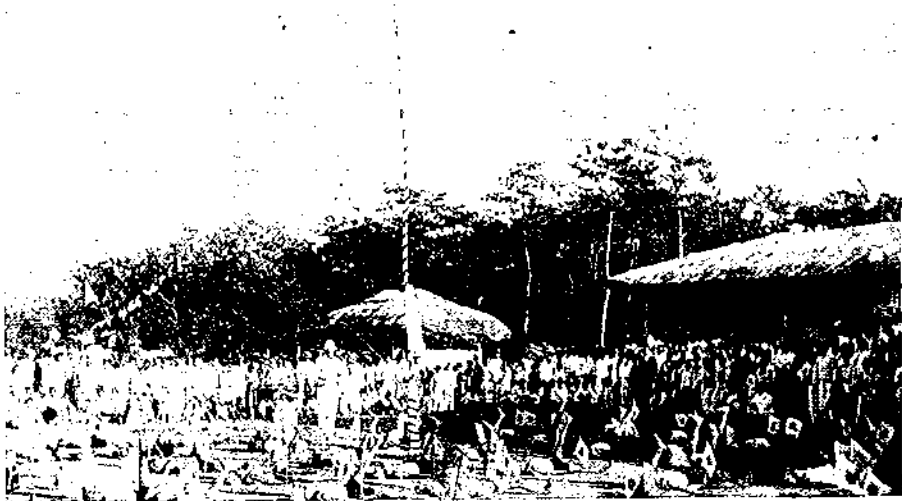
안지락에 들어서면서 도로사정도 한결 좋아졌다.

황새울은 예로부터 깊고 아늑한 마을이었다. 해주정씨(海州鄭氏), 우봉이씨(牛峯李氏)가 3할 정도를 차지하고 능성구씨(陵城具氏), 강릉김씨(江陵金氏)가 대대로 터를 닦고 사는 고장이다. 구봉산 줄기를 등지고 있는 황새울은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80여 호에 달할 정도로 비교적 큰 마을이었다. 눈어림으로 봐선 좁은 골짜기에 무슨 농토가 그리 많겠나 싶은데, 동구 밖 용천리와 안성시 삼죽면 등지까지 이곳 주민들의 농토가 많았던지라 부지동네로 꼽혔다.

쇠경을 받고 일을 하는 머슴, 즉 요즘으로 치면 농업 임노동자를 두고 농사를 짓는 지주가 20여 호에 달할 정도였다니 놀랍기만 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소지주들이 많았던 마을은 해방과 더불어 크게 흔들리게 됐다. 지주들의 자제들은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떠났고, 토지개혁 과정에서 일거리를 잃은 일꾼들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리', '마님'이라 불렀던 지주층과 '자네'로 통칭하던 일꾼과의 상하적 관계는 해방 전후를 시점으로 사라지고, 동시에 마을도 40여 호로 줄고 만 것이다.

민족교육의 산실 근영학원과 정명근

암울했던 식민지 골짜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경로와 방법은 다양했다. 그 주력은 실력 양성이었다. 많은 선각자들이 농민야학과 문자 보급, 브나로드 등을 통해 민족 해방운동에 나설 때, 깊은 고을 황새울에도 그 흐름이 있었으니, 문맹 퇴치와 민족의식 고양을 위해 세운 근영학원(槿英學院)이 그것이다. 그 중심은 정명근(鄭明根, 1884~1950)이었다. 벼농사만 100여마지기 지을 정도로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던 정명근은 한일늑약 후 망국의 한을 품고 조국 땅을 떠난 후 미국 하와이



시설 강습소 입에도 많은 학생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 얼마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컸는가를 느낄 수 있다. <자료사진-정찬섭 제공>

에 머물며 이상재, 서재필 등과 교류하던 선각자였다,

그런 그가 고향에 돌아온 것이 타국생활 19년만인 1921년.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던 정명근이 1920년대 말에 본격적인 육영사업에 뛰어든 것은 당시 자치운동 중심의 실력양성론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황새울 고향집에 강습소 형태의 글방을 차렸는데, 당시 초등교육기관으로 백암보통학교 외에는 직전 세워진 옥산학원 밖에 없던 시절이라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석천리, 용천리, 장평리 그리고 멀리는 안성군 삼죽면의 품곡리 아이들까지 찾아와 첫해부터 무려 36명이나 되었다. 교과목은 일반 정규학교와 다를 바 없었다. 조선어, 국어(일본어), 습자, 창가(음악), 철방(작문), 무용을 가르쳤는데, 1·2학년 과정이었다.

20평이 되는 사랑채 글방은 2년이 지나자 더 이상 수용능력상 한계에 부딪혀 덕은마을에 새로운 교사를 마련해야 했다. 근영학원은 특별함이 있었는데, 역사교육이었다. 보통학교에도 없던 우리 역사를 가르쳤다는 것은 비공식 교육기관으로서 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연히 일경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아야 했다.

“조선어나 역사 시간이 되면 대문 밖에 보초를 세워 놓고 가르치다가 양복쟁이가 오면 흑판을 지우고 일본 말을 배우는 척 했지요.” 당시 학생이던 오하영(69)씨의 기억이다. 민족정신 고양이란 목표는 정명근이 지은 교가에서도 나타난다.

“쉽 없는 청미천 동에 흐르고, 변치 않는 조비산 앞에 솟아있네. 아름답다 그 경치 근영학원도, 무궁화 한복판에 솟아있다네.”

당시 애국운동 차원에서 무궁화 심기가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보면 그가 얼마나 민족정신 고양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뚜렷하게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근영학원은 장평학교가 설립되고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그 역사적 임무를 다하고 접게 됐다.

6.25 이념갈등은 마을에 들이닥치고...

요즘 들어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전쟁 불사’까지 떠드는 정치인을 보면, 정말 답답해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에 슬퍼진다. 동시에 10여년 이상 여기저



근영학원 설립자 정명근(1884~1950) <자료 사진>

기 마을을 돌아다니며 들어왔던 전쟁 상흔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몸서리 쳐진다. 술하게 들어왔던 이야기건만 왜 그럴까. 처참함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다. 무려 50년 동안 남들 앞에 슬픔조차 내보이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명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 비극의 성격이 간단하지 않음에 나는 한 번도 마을 이야기에 담아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의도적이었다.

또 한 번의 고민 앞에 선 지금, 나는 동족상잔과 관련된 주변 마을의 아픔을 간단하게나마 담아보려 한다. 다만 그것은 어느 입장이 아닌 사실관계를 대략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에서 말이다.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도 이념적 지향이 다양했던 것처럼, 작은 마을에도 이념이라는 짙은 자라고 있었다. 장평리에는 최0풍 형제가 살고 있었다. 농사일을 했던 그들은 사상서적을 많이 읽었고, 백암에서 반일사상이 강했던 김0출이란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25전까지 좌익활동을 했던 이들은 사상 전향을 피해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등 문제가 없었으나, 6.25 동족전쟁이 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죽고 죽이는 전쟁은 피아를 나누는 것이 기본인 법. 두려웠던 많은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인민의용군으로 전장에 나섰다. “장평리가 텅 빌 정도였다”는 회고를 통해 보면, 그 숫자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8월, 북으로 끌려갔던 이들은 대동강까지 갔다가, 사리원 근처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 공군기의 공습에 뿔뿔이 흩어져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석천리에서만 약 40여명이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남과 북이 한번 씩 번갈아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은 죽어갔다.

“인민군이 퇴각할 때 장평초교에 인민재판소가 세워졌어. 대한청년단, 이장, 반공주의자 등은 인민재판 후 족비산으로 끌려가 죽었어. 그러다 수복 후에 좌익

으로 찍혔던 사람들을 잡아 치안대로 넘겼는데, 같은 꼴이 되고 말았지. 석천리, 장평리, 도창리 주민들 중에 미망인이 많이 생겼어. 타작과 가래질을 하는데 석천리 여인네들이 일추 20여명은 됐으니까. 말해 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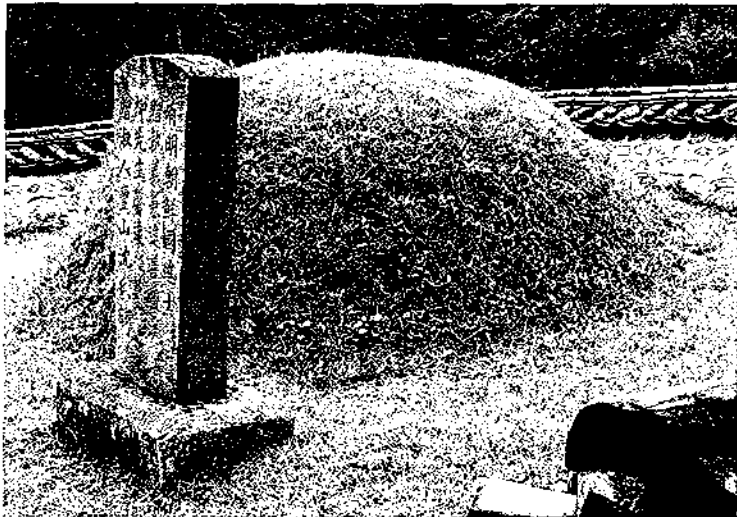
최0풍은 9.28수복 때 월복을 했지만, 남아있던 가족들은 대한청년단에 의해 죽었고, 농토와 집마저 몰수당하고 말았다.

한 고장에서 오순도순 함께 살갑게 살았던 이들이지만 분단민족의 극한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양민들은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갈 수 없었다. 어느 한 쪽을 강요당하거나 선택했지만 전쟁의 와중에선 목숨까지도 요구했던 것이다. 선택의 폭도 없이 이념의 틀바구니에서 죽어간 그들의 영혼을 아직껏 남은 이념의 잣대로 과연 더 이상 방치해야 할 것인가. 범정부 차원의 화해와 진실위원회가 구성된 마당에, 지역차원의 치유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조금하다 할 것인가.

윤정모, 유형원 그리고 황새울

요즘이야 유명인들이 워낙 용인에 많이 살고 있어 그리 애깃거리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70~80년대만 해도 달랐다. 더구나 소설가 윤정모는 『고삐』, 『누나의 오월』 등에서처럼 미군과 윤락여성, 광주 항쟁 등 이 시대의 민감한 주제들을 소설 속에서 다뤄왔던 터라 정보기관의 ‘요주의 대상’ 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황새울로 이사를 왔으니, 화제가 될 수밖에. 윤씨는 이미지대로 격의 없이 주민들과 어울렸다. 잔치집이 있으면 장구를 치며 노는가 하면, 마을회의에도 참석해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황새울 마저 개발소리가 들려오자, 소리 없이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그



실학의 아버지
반계 유형원 묘.
반계의 실사구
시 방법론은 지
금까지도 우리
에게 깊은 감명
을 주고 있다.

가 머무는 동안, 시골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술과 담배를 즐기는 당시 모습은 기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비쳐지면서 두고두고 화젯거리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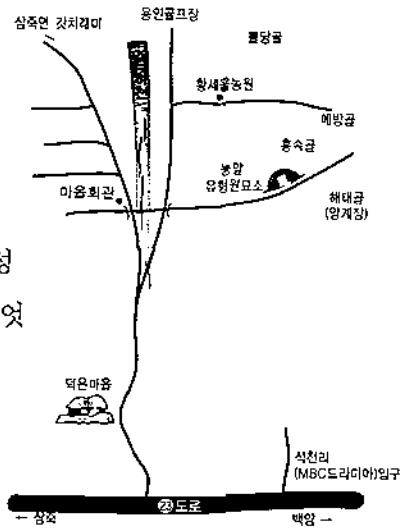
우리는 황새울에서 역사에 길이 기록될 위대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니, 실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반계(齔溪) 유형원(1622~1673)이다. 마을 맞은 편 구봉산 자락 깊은 골짜기, 농말에 영면해 있는 유형원. 그가 살았던 17세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고 관료들은 당쟁에 몰입해 있었던 시기다. 특히 양반들은 글 읽기에 충실하고, 이것만으로 입신양명을 꾀할 수 있었다. 오로지 실험과 연구를 거쳐 객관적 사실을 통해 해답을 얻고자했던 '실사구시(實事求是)' 방법론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반계는 이에 깊이 회의했던가 보다. 과거를 통해 출세 길에 나서는 양반들의 관행을 포기하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다. 광해군 복위 옥사에 연루돼 그의 나이 겨우 2살에 아버지를 잃고 성장했던 불운한 가정사를 지냈던 반계는 변산반도 우

반동에 은거하며 실사구시로서 세상을 보고, 방안을 찾았다. 무려 18년간을 전국을 주유하며 세상을 경험하고, 앞선 학자들의 문헌을 연구했다. 그리고는 국가재정과 백성들 삶의 개선을 위해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사회개혁안인 『반계수록(潘溪隨錄)』을 완성했다. 이 같은 사상과 대안은 정양용에 이르러 실학으로 완성되는 바, 그야말로 실천적 지식인의 표상이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그가 정리한 실용적 지리지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誌)』를 통해 내 고향 용인을 알아 가는데도 큰 도움을 받고 있으니, 400여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고마움을 새삼 느낀다.

마을에서 눈을 들면 늘 보이는 산이 있다. 북쪽의 나랏님과 조정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 웅크리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저항의 산으로 불리는 조비산. 그런 탓일까. 황새울과 인연을 맺었던 정명근·윤정모 그리고 유형원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순응하기 보단 낡은 관행과 질서를 깨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음이 딸이다.



양지면 평창리 평촌

남한강이 발원하는 전원주택1번지

수도권 대부분의 인구가 이용하는 식수원 한강물. 그 물을 공급하는 팔당댐 상류가 용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그 발원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바로 평창리다. 평창저수지 위쪽, 도창과 마을 경계를 이루는 곳을 기점으로 물은 양쪽으로 갈린다. 여러해 전 한국하천연구회에서 발원지 꽃말을 찾아 놓아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평창 일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남쪽으론 충청도, 동쪽으론 이천·여주, 서쪽으론 용인이고, 북쪽으론 서울로 가는 길이 나있다. 그야말로 사통팔달이다. 이동이 편리하고 벌판은 너르니, 나라에서도 이 땅을 귀히 여겼던가 보다. 군량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조선조 때 여기서 나는 쌀을 군량미로 썼다 하며 군창



전면에서 본 평촌마을 전경. 전형적인 시골모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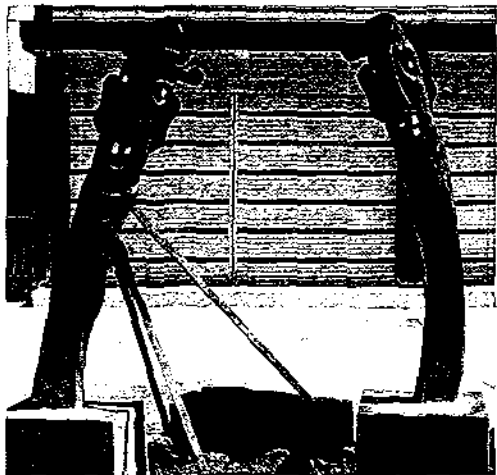


마을 측면 모습. 전통농가와 전원주택과 어우러진 마을 풍경은 용인, 특히 양지일대 주거공간의 독특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 있기도 한 지역이다.

마을 동편으론 형제봉이고 서남쪽으로 독조봉이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용인 청소년수련마을이 있는 산이다. 독조봉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다. '무수말'이란 마을 이름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풍수지리책에 천하의 명당으로 '독조봉하 선인무수형獨朝峯下 仙人舞袖形(선인이 춤을 추는 형의 자리)'이 있다 했다. 전국의 지관들은 이를 찾으려 해매다가 드디어 이곳을 찾아냈다. 천하의 명당이라는데 행세깨나 하는 사람들이 가만들 리 없다. 돈 많은 어느 서울사람이 그 자리를 사서 10여 년 전에 묘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한다.

평창1리, 벌말. 넓은 들판 가운데 있다하여 평촌坪村으로 불리는 이곳으로 가려면 두 갈래길이 있다. 17번 국도인 양지에서 좌전으로 넘어가기 전 용구리 고개에서 좌측으로 꺾어져 들어가는 길이 있다. 반대로 42번 국도를 따라 양지에서



귀여운 마을 안내 도우미

이천으로 향하다가 제일리에서 우측으로 접어들면 널따란 들판에 덩그러니 마을 하나가 들어서 있다.

마을 입향조는 정확치 않다. 묵은 묘들이 있는데 주로 용인 이씨다. 다만 3백여 년 전 풍천임씨(豊川任氏) 들이 살았던 것은 새터 주변에 산재한 세장지 기록에서 확인된다. 그래서 이 마을을 임씨 동족촌으로도 인식되고 있는데, 그것도 옛말이다. 요즘은 임씨 외에 여흥민씨(驩興閔氏), 죽산박씨(竹山朴氏), 덕수이씨(德水李氏) 등 각 성들이 두루 산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아예 무슨 성씨인지 잘 알

지도 못하는 전원주택단지 거주자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마을 구성 형태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전원주택의 역사 시작된 마을

비교적 높은 곳에 올라 평촌을 바라다보면 색다른 마을 구성을 확인하게 된다. 전통적인 농가가 한편을 이루고 있고, 편리한 교통을 찾아 물류센터나 소규모 공장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차 있다. 비교적 자연경관이 수려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에는 여지없이 전원주택 단지가 밀집돼 있다.

여기서 전원주택단지의 붐과 퇴조가 반복됐던 용인의 전원주택 변천사를 정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싶다. 실은 용인은 전원주택 활성화의 1세대를 열어갔던 지역이며, 동시에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1번지이니, 이는 전원주택 역사에 다

름 아닐 터이다.

1982년 경, 구성 향린동산과 원삼면 죽능리 청룡말 지나 등지골에 처음 전원마을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양식은 일본식 콘도라고 불리던 것이다. 특히 등지골 전원마을은 관·검사를 비롯한 법조인 중심으로 180명이 매입을 하는 바람에 일약 유명세를 탔다. 향린동산은 입주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제한하여, 재벌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 역시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한동안 찬바람을 맞게 된다. 우선 서울 생활권에 있었던 이들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와 생활상의 불편함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명 '세컨드 하우스' 라는 세간의 인식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만 것이다. 그 여파로 등지골 2차 분양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다가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면서 전원주택 시장은 살아나기 시작한다. 남사 한화프라자에 지어진 명성콘도인데, 그 주역은 한국레저산업을 일으킨 명성그룹의 김철호 사장이다. 특히 88올림픽을 전후로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교통여건도 나아지면서 '메인 하우스' 개념의 전원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양지평촌마을에 있는 '평촌 전원빌리지' 등이 당시 건립된 단지다. 여기는 의사, 법조인들이 주로 입주하는 동호인 마을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원주민들과 전원주택 입주자들과의 이질감과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토착주민들이 수도권 지가상승 효과에 따른 재원이 생기면서 전통농가 대신 전원주택 양식으로 새로 짓거나 개축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거다. 또 한 가치는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지 않는 직업군이 전원주택을 선호하면서 마을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다. 얼마 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나라 로크 음악의 대부 신중현씨도 평촌마을 입주를 위해 집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로 살아온 배경과 직업군, 사회생활 영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마을이라고 하



옥여 임경재 의병장 동상. 용인파 이천 등지에서 맹활약을 펼쳤지만, 친일조직 일진회에 의해 붙잡혀 죽음을 당했다. 옆은 그의 손자 임성길씨.

는 동일 권역 공간 내에 주거하는 주민들로서,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마을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한말 의병장 옥여 임경재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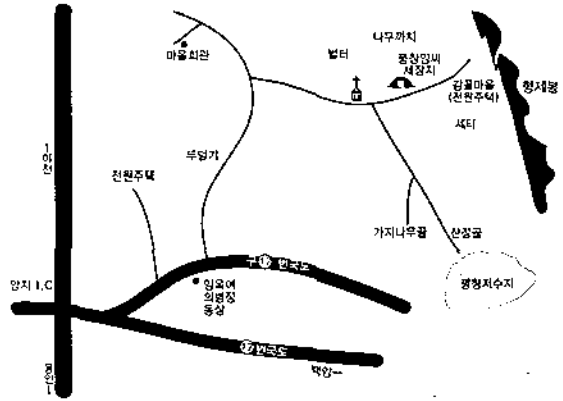
이 마을에서 태어난 큰 인물이 한 분 있다. 의병장 옥여玉汝 임경재任景宰 장군이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마을에서 고종 9년(1872년)에 태어났다. 구한말 일본제국 주의 침략자들이 명성황후의 시해를 비롯,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해 외교권 박탈과 고종의 강제 퇴위, 국군의 해산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함으로써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울 때였다. 당시 농사 공부 주사였던 그는 관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구국동지를 규합해 을사오적(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의 죄상을 25개 항목

으로 나뉘 검토했다.

그 후 1907년 이근풍, 주창룡, 신규회 등과 함께 이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좌익장을 맡고 이천읍 기병대 습격, 용인 굴암산에서 일본군 격퇴를 비롯, 이천·여주·광주·안성·축산·용인지역 등 아홉 고을을 누비면서 수많은 교전과 전과를 올

렸다. 그러다 그해 11월 친일파인 일진회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일진회의 우두머리는 송병준으로 바로 인근 고을에서 아흔 아홉 칸의 집을 소유하고 4백 명 일진회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었다. 임장군은 송병준 수하의 밀고로 붙잡힌 것이다.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인과 그들의 앞잡이 매국노 5적을 힐책하며 “국가와 민족



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이 나의 길”이라고 외치고 수원수비대에서 총살당하였다 한다. 전 용인문화원장 고 박용익 선생 등의 끈질긴 발굴 작업으로 1987년 자료를 수집, 발표하고 1990년 8월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지금 송병준이 살았던 인근마을에 그의 흔적은 입으로 회자되는 ‘민족의 역적’이란 오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의 후손들도 멀리 떠나 다시는 고향을 찾지 않고 있다. ‘옥여’로 더 많이 알려졌던 임경재 장군의 동상은 용구리 고개에서 마을로 들어서서 입구에서 있다. 송병준과 임경재. 이웃 마을에서 대저택을 짓고 호사를 누렸던 송병준과 안정된 공직을 내던지고 조국의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던 임경재. 한 시대에 태어나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은 분명히 다른 길을 걸었다. 1세기가 지난 오늘, 이토록 극명하게 상반된 평가를 받는 그들을 보면서 바른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양지면 식금리 식송

박은과 박용익 낳은 가로쟁이

본래 이 마을은 양지군 주동 지역이었다. '심은 솔'의 한자식 표기인 식송植松으로 불리는 이곳은 42번 국도를 따라 이천시와 맞닿아 있는 경계마을, 끝 동네다.

처음 마을이 들어선 심은 솔에는 6백여 년 전 교하(현 파주)현감을 지냈던 고령 박씨高靈 朴氏 수림秀林(1419~1474)이 묻히면서 그의 아들인 시손始孫이 내려와 정



'가로쟁이'로도 불리는 마을은 금박산을 진산으로 삼고, 양각산을 안산으로 삼아 동서향으로 누워 있다. 동부 끝자락 마을이다.

착해 후손이 뺏기 시작했다. 동네 앞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서편으론 금곡이라 불린다. 일제 때인 1925~30년경 사금광이 있어 그리 이름 붙여졌는데 지금도 장마가 지면 고추씨만한 사금이 나오곤 한다.

금곡엔 연안 김씨延安 金氏가 집성촌을 이뤘던 곳이다. 김우신金友臣(1424~1510)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살았지만 몇 차례 정치사건에 연루, 떠났다 돌아오길 반복하다 전라도 진안으로 아예 이주해 갔다. 그 자리에 지금은 군부대가 들어섰다.

현재 주거공간이 밀집해 앉은 터를 가루(로)쟁이라 한다. 130여 년 전쯤에야 마을이 서기 시작했다는데 특이하게도 응달에 위치해 동쪽으로 대문이 나왔다. 이러한 마을의 배치는 풍수지리적 영향으로 보인다. 큰 고을의 입지는 대개 앞으론 안산案山과 배후론 진산鎭山을 주산으로 삼아 앉게 되어있다. 이곳의 맞은편인 동쪽으로 보면 삼각형으로 신비스럽게 솟아오른 높은 산이 건너다보인다. 이천 소재인 양각산이다. 뒤론 금박산이 듩직하게 자리 잡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듯 줄기를 뺏어 감싸고 있다. 가루쟁이란 이처럼 대개의 남-북향의 배치와 달리 동-서향으로 가로놓였다 하여 '가루쟁이'라 했다는 것이다.

동구밖 도깨비 이야기

과거 광주와 이천, 양지군이 얼추 맞닿은 지점인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주요 활동지였다. 전래담에 의하면 청주 정씨와 한씨, 그리고 진주 유씨가 이 일대에서 의형제를 맺어 주민들을 규합, 일본 군대와 맞서 싸웠다 한다. 의병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쌀을 씻으면 복하천을 따라 오천까지 허연 뜨물이 흘렀다고 전해진다.

3명의 의형제중 우두머리였던 청주 정씨가 전장에서 먼저 죽고 말았단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너희들이 용감히 싸우는 모습을 이승에서도 보고 싶다” 하여 양 지면 일대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금박산에 묘를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동생들도 나란히 그 밑에 안장됐다.

식송은 42번국도 큰 길에서 깊숙이 위치해 있다. 더구나 산줄기가 곳곳을 가리고 있어 마치 미로를 찾아가듯 해서 마을에 이른다. 요즘은 이처럼 한적하고 외진 곳을 선호하는 도시인들에 의해 더 없이 좋은 별장 터로,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일제 때만 해도 호랑이가 출몰했었다는 게 노인들의 얘기다.

금박산 줄기로 감싸인 이 마을은 구룡을 따라 호랑이의 이동로였단다. 가끔 밤길을 가다보면 번쩍번쩍하는 빛이 산에서 새어나오곤 했는데 밤길을 가던 주민들은 얼른 장죽을 꺼내들고 연신 빨아대 불빛을 내거나 성냥을 켜면서 빠르게 건너가곤 했다는 회고다. 호랑이 이야기는 용인에서 비교적 산세가 험하고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 어디서나 전해진다.

직접 경험담뿐만 아니고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 등이 많이 있는데, 다음기회에 이어나가기로 하고, 식송마을에 전해지는 도깨비 얘기를 해보자. 특히 식송은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고 음습한 곳이어서 귀신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면 달걀도깨비가 나타나곤 했어. 불그스름하면서 푸른빛을 발하는 달걀처럼 생긴 둥근 물체가 발걸음 앞에서 확확 지나가는데 놀라 자빠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집으로 찾아들었어.”

생전에 박용익 선생으로부터 들었던 이 같은 도깨비(귀신) 얘기는 회감을 넘긴 노인들 사이에선 대개 한 두 번씩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다. 아무도 없는 산길 모퉁이, 날이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도깨비가 출현하는 것은 애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왜일까. 민속연구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도깨비가 음기가 응결되어 있는 요귀이기에 그들이 거처하는 곳 또한 주로 어둡고 음습한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 공동묘지 주변이나 상여집, 죽은 아이들의 무덤인 애장터, 당산 숲, 큰 고목 나무와 외딴 빈집 등에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런 호젓한 곳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요즘 들어 도깨비를 보았다는 사람이 왜 없을까 하는 점이다. 어른들은 예전의 얘기라고 말할 뿐이니 말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산업화가 되면서 급속하게 사라져 버린 도깨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하는 숙제가 남는다. 먼저 환경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겠다. 웬만한 시골길도 지금은 가로등이 대개 설치돼 있다. 공동묘지나 상여집 같은 것들은 가로 정비나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일상 가까이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악귀와 액운을 물리치는 벽사辟邪 상징의 그 원형질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즉 우리가 섬기는 원시 신앙적 신격神格은 아니지만, 가택신이나 당산신과 같은 무속신앙에서 보여 지는 신 가운데 하나로서 생활주변에 늘 맴돈다고 보았고, 그렇기에 이를 의식하면서 더불어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 집을 지키는 신들, 즉 대들보를 떠받드는 성주신, 아기를 점지해 주는 산신産神, 신주단지예 모셔진 조상신, 부엌과 아궁이를 지키는 조왕신,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 등이 우리의 토속 신앙적 습속에서 어느새 서서히 멀어져가는 것과 같이 도깨비도 우리 의식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곳에 묻힌 읍취헌 박은

마을 앞에 봉현산鳳顯山을 두고 그 좌우편으로 크고 작은 골짜기가 있다. 큰덕

골, 작은덕골, 순무지골, 큰골, 작은골, 작은소일, 큰소일, 솔개골 등이다. 10여년 전만해도 주변 산자락엔 부엉이가 많이 살아 자연이 빚어내는 소리를 듣고 살았지만 군부대가 생기고 총소리가 이를 대신하고 있어 주민들의 아쉬움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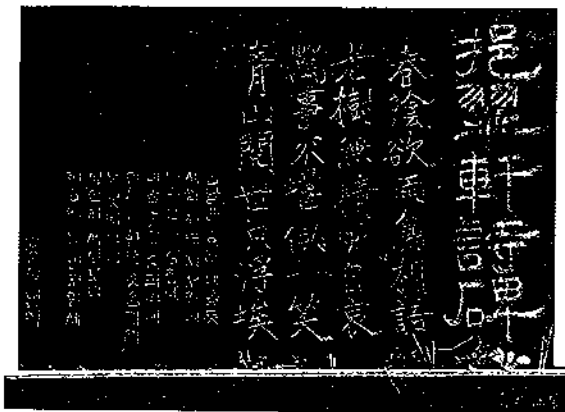
장고같이 생겼다 하여 장고배미, 바위가 있어서 바위배미 등 논배미에 까지 고유한 자기이름을 가지고 있어 더욱 정감이 느껴지는 식송마을. 마을에 들어서다 보면 소나무가 못자랄 곳이라 하여 붙여진 금송禁松 지대를 지나면 마을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거기에서 서너 걸음 길을 따라 옮기면 크지 않은 시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읍취현杼翠軒 박은朴溫의 시비詩碑다. 그는 1479년(성종 10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으며 이곳에 묻힌 교하현감 수림의 손자다. 강남대 홍순석 교수의 저서 『박은의 생애와 시』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았으며, 15세에 이르러 문장으로 널리 명성을 얻어 당시 대제학 신용개의 사위가 되었다. 그는 항상 옳지 않은 일

을 직언하여 바로잡는데 솔선하였는데, 연산군의 폭정에 의한 화가 박은에게도 미쳤다.

어느 날 유자광은 지난날 연산군이 밤늦게까지 사냥한 일에 대해 여러 신하의 연명으로 상소한 것을 거론할 때 박은이 그 주동자였다고 연산군에게 고하였다. 이 일로 그는 동래

읍취현 박은 시비. 뛰어난 시재로 널리 명성을 날렸던 그였지만, 연산군 집권하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는 성품이 화가 되어 26세에 효수 당했다. 강남대 홍순석 교수의 주도로 시비가 세워져 있다.



로 유배되었다. 동래에 유배된 지 백일도 안돼서 한양으로 압송되어 온 그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산군은 더욱 분노하여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효수梟首하고 “거짓충성으로 안일을 구하고 신진이 장관을 업신여겼다”는 죄명을 씌웠다. 이때 박은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다만 하늘을 우러러 크게 두 번 웃었을 뿐 이었다고 사료는 전한다.

박은의 시체를 이 마을에 합장할 수 있었던 것은 종종 즉위 후, 그의 죄가 신원되고 도승지로 추증된 이후로, 박은이 화를 당한지 3년 만이었다. 그가 26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의 시재詩才 때문이다. 읍취현유교에 많은 시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의 묘는 가루쟁이에서 동쪽으로 1km정도 들어가면 봉현산 아랫자락이다. 본래 심근술 마을이 있던 곳으로 조부 수림 밑에 잠들어 있다.

영원한 스승 향사 박용익

오늘에 이르러 용인향토사 연구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있어, 이 마을이 낳은 향사 박용익 선생의 공로는 가히 절대적이다. 고령 박씨인 그는 4대조인 박영식이 현재의 양지면 식금리에 자리 잡은 뒤부터 대대



향사 박용익(1930~2004) 선생 생전 모습. 평소와는 달리 당신의 서재에서 이야기 도중 찍은 사진인데 이날은 자연스럽게 포즈까지 잡아 주었다. 이렇게 사용될 줄은 몰랐다.



향사 박용익 선생 추념비 제막. 그는 향토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후대에 길이 남겼다.

로 살아왔다. 공부에 재능을 보여 서울로 유학, 고려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향사는 곳곳한 선비 그 자체였다. 불의를 보면 참질 못했던 그는 많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으며, 박정희 대통령과는 집안관계로 정부 참여기회도 있었지만 마다하고 낙향해 농촌부흥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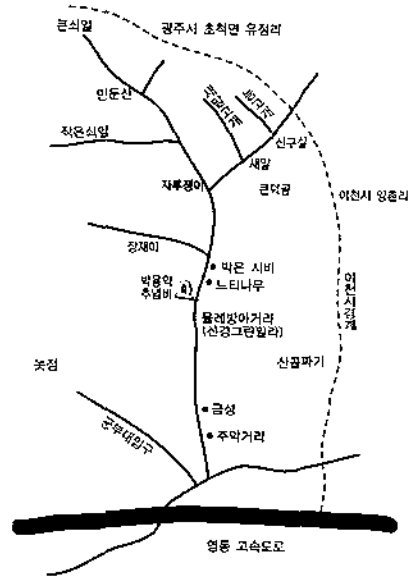
그러나 그마저도 우여곡절 끝에 접고, 고향산천을 보며 키웠던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을 실천에 옮겨, 수십 년 동안 초지일관 향토연구에 매진했다. 용인문화원장을 역임한 것은 물론, 용인향토문화연구회 '용인향토문화지킴이 시민모임(향지모)' 용인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등 지역문화와 얼을 살리는 단체라면 거의 그의 손길이 닿거나, 그에 의해 만들어질 정도였다.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용인향토사 연구의 산증인이자 상징이었다.

용인에서 향토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향사 박용익(1930~2004) 선생에 대한 인연과 추억 하나쯤 간직하지 않은 이가 있으랴. 나 또한 그러하다. 감히 말하자면 향사 선생의 말년 10여 년 동안, 나는 가장 많은 시간을 그분의 발뒤꿈치를 쫓는 데 보냈다.

여러 마을을 함께 다녔고, 이처럼 영성한 글로나 마 엮을 수 있는 것도 실은 순전히 향사선생의 덕이다. 현장중심의 연구방법론, 민족주의에 기반한 내부자적 시각으로 볼 것을 늘 주문했던 그는 순수함과 열정, 무한한 헌신성에서 누구의 추종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난 고향이고, 묻힌 곳이기도 일 년에 두어 차례 이상 식송마을에 들르는 것은 나쁜반이 아닐 것이다.



양지면 양지리 교동

치소 있던 행정 교육의 중심지

우리 지명에 '교校'가 붙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동校洞, 교촌校村, 향교동鄉校洞, 향교말, 교원리校院里'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여기서 학교란 향교鄉校를 이른다. 향교는 관학이기 때문에 수령이 통치하는 관아, 즉 치소治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흥미롭게도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이 대개 한적하고 경치 좋은, 수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용인에서 교동이란 지명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은 단 두 군데였다. 행정구역이 통합되었지만 '양지현'과 '용인현'의 치소가 있었던 지역으로, 용인현의 관아가 있던 구성에는 지금도 구교동이란 지명이 있다.

또 한 곳은 함박산 줄기와 정수산이 북을 감싸고 남동으로 형제봉에 뻗어내려



양지 교동 전경. 양지현 치소가 있던 곳으로 향교가 우측으로 자리 잡았다. 함박산 줄기를 가운데에 두고 치소 자리가 정확히 혈에 위치한다.

바람을 갈무리하고 하천이 앞으로 흘러들어, 전형적인 장풍득수형인 양지 교동. 그런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마을이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뒤로 뚫리고 최근에는 고층아파트가 마을에 신축되면서 옛 모습을 찾아보긴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여러 사료를 종합하면 양지지역은 예로부터 한강 일원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경안 광주(廣州) 지방에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그곳과 흥망성쇠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삼국의 각축이 있었던 시대에는 번갈아 각국의 영토가 되는가 하면, 조선시대 초기에 편찬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는 “수주(수원)의 양량부곡(陽良部曲)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도 광주와 수원 그리고 삼남지방의 길목이면서 해안과 가까워 번성했던 안성 등 인근 주요 지역에 귀속되는 과정을 반복했던 곳이다. 즉 중앙권력 차원에서 주목을 받는 전략적 지역은 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듯하다.

그나마 정수산 아래 오늘날의 양지에 치소가 자리 잡게 된 것은 연신군 10년(1504년)이다. 이때 개읍하여 양지라 하였다. 동시에 근동 5개 마을을 합하여 방면은 11개면에 이르렀다. 1914년 용인군과 통합하면서는 그나마 치소로서의 입지마저 잃고 말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관아가 있었던 치소의 중심역할을 해왔던 양지 교동은 그에 걸맞는 많은 역사 유적과 그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먼저 양지 향교를 꼽을 수 있다.

교동의 중심, 양지향교

사찰 등 종교시설을 제외하고는 주변에서 전통적인 건축물을 대하는 것이 점



양지향교, 공교육 기관인 향교는 대개 치소 옆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 교동의 상징적 공간이다.

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문화유적 답사를 다니다 보면 그 기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특유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라도 향교를 들르게 된다. 따라서 용인에서 양지향교는 거의 필수코스다.

누가 봐도 가장 중심이랄 수 있는 교동마을 높다란 터에 자리 잡은 양지향교는 조선 중종 18년(1523)에 처음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어 조선 숙종 23년(1697)에 중수된 적이 있다. 지금 모습은 1981년 대성전과 내삼문, 명륜당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통해 갖추게 되었다. 느티나무 정자목이 즐비한 양지향교는 사전 공부가 없으면 걸땀만 보게 된다. 한동안 내가 그랬다. 간단한 안내 책자라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된 공간배치 등에 흥미를 갖게 된다.

양지향교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선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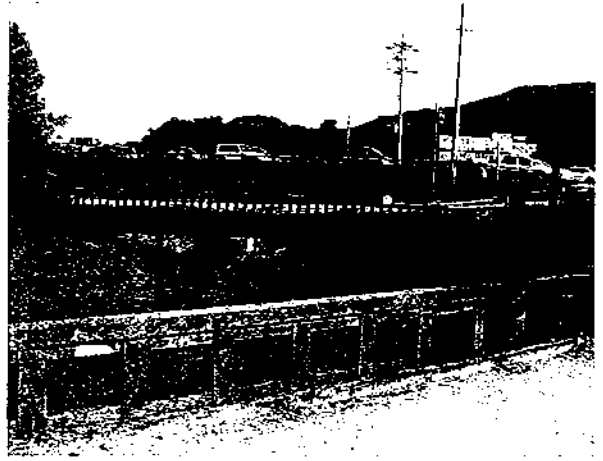
제사지내는 배향공간으로서의 대성전大成殿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공간인 명륜당明倫堂으로 나뉜다. 두 공간 사이는 대개 담을 쌓아 구분하게 되는데, 양지향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본래 향교는 교육에 더 큰 목적이 있었고, 배향은 부수적인 의미였다. 조선 건국 후 성리학이 국가 지도이념이 되면서 공자의 사당인 대성전을 중심에 두게 된 것이다.

먼저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을 통과하면서 안으로 들게 된다. 홍살문은 붉은 칠을 한 나무문인데, 선현의 위패를 모신 곳이나 왕릉 등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시물이다.

내삼문을 지나 만나는 공간이 바로 명륜당이다. 양지향교처럼 산을 배경으로 하는 경사지에서는 명륜당을 앞에 배치하고 대성전을 뒤에 배치한다. 이는 교육공간보다 배향공간이 우위라는 관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즉 '전학후묘前學後廟'라 하여 대성전을 높은 위치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양지향교는 역사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후년이면 역사적인 100주년을 맞이하는 양지초등학교가 4년제 보통공립학교로 출발한 곳이 바로 명륜당이기 때문이다. 신갈초등학교보다 1년 앞서,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교육기관 양지초교, 6년제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돼 새 교사를 짓고 이사하기 전인 일제치하(1911~1923) 13년간을 양지향교는 본래 기능인 중



도로 발전사를 보여주는 3세대 다리. 양지리 윗쪽에 있다.

등 교육을 접어두고, 초등교육의 산실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잠업의 중심지 교동

향교를 통해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확고히 했던 교동은 동헌과 사직당까지 있는 행정의 완벽한 중심지였다. 면사무소로 쓰이던 옛 행정기관 동헌東軒은 면청사를 현재 위치로 옮기면서 철거하고, 대신 어줍잖은 현대식 건물로 신축했다. 청소년 독서공간으로 쓰고 있다.

그 지역을 살리는 랜드마크, 즉 상징물 하나가 지역의 가치를 한껏 높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부심과 단합을 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하여 문화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동헌 건물의 남은 흔적을 아예 다 없애버린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수여선 열차가 앞을 지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남대로 옛 길이 42번 국도와 17번 국도를 따라 이어져 있던 교통의 요지, 교동마을. 그런 교동은 또 하나의 시대 품미거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잠업이다.

1915년경 일제치하였던 당시, 경기도는 잠업 보급을 위해 양지(현 양지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부지)에 직영 잠사蠶絲강습소를 설치했다. 잠사강습소는 경기도내 잠사지도원을 육성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자연스레 이 일대의 잠업을 육성하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더구나 이후 편창제사(주) 잠종제조소蠶種製造所로 전환되면서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선 생산수급이 따라야 했던 만큼 주변에 잠업을 권장됐다. 이렇게 해서 용인에서는 양지뿐만 아니라 모현, 포곡 등지에서도 많은 농가가 잠업에 종사하게 됐다. 현재 양지리조트 내 골프장 터도 과거에는 약 20만주에 달하는 뽕나무 밭이었을 정도다.



양지 잠업장습서 전경. 용인 잠업 발전의 계기가 된 곳이다. <정양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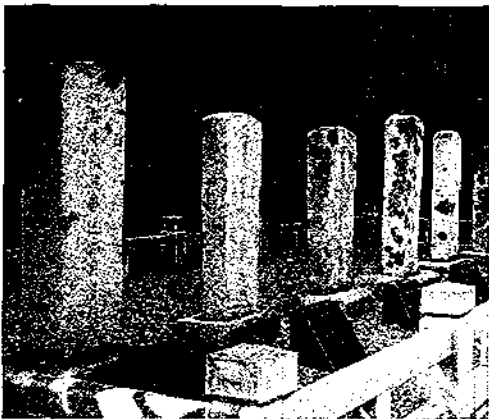
잠업은 일제 패망 후 적산불하를 받은 심후식(1900~1990)에게 이어져 1990년대 중반에서야 문을 닫았다. 소득원이 변변치 않았던 당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잠업(누에고치 생산)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절정을 맞았다. 잠업을 통해 생산한 실크가 우리나라 '수출 1억불탑'을 가장 먼저 받은 품목이라니, 그 비중이 어떠했는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잠업은 국가적 주요 산업으로 인식돼, 경기도청 잠업과장은 선임대우를 받았다 한다. 그 시절 고향마을에서 한없이 먹어대는 누에고치 먹이를 얻기 위해, 뽕밭을 오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다. 용인의 잠업이 처음 활성화된 것이 바로 친일 원흉 송병준의 영향에서 비롯됐다는 아이러니다. 이미 『용인 자연마을기행 1- 추계리 내추계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송병준은 친일매국 외에도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망국의 한을 안고 자결한 충정공 민영환 열사의 식객이었던 그는 한말 어지러운 정세를 벗어나 일본으로 피신해 있는 동안 잠업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 양지에서 잠업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수산장궤

産場을 지은 것이다. 그 자리가 나중 잠사 강습소 터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아들 송종현의 이중적 행적이다. 송종현은 친일단체 일진회가 있는 추계리에 거주하며 항일 의병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서는가 하면 이후 일본 귀족원 의원을 지냈던 인물이다. 또한 친일 어용소작인 단체를 만들어 가난한 소작인을 착취하기도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최근 밝혀진 바로는 그의 사위가 명성왕후 살해사건의 행동대원이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 그가 양지초교의 모태가 되는 사립 추향학교 설립에 나서 초대 교장을 역임하는가 하면, 1921년 6년제로 편제가 바뀌면서 부족한 교실을 짓기 위한 후원회에 5천원을 기부한 기록이 남아있다. 역사에 지은 죄가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기에, 그 일조차 기만행위로 단정하고 싶은 내 마음이 뼈뚫한 것일까. 아니면 아량이 없는 것일까.

송덕비 군락.



100년 역사 양지교회, 실험운동 싹 키워

100년에 이르는 전통은 양지초교만이 아니다. 구한말 기독교 전래 초창기부터, 용인에도 복음전파의 흐름이 컸던 지역이다. 남사 아리실 교회, 백암의 백동 교회 등이 당시 만들어졌으니 말이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장로교 양지교회 역시 거기에 빠져선 안 될 교회다. 1907년부터 한 신도의 집에

서 몇몇이 집회를 시작했으나, 올해로 딱 100년이다. 양지리 암곡 초가에 교회당 10평을 건립해 모습을 갖춘 후 차츰 영역을 넓혀 나가지만, 1935년부터 해방되던 해까지 10여 년간, 일본경찰의 탄압을 받아야 했다.

특히 사회운동에 대한 열린 시각으로 주민생활과 밀착해 있던 기장 양지교회는 농촌운동의 씨를 용인에 뿌렸다. 이천시 오천면의 표낙형 목사의 영향이 컸던 농촌운동은 이 교회 최근무(80) 목사에 이르러, 신흥운동을 일으키는 배경이 된다. 1979년 이 교회 신도이기도 한 심우인(전 시의원)씨 등이 주축이 되어 양지신흥이 탄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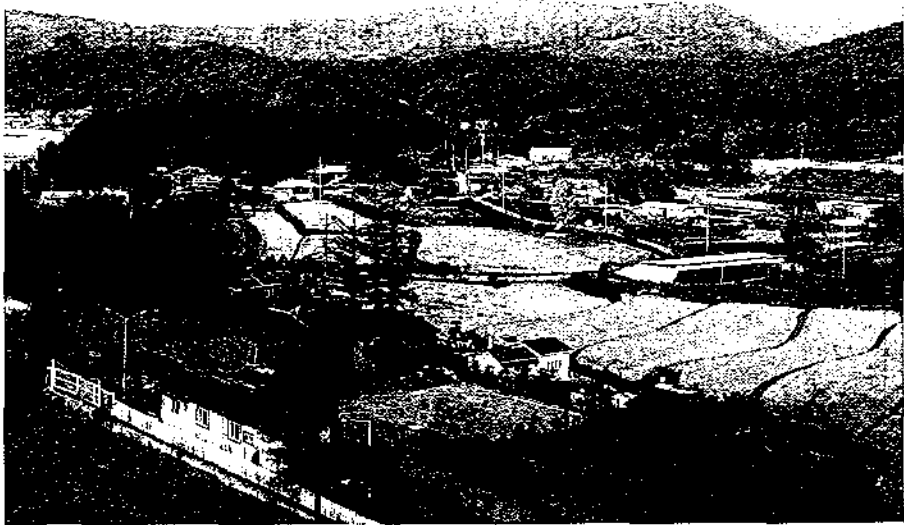
당시 신흥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는 탄생배경이 다르다. 정부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 차원의 생활협동조합이었던 것이다. 양지에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자, 2년 후 용인교회 김정근 장로(전 용인문화원장)가 용인신흥을 만들었다. 이어 백암과 수지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니, 그 주춧돌을 놓은 셈이다.

비록 과거의 흔적은 많이 지워지고 있지만, 선현 배향과 교육의 전당이 있는 교동이야말로 용인 역사와 전통의 중심지임이 분명하다.

양지면 송문리 반정

골골이 전설로 이어지는 전통의 맥

보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대표적인 산을 뽑으라면 운학동 국사봉이다. 내어둔 그 안에서 보면 한 눈에 다 들어오질 않으니, 장엄한 기상이 느껴질 뿐이다. 가장 오묘하고 운치 있는 형상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송문리 반정마을이다. 겹겹이 싸인 산들 사이로 남쪽에 우뚝하게 솟은 국사봉國師峰은 마치 양편에 도열한 병사들을 거느린 위풍당당한 장군의 형상이랄까. 운학리 내어



반정마을 전경. 아기장사 전설이 내려오는 전주 류씨 종족촌으로 알려져 있다.

둔에 접해 있는 산이전만 풍요를 상징하는 노적봉(露積峰)으로서 풍수적 의미가 크게 살아난다. 사람도 어디에 섞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이듯, 산도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스친다. 나는 가끔 이곳을 지날 때면 차를 세운 채 차창을 열고 산 구경을 하곤 하는데, 주민들도 국사봉을 대하는 마음이 각별해 반정마을의 산으로 내세우고 아낀다.

시창소재지에서 양지면 방향으로 42번 국도를 따라 10여리를 가다 보면 『고박사 냉면집(옛 송문가든)』이 있다. 그 앞에서 오른쪽으로 깊숙이 펼쳐진 뜨락을 거쳐 한 마을에 이른다. 반정(盤亭)이다. 마을 뒤편 298-1번지 일대에 소나무 숲이 등글게 형성돼 있는데 형제봉으로부터 철이 뺏어내려 '황금소반형(金盤形)'을 이루고 있다고 전한다.

또 마을 서편으로 357번지에 500여년 쯤 된 것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정자목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지명유래는 바로 두 곳에서 취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풍수의 형국론에서 금반형은 소반상을 뜻하니,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대에 걸쳐 정승과 장군이 난다는 곳인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전국 곳곳에서 전해진다.

이 마을의 형성 시기는 적어도 은행나무 정자목으로 보아 500년은 족히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절한 충신 류복립(柳復立)(1588~1593)의 처가 외아들 호빛을 데리고 이곳에 찾아들면서 전주 류씨(全州 柳氏)의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형성된 홍씨(洪氏)들의 묘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추정은 가능하다.

북쪽이 훤히 트여 감나무가 잘 안자란다는 이 마을엔 동으로 뺏은 형제봉을 비롯해 크고 작은 산줄기 사이로 많은 계곡이 형성돼 있다. 그 골마다 유래에 얽힌 설이 빠짐없이 따른다. 마을 서편으론 방대골이다. 방씨네가 모여 살았다는 곳이

다. 그 옆 당골^{당골}은 류씨들이 처음 터를 잡았던 곳이다.

서남쪽에는 대명골이 있다. 한 아름이나 되는 큰 뱀이 그곳에서 나왔었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북쪽에 있는 태봉은 예전에 태를 묻었던 곳이다. 마을 동편의 대각동은 형제봉 자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 큰 골이다. 마을에서 위하는 산계당이 이곳에 있다. 능내라는 곳은 아기릉(陵)이 있었는데 이장했다는 설이 있다. 어득운골은 운학리 어둔으로 넘어가는 계곡을 이른다. 같은 방향으로 있는 용마골에도 전설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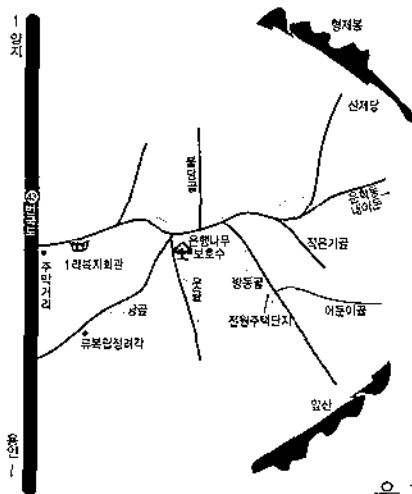
당골과 용마골 전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반정 마을 지명과 관련한 재미있는 전설이 두 개나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주 류씨 종족촌으로서 전통마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 흥미롭기만 하다. 두 이야기는 모두 10여년 전 유봉수(77)전 양

지향교 전교로부터 들은 얘기다.

첫째는 류씨들이 처음터를 잡았던 당골^{당골}과 관련한 전설이다.

당골에는 신통력을 가진 류씨 성의 한 어른이 계셨다. 어느 날 밤 으스스한 즈음에 도둑이 들었다. 이곳저곳을 뒤져 물건 한 자루를 만든 후 유유히 달아났다. 이를 본 하인이 급히 집주인에 이를 알리고 뒤를 쫓았다. 그러자 집주인은 태연자약한 채로 “그냥두라”고 점잖게 이르더란다. 도둑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밤새 도망을 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



가, 새벽이 밝도록 대문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인이神通력을 발휘해 땅 주름을 접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같은 전설이 깃든 터에 천하의 '대도大盜' 인들 쉽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전설은 터에 대한 신성성을 부여해 수호신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된다. 또 하나의 전설은 용마골 전설이다. 이곳은 류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기 전 홍씨들이 모여 살았다는 데다,

용마골에 한 만삭의 아낙이 있었다. 어느 날 산고 끝에 출산을 하고 잠깐 뒤척이는 사이 금방 낳은 아이가 그만 없어졌다. 이리저리 찾다가 마루로 나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만 태어난 아이가 높은 대들보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장사꾼士가 나면 역모를 피할 것을 우려해 3대를 멸했다는 그 당시였으니, 그 어머니는 더럭 겁이 났다.

아이를 끌어내려 몸을 살펴보니 겨드랑이에 비늘이 달려 있었다. 아들을 죽임으로써 멸문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한 어머니는 비늘을 떠들고 바늘로 겨드랑이를 찌른 후 멧돌 짝을 그 위에 얹어 눌러 죽였다. 그 순간이었다. 먹구름이 몰려들고 뇌성벽력이 치면서 골짜기에 있던 큰 바위가 갈라지더니 날개를 단 용마가 나와 마을 앞 큰 길로 내달렸다. 그러더니 길옆으로 흐르는 양지천 깊은 보울에 뛰어 들어 빠져 죽고 말았다. 주인 잃은 딸이 그의

류봉수씨택 대문. 문간은 외부와 안의 경계점이다. 엄나무 가지는 화를 막는 주술적 방법이며, 글씨는 재복을 바라는 축원이다.



뒤를 따르는 것이다. 용마가 나왔다는 용마골에는 지금도 큰 바위가 있다.

비장하고도 꿈쩍하며, 슬픈 이 전설은 흔히 '아기장수 전설'로 전해져 온다.

먼저 태어나자마자 대들보에 올라앉았다고 하는 것은 비범한 괴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낸다. 새로운 변혁을 꾀할 재목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용마는 아기장수를 도와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아울러 용마가 아기장수의 죽음과 함께 출현하여 그의 뒤를 따름으로써 아기장수의 좌절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뭔가. 좌절과 패배주의, 그리고 한계를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좌절하는 비극적 영웅이자, 민중적 영웅인 아기장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그럼에도 하층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뜻을 펼치지 못하거나, 모반의 수괴가 될 운명이다. 이는 어찌면 자신의 신분적 한계와도 연결되어 있다. 원인을 만든 어머니는 스스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멸문지화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악역을 스스로 감당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남겨두는 어머니의 보편적 역할 모델에 다름 아니란 생각이다. 지배자 또는 권력자와 피지배자 또는 민중간의 계급적 갈등 구조를 반영하는 아기장수 전설은 용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면면히 이어지는 산재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0여 세대에 약120명 정도의 주민이었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 60여 호에 달한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탓도 있지만, 서울권에서 교통이 편리해 하루가 다르게 전원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주로 산을 끼고 밀집한 전

원주택은 농토와 함께 마을 가운데 들어앉은 농가와 부조화를 이루는 듯하다.

주민들도 옛 정취와 인심이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며 염려하지만, 그래도 누대에 걸쳐 지켜 왔던 전통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마을이다. 아직도 '00택' 이라는 택호를 부르는 것이 이채롭기도 하다.

또 하나는 매년 거르지 않고 모시는 10월 산제사다. 매년 음력 9월 13일은 마을 산제계山祭界가 열리는 날이다. 이 모임에서 해당년도 제향준비와 제관을 정하고 날을 잡는다. 물론 생기복덕을 가려 길일을 택하고 산신하강 일을 맞춘다. 날은 가능한 음력 시월 초·중으로 한다. 마을 산제를 주관하는 제관은 제기祭器 등 일체를 준비하는 당주, 예를 올리는 헌관, 축문을 읽는 대축大祝, 제물을 준비하는 유사로 각각 역할이 나뉜다.

특히 당주는 제삿날이 다가오면 3일전부터 철저한 근신을 하고 마을에서도 금줄을 쳐 부정할 모든 행위를 금한다. 제사 전날 자정 무렵, 당주는 혼자 1km쯤 떨어진 형제봉 대각동에 있는 제당에 올라 12회 이상 제기를 닦고 제당 청소를 깨끗이 한다.

그런 다음 준비해 간 쌀로 세 되 홉 가량의 밥을 지어 조라(술 담그는 항아리)에 누룩과 함께 넣어 술을 담가 놓는다. 빨리 익히기 위한 방식은 특이하다. 제당 앞에 한길 가랑 되도록 구덩이를 파고 숯불을 지핀 다음, 불속에 술 담근 항아리를 넣고 흙으로 밀봉한다. 이튿날 가보면 뜨끈뜨끈한 항아리 속에서 청주같이 말짱게 익는다. 달착지근한 맛이 나는 그 술을 제주祭酒로 쓴다.

다음날 당주를 비롯한 다섯 명만이 자정에 산에 오른다. 어은산신령御隱山神靈 신위를 맨 좌측에 모시고 동·남·중·서·북방 신위가 차례로 모셔진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새벽녘에 마을로 내려오면 산제사는 끝나고 금기도 풀린다. 잡은 고기는 모든 집집이 고루 나눈다. 만약 제삿날을 택해 놓고 험한 일이 생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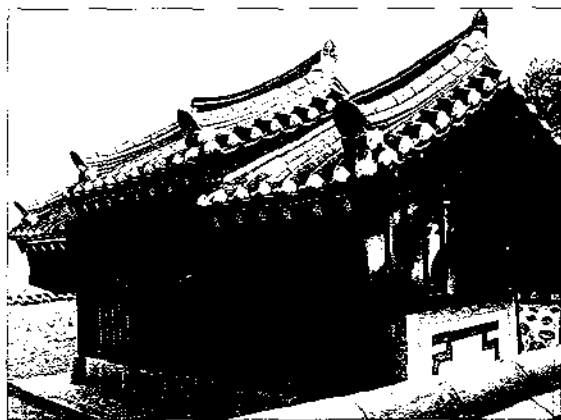
다음날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음력 11월이라서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가운데 제사를 올리게 돼 어려움은 커진다.

전주 류씨 종족촌

이 마을은 잘 알려진 전주 류씨 종족촌이다. 60년대 초반만 해도 류씨들이 약 50호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20여 호 정도로 마을주민의 절반가량이다. 그들의 중시조 복립(復立)에 대한 충절을 기리는 정려각이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다. 호가 목계(墨溪)인 그는 명종 무오년(1558)에 출생하였고 종부시 주부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외숙인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金誠一)이 부르자 출전하여 진주 성전투에 참여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그러나 밀려드는 왜군에 의해 성이 함락되자 자결로써 충절을 행한다. 숙종 기유년(1719)에 이조참의로 추증되고 진주 영열사(影烈師)에 배향되었고 영조 기유년

(1729)에 충신으로 명정(命旌)되어 정문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금은 좁은 길로 보이지만 오산으로부터 이동면 묵리와 운학동을 거쳐 송동, 곤지암, 양평, 오대산으로 이어지는 대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전설과 풍수, 태호와 산신제 등 종족촌 고유의 전통과 맥이 잔잔히 흐르는 교장, 반정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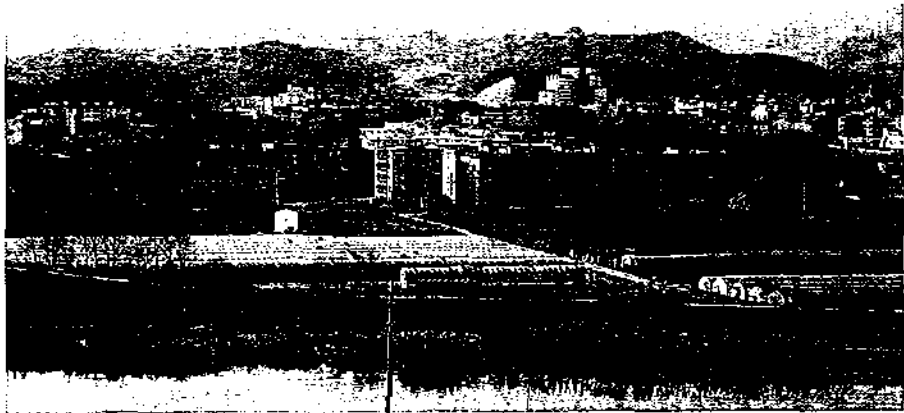
류복립 정려각.

포곡읍 전대리 앞꼬지

에버랜드 들어서며 새롭게 탈바꿈

땅에도 팔자가 있다?

땅에도 팔자가 있다고 했던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묘하게 그 쓰임새가 맞아떨어지는 지명 사례가 수 없이 많다. 용인만 해도 그렇다. “글 읽는 소리가 물 흐르듯 한다”는 기흥구 서그네峯川에는 학문을 연마하는 경희대학교가 들어섰다. 구성에 있는 법화산法華山 안으로 법무 연수원과 경찰대학 등 법을 연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줄줄이 입주해 있다. 삼거동三巨洞은 본래 떡조현(메주고개)으로만 길



앞꼬지 마을 전경. 전통적인 농촌마을에서 에버랜드가 들어서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마을이다.

이 있었는데, 지금은 큰 삼거리로 변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됐다. 용담 마을 앞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담수호 용담龍潭저수지가 생겼고, 어비리魚肥里 역시 큰 저수지가 축조되어 물고기들의 천국이 됐다.

이처럼 팔자대로 되는 지명을 '우합偶合지명' 또는 '예언豫言지명'이라 하는데, 전대리 마을만 해도 그렇다. 이곳 지명이 흥미롭기만 하다.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 자리는 예전 전대리에 속해 있었던 곳이다. 금당실金堂室로 불렸다. 삼성그룹 계열 중앙개발이 바로 이곳에 자연농원을 만들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레저 시설이자, 세계 5대 테마파크에 들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니, 그 땅은 금덩어리(금당)가 된 것이 분명하다.

현재 203비행단이 있는 자리는 본래 마장馬場이라 불렸다. 말은 예전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다. 그 말을 먹이던 곳에 지금 비행장이 들어선 격이니, 자연스럽지 않은가. 또 죽배산 안쪽을 진터라 부른다. 옛날 임진왜란 당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싸웠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군인 사택이 이곳에 들어섰다.

기왕이면 앞 동네까지 살펴보자. 포곡읍 둔전에는 야전 사단급 부대가 주둔해 있다. 둔전屯田이란게 뭔가. 주둔 병사들의 군량을 자급하기 위한 농지였음을 떠올린다면 역시 지명대로 된 격이다.

경안천과 앞꼬지

포곡읍 전대리 으뜸마을 앞꼬지前串. 곳串은 바다나 호수에 맞닿아 길게 내민 땅을 일컫는다. 앞꼬지는 경안천이 마을 앞에 휘돌아 가는 모서리 즈음에 위치함으로써 생긴 지명유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림동과 포곡읍의 경계를 이루는 둔전교. 인정프린스 아파트가 있는 그 즈음

에서 흐르는 경안천을 바라보면, 넓어진 물줄기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앞쪽으로 흘러내린다. 기나긴 여정을 하는 물길은 아직도 폐수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빼어나게 운치 있는 구간이 바로 그곳이다. 지금은 수중 보를 만들어 놨지만 예전에는 수심이 깊어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요즘도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연유로 포곡초등학교 앞 서편 하천변에 있는 산을 죽배산이라 했다.

앞꼬지 마을이 생긴 것은 현재 대성을 이루고 있는 광주 정씨(光州 鄭氏)가 들어와 3백여 년 전 자리 잡기 훨씬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 목씨(泗川 韓氏)가 처음 주인이 되고 바로 이어 김해 김씨와 나주 정씨(羅州 丁氏)가 마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잠깐 마을 터에 얽

힌 두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자. 마을 주민 정사덕(75)씨가 10여 년 전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다.

천수를 다한 목씨와 정씨 집안의 두 어른이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에 앞서 지관이 물었다. “어떤 자리를 쓰겠소?” 하고 묻자, 목씨들은 답했다. “금시발복형(今時發福形)으로 묘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지관이 정해준 묘 터를 쓴 후, 삼우제를 지내러 산에 오르는 길이었다. 그런데 앞에 금계(金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주워 호사를 누린



마을의 지명과 관련된 경안천 변. 곳쑤이 형성될 만큼 물이 마을 앞에서 휘돌아 나간다.

것은 당연했다.

지관은 정씨 집안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떤 터가 좋겠소?” 이에 정씨 후손들은 “만대영화형 萬代榮華形의 묘 터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 탓일까. 지금껏 이 마을에 대를 이어 살고 있는 목씨 후손들은 없다. 반면 나주정씨는 지금껏 10여 호 이상 살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천주교 첫 본당과 김집 효자비

앞꼬지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위치를 지닌 곳이다. 경기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1913년 5월 용인의 첫 본당이 세워졌다. 100여년에 이르는 동안 탄압에 쫓겨 산간벽지에서 화전을 일구고, 용기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대부분의 신자들로서 그간 공소에 모여 간간히 멀리서 오는 신부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에 세워진 본당 성당은 용인과 광주를 관장하였으며, 초대신부는 정례오(본명 정규양)이었다.

당시는 조그마한 빈촌이었고 농토 역시 메마르고 척박했다. 가난을 대물림하던 그들에겐 애절한 꿈이 하나 있었다. 후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열망을 알고 있었던 정 신부는 사설인 ‘삼성강습소’를 개설했는데, 이는 포곡면내 최초의 현대식 초등교육 기관이었다. 1930년에 이르러 앞꼬지 본당이 폐지되고 남곡리로 옮겨 가면서 잠시 지역 유지들에게 운영을 맡겨졌던 강습소는 이후 포곡초교 설립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수녀원이 운영하는 성체유치원 자리는 과거 아픈 흔적이 있던 곳이다. 때는 70년대 초반. 이 아무개라는 여인이 종교재단을 앞세워 학교를 짓겠다고 나섰다.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세운다는 소리에 못 배운 한이 가슴에 쌓였

던 주민들은 서슴없이 학교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호신실업학교는 얼마가지 못해 결국 폐교하고, 성체회수녀원에서 인수하여, 성체유치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도회지화의 물결에 떠밀려 몸집이 커져버린 앞꼬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번잡함 속에 활력이 느껴지는 듯 하지만, 사람의 온기가 없다. 마치 어질러진 주인 없는 집 같다. 마을 외양도 깊은 문화적 축적을 해온 이미지와는 다르다. 커다란 은행나무 길 건너에 옛 가옥이 서너 채 남아 있을 뿐이다. 급히 쏟아져 들어오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조양아파트를 비롯해 빌라가 마구 지어졌다. 도로망이나 경관 등을 신경 쓰기보다는 방 하나라도 더 들이기 위해 머리 쓴 흔적이 역력하다.

70% 이상이 유입주민이다. 원주민은 30%에도 못 미친다. 앞꼬지의 오늘이 그렇다. 그래도 앞꼬지에는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한 흔적이 있으니, 김집 金鑣(1676~?)의 효심을 기리는 효자비다. 정려문과 함께 있었으나 80년대 중반에 안타깝게도 쓰러져 없어지고 말았다. 은행나무 정자목과 함께 서 있는 비루도 주위의 무관심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찾는 이가 민망할 정도다. 변해가는 세대의 반영일까. 쓰러진 정려문은 마치 무너지는 효심을 상징하는 듯하다.

에버랜드가 들어선 배경과 마을의 변화

10여 년 전 1,3리 주민들만 해도 2,800여명에 달했으나, 지금은 인구 헤아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지경이 되었다. 이 마을의 변화는 용인자연농원으로 출발한 삼성에버랜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삼성 계열인 중앙개발이 전대리, 가실리, 신원리, 유운리 등 4개리에 걸친 대단위 농장건설에 착수한 것은



에버랜드 전경. 올해로 30년을 맞이하는 에버랜드는 국제적인 테마파크가 되었다.

1971년이였다. 5년 동안의 대역사 끝에 1976년 '용인자연농원'이라는 이름의 우리나라 최초 테마파크가 탄생했다. 우여곡절과 그 여파가 엄청났던 용인자연농원 추진 과정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이병철 전 삼성회장. 그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을까. 그는 자신의 자서전『호암자전(湖巖自傳)』에서 그와 관련,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전략) 버려진 산을 개발하여 단시일 내에 국토 넓히기 운동의 시범이 되고, 각종 유실수, 장기수의 조림생산과 각종 식물의 신품종, 신기술을 보급하는 교육의 장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개발은 1968년부터 용인자연농원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선정에 착수하였다.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추천을 거친 끝에 용인군에 입지를 선정하였다. 2천 여 명의 지주들과 선산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땅을 매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국토이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 법령상의 문제점, 토지 소유형태의 영세성 등으로 농원개발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총 458만평에 달하는 자연농원 개발이 우여곡절과 난관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준비과정부터 개장까지 8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도 이 글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연농원 추진 과정에 대한 색다른 시각도 있다. 그 전말은 이렇다. 이 회장이 사후 대비 차원의 명당 찾기에 고심했다. 그 과정에서 유명한 지관에게 자리를 의뢰했더니, 바로 포곡 일대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터는 약점이 있었다. 생기가 부족했다. 그리하여 이를 보장하려고 식육과 생식력이 왕성한 돼지 농장을 조성하게 됐다는 얘기다.

확인할 수 없는 일종의 설인데, 그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병철회장의 묘는 현에버랜드 내 호암미술관 옆에 있다. 소운마을 이광섬씨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 자리가 사혈(蛇穴)이어서 비보차원의 인공저수지를 만들어, 뱀의 먹이인 개구리가 서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호암저수지 앞에는 큰 저수지가 있다.

또한 자연농원 초창기에 품종 개량 돼지를 인근 농가에 분양해, 지금까지 신원리 일대가 돼지농장으로 유명한 것도 사실이다. 당시 나는 중간 소만한 신종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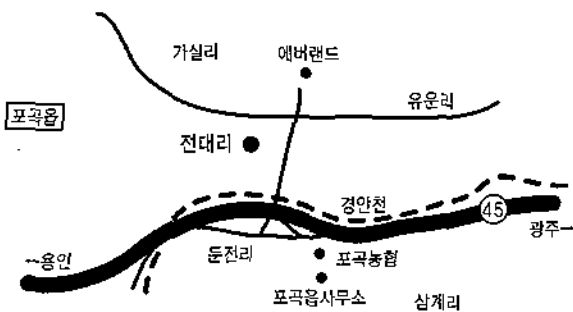


마을 상가 모습. 인구의 증가로 상권이 형성되어 도회지화 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지를 보고 그 크기에 놀랐던 기억이 새롭다. 돼지농장은 이후 경안천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다.

이 같은 대규모 농장 조성 사업은 당연히 많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문전옥답은 물론이요 선산까지 옮겨야 했으니, 60년 말 정서로는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용인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당시 전대리 양지편에 살다 나의 고향마을로 이사 온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용인자연농원이 연을 맺어준 격이다. 용인자연농원, 오늘날의 에버랜드가 앞꼬지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한적한 시골마을이 한 순간에 사람들로 북적이면서 상업적 시가지로 변화해 나갔다. 지역경제도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과 지가 상승 등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났다. 전통적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지고 물질 중심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에 따라 풍속의 문제, 청소년의 탈선 등도 나타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도시화 과정의 그늘진 모습이기도 하다.



국내 최대 규모 관광레저 단지인 접 주민들의 공동체와 삶의 문제는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기도 하다. 앞꼬지는 바로 그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출발이 뭘까. 같이 잘 되는 길을 찾는 것, 즉 상생의 방법을 함께 궁리하는 게 아닐까.

모현면 초부리 상부곡(부계울)

천년 물살에 씻긴 바위계곡, 그 풍치에 시 한 수가 저절로

광주와 용인을 가르는 장중한 광주산맥을 동편에 두르고 마을이 있다. 준봉 노고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살이 계곡을 이루며 가로질러 경안천으로 스며든다. 부계溪라 불리는 시냇물이 흐르는 마을이라 하여 ‘부계울’로 알려진 초부 3리는 상부곡으로도 부른다.

애초 처음 동지를 튼 성씨는 안성 이씨安城李氏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간 대성을 이루고 있는 이들은 연안 이씨延安李氏다. 사은공隱公 이담노李聃老(1665~1706)가 입향조이고, 그의 아들 간농와淵農窩 이우좌李雨佐(1689~1760)로부터 자손들이 크게 퍼지면서 누대에 걸친 종족촌을 이루기 시작했다. 지금도 이씨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사실 종족촌의 계보를 따지는 것은 해당 종원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료를 들춰가며 족보를 확인해 가는 과정도 솔직히 그리 흥미 있는 일만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용인의 세거성씨를 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불리는 조선사회의 향촌 유력가문 뿐만 아니라 한 마을의 성씨구성을 보더라도 대개 혼맥 관계가 향촌사회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통혼관계와 종족촌 형성

부계율의 대성인 연안이씨만 해도 그렇다. 시조인 이무^{李茂}는 본래 당나라 사람으로 나·당연합군을 결성하여 삼국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후 귀화한 경우다. 그럼 용인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그 전부터 용인에 세거하고 있던 유력가문 연일정씨와의 혼인관계에 의한 것이었다. 포은 정몽주의 손자인 정보라는 사람이 모현면 능원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의 셋째 사위가 된 사람이 바로 연안이씨 석형^{石亨}(1415~1473)이다. 이석형은 결혼 후 처가가 있는 용인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로부터 연안이씨의 손이 뻗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일정씨 역시 포은 정몽주의 장남 정종성이 용인에 세거 중인 죽산박씨와 혼인하면서 처가 쪽으로 이주해 온 경우라는 점이다. 포은 정몽주의 묘가 능원리로 이장하게 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인식이지만, 여기선 논외로 한다.

아무튼 처가 입거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이에 따라 용인에 터를 잡은 이석형의 후손들이 여럿 출세하면서 가문이 번성했다. 그 가운데 한 후손인 이담노가 부계율에 안착하게 된 것이다. 이웃인 갈월 마을도 연안이씨가 다수를 차지하

는데, 이담노의 형인 이삼노의 다섯 아들이 정착한 경우이니, 따지자면 갈월이 큰 집 격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혼맥 즉, 통혼관계는 자연스럽게 계파, 계열을 형성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용인 이동면 천리에 기거했던 도암 이재가 기호학파의 거두요, 노론의 얼굴역할을 하면서 용인일대 사림과의 다양한 교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바위에 새긴 휴암休岩과 탁영濯瑩

마을은 세 동리로 나뉜다. 냇가를 사이에 두고 북쪽이 해가 잘 드는 '양지쪽'이다. 이곳은 나중에 집들이 들어섰다 해서 '새터말'로 불리기도 한다. 그 맞은편이 '음지'이다. 마을을 감싸는 산 능선에 가려 해가 좀 늦게 비춘다. 마을 입구 느티나무 군락이 있는 그 밑으론 '담안'이다. 담안에는 종가로 보이는 큰 집터가 있었으며, 한국전쟁 중 중공군이 행정본부로 사용하는 바람에 폭격을 받아 없어졌다. 담안이란 소지명은 이동면 원덕성리 등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아마도 이문門과 같은 개념으로 여러 종족원들의 집을 둘러싸는 큰 울타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부계울하면 뭐니뭐니 해도 뛰어난 경관이다. 특히 가을단풍이 압권이다. 45번 국도와 나란히 하면서 펼쳐진 광주산맥 줄기에 형형색색 물이 들 때면, 멀리 단풍구경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골이 깊어 수량도 풍부한데, 그 물살에 천년 썩긴 크고 작은 바위가 빔어내는 멋도 그에 못지않다.

이처럼 인근에선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부계울. 옛 선인들이라고 이를 모를 리 있었으랴. 이곳을 찾아 풍류를 즐겼음이 여기저기서 확인된다. 그 중 하나는



도암 이재(1680~1746) 선생이 써서 새겨놓았다고 전해지는 휴암休岩. 문인들과 풍류를 즐겼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휴암休岩이란 글자가 새겨진 바위다. 마을 맨 위 오른쪽 민가를 지나치는 가운데 위치한 이 바위는 드러난 부위 너비만 해도 7~8m에 이른다. 예전에는 정자와 나란히 있었다고 하는 이 바위글씨는, 언젠가 이인영 전 문화원장을 좇아 처음 탁본을 해본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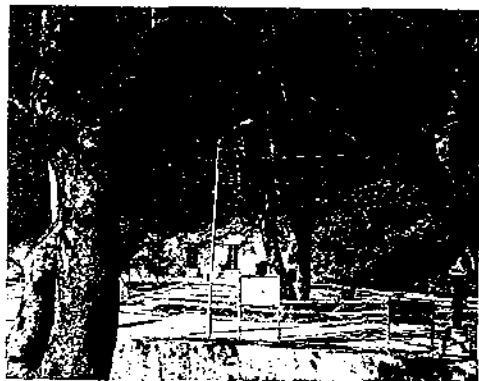
다시 20여m를 올라가면 미끌미끌한 바위 사이로 소협이 있다. 작고 아담한 북편 작은 바위에 초서체로 유려하게 흘러 쓴 탁영濯纓이란 글자가 들어온다. “갓끈을 빨다”라는 이 내용은 “옛 문헌에 물이 깨끗하면 갓끈을 빨고 지저분하면 발을 닦는다”는 글귀에 비취, 그만큼 맑은 물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영희 전 노인회장 댁에 간직하고 있는 연이선적고延季先跡考에 의하면 이곳에

씩어진 글귀는 도암陶菴 이재李緯(1680~1746)가 썼다고 전한다. 낙향해 있는 동안 이 곳을 찾아 문인들과 어울리면서 8세부터 시를 지을 정도로 글재주가 뛰어났다고 하니, 이곳에 앉아 시 한 수 읊지 않았을 리 없다. 조용한 계곡에 서서히 변색돼 가는 단풍 하나가 작은 폭포 밑으로 떨어져 물살을 따라 돈다. 세월은 흘렀건만 그 운치는 여전하다.

유교적 기풍이 마을을 싸고도는 곳인 만큼 효부, 열부가 많이 났다. 마을입구에 보면 느티나무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효열비가 즐지어 서있다. 그 하나는 효부 박순덕朴順德을 기리는 밀양박씨 효열비다. 15세 때 초부리 정씨 가문에 출가해 25세 되던 해 홀로 청상淸孀이 되었으면서도 아이와 시부모 봉양에 극진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1979년, 용인향교에서 그의 삶을 기려 효열비를 건립했다.

또 하나의 효열비는 이계남(1904~1973)의 것이다. 전주이씨 효열비에 적힌 비문에 의하면 시집온 다음해 남편이 급환으로 떠났음에도 자중과 근신으로 도리를 다하여 효열과 치가의 장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많은 유림들이 협조하여 1994년에 세워졌다.



(위) 비석거리.
(아래) 부계운 돌담.



신작로에 얽힌 사연

이 마을에 이르는 신작로는 시골길치고는 곧게 뻗어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연이 있다. 79년 10·26이후 불안했던 정국추이에도 불구하고 유류과동을 넘기기 위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 중이었다. 물론 당시 국내 사태 악화로 급거 귀국하긴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으로부터 이슬람대학을 지을 터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오일달러를 이용해 이슬람의 확산을 꾀하고자 함이었겠지만, 석유수입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처지에서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오히려 고마웠는지, 일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무산됐지만, 이슬람대학이 들어선다는 계획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민가를 헐고 난 길. 1979년이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 신사는 수행한 사람들에게 “이 길로 곧장 내” 하고는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가 손가락으로 지시한 길 예정부지에는 적지 않은 민가들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었다. 정말 자고 일어나니, 길이 나 있었다.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었다.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절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슬람대학 설립은 무산됐다. 다만 그 후유증만 남겼다. 무리한 수용으로 토지분쟁이 생겨 주민들은 한참 후에야 예전 전답을 되찾았다. 마을에서 올라가면 최근 페러글라이딩 장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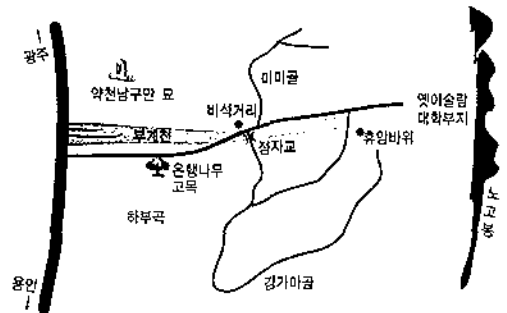
사용되는 그터가 이슬람대학 부지다. ‘무쇠
 접’으로 불리는 곳이다. 아주 오래전 그 곳
 에 절터가 있었다. 정광사라 불렀던 이 절은
 삼국시대의 것이었다는 설이 있으나 그 흔
 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마을 모습은 많이 변했다. 대학설립 계획
 으로 투기꾼이 몰려들어, 그 일대 90% 가량
 을 외지인이 점령한 이후, 붓물 터지듯 옛 모
 습은 급격히 무너졌다. 85년경부터 들어선
 공장이 지금은 수십 개에 달한다. 상수도 1
 급 지역엔 대형고급 음식점소가 들어섰다.
 또 마을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남쪽 언덕배
 기에는 전원주택이 즐비하다.

“이젠 이것저것 다 들어와 막을 여건이 안
 됩니다. 박힌 돌이 굴러들어온 돌에 자리를
 내준 격이 됐지요.” 전 이장 이동배씨의 푸
 념이다. 공장과 대형 음식점, 축사, 돈사 등
 이 개념 없이 산재해, 그 유명한 초부리 계곡
 은 이젠 옛말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주민들
 의 마을 계곡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사적
 이다. ‘탁영溜漚’이란 선조들의 새김이 무색
 하지 않도록 깨끗한 부계울은 다시 태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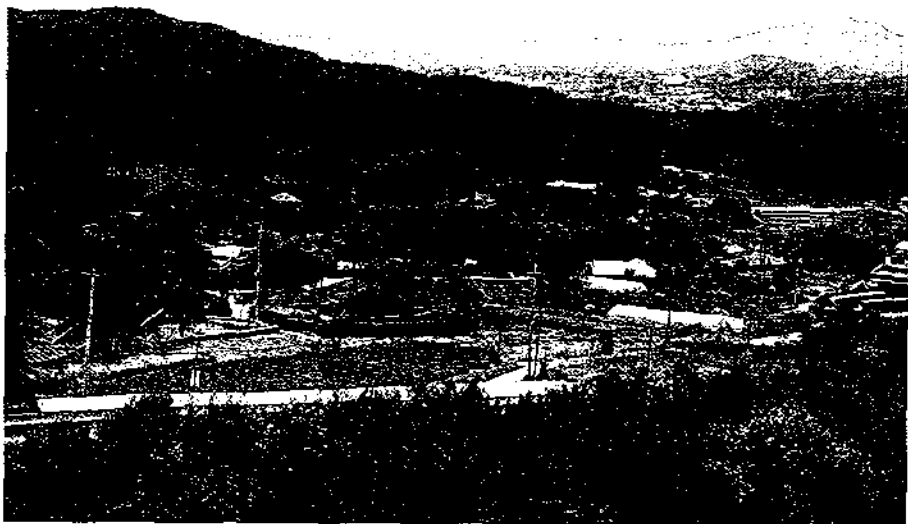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동호인들. 이들에게는 잘 알려진 명소다.



모현면 갈담리 갈월

태화산 자락 병풍삼아 풍치 좋게 자리한 마을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과 꿈에 그리는 집이 있다. 가끔 아내와 이런 얘기를 나누다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마을이 있는데, 바로 갈월이다. 직장관계로 늘 버스를 타고 그곳을 지나쳤던 아내는 노고봉과 정광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가을 단풍에 탄복하기도 하고, 마을 앞 구룡의 운치에 넋을 놓기도 했던 모양이다. 언젠가 같이 마을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고는 이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을 1호로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다.



갈월 전경. 역사와 문화, 환경이 잘 어우러지는 마을이지만, 쇠락해 가고 있어 안타깝다.

내가 생각해도 제대로 보긴 한 것 같다. 옛 선현들은 살만한 터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다. 우선은 풍수다. 땅을 판별함에 있어 생기(生氣)를 중요시 했던 선현들은 바람을 갈무리해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물을 얻어 생기를 모았다. 이름 하여 장풍득수(藏風得水) 즉, 풍수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사람이 살만한 장소로 지리, 생리, 임심, 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장소로 '계거(溪居)'를 꼽았다. 계곡은 홍수나 한발의 피해가 적고 토양이 비옥하며, 방죽을 쌓아 관개가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거기에 더하여 산수가 아름답고 아늑하며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으니, 씨족을 형성해 미풍양속을 지키며 자식 기르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갈월을 이런 기준에 대비해 생각해보니, 한마디로 '딱' 이었다.

노고봉과 정광산 사이에 입지한 갈월은 두 깊은 산줄기가 계곡을 만들어 수량이 풍부하다. 또 하천이 흘러내리며 경사도 완만해 기름진 농경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70년대 초반 협곡을 막아 조성한 저수지에는 물을 채워두고 있으니, 가뭄 걱정은 없다. 대로변에서 마을 방향으로 보면 터가 높족하고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 가옥들이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에 수려한 경관까지 갖추었으니, 뭘 더 바라겠는가.

마을 앞 장사래 고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창이 밝았느냐"로 시작되는 권농가의 배경이니, 역사적 운치까지 더해진다. 요즘은 교육여건을 중시하니까, 이도 따져봐야 하는데, 용인외고가 고개 넘어 있으니 실력만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500년 내려오는 연안이씨 종족촌

이 같은 입지조건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연안이씨(延安李氏)다. 약

550여 년 전 첨사^{僉使} 이회충^{李會忠}이 처음 이곳에 들어와 터전을 잡았다고 전해진다. 또 이현려^{李賢呂}의 18세손에 해당하는 경좌, 언좌 등 이삼노의 다섯 아들이 갈월마을에 처음 입향했다는 『용인시사』자료도 있어, 더 확인이 필요하다. 갈월이란 마을이름은 시대적 사조를 벗어나지 못한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한다.

갈지담해^{葛之潭兮} 시우^{施于}중곡^{中谷}

(월시림이 우거지고 담부사리와 칙녕쿨이 산골짜기를 매우고
산새우는 소리도 요란하다)

이 구절은 중국 춘추시대 민요를 모은 시집인 시경^{詩經} 갈담 편에 적혀 있는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문헌을 즐겨 읽었던 옛 선비들이 마을의 모습이 바로 시경에 그려진 형상과 비슷하다 해서 ‘갈^葛’자와 ‘곡^谷’자를 따 ‘갈곡^{葛谷}’이라 했다. ‘월’로 바뀐 것은 ‘곡’을 순우리말 ‘울’에서 연유된 듯하다. 1914년 행정지명 개편 때 마을 지형이 달^月이라 하여 갈월^{葛月}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다른 얘기로는 조선조 중엽 연산군 때 승지를 지낸 ‘홍철’이라는 사람과의 연관을 말하기도 한다. 홍철은 연산군의 폭정에 실망해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와 칙^黜으로 외관을 하고 생식하며 살았다 한다. 그리고는 임금을 향하여 늘 선정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였다. 홍철^{弘徹}쿨로 불리다가 갈곡이 되었다는 설이다.

아무튼 요즘처럼 종족촌이 와해되고 있는 마당에 한 성씨가 이처럼 많은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연안이씨가 30호를 넘는다. 외지에서 최근 들어온 이주자 외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세거지다. 그렇다보니, 마을 자체가 종족촌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한옥과 돌담 그리고 정자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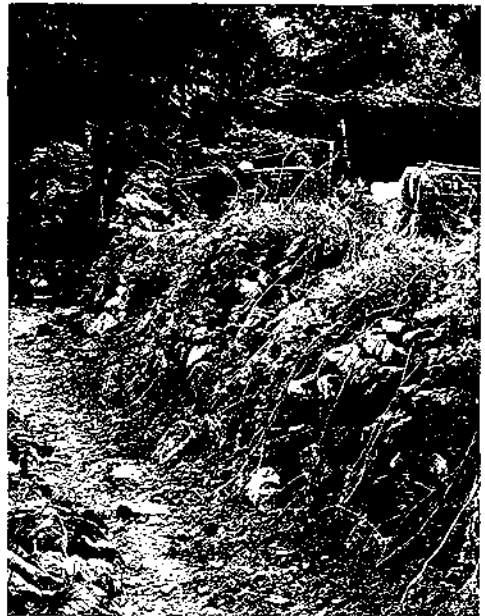
이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것 중 으뜸은 한옥이다. 각 과조를 대표하는 종가집이 여럿인데, 그 중의 하나가 아흔 아홉 칸 집이다. 지금은 많이 허물어지고 본채만이 남아있어 그 위엄은 사라졌으나 정교하고 고풍스런 모습은 여전하다. 현재 이계희(63)씨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대대로 벼슬을 했고 '인동택'으로 인근에 널리 알려진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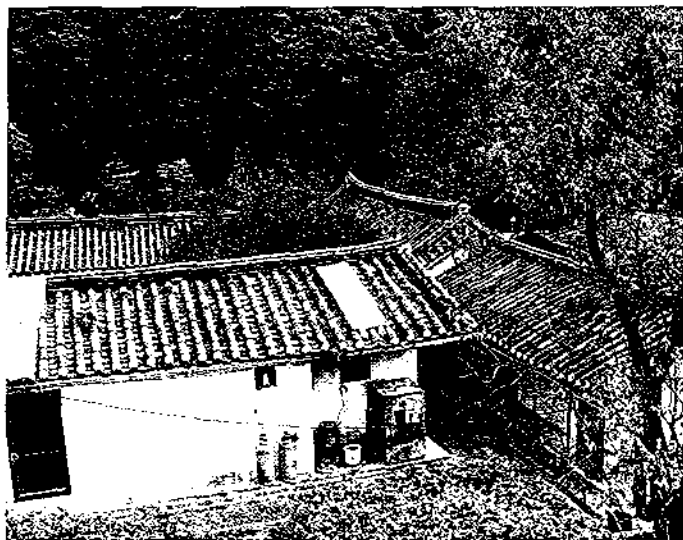
갈월 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택호宅號다. 거의 대개의 집들은 택호가 있다. 이천택, 말미택, 인동... 벼슬 이름이나 처가가 있는 곳의 지명을 붙여 그 사람의 집을 부르던 택호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다. 인동택의 경우는 인동부사를 했던 선조가 있어 붙여진 택호다.

허물어진 돌담길이 마을의 오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돌담 역시 이 마을을 상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예부터 돌이 많기도 했지만 그 흔한 블록담장으로 갈지 않고 무너지면 또 쌓길 고집하는 그 정신이 참으로 대단하다. 다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빠져 나가면서 일손이 부족해 무너진 채 방치된 돌담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수목군락지다. 마을 회관 앞에 느티나무 서너 그루와 기타 1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어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약 2백여 년 전 어영대장 정찬술이 낙향하여 집을 지을 때 식수했다고 전해진다.





고풍스런 한옥이 옛 정취를 느끼게 한다.

이처럼 전통이 살아 숨쉬고 반촌班村의 기풍이 느껴지는 갈월은 인물이 많다. 대표적인 이가 이도재(1848~1909)다. 인동택의 주인기도 했던 그는 한 세기 전 역사적 격동기에 영욕의 삶을 산 사람이다. 무관벼슬인 호군護軍에 제직 중 세력이 강한 무리를 좇아 실리를 구하던 사대당事大黨에 의해 고금도에 유배되었다가 갑오경장으로 풀려 나왔다. 안타까운 것은 이후 동학 혁명이 일어나자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 진압의 임무를 맡았으니, 나라의 늑을 먹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구한말 학부대신 때 최초의 서양 의학교육 기관을 세우게 했고,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이곳에 내려와 의병을 일으켰다는 증언도 있다. 다만 정확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구한말 전라도 관찰사를 하던 때는 완도면에서 군으로 승격시켜, 완도에는 그의 공덕비가 세워져있다. 십수 년 전 전라도 완도에서 김재천씨(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가 찾아와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얘기를 당시

박용익 선생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농촌 어메니티, 이 마을에서 시작해 봄직

요즘 들어 농촌지역 마을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더 농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삶터 공간에 사람이 없으니 마을이 성할 리 없다. 더구나 일하는 젊은 층과 미래에 마을을 지켜나갈 어린이들이 없으니, 농촌의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전통적인 공동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니, 결국 우리 문화의 원형질이 송두리째 뺏힌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가을 농촌에 물든 저 출렁이는 황금물결을 보지 않아도 살 자신이 있을까. 난 없다. 내 정서와 생기의 젖줄과도 같은 고향친구 그리고 초봄에 가재 잡을 도락골이 없어도 난 삶의 의미를 많이 잃을 것 같다. 비단 나뭇잎이겠는가.

지금까지 찬사를 쏟아 부은 갈월 마을만 해도 그렇다. 아담했던 돌담이 쓰러져도 이를 고칠 재원과 노동력이 없으니, 마을은 점차 황폐화되어 간다. 빈 집이 수두룩하고 도둑고양이만 늘어난다. 시골에 그나마 경로당이라도 없으면 어쩔까 싶다. 반은 노인정이 집인 실정이다. 거기서 대부분을 지내니 말이다.

정말 대안이 절실하다. 지금의 농촌현실이 세계 신자유주의와 거기에 일정 없이 매일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적 구조 탓이기도 하니, 정부 욕만 할 입장은 아니다. 무엇이 있을까. 나는 엉뚱하게도 마을기행을 쓰면서 다른 방향으로 지꾸 흐르고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농촌 주거다. 기왕에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대개는 외딴 곳이거나 동호인 전원주택이다. 별개의 세상이다.

과연 그래야 할까. 언젠가 스승인 조홍윤 교수께서 하는 말씀을 듣고 무릎을 친



선조들은 후대를 위하여 휴식공간까지 생각했다. 마을회관 정자목 군락지.

적이 있다. 사람 속에 살아야 그게 참살이라는 것이다. 웬만하면 교통문제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용인지역에서는 전원주택을 짓기 보단 마을전체 조화에 거스름이 없도록, 빈집을 개조하여 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다.

얼마 전 갈월을 다시 찾았는데, 한 중년의 여자 분이 빈집을 수리하고 있었다. 돌담장도 다시 고치고, 마당에는 작은 연못을 마련하고 있었다. 휴가가 아담한 돌담 집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든다면, 마을은 다시 생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 공간에서 살기에 문화적 소통을 통해 새로운 마을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흐뭇한 미소가 피어올랐고, 그 일을 계속 지켜보게 됐다.

농촌 대안의 두 번째 길은 뭘까. 농촌 어메니티를 추진하는 것이다. 어메니티 Amenity란 사람이 환경을 접하면서 쾌적함이나 즐거움, 편안함, 농촌다움 등의 감성을 느끼게 하는 공간을 이르는 말이다. 농촌의 경우 강이나 산 등의 자연환

경, 농촌경관, 특산물, 전통문화 같은 것이 어메니티 자원이다. 인간·자연·전통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농촌도 만들 수 있다. 자연, 전통문화, 생활기반이 조성된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도 가능하다. 생태·문화 등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체험 관광형 마을도 조성할 수 있다.

얼마 전 신문에 농촌 어메니티 전시회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만사를 제치고 가본 적이 있다. 이거다 싶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해남 땅끝마을의 '108계단 다랭이논 체험' 이 바로 농촌 어메니티 운동의 결과였다. 마을소득이 수십 배 올랐음은 물론이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동네가 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음을 거기서 확인했다.

이 같은 사례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얼마 전 행사를 가진 학일리 마을이 그 단초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책 담당자들의 마인드와 의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기울인다면 농촌은 또 다른 대안을 통해 살아날 수도 있다.

용인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의 쇠잔해진 현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그러다보니 주제 넘는 얘기를 너무 길게 늘어놓았다. 이상향이었을 법한 갈월 마을의 부활, 꼭 보고 싶다.

모현면 오산리 본동

전통이어온 해주오씨 종족촌

오산리(山里)라는 지명에서 보여주듯 해주 오씨(海州 吳氏)와 분리해선 생각할 수 없는 마을이 본동이다. 43번 국도를 기준으로 건너편에 있는 양달말과 마주보고 있다하여 양달말로도 불린다. 예로부터 이곳은 용인의 오지였다. 죽전으로 넘어가는 대지고개가 대치(大峙)에서 변을 되었음을 감안하면, 외부로 통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용인시내는 20여km나 된다. 풍덕천과는 대지고개를 경계로 맞닿아 있



오산골 해주오씨 시조단 문을 통해 내려다 본 마을 전경.

고 분당도 가까워 수원과 분당쪽 생활권으로 기울어 있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았던 것은 구성으로 넘어가기 위해 무덤치라는 큰 고개를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주민 차근환(71)씨의 학생시절, 하루살이를 되돌아보면 어떤 곳이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학교를 가기 위해 새벽 5시에 가방을 메고 나서야 했어. 사기막골을 거쳐 무덤치를 넘어야 해. 그러면 청덕리 동막골이 나오거든. 어정역까지 가면, 걷는 시간만 1시간 반 정도 돼. 기차로 학교에 도착하면 8시 30분이 되니까, 얼추 3시간 잡아야지.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됐으니, 고단함에 공부는 뒷전일 수밖에. 공부보다는 왔다 갔다 하며 학창시절을 다 보낸 것 같어.”

오산리 본동 사람들에게는 길이 곧 생명줄이었다. 일정 때 소릿길을 넓혀 간신히 우마차가 다닐 정도로 됐지만, 더 진척되질 않았다. 늘 선거 때만 되면 반복 공약 중 하나가 대지고개 도로 넓히기였다. 그나마 구성과 수원으로 통하는 지름길, 무덤치는 88골프장이 만들어지면서 도로를 차단해 돌아다녀야 하는 처지다.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오산천이 이곳에서 발원한다. 동북향을 열어두고 큰골을 이루는 마을에는 작은 골들이 많다. 남향으로는 삼박골이 있고 오명향이 묻힌 골짜기는 절골로 불린다. 이곳에는 ‘중의 우물’이란 샘이 아직도 있어 그나마 절터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일제 때만 해도 화전을 일구던 곳이었다.

사기막은 마을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신유년(1801), 기해년(1839), 병오년(1846) 등 잦은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신앙을 지켰던 천주교신자들이 숨어들었던 곳이다. 이들이 그릇을 구워 생활했음을 확인해 주는 지명이다. 무덤치는 무덤이 많았던 곳인데, 이름대로 그 자리에 천주교 공동묘지가 생겨 일 자리까지 창출한다. 현재 마을은 사기막골 30여호, 용달말 60여호인데, 세입자가 많아 100여 세대가 넘는다.

해주오씨 시조단과 추탄공파 세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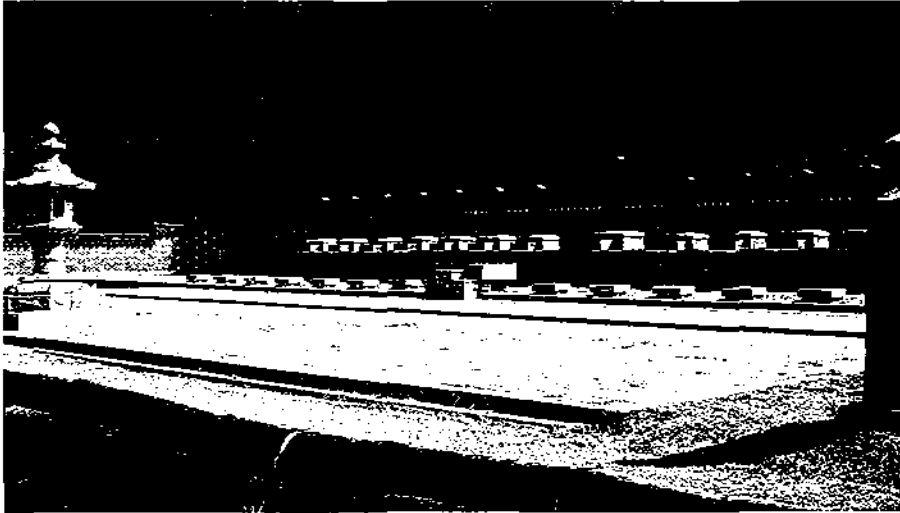
43번 고속화 국도가 확장 개통되면서 외진 본동의 한적한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다. 마을에 들어서는 입구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질서 없이 들어서 있고, 창고들도 즐비하다. 그렇지만 일단 옛날 아릅드리 느티나무가 빼곡한 도당굿터 자리 마을회간 앞에 이르면 고풍스러우면서도 웅장한 한식 기와집들이 눈에 들어차면서 분위기는 어느새 바뀐다.

물론 손보지 않은 집들이 많은데, 이 또한 대부분의 임야와 대지가 종종 소유인 탓에 마음대로 고치질 못하는 이유도 있다. 이곳에 추탄공 오윤겸의 사우와 제실이 있다. 그 위로 오르면 산허리에 높이 올라앉은 해주오씨 시조단이 한껏 위엄 있어 보이는 돌사자 상을 지나 자리한다.

시조 오인유를 중심으로 집안을 빛낸 선조들의 비석이 좌우로 늘어서 있는데 시조제를 올리는 음력 3월15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9개파 문중들이 몰려들어 1천여 명에까지 이른다 하니, 그야말로 해주오씨의 종본산임이 확인되는 순간일 것이다.

용인에 많이 세거하고 있는 해주오씨는 크게 두 축으로 보면 된다. 원삼면 학일, 죽능, 목신리 일대는 고려말 대호군을 지낸 호군공護軍公 오희보吳希保의 9개 파종이 두루 세거하며, 그 중 판서공 오윤수의 후손들이 많은 곳이다. 반면 오산리는 호군공으로 부터 각각 5, 6세손에 해당하는 오희문파, 그의 아들 추탄공 오윤겸에 이르러 크게 가문이 현달顯達하면서 그 후손들이 집성한 곳이다.

이 마을 산자락 깊숙이 오윤겸 선생을 비롯해 그의 선대 및 후대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는 마치 공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방대하다. 입구엔 추탄공 사적비가 있고 장방형의 연못이 있다. 묘지 앞에 연못을 판 것은 이곳 형세가 '오리형'으로, 물이 있어야 터의 생기가 유지된다는 풍수관을 반영한 결과다.



해주오씨 시조단은 시조 오인유를 중심으로 집안을 빛낸 선조들의 비석이 좌우로 늘어서 있다. 음력 3월 15일, 시조제를 지낸다.

추탄 오윤겸이 살았던 시기는 왜란과 호란 등 외적에 의한 극심한 혼란과 정치적 격동의 시기였다. 특히 임진왜란은 노예전쟁이라고도 할 정도로 7년간의 전쟁 동안 1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인 노예상인에 의해 끌려간 조선민중의 수난기였다. 오윤겸은 전후 노예로 잡혀가 일본복구에 혹사당하던 우리나라 사람 1백50여 명을 광해군 9년(1617) 통신사로 가 데려오기도 했다. 학자로서 유교에 대해 이론보다는 실천에 중점을 두었던 그에 대해 수신사시절의 일화가 전해진다.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왜의 관백은 은화를 주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대마도에 와서 모두 봉해 두고 돌아왔다. 수중에 유자 한 개가 있는 것을 보고 부산에 이르자 이마저 바다에 던졌다. 이것을 보고 같이 간 이경직이 말하길, 내가 평생 칼을 좋아해서 한 자루를 구해 가지고 왔는데, 이제 상사가 하는 일을 보니 내가 무



해주 오씨 세장지, 추탄공 오윤겸을 비롯해 그의 아버지 오희문과 문장가 오도일 등 여러 역사인물을 만날 수 있다.

손 낮으로 이것을 가지고 돌아오겠는가 하며 즉시 바다에 던져 버렸다는 것이다. 바른 실천으로 사람을 따르게 했음이다. 해주오씨 추탄공과 종중에서 펴낸 『추탄 선생 유집』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의 손자인 오도일(吳道一)(1645-1703) 역시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며 강직한 청백리로 이름 높은 사람이다. 목민관이 되어서는 먼저 일반민의 폐단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들을 위한 행정을 펴 선정을 기리는 청송이 높았다 한다. 울진 같은 곳에서는 심지어 생사당(生祠堂)을 세워 제사를 받들기까지 했다는 기록이다. 그의 문집인 서파집(西坡集)은 모두 삼십 권으로 지금까지 전해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오희문(1539-1613)이다. 그는 변변한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지은 쇄미록(髓錄)은 임진왜란 당시의 체험을 자세히 적은 또 하나

의 난중일기다. 오윤겸의 아버지이자 오달제의 조부, 오도일의 증조부이기도 한 그는 난을 피해 각지를 떠돌았던 만 9년 3개월 동안의 기록을 남겼다. 사생활에서부터 전국각지의 전황, 의병활동, 임전·정유 두 왜란의 시말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권력주변의 생활, 노비들의 비참한 신공身貢 및 매매 등에 대한 얘기 등도 적혀 있어 사료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데 실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기록이다.

그 번역본도 소개가 돼 있으며 원본은 '보물 1096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1998년 당시만 해도 오산리에 거주하던 종손을 졸라 원본을 조심스레 보았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은 박물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들었고 종손은 서울로 떠나 만나 볼 수가 없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은 용인에 관한 기록이다. 역사적으로 광교산에서 1592년 6월5일, 이광李光의 삼도 근위병이 대패했던 용인전투에 대한 그의 기록이다. 번역본 상권의 관련내용을 발췌해 본다.

여러 군사가 수원부를 포위했더니 왜적은 이를 알고 도망했다. 초 5일에 용인의 행원行院뒤의 적이 험한 데를 점령하고 집을 없었는데, 앞에는 녹각鹿角이요 또 방패를 설치하여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군사는 땅이 험하여 나가지 못하는 데 방어사는 전령을 내려 앞으로 나가기를 재촉한다. 여러 장수들은 부득이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서 나가는데 왜적 3,4명이 칼을 빼들고 뛰어나와 어지러이 삼대를 치듯이 휘두르니 죽은 자가 서로 베고 누웠다. 이 싸움에 전봉장 백광언, 고부군수 이원인, 함열현감 정연, 조방장 이지시가 일시에 칼에 맞아죽고 모든 군사가 다 흩어졌다. 이·백 두 장군은 제주와 용맹이 뛰어나서 사람들이 그들을 믿고 견고하다고 했었는데 방어사가 재촉하는 바람에 패해서 죽는 데에 이르니 무리가 모두 분하게 여겼다. 이에 앞선 대목에는 전란 중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내에 대한 절절한 걱정도 들어있다.

“지난 19일 밤 꿈에 아내를 보니 완연히 옛날과 같았다. 내가 남쪽으로 온 뒤로



빈집 문살을 잡고 생명을 이어가는 담쟁이 넝쿨. 쇠락과 새 생명의 묘한 대조가 세상의 이치를 보는 듯하다.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더니 오늘 꿈은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슬픈 일이다. 슬픈 일이다. (去十九日夜, 夢見荊妻, 宛如平昔, 自余南來, 一不入夢, 而今日之夢, 是何故也, 生耶死也, 悲乎悲哉)"

인조대代 영의정에 올랐던 오윤겸,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끌려가 순절한 오달제, 영조대 인물로 역대 제상 중 효행이 뛰어나 충효공忠孝公이란 시호를 받은 오명항 등이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묻혀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곳이다. 다만 오달제를 보려면 양지 말로 넘어가야 한다.

어지러운 세상, 시로 논한 은둔 여류 문사

대다수의 조선시대 여인들은 여필종부女必從夫와 삼종지도三從之道로 대표되는 태생적 운명 앞에 자신을 버려야 했다. 최고의 덕목을 '현모양처'로 삼았던 그 시대 여인들. 이들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재주를 가졌다 해도 이를 사회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시대를 대표했던 조선의 여성들이 용인과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은 반갑기만 하다. 누가 있을까. 세 명만 뽑아보자. 대표적인 사람이 허난설헌이다. 또 한 사람을 꼽으려면 이사주당李師朱堂(1739~1821)이다. 거기에 한 명을 더하라면 오도일의 어머니, 한양 조씨漢陽趙氏(1609~1669)를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반가班家의 여인들이다. 조선조에 자신들의 삶을 글로 남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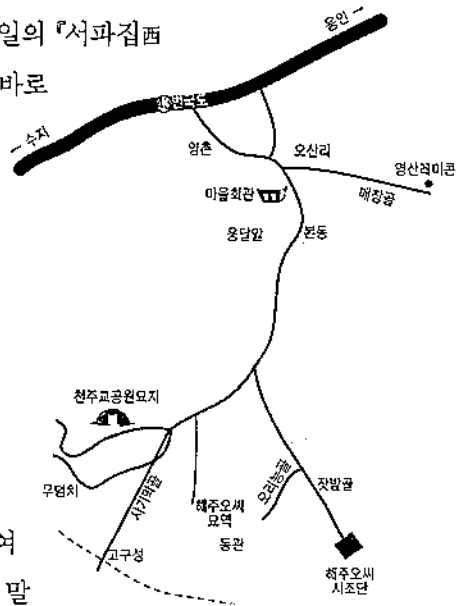
없었던 기층 민중들은 역사 속에 그 이름으로 남을 수 없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도 슬픈 일이지만, 어찌겠는가.

먼저 원삼면 맹리 세장지(世葬地)에 사비가 있는 난설현(蘭雪軒) 허초희(許楚姬)(1563
1589). 신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글재주와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었던
그녀는 허균·허봉 등 오빠들과 함께 당대 최고의 문사가문의 일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물론 일본에까지 이름을 알린 세계적인 여류시인이기도 했다.

사주당 이씨(李師朱堂)(1739~1821)는 실학의 대가로서 우리말을 연구해 언문지(諺
文志)를 펴낸 유희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녀는 동양에서는 물론 세계 최초로 태교
에 관한 사항을 집대성했다. 『태교신기』를 저술한 18,19세기 초의 선각자적 여성
이다. 이사주당은 용인으로 시집과 살았고, 모현면 왕산리에 묻힘으로서 용인과
깊은 인연을 쌓은 여성이다.

허난설현과 이사주당처럼 스스로 문집이나 저술을 남겨 후대 선각자로 추앙받
는 여성이 있다면 전형적 현모양처로서 아들 오도일의 『서과집(西
坡來 - 선비행장)』을 통해 후대에 알려진 한 여성이 바로
한양 조씨(漢陽 趙氏)(1609~1669)다. 비록 사대부
집안의 여인으로서 영의정 시아버지를 모시고,
관서 아들을 둔 안주인이었지만 호는 물론 이름
조차 남기지 않은 채, 한 시대를 살다 간 당시의
많은 여성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에 대한 일화는 아들 도일을 통해 전해진
다. 도일의 외삼촌 조중려는 밤과 낮으로 끊임없
이 책을 읽었는데, 어머니 한양 조씨는 겨우 7, 8세
나이에 그 곁에 있으면서 글자를 물었다. 그러나 여
자란 문자를 깨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꾸짖으며 말



해 주지 않았는데, 몰래 알아차려 암송 할 수 있었으니 집안사람은 모두가 기특하게 여겼다한다.

시험 삼아 『사략史略』을 가르쳐주자 춘추전국시대를 벗어난 역사에 대해서까지도 익혀 나갔다. 그 나머지에 대해선 가르쳐 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막히는 곳이 없었다. 14, 15세 때에 외갓집에 가서 여러 외삼촌들과 더불어 시를 읊었는데, 단연 빼어났다고 전한다.

도일의 할아버지 추탄공은 항상 며느리 한양 조씨를 칭찬하며 남에게 말하기를 “우리 며느리는 사군자士君子로다”라고 했다한다. 남편 달천이 여러 고을의 원님을 역임했는데, 거쳐 갔던 고을의 관속이나 여종들까지도 반드시 매우 조씨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잊지를 못했다 한다. 부인의 성격이나 기질이 화평했고, 사람을 대접하되 귀천이 없게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나이 40에 충청도 어느 고을 현령이었던 남편 달천이 병을 얻어 세상을 뜨니, 생활이 어려웠던 모양이다. 한양 조씨가 살던 시기는 나라 사정이 어지러운 때였다. 특히 현종 8년(1667) 봄에 오래도록 가뭄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졌다. 평소 역사책을 좋아해 동서고금의 역사에도 밝았지만 시국의 어려움을 근심하고 나아가 잘잘못에 대해 분개하는 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사회적 발언은 아니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한편의 시에 담아 남겼다. 『기민탄飢民歎』이란 시다.

곡식 값이 금값처럼 비싸구나
불쌍한 백성들 누구에게 의지하리.
벼슬하는 선비들 조정에 가득하나
시국 풀 재주는 왜 그리 부족한가.
어리석은 아낙네 헤아림이 어긋나는지

안민의 계책 보지 못한다오.
깊은 밤에 이런 생각하다 보던
탄식하다 펜스레 울음소리 삼킨다네.

穀價貴如金, 蒼生竟何賴.
士類盈朝廷, 豈乏匡時才.
遇婦錯料事, 不見安民策
中夜念及此, 歎息空吞聲.

무능한 조정에 대한 질타와 분노가 숨김없이 배어난다. 조씨 부인은 각기병으로 61세의 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비록 시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 수는 없었지만 현모양처로서의 도리를 다하면서도 고명한 식견과 함께 뛰어난 시문으로 세상을 논했던 운둔문사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싶다.

아름다운 마음씨로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내고 지극한 효성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갖고 조용히 펼쳤던 한양 조씨 부인. 그야말로 그 시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여인상이 아닐까.

그를 만나보고자 한다면, 오산소골 세장지를 가보라.

이동면 천리 샘골

한천 이재선생의 곳곳한 기상 면면히 흘러

조선 후기 유생들이 물려들어

인생에 부침浮沈이 있듯 마을도 마찬가지다. 마을의 흥망성쇠는 시대흐름과 다양한 우연적 계기를 통해서도 갈리게 된다. 이동면에서 가장 빠르게 변모하는 천리 샘골. 이 마을의 변천사는 사람과 시대 흐름,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가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기록과 금석문을 통해 샘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 숙종~영조 조에 살았던 한 인물을 통해서다. 그는 다름 아닌 한천寒泉 이재(1680~1746)다. 고향인 한천,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한때 살았던 지명을 각각 따서, 한천과 도암陶菴이란 두 개의 호를 가졌던 이재. 그는 성균관 대사성과 대제학을 역임한 조선 후기 성리학계의 대가이자, 기호학파의 거두였다. 그런 그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출사 후 사가독서賜假讀書 했던 마을이 '용인현 천곡泉谷'이었다. 후일 모든 관직을



이동면 천리 샘골. 이동면의 새로운 중심지로 확장 일로에 있다. 옛 상동촌 지역의 중심이기도 하다.

떠나 은거하면서 후학을 길러냈던 곳이기도 했으니, 천곡, 즉 샘골은 그의 흔이 깊이 서린 마을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학자와 깊은 시골마을 샘골 사이의 인연. 이로 말미암아 샘골은 자랑스럽게도 역사 기록과 금석문에 등장하게 됐다. 아울러 마을변화에도 많은 영향이 미쳤음은 물론이다. 작은 아버지 귀락당歸樂堂 이만성(1659~1722)에게 수학하고 김창협(金昌協)의 문하에서 정암 조광조와 율곡 이이를 사숙한 그는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문벌을 형성했다.

당대의 석학에게 배우고 출사하는 것이 사대부에게 큰 영예였던 당시다. 당연히 그가 거거했던 샘골로 전국 유생들이 몰려들었다.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헌도 있다.

『대구 지방 월촌의 재지사족在地士族 이었던 우재악(1734~1814, 호는 인촌)은 기호지방에까지 가서 당대의 석유碩儒인 도암 이재에게 배우고 석문 윤봉오 등 노론의 명가들과도 교류하였다. (사학연구 제68호, 김현영 논문 88쪽)』

어디 대구 유생 우재악 뿐이었겠는가. 원삼면 고초골에 묘소가 있고 큰 벼슬을 했던 조중회를 비롯한 저명한 백여 명이 그의 문인 명단에 올라 있음을 볼 때, 유생들로 북적이는 마을 모습을 역사적 상상력으로 그려볼 수 있다. 더구나 사후 그를 기리는 한천서원이 순조2년(1802)에 서울과 지방 사림들의 청으로 세워졌으며 임금은 친히 ‘한천寒泉’이라 사액했다.

배향과 수학의 장소였던 한천서원이 세워지면서 더욱 큰 마을로 변모했음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은 유력 사족의 등장으로 마을 성씨 구성과 세력관계의 변화를 불러왔다. 샘골은 본래 평택 임씨平澤 林氏와 충주 지씨忠州 池氏가 수백 년 이상 살아 오던 곳이다. 임씨들은 고생골(골샘골)과 당골을 중심으로 세거했다. 지씨는 주

로 구수동 맞은편인 메나골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다가 우봉 이씨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노곡, 즉 지금의 노루실을 중심으로 음택을 썼던 이들이 절골과 고생골 명당자리까지 차지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선생에 이르러 그가 공부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독서대가 자리 잡은 것도 고생골 끝머리였다. 당대 명문세가인지라 임씨들은 부득이 깊은 골에서 나와 삶터를 옮겨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 샘골의 대성^{大姓}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몇몇 집안도 한천서원과 연관된 학맥으로 샘골의 일원이 된다. 고삼면 월향리 쌍령에서 약 250여 년 전에 이주한 청주 한씨^{淸州韓氏} 입향조이신 한정하도 유생으로 들어와 아예 터를 잡은 경우다. 한달용(59) 전 마을 이장이 그의 8세손이다. 구수동을 중심으로 세거하고 있는 동래정씨 또한 마찬가지다.

이처럼 이제선생으로 대표되는 명현의 거주와 그의 학문적 후광에 힘입어 세워진 한천서원을 중심으로 팽창한 샘골 마을. 외양의 확대와 다양한 계층이 마을을 이루면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또 하나있다. 공간구조의 변화다. 이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소지명을 통해 확인해 보자. 전나무와 플라타너스 군락으로 제법 운치 있는 용천초교 남쪽 담장을 끼고 돌다보면 대한성공회교회로 향하게 된다.

그 앞을 옛사람들은 '입문 안 자리'라 불렀다. 바로 주민들이 '한천서원 터'라 여기는 곳이다. '입문^{入門}'은 아마도 일반민과 사족들 사이의 주거공간을 나누는 경계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명현을 제사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인재를 키워내던 공간임을 생각해 볼 때 아무나 드나드는 장소는 아니었을 터이다. 입문은 '이문^{里門}'의 변음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문이란 분가한 일가들이 모여 사는 공간의 큰 대문 구실을 했던 것임에 비추어볼 때 그 역시 큰 주거지임을 확인해주는 지명이다. 주민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샘골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공간구조

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재 선생을 정점으로 한 유력 재지사족이 터를 잡으면서 골샘골과 당골, 매나골 등에서 살던 토착민들은 신작로를 중심으로 한 주막거리 쪽으로 밀려났을 것이다. 대신 그곳은 주로 묘터나 공부하는 장소로 쓰이게 된다. 또 산자락에 접한 배산형背山形 안락한 공간은 사대부들의 저택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 한천서원이 나중 글방형태로 남아 있었던 대한성공회 자리와 ‘아흔 아홉 칸’ 고택이 있었다는 연모골 주변은 마을 안쪽에 해당한다. 천리 748-1번지로 지금은 로얄빌라 일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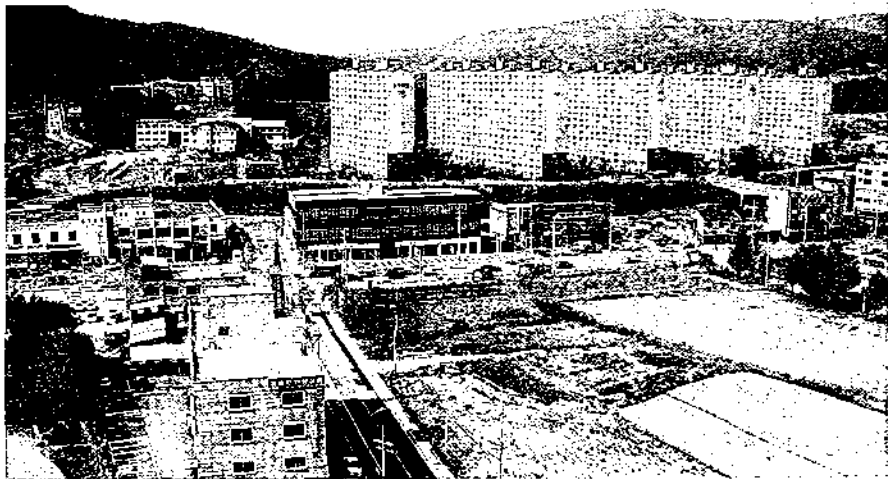


옛날 우봉이씨를 중심으로 담안 내에 있는 한천 터. 지금은 교회 자리로 변했다.

서원철폐와 임진장마로 쇠락 길 걸기도

한 때 인구가 3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던 샘골도 침체가 있었다. 이는 완만하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계기는 서원철폐다. 한천서원이 대원군의 섭정시인 1865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없어지자, 근거지를 잃은 사람들이 일부 흩어져 버렸다.

용인우체국장을 역임한 고 이민영 선생의 기록에 따르면 “철폐 대상으로는 대로변과 민폐가 심한 곳을 우선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한천서원이 그 대상이 된 것은 ‘이몽동이’ 이라는 별호를 가진 문중어른 중 한 분이 몽리가 대단하여 그로 인



아파트 단지와 상가건물이 들어서면서 농촌의 색깔은 점점 지워지고 있다.

해 철폐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쓰고 있다.

또 하나는 자연재해다. 일제 지배 중반기에 들어가던 때인 임술년(1922년) 대홍수로 인해 하천 인근에 살던 절반가량의 집들이 쓸려 버렸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할 수 없이 살 길을 찾아 마을을 떠나야 했다.

다른 이유는 우봉이씨의 집단 이주다. 대지주이자 재지시족으로서 권세를 유지하던 이들이 해방 후 을사오적 이완용의 혈족이라는 이유로 금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다. 그런 가운데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권아래서 시행된 토지분배사업은 절대 다량의 농지를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또 다른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실제 1960년대 이후 이들을 샘골 마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마을의 새로운 변화는 새마을·재건운동과 함께 찾아왔다. 1960년대 중반 박대통령 시절, 김일주씨가 주도하는 전국농촌문화연구회라는 단체가 나서 대학생들을 통해 농촌봉사활동을 벌이던 중 샘골을 찾았다. 이들은 한편으로 농촌 실태조

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는 마을의 현주소를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됐다. 너른 들판이 없었던 샘골은 농가 소득에 의존했던 당시로선 잘 사는 마을일 수 없었다. 가구당 농지가 500평도 안 되었다. 전국에서도 가난한 마을인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국토재건이라는 사명감으로 마을 주민들을 돕던 연구회 직원과 학생들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방향을 찾았다. 결론은 산업시설 유치였다. 수도권에 인접해 교통 여건이 좋고 노동력도 풍부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당시 지역 유지들이 공장 유치에 나섰다. 그 성과는 컸다. 누에고치 집에서 실을 추출해 생산하던 한남제사(현 대영화성 터)에 이어 접착제인 아교를 생산하던 산교실업(현 국일제지 터)이 들어섰다. 한국연합통상(현 유호산업 터), 성림제지 등이 잇달아 마을에 공장을 세웠다. 그 결정판은 (주)일화였다. 통일교 계열의 회사였던 (주)일화는 1978년에 입주해 맥콜이란 브랜드로 당시 음료시장을 석권했다. 물론 대부분 수질 오염물질 배출 등 심각한 공해산업이었다. 그로 인해 지금껏 하천이 회복되지 못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당시론 살길이라는 판단이 앞섰던 모양이다.

(주)일화 유치와 관련해선 지금껏 전해지는 얘기가 있다. 하루는 통일교 문선명 교주와 실력자 박보희씨가 새벽녘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현재 신미주 아파트가 들어선 그 터는 때골이라 불리던 곳이다. 앞산에 올라 지형을 살피던 문씨가 쉽게 결론을 내렸다. “소 배고래 자리군. 좋으니 바로 사들여.”

이곳 지명은 맨 북쪽으로 불당골, 소턱골, 때골, 덕성리 대방골로 이어진다. 이를 풍수적으로 풀어보면 소의 가마자리가 불당골이다. 소턱골이란 지명이 아래로 있다. 대방골은 소꼬리에 해당했다. 그 사이에 때골이 있었으니, 소의 배 고래였던 셈이다. 배 고래가 두둑하게 일화가 돈을 벌었고, 소꼬리 대방골에는 진주 소씨가 세거하고 있으니, 이를 두고 ‘예언(豫言)지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튼

때꿀을 소 배고래 자리라고 척 알아봤던 문씨를 두고 풍수에도 능했던가 보다는 뒷얘기가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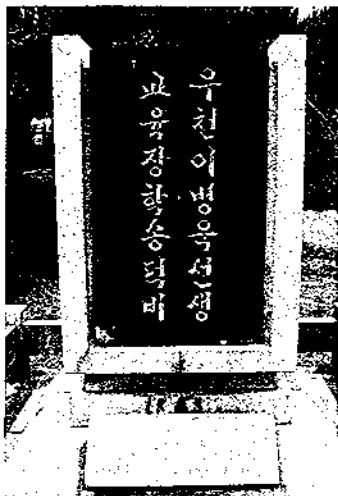
한천서원 이은 교육의 중심지

28만평 부지에 한 때 700여명의 직원이 일했던 일화 입주는 가난한 샘골을 크게 변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인구는 매년 1개리꼴가 늘어날 정도가 됐다. 큰길 도로를 중심으로 현대식 상가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물론 지가도 치솟았다. 그런 측면에서 샘골마을은 산업화 과정에서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인접 자연마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본보기에 해당한다.

샘골이 이동면 상동촌 지역의 중심이 됐던 것은 교육기관도 크게 한 몫 했다. 지금은 초등학교가 추가로 신설되고 중학교까지 생겼지만, 용천초교는

이곳 지역 공동체의 구심역할을 해왔다. 이는 이제 선생의 후예인 우천^{又泉} 이병욱(1866~1972)의 공이 크다. 우천은 일제 때 세운 적동 간이학교가 초등학교로 승격했으나 부지가 없어 어려움이 처하자, 현 교지 총 5560평 가운데 3885평의 옥토를 회사했다. 1947년 충남 대천으로 이주했지만 그는 유언으로 “나중에 사신이나마 학교를 들렀다가 가도록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육영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밭에 곡식을 심었더니 곡식밖에 나질 않아 이번에는 사람을 심어 가꾸어보려고 이 옥토를 학교 부지로 내 놓는다.” 는 말은 지금도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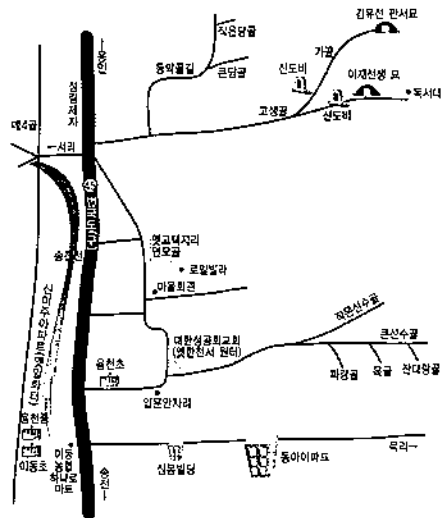
용천초등학교
설립자인 우천
又泉 이병욱
(1866~1972)
송덕비.



또 하나 중요한 교육기관이 있었으니, 재건중학교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전인 60년대 중반, 재건 운동이 활발한 때였다. 당시 시골은 가난으로 인해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때 재건국민운동본부가 나서 재건중학교를 육성했다. 2년 과정으로 수료증을 주었지만, 정식 학력 인정은 안됐다. 하지만 무료인데다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자원봉사 교사들은 열심히 지도했다. 현 마을회관 자리에 문을 연 것이 1967년, 첫해에만 무려 15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만큼 가난해도 배움의 갈증은 컸다. 10여 년간 유지됐던 재건중학교는 나라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대부분 정상적인 중학교 진학이 가능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다. 즉 발전적 해체인 셈이다.

김장호씨가 주도했던 재건중학교는 약 600여명이 수료했으며, 교사만 해도 50여명이 거쳐 간 의미 있는 교육운동이었다. 당시 이곳을 수료한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금도 보게 된다. 아울러 당시 재학생들이 초교 운동회 날 벌이는 가장행렬 우정출연은 가장 큰 볼거리로 필자에게도 기억되고 있다.

한천 이재 선생이 고생골에서 과거 길에 오르던 중 밭 귀퉁이 박우물을 떠 마시고 지었다는 지명, 샘골. 빈곤한 농촌에서 산업지대로, 이제는 다시 아파트가 즐비한 주거 밀집지역으로 또 한 번 탈바꿈하고 있다. 비록 외양은 이처럼 변해가지만, 마을 구석구석에 서린 이재선생의 곳곳한 기상과 정신은 마을의 자부심으로 줄곧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동면 서리 상덕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부동 일귀

“여북했으면 서리 하반 사람들이 남사면 완장리에 자꾸 땅을 사놓으니까,” “서리 고구마 넝쿨이 여기까지 뻗어 나와 큰일 났다” 고 했을 정도였잖어.”

서리하면 근면성이 떠오른다. 그리고 근면성의 상징은 고구마 짝으로 연상된다. 함박산과 부아산이 감싸고 있는 마을은 기름진 농토 없이 협곡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 탓일까. 주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농작물로 소득을 올린다. 한 사람이 성공하면 온 마을 주민들이 그 농작물로 집중한다.

특히 고구마 짝은 용인장에서 이 마을을 상징하는 농산품이었다. 고구마 짝을



이동면 서리 상덕 일부 모습.

팔려 나온 사람들은 일단 서리사람으로 인식됐을 정도다. 서리농촌 부흥사에 다름없는 소득작물 변천사가 재미있다. 먼저 일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느 농촌이 전답농사가 전부인양 생각하던 시절, 주민 장규원(1904~1967)씨가 있었다. 그는 우연한 계기로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들여와 심기 시작했다. 감자는 뿌리인 감자를 심어야 싹이 나고 감자알이 주렁주렁 달리지만, 고구마는 줄기를 심어 뿌리를 생산한다. 고구마가 겨우내 우리들의 간식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론 주식거리로 까지 등장하기 했던 배고픈 60년대. 싹을 띄워 줄기를 생산하고 이를 묶어 시장에 내다 팔아 톡톡히 재미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 작물이 오래 갈 수 없었다. 주민들은 또 다른 소득 작물을 가지고 시장에 나왔다. '가시오이'로 불리는 거였다. 재래 오이만 보아오던 사람들은 가시오이가 낫설긴 했지만, 지게다리에 가로 걸칠 정도로 긴 오이는 대량 소비를 하는 식당 등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가무랑골에 살던 김규식씨가 직파에 성공하면서 전 주민에게 전파된 소득 작물이었다. 당시 한 접만 팔아도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고소득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70년대를 넘어 80년대에 접어들었다. 농촌은 비닐하우스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계절에 상관없이 사철 농작물을 출하할 수 있는 이 시설재배 농사법은, 오이 재배를 서서히 사양길로 몰아냈다. 그러나 역시 서리사람들은 재빨랐다. 그들이 찾아낸 소득작물은 '표고버섯'이었다. 88년 처음 시작한 장광상(51)씨가 산판일을 하던 중 흔한 참나무를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를 착안했다. 종균을 사다 재배한 이후 성공을 거두자 94년부터 여러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때마침 UR파동을 겪으면서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을 적극 권장하던 농촌지도소 등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 기술지도 및 자금지원까지 받았다.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엔 산에서 나무 그늘을 이용해 재배했지만 새로운 방법을 썼다.



오지였던 마을은 터널이 뚫리면서 용인과 맞닿아 있다.

차광막을 이용해 햇볕을 가리고 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으론 비닐을 친다. 이렇게 하니 까 산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수량도 많고 상품가치도 높아졌다. 시설재배 작목반이 묶여져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니, 시장성이 매우 높아 수출까지 하게 됐다. 이처럼 서리 농민들의 새로운 도전은 중단이 없다.

오지서 교통요지로 변한 장씨촌

이처럼 부지런하고 강인한 주민들의 특성은 환경 영향도 적지 않았다. 산으로 두루 막힌 마을은 북쪽이 감나무가 잘되고, 산길을 통해서나 외부로 연결됐던 오지였다. 그러다가 신선한 채소를 내다 팔기 위해 새벽녘에 넘나들었던 학교개가 용인대학교 옆으로 큰 길이 뚫이고 터널이 뚫리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다. 덕골德谷이란 지명에서 보여지 듯 큰 골짜기였던 마을은 이제 낚시와 전원형 식당을 선호하는 시민들로 붐비는 마을이 되었다.

본래 길게 늘어진 마을은 골짜기마다 성씨별 소촌을 형성했다. 저수지 위편, 현 코리아 골프장이 들어선 곳이 가물랑골(감나무골)과 새터다. 이 일대 골짜기는 깊고 숲이 무성해 대낮에도 컴컴할 지경이었는데, 경주 김씨慶州 金氏를 중심으로 열댓 가구가 살았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모두 이주한 상태다. 새터는

새로 생긴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경주 이씨(慶州 李氏)가 많았지만 역시 민가는 거의 없어졌다. 저수지 밑으론 주로 단양 장씨(丹陽 張氏)가 많이 살았다. 현재까지 20여 호가 남아 여전히 대성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여주 강천면에 살았는데, 전염병이 돌자 그곳을 빠져 나와 천리 노루실을 거쳐 서리에 정착한 것이 대략 3백 년 전이다. 마을 중간쯤에 위치한 곳은 윗말이다. 동네의 세거리에서 만나는 지점 서편이 안 터다. 마을 회관 아래로 동편에 낮고 아늑하게 자리잡은 곳이 새터말(신기촌)이고, 서편으로 높직하게 터를 잡은 곳이 구석말로 불리다.

한국 도자 발상지이자 박물관

서리라는 지명이 용인 관내에서 앞서기는 소독작물로 유명하다면, 더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도자요지와 관련이 있다. 서리 저수지 위편 새터 일대에서 도 조선시대 백자요지 터를 비롯해 곳곳에서 가마흔적은 발견된다. 그러나 세계적인 가마요지로 알려진 곳은 중덕마을과 경계지점에 있는 고려백자 요지 터다. 그 중요성으로 인해 사적 329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높은 둔덕에 도자편이 널브러져 있어, 지나가던 이들이 가끔 쓸 만한 도기나 자기를 들고 가던 요지 터. 그 곳이 이처럼 세계가 흥분하는 관심지역이 될 거라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1930년대 한 일본인이 발견한 이래, 1960년대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의해 마침내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도자사적 의미와 진가가 본격적으로 확인된 것은 김제열 호암미술관 부관장 등이 주도한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 의해서였다.

밝혀진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9~10세기 경, 이미 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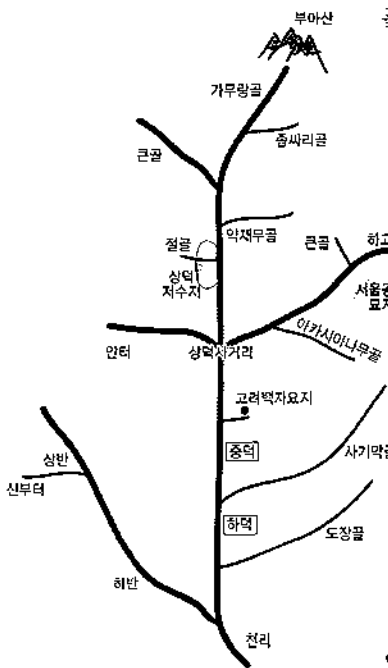
를 본격적으로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요지였다. 별 실감이 나지 않은 말이지만, 일본이나 유럽에서 백자가 17세기 이후에나 만들어진 점을 비교하면 느낌은 달라진다. 도자기는 우리의 일상 생활용기인 그릇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릇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세계였으니, 비꾸어 말하면 문화수준의 척도였던 셈이다. 그런데 서리요지는 중국 당대(唐代) 자기와 같은 수준에서 1천여 년 전에 수준 높은 백자를 생산하고 있었으니, 흥분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규모였다. 83m에 이르는 대형 진흙가마 유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대한 규모였다. 고려 초기 요업의 높은 수준을 한 눈에 설명할 수 있는 유적이었던 것이다. 또 전문가들의 고민을 많이

풀어주기도 했다. 그간 가마 구조의 변천이나, 퇴적층에 의한 발전과정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 도자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 셈이다. 거대하게 형성된 능선은 끊임없이 실험을 거듭한 파편이 쌓인 것이었고, 가마유구는 들가마 → 벽돌가마 → 진흙가마로 이어지는 기술상의 발전 또는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다. 서리를 비롯한 이동면 목리, 남사면 완장리, 중동 등 주변에는 조선시대 말까지의 요지들이 산재해 있어, 우리나라 도자기 산업이 용인에서 줄곧 진화해 갔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쯤해서 궁금증 하나가 더 생긴다. 왜 용인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답은 전문가들조차 시





한국 도자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리 고려백자 요지. 사적 329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상덕에서 중덕으로 넘어가는 경계 즈음에 있다. <용인문화재총람-사진자료>



상덕 저수지. 시내에서 가까워 사람들이 몰린다.

원하게 내놓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세기 초엽이면 당시는 통일신라 왕권이 무너지고, 호족들의 다툼을 거쳐 고려왕조를 건설해 나가는 그 즈음이었다. 그런데 생산된 청자를 사용할 만한 수요층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인지를 풀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역 토성 세력이나 호족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 초에는 왕규(王規) 같은 경기 광주지역의 큰 호족이 서리 백자 요를 관할하거나 적어도 주된 소비계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차 서리 백자 가마에 대한 호족들의 영향력이 조정의 지방통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나아가 품질의 질 저하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자사가 아닌 향토사적 측면에서는 당시 주민들의 구성 상태와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하다. 이 일대가 한 때 처인부곡으로 있었고, 일정 특수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도자 생산을 위해서 도토(陶土)를 구하는 일과 유약원료와 많은 장작을 채취하는 역할 등을 하면서 전문 도공

을 돕는 역할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또 이는 요역(要役)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란 추측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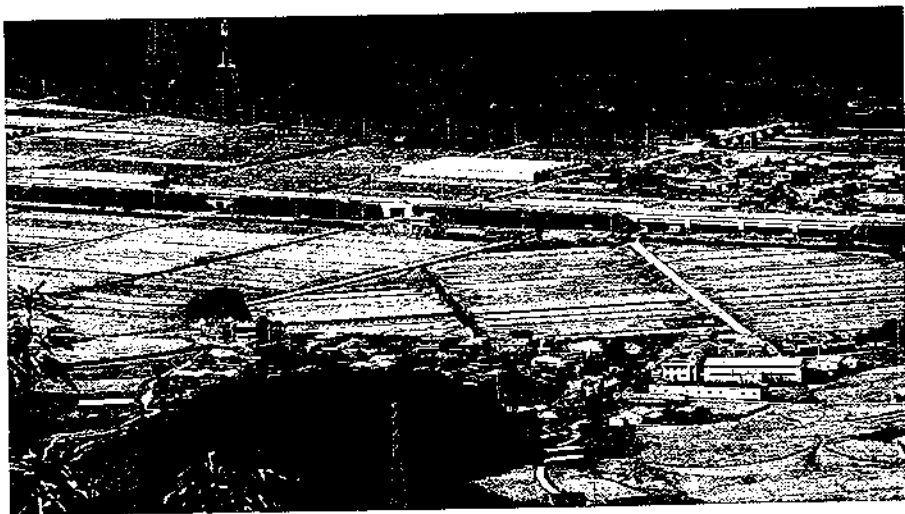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학술적 영역의 도자사 측면에서는 서리의 위치가 확고하다. 문제는 지금 어느 누구도 용인을 도자기의 도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천, 여주, 광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제부터는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용인이 도자산업의 실질적인 메카로 부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이동면 시미리 남진말

만추에 익어가는 고풍古風의 마을

최근 박영숙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이 쓴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의 책 첫머리를 보며 크게 공감한 대목이 있었다. 8년 전 수지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덤프트럭이 꼬리를 물고, 해가 지면 불빛 하나 없이 째깍한 두 얼굴을 가진 곳이었다.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며 “우리 동네에도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다고 했다.

물론 많은 맘을 쏟은 끝에 그 꿈은 “뽀뽀한 아파트 숲에 느티나무 한 그루!” 즉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뤄졌다. 박 관장에게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꿈이요, 생명이



삼봉산에서 내려다 본 마을 전경. 가까이 있는 쪽이 남진말.



들관 앞에서 본 마을모습.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다

요, 함께 하는 나눔이요, 정서적 밀바탕이었으리라. 그렇기에 나는 공감했던 것이다.

가수 양희은이 부른 '느티나무' 라는 곡이 있다.

“내가 어렸을 적 나 살던 동네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 있었지. 넉넉한 너의 그늘 아래서 나는 아무 걱정 없었는데, 많은 세월 가고 내 모습 변하고 이제 서러운 도시 속에서 헤매이다 사랑도 떠나고 울다 지킨 지친 날 꿈속에서 너를 만났네...”

나는 이 노래를 즐겨 들으며 혼자 흥얼거리기도 한다. 그 때 늘 떠오르는 것이 있었으니, 고향 개울둑에 홀로 서 있는 느티나무였다. 이처럼 느티나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의 출발이자 지친 육신의 마지막 안식처 같은 존재다. 그리고 수백 년 마을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기도 하다.

남진말 앞뜰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바로 느티나무다. 수백 년 됴직한 두 그루가 버티고 서있다. 본래 상진말에 있던 것을 6~70여 년 전, 온 주민들이 캐내어 목도를 해서 지금의 자리로 옮긴 것이다. 이를 '쌍괴雙槐'라

고 부르는데, 남진말이란 마을 이름 대신 '쌍괴'로 통하기도 하니, 제대로 대접을 받는 나무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연산군 때 이효자가 시묘살이를 하여 시묘골, 시묘동으로 불리다가 세때배기, 비룡동, 쌍괴정과 통합하여 시미리가 됐다. 남진말은 그 남쪽에 있다하여 지어진 지명이라는 것인데, 상진말과 남진말 등의 이름이 남아있는 보아, 일리 있어 보인다. 다만 진말을 두고는 어원 해석이 갈리고 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물길을 돌리기 전만해도 이 마을 중간으로 내뿜가 흘렀다 한다. 그럼으로 늘 질척했던 데서 연유한다는 해석이다. '질다'는 '길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골이 긴' 마을이란 뜻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뿜들 어찌랴. 남진말은 훌륭한 인물도 많이 배출됐고 인근에서도 중심이다. 또한 넉넉한 인심을 가진 마을이니, 사람이 살만한 '진말眞村' 임은 틀림없다.

마을을 이루는 성씨들

귀밀 들로 불리는 마을 앞 들판은 시원스레 뿜려 있고 드넓다. 이동면 내에선 가장 너른 들로 덕성리와 시미리 그리고 송전리에 이르기까지 45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펼쳐져 있다. 가을걷이가 일추 끝나가는 들녘엔 어느새 출렁이던 황금색 풍성함보단 대지를 어루만지듯 쓸고 지나가는 바람과 함께 누룩한 황량감이 더하다. 콤팩인 기계로 벼 베기를 하면서 추수를 마친 다음 논배미의 풍경은 많이 변했다.

늦가을을 상징하던 차곡차곡 모양 좋게 쌓아 놓은 벼짚가리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 벼짚의 용도가 많았던 농경사회. 땀감과 초가지붕 이엉으로 그리고 겨우내 소먹이 등 다용도로 쓰였던 벼짚이지만 눈에 그대로 뿌려져 거름이 되는 것이외엔 별로 쓰임새가 없는 것이 요즘이다.

여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누대에 걸쳐 농민으로 살아왔던 이곳 주민들의 운명은 몇 차례 바뀌어왔다.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때까지만 해도 소작을 하던 대개 주민들의 삶은 팍팍했다. 그나마 유상분배일지언정 토지분배가 되면서 농지를 마련해 그만그만하게 살게 될 때는 타 동리에 비해 부자마을이란 소릴 들었다. 지금 전업으로 농사일을 하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 80여 가구 중 대부분이 주변 공장이나 막노동물 나가는 겸업이고 소수만이 전업농이다. 노인층이 많은 것은 대개의 농촌과 다를 바 없다.

예부터 터를 잡은 성씨는 백천 조씨白川 趙氏로 알려지고 있다. 쌍피 동북쪽 골짜기인 안악골에 집성해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떠나고 단 한집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는 광주 이씨廣州 李氏다. 현재 이정순(72)씨가 입향조 이진영의 11세손이니, 300년은 족히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 김씨도 비슷한 시기에 마을에 입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향 시기는 늦었지만 한 시절 이 일대 농토를 많이 소유하고 영향력을 미쳤던 집안이 청송 심씨靑松 沈氏다. 참봉 심운탁沈雲億이 오산에서 이주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또 한 집안이 있으니, 함열 남궁南宮씨다.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후예다. 남궁씨는 본래 경기도 광주 땅에 살았다. 그런데 남궁 전 장관의 조부가 1894년 동학혁명에 가담, 진주성 전투에서 부상으로 세상을 떠난 후, 집까지 관군에 의해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의 조모가 야음을 틔타 가족을 이끌고 이동면 화산리 보리피(표산골)에서 임시로 터를 잡았다. 남궁 전 장관은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남진말에 이사 와 정착했다. 그 밖에는 각성바지다.

마을을 둘러보면 예사롭지 않은 인물들의 묘가 눈에 띈다. 그 중 하나는 여흥민씨 민규호閔奎鎬(1836~1878)다. 한말 최고의 세력가였던 민치호의 아들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하게 되자, 예조판서·이조판서·무위영도총제

역임하면서 민씨 일파의 대표격으로 국정을 거의 도맡았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영의정에 임명된 지 7일 만에 죽어 이곳에 묻혔다. 상진말 좌편 언덕에서 귀밑뜰이 내려다보이는 뒷동산에 유택이 있었는데, 최근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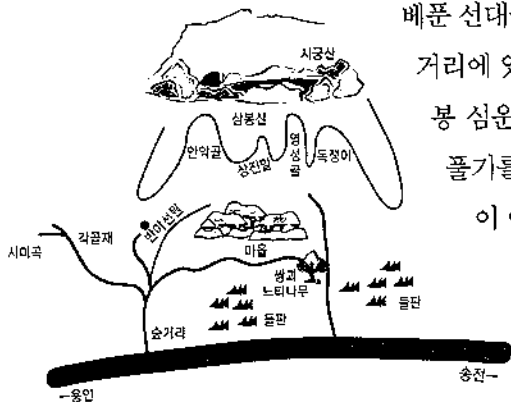
몇 해 전 이곳을 찾았을 때는 무성한 덩굴로 인해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비석도 없고 산양석 한기까지 도난당한 채 상석 앞면에는 '우의정 충헌여흥민공 규호 지묘'라는 음각된 글씨만이 그 임을 알 수 있었다.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사연 안은 소지명과 마을의 전통

멀찍이 사공산을 두고 마을 북동 편으로 앉아 있는 삼봉산 자락은 마을 뒤를 어름어름 감싸고 있다. 그 밑으로 형성된 작은 산 툽툽이 골짜기가 많다. 맨 북쪽이 안 터다. 마을 뒤에 있는 저수지로 올라가면서 자그마한 동산이 등글게 감싸고 앉아 있는 터라 그리 불린다. 저수지 바로 턱 밑은 안악골이다. 그리고 남쪽으로 상진말과 영성골이 차례로 있다.

북쪽 신작로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어귀는 비석거리로 불린다. 이 마을에 덕을 베푼 선대들의 송덕비가 이곳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비석 거리에 있는 3기의 비석 중 지금은 1기만이 남아있다. 참봉 심운탁의 선행을 기리는 비다. 일제 강점기간 중 벼 풀가를 즐겨하여 이웃을 많이 구제하였으므로 동민들이 이를 칭송하여 1928년에 불망비를 세웠다 한다.

서로 힘을 모아 당김으로써 대동단결을 꾀하고 동시에 일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던 줄다리기는 이 마을의 전통이었다. 잠시 끊겼던





심택유 고가(古家)의 모습. 전통 건축미의 극치라 할만하다.

줄다리를 다시 시작한 것은 지난 70년대 후반이다. 마을 동북 편으로 우뚝 솟은 삼봉산 주봉에 헬리포트를 만들던 그 해부터 이상스레 젊고 건장했던 40대 중년들이 해마다 죽어갔다. 급기야 주민들은 흥사를 막을 방도를 논의하다 중단했던 줄다리를 다시 잇기로 했다. 이웃마을에서 풍물패 12마당이 들어올 정도로 대규모의 대동축제였는데, 그마저도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나니, 어물어물 사라지고 말았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남진말은 골짜기마다 사연이 있고 큰 인물로 이어지는 기풍있는 마을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하나있다.

심택유 고가(古家)의 또 다른 세계

예전에 천석지기를 했다는 청송심씨 덕은 한옥의 멋과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



추사 김정희 글씨 편액.

는 공간이다.

마을의 심씨 입향조 참봉 심운탁의 손자인 심택유(82)옹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택은 사랑채와 행랑채 등 대가의 부속공간은 없어지고 안채만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구조와 각 공간은 전통한옥의 질서를 그대로 따랐고, 소장된 물품들은 거의 제 자릴 지키고 있으니, 귀한 마을의 보물에 다를 아니다.

‘ㄱ’자형인 안채는 기단을 쌓아 빗물이 안채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위엄을 갖춘 모습이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처마가 자연스럽게 솟아올라 곡선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곡선미는 용마루도 마찬가지여서 자연스러운 멋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 모든 자재를 자연목으로 사용했다는 이 한옥은 뜰에 올라서 보니, 나무를 엮듯 가로놓인 우물마루가 일반농가의 그것과는 다르다. 홀집이라 대청마루에 앉아서 문만 열면 뒷산에서 부는 바람이 그대로 앞마당으로 통하면서 시원하다 못해 서늘할 지경이 된다. 겨울이면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청마루 문을 해 달았다 한다.

대청은 살림공간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뒤주다. 느티나무 통판으로 짠 뒤주로서 요즘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다. 귀중한 쌀을 보관하는 뒤주를 서늘한 마루에 두어 신선하고 오래도록 보관하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엿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유품이 있으니, 2개의 편액(扁額)이다. 집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이것은 관내에선 보기 드문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탁본해 편액으로 제작, 안채에 걸어놓은 것이다. '遊天戲海 (하늘을 날고 바다를 회롱한다)' 그리고 '清明在躬(맑고 깨끗한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있다)'. 도대체 무슨 소릴까. 언뜻 보면 다른 말이면서

도 통하는 듯싶다. 사회에 휘말려 오랜 귀양살이를 했던 추사담개 참선을 행하는 구도승마냥, 속세에 초연한 듯한 그의 세계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

아마 대를 이은 이 집 주인들의 삶의 자세가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이 집에 들어서서는 순간, 묘하게도 지지고 부던 거친 세상과는 끊어진 느낌이 들었다. 아마 이 완벽한 공간의 조화가 주는 새로운 기운이 아닌가 싶다. 아, 역시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만이 아니구나. 새삼 깨닫는 바다.

마을을 돌아 다시 어귀에 이르니, 고향과 느티나무 아래 돌독의 추억을 그리는 한 출향인의 짙은 흔적이 눈에 띈다. 야송 안병한(70)의 시비다.

- 돌독에서 들을 바라보며 -

구미뜰 봄바람에 복사꽃 피는 마을 / 한가히 구름 지나는 돌뜰이로다.

황금물결 파도치는 한 폭의 그림인데 / 여기서 무슨 일로 성채를 다투겠는가.



마을 느티나무 아래 돌독에 시비를 세우고 이 마을 출신 남궁석 전 장관과 안병한 선생 등이 함께 한 사진.

이동면 묘봉리 상리

보리타작 소리에 넘쳐나는 대동의 힘

한적한 시골마을 묘봉리에 사람들이 들끓던 때가 있었다. 특히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김대중 민주당 후보가 당선 된 후 특히 심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은 검은 고급자가용 뿐만 아니라 대절 버스도 있었다. 계층과 사는 곳은 관계없었다는 얘기가. 이들이 보고자 했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친 등 일부 가족과 선대가 모셔진 산소자리였다. 김 전 대통령이 대선 2년 전인 1995년, 고향 하의도 선산에서 이곳으로 이장移葬한 후 마침내 대권에 성공했으나 관심을 끌만도



묘봉리 상리 전경. 시궁산 자락이 포근히 감싸고 있다.

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좋은 산소자리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당시 유명 지관 손석우가 잡아주었다고 전해지는 곳은 묘봉리 상리에서 2km쯤 떨어진 갈미봉 줄기다. 사람들 얘기는 좌청룡이 가까이 있어 '금시발복형(今時發福形)'이라서 뜻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더러는 천선하강형(天仙下降形)의 명당이어서 천자(天子)가 날 땅 이었다고도 하는 모양이다.

나도 수년 전 근처에 들렀다가 호기심에 올라가 본적이 있는데, 높은 편인데도 아늑하고 산세가 좋았다. 그러나 발복은 선대가 선덕을 베풀고, 본인 역시 공덕을 쌓은 후, 그 다음이 명당자리라는 선현들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 자신부터 열심히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요즘도 이곳에는 풍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순례코스이자, 공부하는 실습장이란 얘기가 들리니 못 말릴 일이다.

김 전 대통령 선영 이야기를 하다 보니 두 얼굴이 떠오른다. 윤병희 전 용인시장과 김경길 전 민주당 용인지구당 위원장이다. 둘은 바로 이곳 묘역 때문에 운명이 갈린 경우라는 설이 한동안 나돌았다. 전말은 이렇다.

김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선 실패 후 영국에서 돌아와 절치부심, 세 번째 도전을 위해 민주당을 창당했다. 이젠 내 아들한테도 안한 얘기지만, 당시 나는 시국 사건에 연루돼 잠시 수감돼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고 좀 놀랐다. 민주당 전국 조직 중 가장 먼저 용인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고 창당식을 한다는 기사였다. 나중에서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 것은 김 전 위원장과 자주 얘기를 나누면서였다. 그는 김 전 대통령 선영에 대한 정성이 매우 지극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확실했던 셈이다.

다음은 윤병희 시장이다. 그는 97년 대선 직전, 김 전 대통령 선영이 장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선 이를 크게 보도했다. 물론 대선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이며 소속정당의 압력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미

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대선 후 얼마 안 되어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윤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취임도 못하고 사법 처리되는 비운을 겪었다. 정치보복 여부에 상관없이 천하 명당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관심은 이처럼 여전하다. 특히 좋은 묘 자리가 많기로 유명한 용인은 이를 둘러싼 일들이 지역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담삼아 늘어놓았다.

골골이 사연 안은 소지명들

이동면에서 안성으로 넘어가지 전 얼추 꼬트머리가 묘봉리다. 동네를 둘러싼 산들의 봉우리가 토끼모양으로 생겼다하여 묘봉(卯峰)이라 부르기도 하고 동쪽으로 가장 큰 봉이 있어 풍수지리상 동쪽을 뜻하는 묘(卯)자를 따 동봉 즉 묘봉이라 했다는 설도 있다. 그 가운데 상리마을은 묘봉교에서 하리, 새마을, 중리를 거쳐 이른다. 마을 초입에 이르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느티나무 군락이다. 마을 숲이다. 풍수적 비보림(裨補林)의 구실을 하는 동시에 바람도 막아주고 넉넉하게 쉼 곳을 마련해준다. 마을 숲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와 신앙 그리고 후대를 위한 지혜까지도 알 수 있는 곳이기에, 나는 늘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리 초입 길 양편에 두 그루씩 이백여 년 된 윤치 있는 나무가 마치 큰 집의 대문 역할을 한다. 거칠지 않은 산세에 아담한 인상의 이 마을은 대신 깊숙한 골짜기들이 많다. 마을 위로 올라 북쪽이 용추골이다. 이 골짜기에는 논밭이 그나마 있다. 가운데 동쪽 골을 따라 가면 동막골인데 상수도 수원지가 있던 곳이나 91년 대홍수 이후 사용을 못하고 있다. 횃돌뜨기 또는 회가마골이라 불리는 곳으로



마을입구 느티나무 군락. 대문처럼 이늑한 모습으로 드는 이들을 맞이한다.

이전에 석회석을 깨내던 자리가 그 위에 있다.

그리고 한발 더 깊이 들어서면 절골이다. 절터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그 앞에 축대를 쌓았던 흔적은 남아있다. 막돌이 아니라 석공의 손이 간 것이어서 동네 어른들은 이를 보아 오래전 폐사된 것으로 생각한다. 빈대가 기둥을 만들 정도로 많아 불을 질러 없앴다는 얘기가 입으로 전한다.

절골에는 호랑이굴로 불리는 큼지막한 굴이 있다. 일단은 기어서 들어가야 하지만 안에선 서서 다닐 정도인데 사방으로 작은 굴이 퍼져 있다. 전해지는 얘기를 여기서 불을 지피면 미리내 앞산으로 연기가 나온다 한다.

시궁산 산자락을 타고 내리는 완만한 곡선을 닮았음인지 아담하고 정감이 넘치는 마을모습처럼 주민들의 심성은 농경사회 공동체에서 이어져온 이웃 간 따

새로운 인정이 그대로 살아 있다. 마을 위쪽. 냇물이 흐르는 건너편에 굵직한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 그 밑에 두어 평 남짓 되는 정자를 만들어 놓았다. 시원하게 스치는 바람으로 땀을 식히며 한가하게 정담을 나누는 노인들과 더불어 일하던 사람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젊은이도, 거리낌 없이 잠깐 앉아 이런저런 얘기꽃을 피우는 살가운 모습이다. 이를 바라보노라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른다. 이곳에 앉아 들은 얘기다.

1991년 7월 21일. 이 날을 기억 못하는 주민은 없다. 정오경부터 오후 2시까지 단 두어 시간만에 무려 7백㎜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잠기지 않은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이고 가옥 4~5채 전파, 5채가 부분 파손됐다. 논은 아예 못쓰게 돼 버린 곳이 많아 5천여 평은 밭으로 바뀌었다. 노인 한분이 몰살에 휩쓸리는 인명피해도 있었다.

“예년에는 벼를 베면 콤바인 100자루가 나왔는데, 요즘은 단 4자루 밖에 안 나와요.” 당시 김학목(44)씨의 얘기다. 어른 들이 양팔을 벌려도 마주 잡을 수 없었던 들레 3미터 넘는 마을 최고장수 느티나무도 그때 뿌리 채 뽑혀 떠내려갔다.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맛보았던 주민들은 이제 그 아픔도 얼추 잊고 산다.

타맥놀이 전승으로 유명

주민수도 100여명이 안되는 단출한 마을이지만, 근래 들어 공장이 많이 들어서 옛 모습은 점점 잃어간다. 논보단 밭이 많은 이곳. 따라서 예전에는 보리농사가 많았다. 그러한 생산조건은 자연스레 그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 농토가 좁아 예부터 음력 4~5월이면 닥쳤던 ‘보릿고개’는 가장 넘기 힘든 고개였다. 보리를 타작해서 수확을 얻기 전이고 쌀도 떨어져 딱히 주식거리가 없을 시기다. 이

리한 때 보리를 타작하면서 부르는 노동요(勞動謠)가 있었다.

타맥(打麥)놀이이다. 용인에서는 유일하게 이 마을 타맥놀이가 전승되어 지난 1985년에는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서 입선한 경력도 있다.

어허야 어허야 어허야 보리로다 육신육신 보리로다
힘을 주어 후려치세 사정없이 후려보세
이 보리를 다 털어서 나라에도 봉사하고
이 보리를 다 털어서 아침방아로 한번 짚고
저녁방아로 두 번 짚어 세 번 네 번 거듭 짚어
맷돌마다 돌돌 갈아 보릿가루 만들어서
보리개떡 보리죽을 온 식구가 다 먹는다...

타맥놀이 사실 중 일부다. 어느 집 큰 타작마당이 있으면 거기에 모인 마을일꾼들이 이처럼 힘든 노동의 과정을 흥으로 승화시켰다. 민중들의 생활을 기반으로 빚어지는 민속놀이. 힘에 겨운 벽에 부딪혔을 때 해학과 흥을 통해 어려움을 뚫으려는 몸부림이기도 했다. 배고픈 춘궁기에 “보리개떡 보리죽이라도 빨리 실컷 먹어보자”는 기대감이 겹쳐 노동요를 부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다.

용구문화제 등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된 바 있는 이 마을의 타맥놀이도 이젠 구경하기가 쉽진 않을 듯 해 아쉬움이 크다. 우선 사람이 없다. 또 노동의 과정 그 자체를 재현하는 타맥놀이는 보리농사의 퇴조와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향수일 뿐이다. 박제화된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니 문화적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타맥놀이는 우리 농경문화 중 보리작물과 관련한 노동요와 노동과정을 미래세대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



평택 임씨 제실. 조선 인조 때 북벌 공로가 있는 임정(林整)이 마을에 묻혀 있다.

에서 새롭게 부활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

평택임씨 세거했던 인심 좋은 마을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이 마을은 경주 김씨(慶州 金氏), 김해 김씨(金海 金氏), 평택 임씨(平澤 林氏)가 많긴 하나 각 성이 고루 산다. 다만 사패지로 받은 임씨 집안의 땅이 많아 사당과 장중한 묘 등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 묻힌 임정(林整)은 조선 인조 때 북벌의 공로로 잘 알려진 임경업 장군의 7대조다. 마을입구에 있는

신도비와 함께 마을 남쪽 언덕 나지막하게 묘가 있는데, 첫눈에 들어오는 위치다. 그의 묘는 예장(禮葬)임을 알려주는 전방후원(前方後圓)의 모습을 띠고 있다. 앞부분이 넓적하고 뒷부분이 둥근 형태다. 묘하고 신기한 것은 멀리서 보면 낮게 보이는데 막상 올라서서 앞을 내다보면 어비리 저수지 일대 낙조와 오산 방면이 훤히 눈에 들어오는 지형이다. 산 혈기를 40리 타고 내려 온 위치라는 게 풍수에 밝은 사람들의 얘기다. 아래를 굽어보는 형상이기에 후대 임경업 같은 장수가 나왔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이렇듯 타고난 산수를 자랑하는 상리는 이미 없어졌지만 한 해 걸러 소를 잡아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산제사를 지내던 마을이다. “여보쇼, 한 잔 하고 가서.” 새참 막걸리 한 사발을 들다가도 지나치는 낯선 이방인을 불러 세운다. 아직도 풋풋한 농심이 살아 있는 원형질 농촌 마을이다.

이동면 화산리 요산골

세월의 변화에 빛있는 도공의 예기藝技

45번 국도를 따라 이동면 덕성리를 지날 즈음이면 세 봉우리가 우뚝 솟은 삼봉산의 위용이 눈에 가득 찬다. 하지만 그마저 주눅 들게 하는 산이 뒤편으로 슬쩍 비켜서 펼쳐져 있다. 해발 515m에 이르는 시궁산이다. 그 커다란 몸집을 드러내고 있진 않지만 넉넉하고 은근한 맛으로 옛 선조들은 성룡봉이라 부르며 영험한 산으로 여겼다. 『용인의 산수이야기』 저자 이제학은 시궁산의 산세가 은근히 깊고 넓다 하여 용인의 지리산 이라 부르기도 했다. 요산골峯山谷은 그 시궁산 아래 등지를 틀고 있다. 요산이 시궁산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하나 높은 산 아래 터를 잡은 마을이란 뜻으로도 무리가 없다.



화산리 요산골 전경. 마을 위로는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나는 옹기를 굽던 마을에서 유래한 요산골窯山谷로 생각하고 싶다. 이 마을은 적당한 자연환경과 시대사적인 이유로 옹기를 굽던 곳이다. 더구나 근동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옹기가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옹기가마 1세대인 이금동 · 정영현

요산골의 옹기요機器窯 역사는 8년 전인 1998년, 한 장인匠人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귀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마지막 옹기가마 장인이라는 착잡함을 드러내며 먼 곳을 응시하곤 하던 그의 모습이 선하다. 이미 여러 해전 고인이 된 그는 이금동(1910~2002) 장인이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 옹기 장인이 된 계기와 자세한 제조 과정까지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들려주었으나, 여기서는 줄거리만 모아야겠다.

어버리 팍터 점촌에서 옹기를 굽던 이금동은 17세 때부터 충청도와 황해도를 넘나들면서 기술을 익혔다.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자, '대장'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대장이란 '대장인大匠人'의 준말이다. 큰 옹기일수록 만드는 과정은 더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이들을 '큰 대장'이라 부른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지만, 흔히 말하는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한 말이다. 도기陶器는 도토陶土를 가지고 만드는데 흔히 질그릇으로 불린다. 자기는 사기그릇이다. 일반민들은 자기보다는 도기가 더욱 생활과 밀접했다. 항아리를 포함한 옹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금동이 도공으로 장인이 된 것은 순전히 종교와 관련된 집안 내력 때문이다. 신유사옥(1801년), 병인박해(1866) 등 100여년에 걸쳐 숭한 탄압에 시달렸던 천주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산골로 숨어들었다. 생계유지와 신분 안전을 위해 옹기

를 구워 팔아야 했다. 그의 집안은 5대째 걸쳐 천주교를 믿어오고 있었으나, 늘 감시를 피해 자리를 옮겨야 했다.

그는 이동면 팍터에서 몇몇 교인들을 이끌고 요산골로 집단이주해 자리를 마련했다. 그 계기는 이 마을에서 오래도록 마차를 끌며 화목을 공급해 주던 정영현(1913~1985)의 동업 제의가 있었



농사의 생명줄인 수로는 이처럼 땅 위로도 설치를 했었다.

기 때문이다. 기술과 자본은 이금동, 가마터와 화목(火木)은 정영현이 나눠 맡아 함께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때가 대략 1957년쯤이다. 용기 가마터를 처음 설점(터잡기)한 곳은 바깥말이라는 곳이었다.

화목은 용기가마(독점)가 서는데 가장 중요했다. 한번 가마를 덥히는데 대략 지게로 4백 짐 정도가 들어간다 하니 엄청난 양이었고 절대적인 요건이었다. 마침 삼봉산과 시궁산 등지에서 나는 많은 나무와 산판을 운영하던 정씨가 있었기에 자리를 잡아나갔다.

용기의 기본재료인 흙은 차진 흙과 매진 흙을 같이 섞어 쓰는데, 근방에선 구하지 못하고 안성군 성환, 경상도 울산, 상주 그리고 전라도 고흥에까지 가서 조달하였다. 고통토는 1200℃에서도 녹아내리질 않아, 사기그릇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질흙은 1200℃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용기는 900~1000℃가 적당하다.



한 농가에 있는 각종 유물들은 농경문화를 한 눈에 보여주는 박물관을 연상케 한다.

먼저 흙은 물에 걸러 들을 골라내고 고인 흙을 뽑아 낸 후, 앙금을 앉혀서 걸러 내 건조시킨다. 수비라 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용기의 단위다. 기본단위는 '한 자리'로 물동이 두 개 분량인데, 약20개가 된다. 그 크기에 따라 작게는 열 개가 한자리도 있고, 크게는 다섯 자리까지 있었다. 옛날 술도가의 술독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다섯 자리다.

도구는 박을 때릴 때 사용하는 수레방망이, 안을 받쳐 주는 도개, 매끈하게 긁어주는 기계인 놋개, 꼭대기 부분인 목과 아가리의 전을 잡아주는 물가죽, 물레 등이 사용됐다. 일단 용기 모양이 만들어지면 가마에 넣어야 하는데, 3동문이(3단계)로 쌓았다. 밑자리는 두껍게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가볍게 만든다.

다 준비가 되면 불을 때야 하는데, 이것도 기술과 인내력이 필요했다. 소나무 장작만 사용하며 처음에는 연기만 피워 은근히 도수를 올린다. 그 다음 밤낮없이 1주일을 때야 했다. 온도는 900~1000℃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밤낮 가림 없이 용기제조에 매달렸지만 일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했다. 문제는 수지타산이 맞질 않는 거였다. 요산골 독점은 20년을 버티질 못하고 서서히 퇴조하기 시작했다. 농경사회에서는 절대적인 생활용기였던 용기공장도 몇 차례의 시련을 거쳐 그 명맥이 끊기고 만 것이다.

그 원인은 우선 내부에 있었다. 1년에 약 10가마 이상을 구워내는데, 한 가미를 꺼내면 1천 자리 이상이 나와야 수지가 맞았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250자리 밖에 안 나오는 적도 있었다. 기술적 원인보다는 흙질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흙이 좋질 않다보니, 3단으로 올렸을 때, 쏠림현상이 일어나면서 용기가 찌그러져 좋은 제품이 나오질 않았다. 또한 그가 기관지 천식이 심해 여름내 누워 지내다 보니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이 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수요 격감이었다. 70년대 중



마을 용기점에서 생산한 각종 용기가 다양한 모습과 크기로 진열되어 있다.

반 새마을 운동이 절정에 달할 무렵, 생활 용기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화학산업이 발달하면서 플라스틱류가 들어와, 무겁고 깨지기 쉬운 용기는 금방 경쟁력을 잃게 되고 만 것이다.

마지막 몸부림도 허시로

끓길 것 같던 용기점은 장상원(73)에게 위탁되어 대리경영을 하게 됐다. 75년부터 시작한 장상원 역시 향아리를 만드는 도공이자 장인이었다. 어린 시절서부터 기술을 배워왔다. 흙의 문제로 900℃를 잘 버티질 못하자, 그는 모현에 있는 유근형의 산에 들어가 약토를 연구해 유약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실험결과도 좋았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향아리 제조 업체가 연료비를 아끼고 용기표면을 반짝거리게 하기 위해 광명단이라는 납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거였다. 한번 언론에 오르내리자, 아무리 진실과는 다른 얘기라고 해도 소비자들을 되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곤욕을 치른 그는 결국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손을 들어야 했다. 1979년 용기 가마불은 더 이상 지퍼지지 못했고, 폐점으로 이어졌다.

용인에서는 이동면 팍터와 덕성리 까치들(신창), 그리고 원삼 사암리 용바위와 포곡면 도수리(현 경방자리)가 용기요지였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그 혼을 이어갔던 곳이 요산골이었다.

규모가 길이 40m, 높이 1.6m, 폭 3m나 되는 적지 않았던 요산골 용기점. 그러나 그 혼적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 화산리 183-4번지에 있었던 용기요지는 지난 1990년, 용인향토유적 제20호로 지정돼 안내판도 설치돼 있었지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해갔다. 이어 차썸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얼마 전 가보니 그 자리 밑으로 큰 공장이 들어서 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용인시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향토유적 지정을 해제해 버렸다.

무려 1천년 이상 계속되었던 '독점^{獨店}'과 '용기 장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처럼 오래도록 유지되는 직업이 과연 있겠는가 싶다. 흔치 않을 터다. 그만큼 그 혼적은 소중한 것이 아닐까. 내 고장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여준 선생과 전통 깊은 요산골

화산골프장이 지난 1989년에 지어지면서 시궁산과 그 줄기의 모습은 옛날의 그것이 아니다. 골프장 남쪽에 있었던 미미니골, 고사리가 많이 났던 고사리골, 초계 정씨 묘 자리가 많이 있었던 구수곡 등은 이미 옛 기억 속의 지명일 뿐이다.

하지만 마을은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온 곳이다. 초계 정씨(草溪 鄭氏) 박사공파 13대 조의 묘가 있는데, 지금 30세손까지 내려왔다 하니, 근 500여 년이나 되는 깊은 명맥을 이어온 셈이다. 이들과 함께 함양 여씨(咸陽 呂氏) 역시 오래도록 마을을 지켜왔다. 특히 그들 중에는 민들레 홀씨처럼 살다간 한 인물이 있었으나, 독립운동가 여준(呂準)(1862~1932)이다. 만주의 허허로운 벌판에서 한 평생 독립운동에 몸 바치고 장백산에 들어 영원히 몸을 누인 그지만 정작 이 마을 대성중 하나인 함양 여씨(咸陽 呂氏) 족보에선 함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 조현(祖鉉)이라고도 불렀던 여준. 그는 1906년 근대적 항일민족교육의 요람이었던 간도 용정의 서전서숙에서 교장을 맡았다. 일찍이 오산(五山)학교 교원당시에는 고향 청소년들에게 민족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원삼면 죽능리에 삼악소학교를 세웠다. 그리고는 시궁산자락을 따라 수 십리 먼 길을 오가며 오광선장군 같은 독립투사를 길러냈던 빛나는 인물이다.

유기농 EM 농법으로 환경농업 주도

요산골은 마을의 오랜 전통 만큼이나 놀이문화가 풍성했다. 5월 단오 때는 큰 느티나무에서 그네뛰기도 하고 정월에는 줄다리기가 유명했다. 이때는 인근 마을인 묘봉리와 시미리 두레농악패도 몰려오곤 했는데 요산골 두레패가 형님두레 격이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가재와 물고기가 넘치던 마을 앞개울. 지금은 높은 콘크리트 옹벽이 한 길 가랑이나 되고 가드레일까지 설치돼 개울물에는 발을 담글 수조차 없게 돼버렸다. 보기에는 거슬리지만 여기에는 큰 아픔이 있었다. 이동면과 원삼, 백암 일대에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던 91년 여름 장마 때 하천 주변 집들이 다 떠내려가는 수재를 겪은 것이다. 지금 깨끗한 집들은 대개 그 후 다시

지은 집들인데, 재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토록 콘크리트로 개울둑을 높여놓은 것이다.

기름진 땅이 없었던 이곳에서 선대들은 보리, 밀, 목화 등 밭작물을 주로 경작했다. 한편으로는 대개 산판일과 나무장사로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오산, 쑥고개(서정리) 등까지 마차를 끌고 가야 했다. 그 후 벼 작물로 전환된 것은 해방 전후로 뒷골과 용추골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부터다.

산림에 의존해 살았던 시절을 거쳐 밭 경작으로 발전하고, 저수지 축조에 발맞춰 벼농사로 한결음씩 나아간 요산골. 이번에는 그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실험을 했다. 유기농 EM 농법을 도입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로 3년째인 이 농법은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배양해 이용하는 것으로 농약은 일체 주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요산골과 모산동(보리미), 묘봉리 일부 40여 호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화산작목반이 중심이다. 20여만 평에서 최고급 환경쌀을 생산하고 있다.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삶터이건만, 대를 이어 진보하기 위한 노력 역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다.

남사면 아곡리 아곡

취인승첩 이끈 자궁심 대대로 흘러

“마을 자랑? 별거 없어. 동네 사람들이 대문은 열어놓고 살지.”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한 어른의 소박한 대답이다. 취인성處仁城이 있는 마을이나, 뭔가 거창한 자궁심을 얘기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전 오히려 선입견이다. 여러 사람들 얘기가 비슷했다. 외지인들의 출입이 많지 않고 서로 나누는 정이 깊다보니 터놓고 살아도 탈이 없다는 것이다. 마을은 외진 것은 아니지만 큰 신작로에서는 멀찍하다. 이동면 서리 사리치 고개를 넘어 마을 앞으로 11번 포장 시



남사면 아곡리 풍경. 시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치안성 터. 이곳은 용인의 자부심이자 우리 모두의 긍지다.

도가 나 있다. 송전에서 오산으로 연결되는 302번 지방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어른 걸음으로 15분 정도가 걸린다.

아곡리衙谷里. 마을 이름에서 보여지 듯 옛날 치소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동네
에 들어서면 중앙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바로 옆으로 터가 남아있다. 관아 자리는
터가 세다 하여 관아가 없어진 다음에도 누구 하나 집을 짓지 않았다. 얼마 전에
야 집이 들어섰다. 마을에는 안동 권씨가 많다. 이성계가 역성易姓혁명을 일으켰
을 때,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기여했던 시조 권행權幸의 후손들은 편이 같
리였다. 절반가량이 조선 개국에 반대하여 살던 곳을 등졌다. 그들 중 일부가 용
인으로 향하여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아곡이라 한다. 그 후손들이 아직도 수십 호
살고 있다.

역사적 전통만큼이나 민담도 풍성하다. 하나를 소개하자면 도깨비에 얽힌 애
기다.

윗마을에 있는 어느 집은 밤만 되면 도깨비가 나타났다. 눈에 보이질 않았지만 바람이 불 때면 하나 있던 은행나무에서 모래가 날아오는 것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 가마솥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었다. 하루는 청년들이 도깨비를 잡기로 하고 저녁이 으스스할 즈음 그 집으로 몰려갔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방에 앉아 있었던 청년들은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여럿은 그만 집으로 도망을 쳤다. 배짱이 두둑한 몇몇이 끝까지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도깨비를 잡지 못하였다 한다.

도깨비에 관한 신화분석은 이미 양지면 식송편에서 한 바 있어 생략한다. 다만 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사라져 가는 도깨비 이야기를 우리의 후대들은 아마 듣기 어려울 것이다.

향토연구가 배상일(1959~2004)씨. 그는 생전에 처인성과 남사 일대 향토유적 발굴에 열정을 다 바쳤다.



한 농촌 젊은이의 10년 전과 오늘

젊은이의 이농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나는 10년 전 만났던 당시 이장 권순범(41)씨를 잊지 못한다. 그의 10년 전 생각과 지금 모습은 우리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고뇌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는 애초부터 뜻을 가지고 농고를 나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 “농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를 탓하고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도 당시 시골 생활에 긍정적이었다. 파주 문산이 고향인 그의 아내 송은실(41)씨. 처녀시절 서울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해 이곳으로 왔다. 인적 드문 시골에서 젊은 여성이 살아가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표정을 먼저 읽었는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엔 시집와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시장이 멀고 문화생활에 다소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기도 좋고, 변잡하지도 않아 좋단다. 서로 나누는 정이 있어서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로부터 10년. 그들은 어떤 모습과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농사일을 사실상 접고 말았다. 의지만으로 현실을 이겨나갈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권씨는 수원에서 건강관련업 책임자로 변해 있었다. 그의 아내 역시 오산에서 어린이 뇌호흡교실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변화에 대해 그들의 답은 이랬다. “농촌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다만 삶의 방식이 변했을 뿐이죠.”

이것이 요즘 농촌 모습의 한 축이다. 떠나기 보다는 고향에 거주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편입되어 가고 있는 젊은이들. 그들이 농촌에 거주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직 희망은 많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외세항쟁의 상징 처인성處仁城

이제부터는 아껴두었던 처인성 얘기를 해야겠다. 마을로 들어오는 초입에 원편으로 참나무가 무성한 야트막한 긴 언덕이 있다. 걸으로 보기엔 성곽이란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원래 토성의 흔적을 살려 일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곳이 바로 처인성지處仁城址다. 경기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려 역사유적이다.

이미 그 내용이야 다 아는 거지만, 고려 고종 19년(1232) 원나라 장군 살리타이가 2차 침입하였을 때 고려의 승장僧將 김윤후가 처인부곡 주민들과 함께 이 성에서 격전 끝에 적장을 사살하고 몽고군을 물리친 곳이다.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원(몽고)이 약 100여년에 걸쳐 수차례 침입하며 우리를 괴롭혔을 때, 단 몇 번의 승전 중 하나였던 역사적인 곳이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퇴각하고 말았으니, 그 승전의 의미는 더욱 크다.

1231년 몽고의 살리타이가 압록강을 넘어 침입한 이후 거의 40년의 세월 동안 몽고의 부대는 고려의 국토를 사정없이 유린했다. 그 결과 대부분 그야말로 초토화되었다. 고려의 지도층은 왕권 안위를 위해서 강화도에 수도를 옮기고, 그들이 피신하는 동안 남아있는 백성들이 몽고군을 상대해서 싸워야 했다.

특히 처인성 승첩의 의미가 큰 것은 이처럼 정규군이 아닌 일반민과 병란을 피하여 성안으로 흘러든 한 승려가 작은 성에서 그 막강한 기마군단을 물리쳤다



처인성 승첩도, 이상학 화백의 그림으로 향토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다.

고 하는 사실이다. 거기에 더한 압권은 김윤후 승장이 살리타이를 사살한 공으로 상장군上將軍을 제수 받았으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며 벼슬을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많은 전쟁사에서 이만한 결사항전의 정신과 기충민 스스로 보여준 투혼과 극적인 승리, 그리고 벼슬을 마다 할 정도의 겸허함과 순수함을 본 적이 있는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 말고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이 같은 역사적 의의를 접어둔 채 최근에 벌어졌던 두 가지 논쟁은 못내 씁쓸함을 남긴다.

그 첫째가 처인성의 실재 위치 논란이다. 얼마 전에는 한 여성연구자가 “기존 성터가 아니다”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한데 이어, 평택 관방유적을 조사하던 한 기관에 의해 “봉남리 산성이 처인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와 어리둥절하게 만든 적이 있다. 물론 공식 입장을 통해 “진의가 아니다”라고 물리쳤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 이 공방에 있어 실제적 진실은 무엇인가. 이 방향의 권위자 차용걸 교수가 주도하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가 지난 2001년부터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발표한 『용인처인성 시굴조사 보고서』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하게 된다. 면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처인성지는 순수한 토축 성벽을 가진 것이며, 자연 구릉 경사면을 최대한 살려 중심 토루(흙벽)를 축조하고, 바깥 면을 보완한 것이다. 둘째, 처인성은 많은 사람들의 거주공간이었으며, 당시의 구조물이 파괴되어 폐기된 유물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셋째,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철제 큰 칼과 철모는 이 성터가 전투와 관계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창과 화살촉이 나왔는데, 성터 발굴에서 칼과 창이 나온 경우는 처음일 정도로 처인성 전투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 작은 규모의 흙성에서 막강한 몽고군과 대적했다는 것은 기존의 전투 양상인 입보농성, 즉 성문을 걸어 잠그고 쳐들어오는 적을 성벽 위에서 맞섰던 양

상과는 다른 전투 방식이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성터 바닥으로 여겨진 솥을 채취해 미국까지 보내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확인결과 1250년부터 1370년에 이르는 시기까지로 밝혀져 원나라와의 관계가 매우 격했던 시기와 맞물린다.

위와 같은 과학적 시굴조사 결과로 볼 때 더 이상 위치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이다. 또한 바람직스럽지도 않다고 보여 진다. 다만 규모에 있어선 『대동지지(大東地志)』 용인현 처인고성 편에 ‘토축(土築) 주삼리(周三里)’라는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봐서 기존의 외곽 규모를 가지고 전부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찾아가는 길 표지와 주차장이라도 만들어놓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처인성 지명을 찾아 싸워 온 사람들

썩썩한 것은 처인성 위치 논란만이 아니다. ‘처인(處仁)’이라고 하는 역사 이래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용인의 지명이 상당기간 잊혀지기를 강요당했다는 사실이다. 일제는 호국정신과 자주성을 상징하는 처인지명을 원치 않았던 것이 당연했다. 그리하여 1914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상징성과 고유 뜻이 살아있는 지명 대부분을 치졸하게도 없애버렸다.

남사면만 해도 그렇다. 고유지명 대신 용인 남쪽의 4개면이란 뜻으로 현내, 남촌, 서촌, 동촌을 하나로 묶어 버린 것이다. 마을도 마찬가지로. 방축리와 아곡리를 합쳐 방아리, 도촌면 지역의 삼인동, 신흥동, 당하동을 병합해서 봉무리의 북쪽에 있다하여 북리... 이런 식이다.

문제는 해방이 되고 나서도 그대로 썼다는 점이다. 그간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 지명변경의 기회가 있었지만 ‘처인’은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침내 몇 년 전 왜곡된 지명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주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남

사면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옛 이름 되찾기 면민모임’ 까지 구성되어 개명운동을 벌인 것이다. 처인승첩을 이룬 이들의 후예다운 행동이었다.

최근에 구청이 신설되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처인’ 지명 회복이 생각지도 않았던 난관에 부딪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우리가 용인의 중심이니, 중앙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틀렸다고보다는 솔직히 이기심이 느껴졌다. 어렵사리 처인지명을 되찾은 것은 지명위원회의 소신도 있었다. 하지만 아곡주민을 비롯한 면민들의 한 목소리가 큰 힘이 되었음을 숨길 수 없다.

땅이 척박해 어렵게 살던 아곡 주민들. 1972년에 유엔평화봉사단 지원과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경지 정리를 해서 지금의 번듯한 경지가 되었다. ‘회장물’이라 불리며 피부병을 다스려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약수터는 아직도 명물이다. 땅 밟고 사는 사람들의 심성이 시멘트 밟고 사는 사람들 보단 곱다고 봐요. “한 주민의 자긍심은 스스로 운명을 헤쳐 온 처인성 주인공들에게서 전해온 것이 아닐까.”



처인지명의 회복은 주민들의 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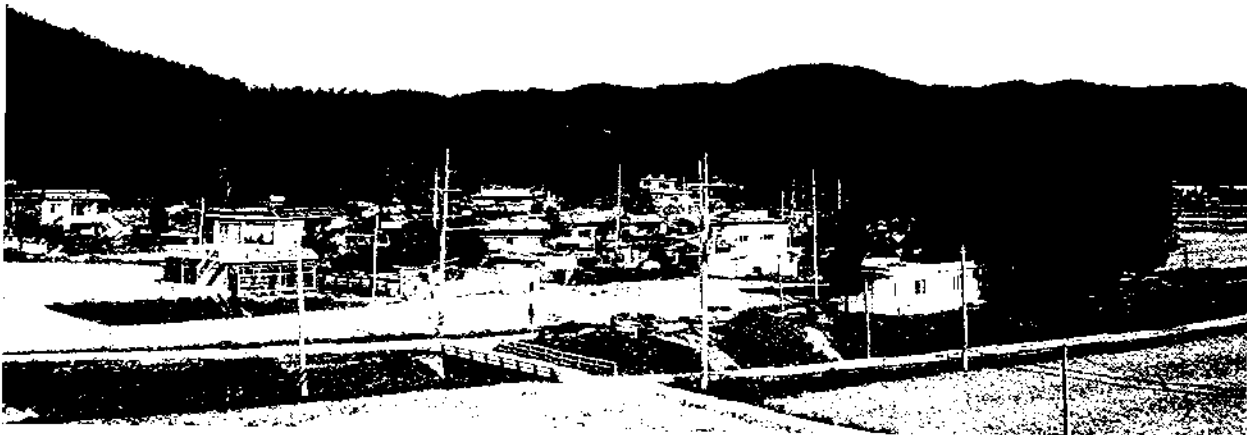
남사면 완장리 중동

찾아와 안주하고 싶은 마을

곧게 뻗은 마을 길 초입은 보기에다 시원하다. 한편으로는 바둑판처럼 경지정리가 잘된 논이다. 반대편은 수량 풍부한 하천이 흐른다. 현대식으로 개량된 집들뿐이다. 마을 앞에는 어디에도 비교되지 않는 무려 8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군락이 수백 명이라도 넉넉히 품을 듯 버티고 서 있다. 적어도 외양으로 비쳐지는 모습으로 볼 때, 이만한 곳이 농촌에 얼마나 있을까 싶은 정도다. 남사면 완장리 중동마을이 그렇다. 보통사람들이 그려보는 이상적인 농촌의 모습을 보려면 이곳을 찾아보라고 권할 만하다.

더 속을 들여다 보자. 물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천연식수다. 함봉산 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도는 수려한 계곡 두 곳에 저수지를 조성했다. 그러니 수량도 풍부하다. 저수지가 한 마을에 두개나 있는 곳이 있을까. 흔치 않다. 마을 쪽으로 'Y자형'을 이루며 두 갈래로 뻗어 있다. 마을에서 보아 왼쪽이 대지곡이고 오른쪽

중동 마을 전경. 가옥구조를 현대화하고 반듯한 도로가 나 있는 살고 싶은 마을이다.





앞산을 중심으로 양편에 저수지가 조성되어 있어 물 걱정이 없는 마을이다. 유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안골이다. 각각 완장 1호, 2호 저수지로 불린다. 산 계곡 바로 밑을 막았으니 얼마나 깨끗할까. 퍼런 물색에 바닥까지 흰히 들여다보인다. 물에 자신감이 없는 나는 무섭기조차 하다. 마을 위로는 공장 등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으니 오염원 걱정도 없다.

한 여름날이다. 들녘에서 고된 일을 하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 일손을 멈춘 주민들이 하나 둘 들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는 수중보 물길을 따라 늘어선다. 너나 할 것 없다. 옷통을 훌렁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젖은 땀을 씻어낸다.

“여름에 수중보 물길을 따라 개울가에 늘어서 목욕을 하는 것이 장관이었다”고 전 이장 정창규(52)씨는 자랑한다. 인심이 넉넉해 딱 한 쪽을 빚어도 나눠먹는 그들이지만, 대대손손 내려온 터전을 위하는 이들의 태도는 단호하다. 마을에는 단 하나의 공장도 없다. 저수지 위로는 지금까지 인공구조물이라고는 하나가 있었다. 10여 년 전 대지곡 위에 있던 양계장이 그것인데 주민들 반대로 닭을 기르

지도 못하고 께하고 말았다. 외지에서 땅을 사러 오면 미리 각서를 받는다.

“삶의 터전을 흐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역시 뭔가 다른 게 있다. 이처럼 확고한 의식과 단합이 마을을 지켜내는 힘이다.

UNDP사업과 91년 장마

이처럼 마을이 여느 곳과 다른 것은 주민들의 단단한 의지가 가장 큰 원인이지 만 그 밖에 또 한 번의 계기가 있었다. 다름 아닌 유엔개발계획(UNDP)이다. 여기서 우리가 농촌개발과 관련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UNDP 지원사업이다. 국제기구인 유엔이 직접 나서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원조를 해주는가 하면 직접 현장지원을 하는 국제사업이다. 이미 우리는 개발도상국 딱지를 떼었지만 아직도 많은 후진국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데 UNDP 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곳 중 하나가 바로 남사면 완장리, 아곡리, 창리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이 일대 경지가 지금처럼 반듯하게 정리된 것이 UNDP 사업의 결과였다. 이 같은 사실은 50대 중반쯤의 나이가 되어야 그 당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지난 71~2년 즈음, 마을에는 수십대에 이르는 덤프트럭, 불도저, 각종 토목용 장비들이 들어왔다. 국내 기술자와 기사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마을에 천막을 치고 기숙을 하는가 하면 더러는 민가에 방을 얻어 머물렀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개벽이 시작됐다. 안골에 있는 완장 2호 저수지가 그들에 의해 축조되었다. 이어 꼬불꼬불하던 마을길은 물론 천수담 역시 일제히 경지정리를 통해 옥담으로 변해갔다. 토양이 거칠거나 자갈이 많던 논은 개토를 통해 기름진 논으로 거듭났다. 그야말로 남사 완장리 일대 들녘과 마을 모습은 그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한 이상하게 생긴 장비들이 수두룩했지요. 불도저나 큰 덤프트럭이 마을을 헤집고 다녔으니 얼마나 시끌시끌했겠어요.” “그때 그걸 타고 영화 보러 가던 생각이 납니다.” 역시 정 전 이장의 회고다. 그러나 평화롭던 마을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준 것은 91년 장마였다. 주민들이 ‘악몽의 해’로 표현하는 그 해 여름, 엄청난 장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대지골 1호 저수지가 터진 것이다. 다행히 높은 산으로 전 주민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물이 휩쓸고 간 후 마을 모습은 폐허로 변했다. 다행히 곧바로 복구를 해 지금은 어디에도 그때의 상처 흔적은 없다.

수령 8백년 된 느티나무

곧게 뻗은 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마을의 상징인 느티나무 군락이다. 수령 8백년이 넘는 2그루와 약 2백년 된 2그루,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덜된 1그루 등 모두 5그루의 정자목이다. 큰 느티나무는 둘레가 무려 5.8m에 이르는 우람하고 장대한 거목이다. 용인 관내 최고最古 수령의 나무로, 도에서 지정해 보호되고 있다.

느티나무 예찬을 수없이 늘어놓았지만, 중동마을 느티나무 군락이야 말로 용인의 큰 자랑거리라고 자부하고 있다. 어느 곳을 가 봐도 이 만큼 거대한 군락을 본적이 없으니 말이다. 여름이면 이 정자목은 그림 같다. 예전부터 들에서 땀을 흘리던 사람들이 한낮 땀별이 내리쬐릴 때 이 시원한 그늘로 모여들어 잠시 휴식을 취해왔다. 그러다 별이 다소 수그러들면 일터로 나가곤 하던, 가장 다감한 친구이자 쉽터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이 정자목을 대하는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수령 800년 느티나무 군락,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 군락으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운치 또한 뛰어나다.

한편 이곳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한 나무군락은 수신목이기도 하다. 숭배와 의지의 버팀목이다.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가장 좋은 날을 잡아 재물을 차려놓고 정성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느티나무제'를 지낸다. 마을 단합을 다지는 율놀이 역시 매년 거르지 않고 행한다.

요즘 마을을 다녀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빈집과 낡은 가옥이다. 그런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들어서 있는 전원주택은 묘한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조화롭지 못하다. 중동 마을은 그렇지 않다. 전통가옥과 함께 개량된 농가형 주택이 잘 어우러져 조화와 안정감을 주고 있다. 개량주택은 대개 반 지하에 창고를 만들어 다용도로 사용하고 지상으론 30여 평 널찍하게 살림공간을 만든다. 방3개, 주방, 욕실 등 요즘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지어져 쾌적한 삶의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마을은 이처럼 현대식 농가주택으로 단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여느 농촌처럼 노인층이 절대다수의 주민을 구성한다. 전체 50여 호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없다보니, 50대가 막내 격이다. 생활권은 30년 전 만해도 용인보다 오산 쪽

심대장군을 기리는 사당과 신도비. 안골과 대저곡이 갈라지는 중간지점에 있다.



에 가까웠다. 대개 오산장을 보러 다녔다. 10여 년 전부터 용인에서 서리를 거쳐 남사 봉우리, 오산까지 노선버스가 생기면서 용인 생활권으로 바뀌었다.

기묘사림과 공서린

이 마을에서는 두 사람의 옛 선현을 만나게 된다. 그 중 한분이 공서린(孔瑞麟, 1483~1541)이다. 조선 중종 때 송지, 대사헌 등을 지낸 공자의 64대손 공서린. 조광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기묘사화(1519년)에 연루돼 파직, 유배되었던 그가 낙향한 곳이 마을과 이웃한 오산 켄리사다. 마을의 대성(大姓)인 곡부 공씨(曲阜 孔氏)의 정착 배경이 되기도 하는 공서린을 얘기하자면 기묘사림에 얽힌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곡동과 수지 내대지 마을 편에서 다시 다뤄지겠지만, 용인이야말로 조선 성리학의 상징적 인물들이 줄줄이 늘어선 성지에 다름없다. 과장만은 아니다. 새로운 철학사조로서 조선사회의 지도이념이기도 한 성리학의 시조가 포은 정몽주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어 중종 대에 이르러 기묘사림으로 일컬어지는 신흥 사대부들의 중심인물은 대개가 용인을 매개로 한 인물들이었다.

정암 조광조, 음에 이자는 선대 묘를 용인에 두고 서울과 용인을 오가며 깊이 교유하던 기묘사화(己卯士禍)의 핵심인물들이었다. 이곳 중동마을에 잠들어 있는 공서린 역시 그 일파의 일원이었던 관계로 화를 당한 동지 격이다. 뿐만이 아니다. 내대지에 영면하고 있는 경주 김씨, 심청현 김세필 역시, 충청도 음애와 충주 토계(土溪)라는 곳에 은둔하고 있던 이자의 몇 안 되는 문객이었다.

더구나 중종으로 하여금 고려조에 불사이군(不事二君)한 포은 정몽주의 묘역을 정비하고 그 후손들을 등용하도록 끊임없이 간청하여 허락을 받아낸 것 역시 음

에 이자였다. 이처럼 용인이라는 고장을 매개로 한 인물들의 면면은 곧 조선 역사의 한 축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아무튼 공씨 선산인 대지곡에 모셔진 공서린은 오산시 궤동에서 '휴암서원'을 열어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그 후 서원은 철폐 후에도 정조 대왕의 교지에 따라 '궤리사'를 지었다. 그의 12대 손孫인 공재환은 기록이 소실되자 남은 자료를 모아 전기형태의 책 휴암실기(休巖實紀)를 펴냈다. 마을에 곡부 공씨가 세거하게 된 것은 공서린 묘를 이곳에 조성하면서부터 라는 설이 유력하다. 15호 이르렀던 공씨는 요즘 7~8호에 불과하다.

또 다른 인물이 잠들어 있으니, '심산골(沈山谷)'로도 불리는 안골 함봉산 기슭, 심대(沈臺)(1546~1592)장군의 묘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기세가 심해 북으로 피난할 때 선조를 호위하기도 했던 그다. 경기감사가 되어 왜적과 맞서 싸우던 중 적과 내통한 부하로 인해 적의 기습을 받았으나 끝까지 싸우다 1592년 47세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했다. 그 후로 후손들이 마을에 세거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청송 심씨(淸松 沈氏)다. 이제는 3호밖에 남아있지 않다.

함봉산 줄기를 타고 형성된 완장리 중간동네 '중동마을'. 대동의 힘이 살아있고 고향의 깊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 살고 싶은 마을, 중동이다.

남사면 원암리 후암동

너른 들판 거친 땅 농촌 현실 그대로

너른 들판이 바둑판같다. 안성 원곡면으로 향하는 23번 국가지원도로도 일직선이다. 사방이 누런 물결로 출렁이니, 가히 풍요의 상징이다. 그 벌판에 자리 잡은 외암 마을. 어쩐지 주위의 풍요로움과는 달리 한적하다. 외양은 70년대를 채 벗어나지 못한 듯 우중충하다. 농촌의 겉과 속이 다른, 어렵고 실속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원암리는 본래 아곡, 전궁동, 방목동, 진목동과 함께 남촌면을 구성하는 한 마을이었다. 형세는 풍수 형국론에서 대표적인 와우형(臥牛形)이다. 즉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다. 마을은 서쪽 우락산(牛樂山)과 마주 보이는 동쪽 우두산(牛頭山) 아래 넓죽하게 자리 잡은 구렛 뚝이 있다. 그 옆에 마치 어미 소 한 쌍이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하여 예부터 선조들이 부른 이름이 와우미(臥牛尾)라 하였다.

풍요를 뜻하는 와우형 형국은 일제에 의해 아무 뜻도 없는 엉뚱한 외미(外美)로 개칭되었다가 원암으로 자리를 잡았다. 원암1리인 외암마을은 원암에서 분가해 이룬 동네다. 종족촌이 확대되면서 분가마을을 만드는 경우는 흔하다. 이럴 때



원암리 후암동 전경. 슬레이트 지붕과 허술한 가옥 구조에서 70년대 농촌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불이는 이름도 내촌과 외촌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 지금은 동백지구로 통칭되는 구성 중리의 내·외촌이 그러한데, 원암도 이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18~19세기 들어 여러 성씨들이 들어와 각기 뿌리를 내림으로써 종족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는 여양 진씨(驪陽 陳氏)를 중심으로 한 집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볼 때 원암(元峯)이란 지명유래도 시지에 옮겨진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닐 것이다. “마을 뒷산에 원래부터 바위가 많았다 하여 원암리로 하였다”는 게 『용인시사-지명유래편』에 쓰여 있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암리의 첫 입향 성씨로 볼 수 있는 여양 진씨(驪陽 陳氏)로, 원암골에 묘가 있는 진기문(陳斯文)의 비문이 참고가 될 만하다. 그는 14세기, 고려조 공민왕 때 사람이다.

오직 공이 나라와 임금을 위하는 충심에서 가장 개탄하는 바가 있으므로 울적한 마음이 병이 되어 심폐가 심히 고통스러워 살 희망이 없었으므로 마침내 임금에게 벼슬을 사직할 것을 청하고 구성현(용인군) 도촌장 남쪽의 천덕산 깊은 골짜기로 돌아가 숨어 살면서 두문 불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듣지 않았다. 머슴을 불러 송경(개성)의 정세를 물어보니 머슴이 대답하기를 “밖으로는 원나라 병사들이 약탈하고



후암동 마을 유래비.

안으로는 홍왕사의 참변(무신 김용의 난)이 일어났으니 국가가 크게 어지럽습니다”라고 고하였다. 공은 비통하게 옷자락을 떨치고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고려의 운명이 글렀구나” 하시고 천덕산 꼭대기에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고 통곡한 뒤에 십여 일간 단식하다가 세상을 뜨셨다. 마을 사람들이 공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애뜻이 여겨 그 동리 이름을 원암(원통하고 슬퍼함-현재 원암리)이라고 불렀다.

즉 “원통해하고 슬퍼하였던 곳”이라 하여 ‘원암寃暗’이었는데 이 후 ‘원암元峯’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마을은 원주민이 50여 호로 크게 5대 성씨가 세거하고 있다. 여양 진씨 羅陽 陳氏는 고려 예종 때 이자겸의 난을 토벌한 공으로 신호 위대장군이 되고 여양군에 봉해진 충후를 시조로 하여 4세손인 진화 陳樞(1180~1221-추정)의 유택을 이곳에 마련하면서 후손들이 세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암과 후암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후암에는 6호 정도가 남아있다.

다음은 경주 김씨다. 22세손 갈천공 김원립(1650~1709)은 기흥일대 세족의 입향조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계림군파 시조 김곤 金綱의 18세손 금계 錦鷄 김교승이 1800년경 이사 와 정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7호 정도가 살고 있다.

남양홍씨는 고려 개국공신 시조 홍은열의 32세손 홍인화 洪仁華가 1800년경 성은리에서 입향해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호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또 하나의 성씨가 해주 최씨 海州 崔氏다. 고려 광종 최온 崔溫의 27세손 최승현 崔昇憲이 1850년경 서울에서 입향했다. 5호가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주 김씨 楊州 金氏다.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넷째아들 대안군의 증손자인 김원실 金元實을 시조로 하고 있다. 그의 23세손인 김수원이 1850년경 원암으로 이사해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암의 어제와 오늘

널은 들이 펼쳐져 있으니 어려웠던 과거를 짐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흔적은 그나마 지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주위를 예전에는 ‘녹두밭 웃머리 뜰’이라 했다. 본래 녹두밭은 기름진 곳이 아니다. 남은 자투리 땅 끝머리를 활용하는 작물이다. 즉, 그냥 놀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뭘 제대로 심기는 어려운 곳을 이른다. 마을의 입지가 그랬다. 거친 땅인데다가 논은 아예 없었다.

이유는 물이었다. 지대가 높아 ‘마루 뜰’이었으니, 쌀밥 구경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동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도 작은 방죽이 있었는데, 그 물 혜택을 보는 것은 전궁리였다. 상답이라 부를 만 했다. 농업 생산성은 물론 작물 선택에도 결정적인 물. 즉 저수지가 생기면서 마을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물이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노동력이다. 70년대 들어 서서히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동시에 농촌의 운명은 기울기 시작했다. 산업화 정책은 많은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이를 위해선 농업 노동력의 강제적 도시편입이 불가피했다. 산업화의 진전은 농촌 피해를 담보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정부 정책을 통해 묵인되었다.

원암도 비록 기름진 농토를 갖게 됐지만 구조적인 모순의 큰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주민 구성을 보면 70대와 8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마을자체가 그야말로 노인촌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긴 것도 오래 전이다.





마을에는 화훼농가가 많이 입주해 있다.

그렇다보니 전담농사는 기계와 일부 전문 노동력에 의존해 위탁 관리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화훼농가가 그들이다. 이들의 유입은 마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인구 구성 비율이 눈에 띈다. 토착 농가가 대략 50호 정도에 불과한데 이들은 무려 100여 호에 달한다. 엄청난 숫자다. 대개 마을에 집촌集村 형태로 거주하기 보단 시설하우스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산촌散村 형태다. 따라서 마을과의 유대나 결집은 잘 되질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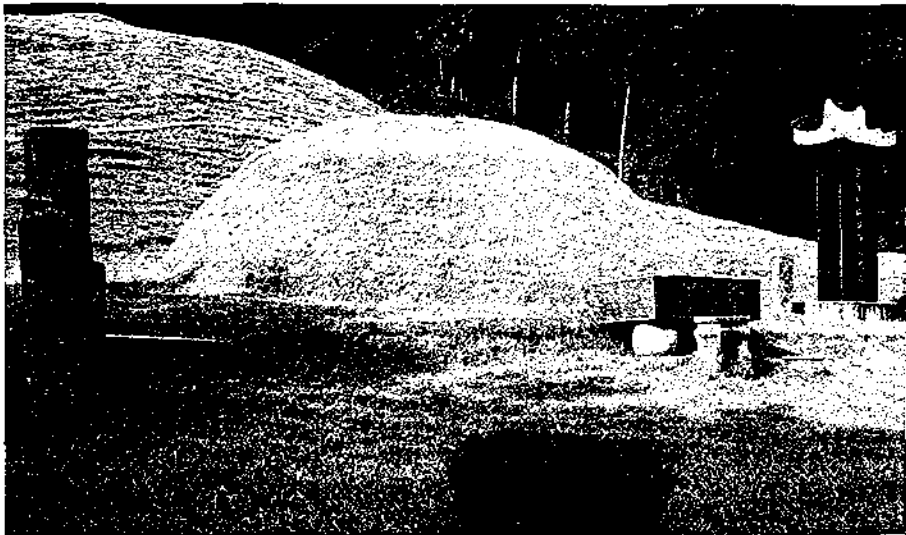
대략 15년 전부터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각 호당 700평 이상씩은 화훼작물을 키우고 있으니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들은 '신유목민'이다. 다만 계절마다 옮기는 것이 아니라, 땅 값이 올라 토지 임대료가 올라가면 떠나야 한다. 대략 5~20년 주기다.

이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애초 대개는 서울 우면동이 이들의 일터였다. 화훼는 전형적인 근교농업의 특성상 보다 더 대도시 근교를 선

호한다. 그러다가 옮긴 것이 세곡동이나 시흥동 일대였다. 택지개발과 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다시 옮긴 곳이 용인 모현, 포곡, 수지, 백암, 남사 일원이다. 이처럼 지금 용인의 농촌은 조용한 가운데 또 한 번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고려 후기의 대문장가 진화유택

1946년 장기용씨에 의해 세워졌던 현 남사중학교의 전신 남촌고등공민학교가 있던 마을, 1981년 시립보건진료소가 들어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등 남사면 남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후암 마을이다. 이곳은 아무래도 여양 진씨 陳氏의 집은 흔적을 벗어날 수 없다. 그 가운데 우뚝한 사람이 고려 후기의 대문장가 매호 梅湖 진화(1180~1221)다. 생물연대는 기록이 없어 여러



고려 후기의 대문장가 매호 梅湖 진화(1180~1221) 묘역.



진화선생묘표.

자료를 통한 추정일 뿐이다. 시재詩才에 있어 이규보와 쌍벽을 이뤘던 그는 많은 시를 남겼지만, 후세에 전하는 것은 59수밖에 불과하다.

그 중 무신의 난 이후 피폐한 농촌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도원가桃源歌가 유명하다. 조선시대 허균도 그의 시를 읽고 “맑고 굳세어 읍을 만하다”고 평하였다. 한번은 백운 이규보가 선생의 집에서 자면서 크게 취하여 벽에 글을 남겼는데,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높은 누대 비록 백층이나 되지만 바로 진군(진화)이 올라앉음이 합당 할 뿐, 나 같은 사람이야 땅에 눕기도 오히려 황송하다네”라고 평하여, 그 인물됨을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 후기 일세를 풍미하였던 매호 진화를 통해

당시 시대상과 생각을 엿볼 수 있으니,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시 글귀다. “송은 이미 쇠퇴하고 북방 오랑캐는 미개하니, 앉아서 기다려라 문명의 아침은 동쪽(고구려)의 하늘을 빛내고자 한다…”

고려의 운명을 그도 알지 못했는지, 자심감과 의기가 넘쳐난다. 무려 8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오늘, 그의 유택幽宅이 있는 원암골로 향하는 산길에 그날따라 인근 미군기지 비행기소리가 요란하게 느껴진다.

남사면 통삼리 통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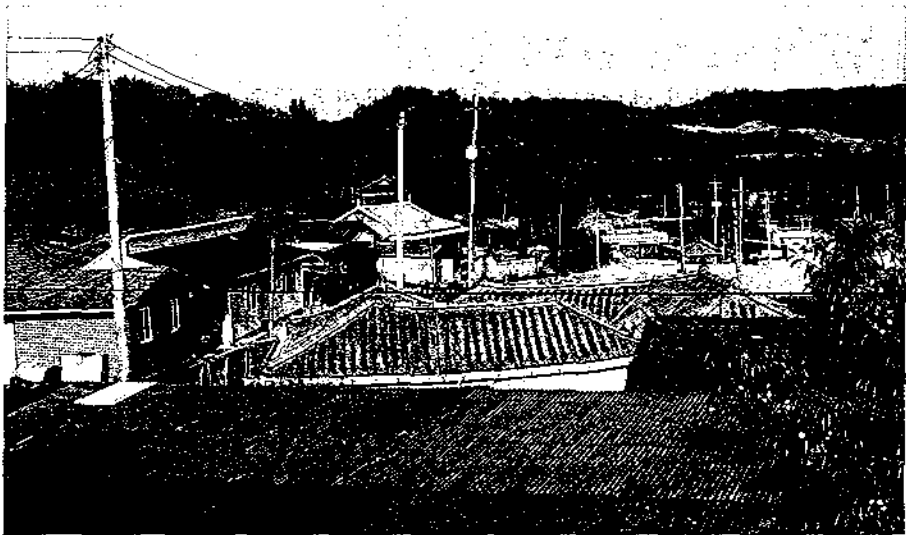
전설 같은 바닷가 매향의식 간직한 능성구씨 종족촌

통골으로 가는 길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묘한 상상과 호기심을 가지고 갔기 때문이다. 용인은 깊은 내륙이라는 고정된 인식 탓일까. 이미 고인이 된 향토연구가 배상일 선배가 늘 했던 “통삼리 일대가 바닷가였을 것”이란 얘기를 나는 그리 귀담아 들질 않았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호기심을 자아내기 충분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부터다.

서촌 초교 일대에서 문헌 통나무가 대량 발견됐다 그리고 “탄화된 통나무에 불을 붙이면 향내가 났다”는 두 가지였다.



통삼리 통골 모습. 다랑이 논을 따라 좁은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 모습이 좀 이색적이다.



위에서 본 마을 모습. 전경을 찍을 만한 공간이 없어 아쉽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매향(埋香) 의식이 치러졌다는 것 아닌가. 상상력은 더욱 앞으로 나아갔다. 매향의식이 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럼 이곳이 틀림없이 바닷가였을 것이 아닌가. 흥분과 호기심은 여기에 연유한 것이었다.

현재의 지형 구조상 통삼은 바닷가와 별로 인연이 없어 보인다. 첩첩이 산을 지나가는 교통사정도 좋지 않다. 용인의 오지라고 불러도 그리 반박하기 어려운 곳이다. 골프장과 레저시설이 있는 한화프라자를 지나면 통삼이다. 민가도 그리 많지 않으며 그나마 있던 서촌초등학교가 폐교된 것만 봐도 점점 어려워지는 동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통삼리가 바닷가였다?

먼저 지명부터 살펴보자. 본래 통삼리는 용인 서촌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막동, 원포동, 북정동, 통곡동을 합하여 통곡으로 하고, 나머지 동막, 원포, 북정의 3개 마을로 되었다는 뜻으로 통삼리通三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럼 원포동의 어원은 어디에 있을까. 마을 노인회 구사육(83)회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본래는 민개로 불렸다. '갯벌이 매워진 곳'을 뜻한다. 이것이 먼 개(멍개)로 변했다. 개는 우리말로 물가(浦)를 뜻하는 것으로 순우리말인 모현 '돌자개'가 엉뚱하게 '석자포'로 불리는 경우와 같이 이해하면 된다. 아롱개는 밀물이 드나드는 곳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 지명은 유독 '개'자가 많이 붙는다. 다롱개, 소리개, 멍개 등이다.

다음은 북정동이다. 통삼리에 해당하는데, 북쪽에 큰 우물이 있다하여 북정동 北井洞이다. 그런데 프라자가든을 지나 북정동과 동막동 길이 갈리는 지점 옆 개울가에 용수정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다. 여기서 잔물이 나오는가 하면 조개껍질이 다량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지명을 통해 바닷가에 대한 일단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큰 하천이 바로 진위천이다. 진위천은 이곳으로부터 2~3km에 불과하다. 마을 하천이 진위천으로 흘러들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반적으로 진위천의 해발이 매우 낮음을 감안하면 그 언젠가 이곳까지 바닷물이 올라왔으리라는 추정은 단지 상상만은 아닐 것이다.

매향신앙의 비밀 밝혀질까

그렇다면 통곡에서 나왔다는 통나무의 실체는 과연 뭐가. 그리고 매향 의식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인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지킴이신앙, 민중 신앙이 하나 있었다. 갯벌에 향나무나 참나무를 묻어 천년이 지나면 침향沈香이라는 향이 된다고 믿었다. 이 침향의 신비로운 향기가 매체가 되어 내세의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민중들은 믿었다. 침향은 갯벌에 묻혀 천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생성된다고 한다. 이에 우리 옛 선조들은 참나무나 향나무를 강물이 흘러내리는 하류 갯벌에 묻고 미륵세계에 왕생하기를 소망하며 국태민안을 빌었다. 그 흔적이 매향비埋香碑다. 술한 사람들의 비밀스런 소망이 담겨있는 매향비. 향을 묻고 1천년을 기다

통곡 느티나무.



려 미륵오기를 기다렸으니, 이는 석가모니로부터 56억 7천만년 후 이 땅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불 미륵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민중신앙이었던 것이다.

갯벌에 묻어둔 향목이 침향이 되면 물 위로 떠오른다고 한다. 침향의 상승은 바로 새로운 세상의 떠오름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실제 불가에서도 침향은 귀하게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닷물이나 갯벌에 오랜 세월 향나무를 담가서 침향이 되면 강철과 같이 단단해져서 두드리면 쇠소리가 난다고 한다. 그 향 자체에도 비밀이 있는데 사찰에서 피우는 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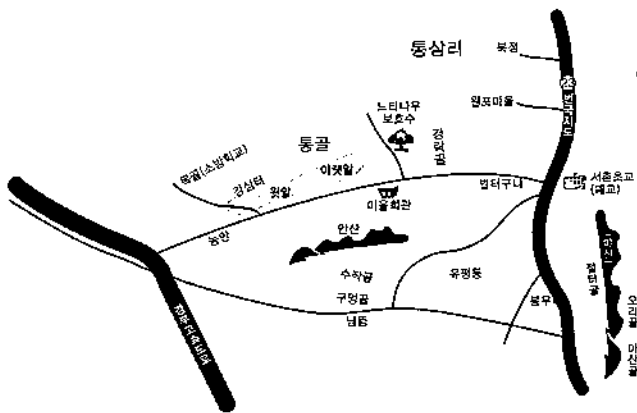
폐교된 서촌초교 모습. 텅구는 낙엽과 곱 패인 운동장에서 점점 사라지는 농촌 학교의 실상이 보여 진다.

그을음이 생기는데 반해 침향은 그을음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같은 매향의 흔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하나가 금강산 삼일포다. 거기에 매향비문이 있다고 한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가 보다. 그곳을 두 번이나 다녀왔지만, 매향의식과 그 속에 담긴 신앙적 요소를 몰랐던 나는 영뚱하게 가짜그림만 두 점이나 사오고 말았으니 말이다.

발걸음을 옮겨 통골 서촌초교를 가 보았다. 이미 폐교된 지 오래인 학교는 을씨년스러웠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을 운동장에는 발길이 끊어진지 오래되어 물길 풀이 여기저기 나 있었다. 이미 학교를 조성할 당시 나왔다는 침향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노인회장님께 여쭙어 “그런 물건이 나왔던 사실이 있다”는 대답으로 만족했다.



다시 생각해봐도 용인 남사면 통곡에서 발견한 것이 진정 침향이었다면 이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바닷물이 이곳에 들어왔음은 물론, 주로 바닷가 기층민들의 신앙이었던 매향신앙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 말이다. 한적한 시골, 통골이 다시 보이는 순간이다.

통곡, 원포, 북정에 이르기까지 3개 마을에 걸쳐 70여 호에 달하는 사람들이 능성 구씨 綾城具氏다. 전체 주민의 50%에 달하는 수치다. 어느 지역보다도 단합이 잘되고 향촌 사회의 전통과 질서가 살아있는 것도 이처럼 시조이신 고려 검교 상장군 구존유 具存裕의 후손들이 곳곳하게 지키고 있음이다.

인물 많기로 유명한 능성 구씨. 그 집성의 상징이기도 한 통곡은 이래저래 묘한 끌림을 주는 마을이다.

유림동 버드실

성산줄기에 감싸안긴 장수마을

버드실로 들어가는 마을길은 변함이 없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구불구불하다. 좁은 길을 넓힐 생각이 아예 없는 모양이다. 초입 들어가는 머리에 웅달이 저있다. 겨울이면 교통사고 단골 지역이다. 옆으로 시원하게 나 있는 고속도로를 위해 삼터까지 포기하고 옮겨야 했다. 그런 주민들에게 이런 대접을 해서야 되겠는가 싶다.

지역에 구전되는 전설에 “용인에 12실실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 곳이 피난지(避難之地)”고 전해진다. 여매실, 유실, 가마실, 마가실, 고래실, 골배마실, 석실, 노루실, 아리실, 모래실 등이다. 나머지 두 곳은 버드실과 지장실로 이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그런 영향이었을까. 한국전쟁 당시 국군은 성산에 주둔하고, 인민군은 솔봉에 진지에서 서로 맞붙질을 했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서로 비스듬히 누워 구성과 용인2개동, 포곡읍 사이를 가로지르는 성산에서 동편 밀자락에 위치한 이 버드실. 이곳은 성산을 발원지로 하여 많은 물이 샘솟듯 사철 흘렀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 앞 냇가를 따라 습한 곳에서 자라는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흐드러져 있었다. 이를 밀유양림(密柳楊林)이라 했다. 버드실은 여기에 연유한다. 일부에서는 마을 입구가 좁고 안쪽은 넓어 버드나무 형상이라 그리 불렀다고 설도 있다. 요즘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딱따구리가 버드나무에 굴



을 파고 살았고 개울에는 메기, 뱀장어 같은 민물고기가 흔했다. 연탄을 때기 시작하면서 물고기는 없어지기 시작했다.

버드실을 포함한 이 일대는 1914년 행정개편에 따라 유곡^{柳谷}과 방축동을 합한 '유방동'이라 불려왔다. 일제의 지명변경 의도가 꽤 씩씩하지만, 합성된 이름 역시 주민들은 내켜하지 않았다. 지명과 관련한 많은 우스개 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곳곳하게 유지해 온 것을 보면 우리의 참을성도 어지간했던 것 같다.

고속도로 건설에 집단 이주 감내

본래 이 마을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집단 이주민이다. 영동고속도로가 난 것이 지난 71년. 그 때만 해도 동서를 가르는 고속도로 북편 양지녘에 마을이 있었다. 그런데 도로가 너무 인접한 마을 위치가 문제였다, 더구나 흙으로 싸 바른 초가집에 머리만 슬레이트로 바꿔 없었으니, 집 모양이 날리 없었다. 결국 78년 고속도로 주변 취락구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의 위치로 집단 이주했다. 20년 상환조건으로 정부용자를 얻어 지은 집이다.

마을은 물 하나만큼은 넘쳐 났다. 수여면^{水餘面}이란 지명도 이런 자연조건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농토도 기름졌다. 지금은 고속도로에 대부분 수용돼 버려, 농지 없는 마을이 되어 버렸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용인 통게이트 이르기 직전, 남쪽으로 보이는 이 마을은 비슷한 모양에 지붕색만 얼룩덜룩하다. 이전부터 큰 신작로를 제외하고는 성산 줄기가 펼쳐림 마을을 싸안고 있어 통로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 골짜기 안에 있는 3개 마을은 예부터 삼성대촌^{三姓大村}으로 불렸다. 지장실은 밀양 박씨^{密陽 朴氏}, 중간말은 경주 김씨^{慶州 金氏}, 아랫 버드실은 한양 조씨^{漢陽 趙氏}다. 그러나 윗버드실은 현재 경주 김씨와 각성이

반반 정도다.

전해지는 설화가 하나 있다. 지장실과 윗버드실 사이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장수바위라 부른다. 장수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발자국을 남겼다는 내용이다. 그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었으나 새로 도로가 나면서 흔적조차 없어졌다.

가내 수공업으로 부촌 일궜

농경사회에서 가내 수공업이 있었다면, 아마도 가마니 짜기가 아닐까 싶다.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촌 소득증대라는 차원의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그런 측면에서 버드실은 대표적인 가내수공업으로 소득을 올린 마을로 알려져 있다. 낚시대 제조사업이었는데, 그 출발은 한승주라는 이북 신의주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방이 되고 월남을 한 그는 처갓집이 아랫버드실이었던 관계로 마을에 정착하게 됐다. 신의주에서도 부호의 자제였던 그는 낚시가 취미였다. 압록강에서 한 시절 낚시를 했던 그는 좋은 낚시대를 잃어버리고 월남했다. 취미를 살리기 위해 이를 제작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당시만 해도 긴 대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던 차에, 그는 3단접이 분리형 낚시대를 고안했다. 한씨는 명주실과 옷칠로 물에 견디도록 하는 등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갖춰 나갔다. 취미생활을 위해 시작한 낚시대 제조업으로 발전한 그는 동네 주민들에게 분업을 통해 소득사업이 되도록 유도했다. 원료는 경상도와 전라도 섬진강변에서 대나무를 가져다 만들었다.

60년대 당시 소득원이 마땅치 않았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 어느덧 낚시대 마을로 불려질 정도가 됐다. 한 때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했을 정도의 규모였다. 이는 당시 함께 했던 주민들의 얘기다. 그러다 60년대 중반 산업화 물결로 플라

스틱으로 만든 뉘싯대가 나오면서 ‘버드싯표 뉘싯대’는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때만 해도 마을은 부촌이었다. 뉘싯대 가내수공업을 하면서 성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하고 풍성한 물로 농사걱정이 없었던 이 마을을 두고 “장작불에 이 밥을 해 먹는 마을”이란 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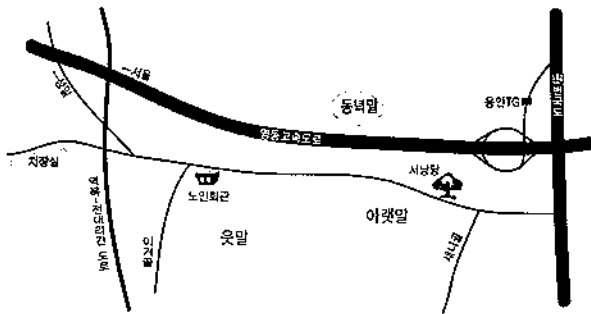
10여년 만에 재개한 버드싯 서낭굿

굿 이야기를 하자니, “웬 굿타령이냐”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얼마 전 포은문화제 일환으로 열렸던 무속축제를 일부에서 문제 삼는 바람에 한 바탕 흥역을 치룬 바 있었다. 착잡한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보았던 나는 민속을 전공한 입장에서 한번 쭈짚고 넘어가려던 참이었다.

본래 무속에서 무뫼란 글자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사이에 사람이 춤을 추는 모습이다. 그 기둥을 우주목 또는 신목으로 읽어낸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해를 넘어 신화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 즉, 천지인(天地人)이 시간과 공간을 떠난 우주의 중심에서 만나 어우러지는 우주론적 세계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무의 의례



서낭당 모습. 한동안 사라졌던 마을 서낭제가 부활되면서 느티나무 정자목은 어느 새 신목(神木)으로 탈바꿈했다.



인 곳은 신가神歌가 구송되고 신령이 무당의 몸을 빌어 굿판에 등장해 인간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다. 즉, 신화가 펼쳐지는 의례이다.

그러나 한국의 굿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무속의 굿은 악기와 장단과 가락이며 춤사위가 전

래의 그것을 이어 오고 있다. 한국의 전통예술에 다름 아니다. 거기에 제사까지 있으니 유교적 전통까지도 흡수하고 있는 매우 종합적인 모습이다. 이렇듯 신화적 성격과 예술성, 그리고 축제성까지 갖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 한국 무속의 굿이다.

따라서 보다 넓은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만약 굿이 종교적인 의미로만 보였다면, 온통 굿으로 이어지는 강릉단오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겠는가. 아랑을 갖고 생각해 볼 일이다. 편협함은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굿은 집굿, 마을굿, 오구굿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 민가의 개인적인 굿으로 집안의 재복과 안녕을 위한 경사굿과 마을 공동으로 마을의 위험을 막고 풍년, 풍어를 비는 액땀 굿이 있으며 죽은 사람의 혼을 달래는 초혼굿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경기도당굿, 서울대감놀이, 진도셋김굿, 동해안 별신굿, 제주도 수놓음굿 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한 마을이 공동체가 되어 수호신을 받들고 의식과 놀이를 행함으로써 한데 어우러지는 용인할미성 대동굿은 마을굿이다. 동시에 액땀굿이며, 경기도의 대표적인 '경기도당

곳' 범주에 드는 곳으로 볼 수 있겠다.

버드실에서 마을 굿이 시작된 것은 오래 전이었던 모양이다. 조선 중엽에 천연두(마마)가 흔하던 시절이었다. 어느 해 마을에는 천연두가 크게 들었다. 그런데 어느 도인이 마을에 나타나 마을입구에 서낭당을 세우면 돌림병을 막을 수 있다 하여 서낭당을 세우고 매년 굿을 하게 되었다 한다. 이렇게 시작된 굿은 계속 내려오다 20여년 전에 끊기고 말았다.

갑자기 끊겼던 굿을 복원하게 된 것은 사연이 있다. 하나는 서낭굿을 안 한 이후 계속 마을에 흉사가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마을주민이 여기저기서 비슷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버드실 골짜기 3개 마을이장이 모여 숙의한 끝에 서낭굿(당산굿)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어느덧 70세 이상 되는 노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다보니, 버드실에서 농업의 앞날은 끄트머리다. 그러나 마을은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으로 촘촘히 엮여져 있다. 출향인 중심으로 '용상회'라는 친목단체도 유지되고 있다. 매년 주민들이 야유회를 간다. 끊임없이 주위 환경은 변하고 있어도, 끈끈한 주민간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 지고 있음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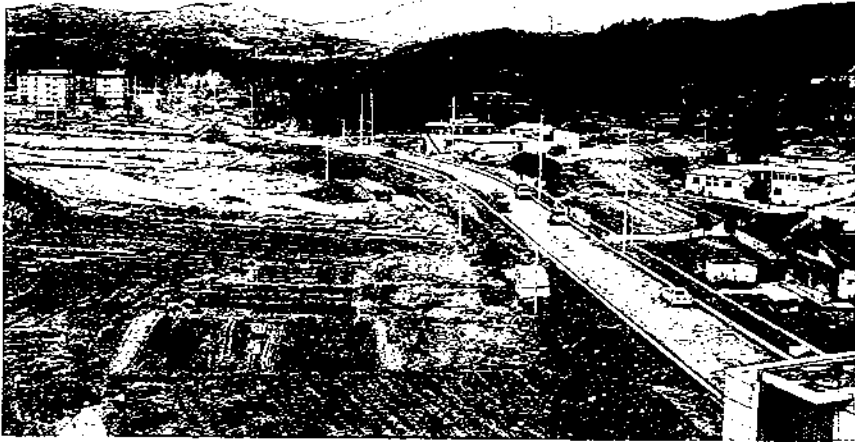
역북동 음터골

옛정취 간직한 도심속 농촌

시청 소재지 시가권역 4개동 가운데 가장 중심가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 역북동에서 서북방향으로 성산자락을 따라 길게 끌어 형성돼 있는 곳이 바로 음터골이다. 낙은, 중간말, 구성말, 작은배미 등 서너 개의 작은 소공동체가 전체를 이룬 마을이다. 예전에는 용인중학교 옆으로 난 좁은 길 외에는 달리 길이 없던 곳이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 신주공아파트 입구 금학천을 따라 마을 숲이 빼곡하게 들어서 안쪽 마을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음터란 바로 이처럼 사방이 막혀 어두운 마을이란 뜻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현재는 주택은행 옆길과 군사령부로 들어가는 큰 도로가 나있다.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쪽이 낙은樂隱으로 역북 8통으로 분리된 곳인데, 예전에는 객사쭈쭈가 있어 나그네골이라 불리다 차차 변음 됐다. 50년대에는 10여 호 안팎이던 이곳이 지금은 시가지의 팽창으로 신주공아파트 등 고밀도 주거단지로 변해있다. 주민 수가 1천명이 넘는다.

중간말은 낙은과 구성말 사이에 있다. 낙은하고는 판이하게 옛 농가모습이 흔하고 2층 이상 올라간 집은 거의 없다. 바로 이곳에서 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2층 이상 건축물은 물론 도로변 30m 이내에는 건축행위 등이 제한돼 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어느새 벼이삭이 패기 시작한다. 청



새로 도로공사가 끝나기 전인 2005년도 중간말과 구성말 모습.



먼리 별학동 신우 아파트에서 바라본 읍터골 전경,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이다.

명함이 더한 하늘에는 풍계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으로 봐서 가을이 성큼 다가섰음을 느낀다.

장군 별이 아홉 개라 구성말?

군 사령부 정문을 마주보고 오른쪽으로 구성말이 눈에 찬다. 야트막한 농선마을을 감싼 가운데 좁은 안뜰이 펼쳐진 이곳의 유래는 두 가지로 전해진다. 그 하나는 예언지명과 관계가 있다. 군사령부에 가장 가까운 이곳은 익히 높은 별들이 뜰 것을 지명으로 예견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군 사령부내 장군 별을 합하면 9개가 된다는 이야기마저 있다.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재미있는 소재다.

다음은 다소 신화적인 포장이 되어 있다. '움터골 조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양 조씨漢陽 趙氏 종족촌 마을. 이곳에 대대로 살아오신 어른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한 선대께서 말씀하시길 옛적 마을에는 가옥이 모두 9채였다고 그래. 어느 날 한밤에 호롱불이 흰히 비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 '아홉 개의 별이 빛나는 듯하다'. 그리하여 구성말九窟谷로 부르게 됐다는 거지."

좀 김빠지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형과 쓰임새에 따른 순우리말이 정답일 듯 싶다. 현재 미군 부대가 들어서 있는 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꼬트머리였다. 하여 '구석말'로 불리던 곳이다.

구성말 역시 변화가 더딘 곳이다. 이는 중간말과 마찬가지로 군부대와 관련이 있는 인의적인 이유 때문이다. 군사령부가 이곳에 들어선 것은 지난 73년. 당시 모의간첩 훈련을 하던 군 고위지휘관들은 이곳 지형이 군사적으로 요충지임을 알고 부대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본청이 세워진 자리 뒷산이 '국



구성재.

수봉國守峰'이었다. 나라를 지킬 쓰임새가 있었던 터임을 미리 예견한 듯하다. 서북쪽으로 높쭉하게 솟은 성산과 용인 시내를 감싸는 분지형 산세로 말미암아 움터골 마을은 한국전쟁 중에도 비행기 폭격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회고다. 군사적으로 요새인 셈이다.

아무튼 부대가 있던 마을주민들은 혈값 보상비를 받아 정든 고향을 등져야만 했다. 사령부 본부가 있는 아랫작은배미 주민 7가구, 지장실로 넘어가는 옷작은배미 주민 11가구가 그들이다.

예전에는 유림동 지장실까지 단 10분 이내로 넘나들던 길이었다. 지금은 수원 방향 시내 길도 막혀 몇 km이상을 돌아야 하는 오지마을이 되었다. 다행이라면 최근 333번 도로가 신설되면서 움터골을 지나 유림동 지장실, 포곡, 모현을 거쳐 분당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많이 진척되고 있다. 주민들은 무려 35년 여 만에 예전처럼 지장실을 내 집 드나들 듯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성인 한양 조씨는 해방 직

후만 해도 9할 정도를 차지했었다. 현재는 20여 호를 넘지 않는다.

정조 개혁정치의 상징 채제공

용인은 명현들의 사후 안식처가 많기로 유명하다. 조선 중·후기에 와서 종족촌이 대거 형성하게 되는 것도 유력 가문들이 분묘와 종토를 지켜야 하는 사회적 규범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 채제공만은 그의 후손들이 용인에 퍼지지 않았으니, 특이한 경우다. 그가 잠든 곳은 낙은 마을이다. 멀찍이 깊은 산 속 명당자리에 웅장한 봉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낮은 언덕배기에 수수한 묘역으로 조성돼 있다.

정조개혁의 상징 채제공 선생 묘문비. 합리적 개혁으로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던 채제공의 죽음을 슬퍼하며 왕이 내린 비문이다. 그는 화성축조의 총 지휘자이기도 했다.



그가 누군가. 조선 영·정조 시대에 걸쳐 충신으로 이름을 날렸던 변암씨 巖 채제공蔡濟恭(1720~1799) 아닌가. 그의 어머니가 황룡이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을 꾸 후 그를 낳았다는 정도야 누구나 있을 법한 얘기가. 그보다는 조선사를 통 털어서 문화적 르네상스를 열었던 영·조대의 개혁 정책과 정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 바로 그가 화성유수가

되어 총설제자이자 책임자로서 완성해낸 것이었다.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며 개혁의 상징이었던 인물이지만, 그의 개혁은 튀는 개혁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가 호서암행어사였을 당시에는 균역과 감세 실시에 대한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에서 반영하도록 했다고 전한다. 또 사회적으로는 천주교도들에 대한 온건정책을 펴 그가 영의정으로 있던 10여 년간 박해가 확대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 얼마나 다행인가.

정조 탕평정책의 한복판에 서서 정파적으로는 소수파이면서도 소리 없이 개혁을 이끌어낸 채제공. 그의 소박한 묘역에서 그다운 면모와 일관성이 보여, 괜히 숙연해 진다. 정조대왕이 친히 글을 내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뇌문비까지 세울 만큼 아꼈던 인물 채제공. 그의 유택이 평범하기에 찾는 발걸음이 적어서일까. 이르는 길은 아직도 불편하다.

조성래의 책력으로 쓰는 향토지

일기란 개인의 기록이다. 따라서 솔직한 기록이다. 반면 은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이고 솔직한 글은 후대의 엄청난 사료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 실제로는 세상을 움직이는 기록이었던 일반민들이 자신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이유로 역사의 전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음터골에는 오랜 세월, 자신을 남긴 한 어른이 있다. 이미 고인이 되어 버린 그는 구성말에 살았던 조성래다. 요즘의 달력적인 책력冊曆에 조상대대로 1백년 이상 가족 대소사를 비롯, 나랏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다. 매일 매일 대·소사를 써 내려갔다. 여기에는 그날의 날씨를 비롯해 얼마를



누구에게 꾸어주고 받았는지,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품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롯하여 신문에 난 주요한 기사는 별도로 스크랩을 해 뒷장에 가지런히 붙여있다. 그야말로 당시의 정치, 경제, 생활문화상까지 엿볼 수 있는 기록장이다.

그 첫 권이 '대청광서大清光緒 4년 세차무인시현歲次戊寅時憲'이라 적혀 있어 약 130년 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생활사 자료로서 매우 유용한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손들의 관심이 필요할 듯하다.

한양 조씨들의 세거지로, 근래에는 군사령부가 있는 특수마을로, 도심 속의 농촌으로 인식되고 있는 움터골.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지 은근히 궁금해진다.

어정동 초당골

누대 터전 사라지고 동백지구로 새 사람 담아

한 마을이 번쩍 사라지고, 그 위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전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게 내 팔자인 듯싶다. 어느새 수만 명이 사는 저 단지를 바라보면서 주마등처럼 옛 모습과 일들이 스친다. 동백지구로 편입된 중동 마을의 가가호호 대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으니, 더더욱 세세한 기억까지 머릿속에 맴돈다. 내·외촌에서 초당골까지 곧게 뻗었던 기차 길, 개발소식이 들려오면서 민가와 공장들이 어지럽게 혼재해 있던 과도기의 을씨년스런 모습, 곳곳에 나뭇잎이 떨어졌던 택지개발 반대 현수막, 체념한 듯 논둑에 앉아 담배를 연신 빨아대며 먼 곳만 응시하던 원주민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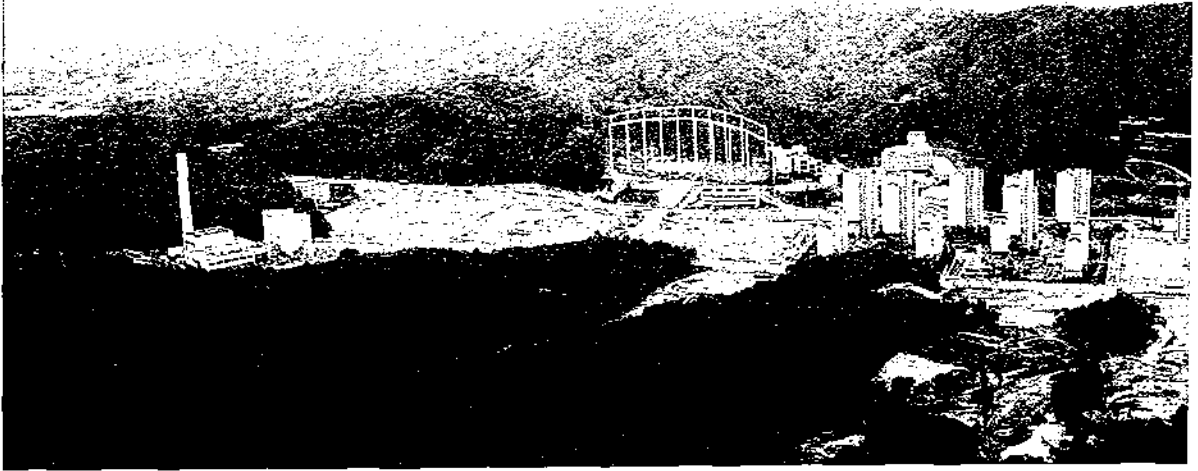
옛 초당골 마을 모습.

여

백



초당골을 포함한 중동의 옛 모습. 동백지구로 개발하기 전인 2001년, 석성산에서 찍은 사진이다. 황금물결을 이룬 모습이나, 흑백처리를 해 이



2006 동백지구, 용인의 주거공간은 이처럼 급변하고 있다. 몇 년 사이 아파트 숲으로 들어차고 있는 전경이 옛 사진과 대비된다.



기판하다.





초당골 느티나무 옛 사진
(2001). 지금은 주변 대지가
복토되어, 허리까지 흙
이 올라와 있다. 보기에
안쓰럽다.

부... 모든 게 과거일 뿐이다.

이제 옛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 있다면, 초당골을 지키고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뿐이다. 수백 년 주민들과 숨결을 함께하며 역사가 된 느티나무. 그 나무가 지금 허리까지 흙을 채워 넣고 힘겨워 하는 모습을, 나는 달리는 차 속에서 차창 넘어 보곤 한다.

초당곡의 옛 모습과 먹조현 전설

돌고 돌아 넘어가는 메주고개를 넘어 초당골이 있었다. 성산 밑자락에 동서로 길게 누워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따뜻하고 운치있는 평온한 마을이었다. 고려 말 야은 길재 선생이 은거하면서 초당을 짓고 유생을 모아 강학했다 하여 그리 부른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초당곡은 한 마을이지만 4개의 소촌으로 이루어져 있었

다. 동쪽 맨 위를 잇초당골로 불렀다. 그 밑으로 장자골, 아랫말, 은행나무 배기 순이었다. 중리는 차례로 큰 마을이 있었는데, 내촌, 외촌, 언목이었으며, 도로가 이어지는 중간 길목에는 어정이 있었다.

수여선 철도는 이 마을을 가로지르면서 서 성산 밑 터널을 통해 김량장동으로 이어졌고 여주까지 달렸다. 역사적 수명을 다하고 1972년에 철거된 철로. 그 길은 이후 그대로 포장되었다. 까까머리 중학생이 여학생을 짐칸에 달고 그 길을 달리면, 갈대밭 사이로 비치는 그 모습은 그대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동편으로 웅장한 성산이 바라다 보이고 마을 앞 남쪽으로는 두루봉이라 했다. 원래 보명산(寶明山, 보개산 寶蓋山)으로 불리기도 했던 성산은 예나지금이나 용인의 진산(鎭山)으로 남아있다. 그 앞이 두루봉이다. 노적봉이라고도 했는데, 높이 쌓이든 곡식 더미를 일컫는 말이니, 풍요를 염원하는 서원이 깃든 산이다. 예로부터 영남대로이자, 과거길이었던 메주고개는 충청도에서 용인을 거쳐 메주고개를 넘어 온 유생들이 아치지 고개(동진원)너머 구성으로 향하던 길목이었다. 다시 탄천을 따라 가면 서울에 이른다. 고개 넘



초당골로 가는
수여선 기차길.

어 고개에 한 가지 전설쯤 없을 리 있겠는가. 이야기는 이렇다.

충주에 자린고비가 있었다. 하루는 식사도중 된장에 파리가 앉았다. 자린고비는 파리 다리에 붙은 된장이 아까워 좇아 나섰는데 어느덧 메주고개에 도달하였다. 파리를 찾으려 이곳을 '메주' 밟듯 뒤졌다. 다시 날아가는 파리를 쫓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어정어정'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파리를 발견하고는 힘차게 덮쳤다. 그런데 그만 '아차'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여기에서 연유하여 각각 메주고개, 어정, 아차지 고개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설이다.

메주고개는 명조현(冥祖峴)으로 옛 문헌에 나타난다. 찾을 댜, 할아버지 조, 고개 현이다. 즉 할아버지를 찾은 고개다. 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또 하나있다.

건너 삼가마을에 홀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관가의 부역 때문에 여러 날 집을 비우게 되었다. 이에 시아버지는 아들 대신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팔아야 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돌아올 때쯤이면 항상 아이를 업고 고갯마루에서 기다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어가도 돌아오지 않는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며느리는 아이를 업은 채 앞으로 길을 나섰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한참을 헤매고 있는 차에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아닐까 하여 달려갔더니, 과연 그랬다. 그 곳에는 시아버지가 호랑이를 만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호랑이 앞에 나섰다. "배가 고프다면 내 아이라도 줄 터이니 시아버님을 다치게 하지 말라" 그리고는 아이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다. 호랑이는 아이를 물고 이내 사라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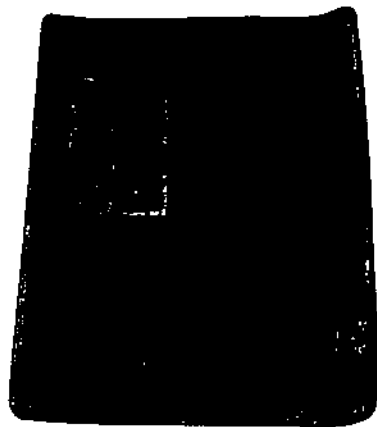
겨우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는 이내 상황을 알아차렸다. 비통에 젖어 “나는 늙었기에 죽어도 한이 없 다만, 어찌하여 어린 손자를 죽게 했느냐”며 크게 꾸짖었다. 이에 며느리는 대답했다.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으나 부모는 어찌 다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집으로 무사히 모셔왔다.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전설은 언제 생각해 봐도 가슴을 울린다.

초당곡을 지켰던 사람들

초당곡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곳은 충주 박씨忠州朴氏, 한양 조씨漢陽趙氏, 성주 이씨星州李氏, 남양 홍씨南陽洪氏가 많이 살았다. 마을이 사라지기 전 일반 가구는 40호를 조금 넘었다. 그 외에 평산벌라 등을 다세대 주택이 많아 100여 호를 이루고 있었다. 인구는 약 270여명이었다. 축산 농가도 있었는데 5호 정도가 됐으며, 나머지는 대개 전답농사를 지었다. 전답은 종종 소유가 많았다.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은 무엇보다도 산신제라 할 수 있다. 배산임수와 장풍득수를 이상으로 하는 정주 공간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특히



석성산 밑 동네 중동 4개 마을은 철저히 산제를 지내왔다. 비록 마을은 사라졌지만, 올해도 다시 모여 제를 올렸다. <자료 사진>

마을이 등진 뒷산은 진산(鎭山)이라 하는데, 성산은 용인의 진산이었던 만큼 산제사는 가장 중요한 마을의 집단적 의례였다, 그 중요성이 확인되는 것은 완의다. 수 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으로 이재규(73)씨가 보관하고 있던 완의(完議)에는 산제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마을 조직에 대한 운영회칙과 구성원 명단, 산제 방식과 축문 등까지 들어있다. 또 송계(松契)로 불렸던 마을 모임이 1918년 3월 15일 산축계(山祝契)로 바뀌면서 산신제를 이곳에서 주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순서는 이랬다. 매년 음력 7월 초하루에서 3일 사이, 길일을 택해 중리 각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의식을 치렀다. 소 한 마리를 잡고 중리 내촌 뒤편 성산지락에 산주를 모셔놓은 곳에서 거행된다. 좋은 자리를 골라 터주를 지어놓고 그 안에 호랑이와 사자상(象)을 압수 2필씩 쇠로 만들어 산주로 모시고 있다.

“하늘에서 내리신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과 땅에서 솟아오르는 맑으신 산신령님이시여... 신령님의 영험한 능력을 드높여 냇가의 집이나 들문을 상서롭게 하시웁고 귀신이나 요물은 멀리 보내웁고 호랑이나 표범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

시고... 들에는 윤기 흘러 곡식이 잘돼 집집마다 가득하고 ... 깨끗한 짐승과 술, 향을 마련하여 선인이 계신 뜰 앞에 엄숙하고 정결하게 제사를 지내오니 기꺼이 흠향하소서.”

보개산 산신령에게 드리는 산신 축문 내용으로 오랫동안 전하는 것이



다. 마을주민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산주를 모신 터가 서너 번 훼손당했다.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인민군들이 '미신타파' 라는 명분으로 없었다. 또 한 번은 누군가에 의해 부서졌지만 동네 어른들은 끈질기게 복원해왔다. 축문에 큰 산짐승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원한 것에서 보여 지듯 옛날 성산 주변인 이곳엔 산짐승이 많았다. 작고한 이병직 노인은 “보통 학교 당시 산에 올랐다가 바위 위에 앉아있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 도망친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보개산 신령제 보존위원회' 를 1995년에 만들어 계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산개한 마당에 그 전통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수여선 추억도, 성산자락에 얽힌 추억도 가슴 속에 묻어둔 채 또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 각기 살아가고 있다. 일부는 다시 옛 공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중리는 또 다른 세상으로 변해있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 각종 편의 시설, 바쁜 길을 오가는 생기 넘치는 사람들….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오늘 초당곡에 옛 전경이 오버랩 된다. 그리고 한 얼굴이 떠오른다. 5년여 전, 그는 이렇게 넋두리처럼 외쳤다.

“우리는 나가면 그 순간 객사여.” 그 노인은 지금 과연 살아있을까.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정동 백현마을

세월의 풍상에 할미성도 허물어지고... 마을도 사라지고...

딱 10년 전이다. 1997년 어느 가을날. 난 그 때를 잊을 수가 없다. 카메라를 들고 백현 마을을 찾아, 머잖아 사라질 풍경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고추를 팔리던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휘이 저으며 내게로 달려오고 있었다. 의아했지만 순간 그의 비장하고 노한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안되겠다 싶어 일단 피하고 말았다.

상황을 보아가며 먼발치에서 취지를 설명했다. 차차 노기가 사라지고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나를 토지공사 직원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당시는 이미 동백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된 다음이어서 언제 마을을 떠나는가 하는 것만 남겨두고 있는 때였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농토를 가꾸고 다시 이를 후대에 물리는 것이 숙명이요, 순리라고 믿으며 살아온 노인에게는 한마디로 청천 병력이었던 것이다. 마치 당대에 후사를 못보고 대가 끊긴 채 조상을 뵈러 가야 하는 심정과 똑 같았으리라. 백현하면 아직도 그 때가 떠오른다.

군량뜰에서 바라 본 백현 마을(1997년).
풍요로운 농촌 모습 그대로다.



아름다운 백현마을의 추억

10년 전, 마을 모습은 이런 것이었다. 백두대간의 한강기맥에서 갈라져 내린 한남정맥의 줄기가 이 마을을 감싼다. 동북쪽으로 할미성이 등대고 있는 한편 동남 쪽으로는 용인의 중심산인 거대한 석성산이 우뚝 솟아 있다. 그때만 해도 가을의 풍요로움이 물씬 느껴지는 들녘에 휘휘 감은 산자락을 끼고 옹기종기 동지를 들고 있었다. 마을은 잣나무고개가 있던 밀 동네라 하여 백현峯이라 이름 지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잣'은 '재'의 옛말이다. 지금은 단순히 고개로만 쓰이지만, 옛날에는 산이나 성城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 '잣고개'란 '성城이 있는 고개'를 뜻하며, 결국 할미산성 고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맞다. 잣나무 고개와 성城 고개는 전혀 뜻이 달라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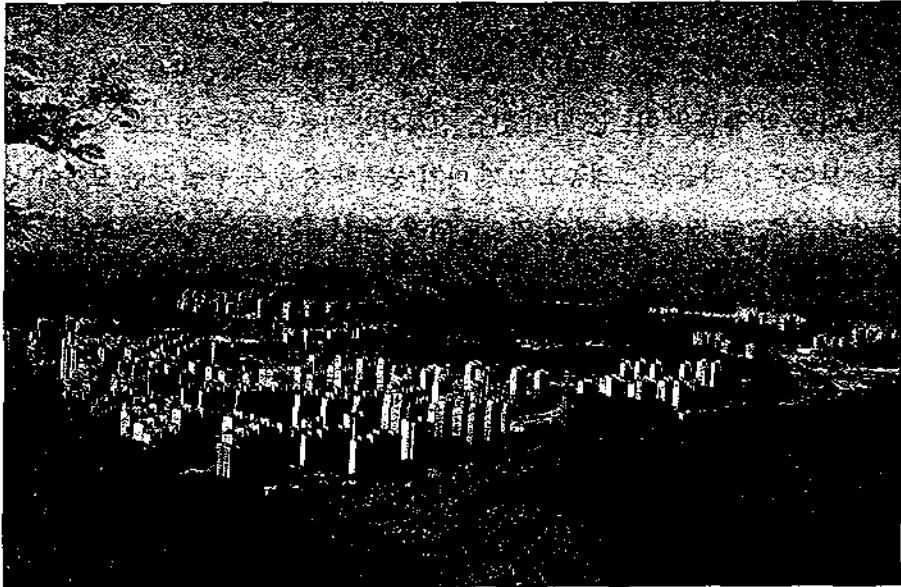
마을 앞에 펼쳐진 넓은 벌판이 군량뜰이다. 옛날 군사들의 군량을 조달했던 곳으로 마을 앞 들판을 이르는 말이었다. 전체적인 마을 형상은 참으로 특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을을 그려놓고 보면 마치 몽뚝한 손을 쭉 펼친 듯한 모양이다. 산자락 안쪽으로 집이 있으면 양 옆으로 담장 두르듯 숲과 구렁이 감싸고 너른 앞뜰이 펼쳐져 있다.

칸칸이 나뉘어 진 아늑하고 독립적인 공간에 얼추 10여 호씩 드문드문 자릴 잡았다. 참으로 절묘한 입지가 아닐 수 없었다. 흰한 군량뜰 벌판을 따라 길을 오르면 마을 맨 오른편으로 석성산 가까운 쪽이 밭가운데 말이었다. 차례로 윗말인데 돌담이 일품이다.

서편으로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면 감나무와 밤나무가 어우러진 가운데말이고 그 다음이 샘밭로 불리웠다.



할마산성 위에서 바라 본 백현마을 일대 모습. 겹겹이 야트막한 산마루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1997년).



같은 위치에서 바라본 2006년 10월 사진. 아파트 숲으로 변해있다.

이 마을은 누대에 걸쳐 밀양 박씨密陽 朴氏가 집성을 이뤄 살던 곳이다. 고려 중엽 규정공規正公 顯鎡의 13대손으로 종사품 벼슬인 훈련원 첨정판관訓練院 僉正判官을 역임한 신지新枝가 약 450년전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10년 전 당시 50% 남짓 박씨였고 각성이 섞여 살았다.

당시 주민 박호식(72)씨에 의하면 윗말 뒤편 산43번지 부근에서 70년대 초반 예비군들이 방공호를 파던 중 고인돌支石壙의 흔적으로 보이는 크고 넓은 덮개돌上石과 받침돌支石, 그리고 꺾문거리 부장품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나왔다는 한다. 나무로 우겨져 직접 그 흔적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청동기 시대의 무덤형태인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곳임에 틀림없다. 50여호, 약 2백명의 주민이 살았던 백현마을은 정말 빼어난 풍치를 지닌 곳이었다.

마을과 할미산성

이 마을을 대표할 만한 유적은 단연 할미산성이다. 마을 지명조차 할미산성 밑 동네 라는 뜻이니,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할미산성은 동백리 산 32-1번지에 있는 것으로 해발 349m의 선장산 정상부를 감싸 안은 석축산성이다. 에버랜드를 끼고 차로 올라 에버랜드 나들목 주변에서 20여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용인문화유산 총람』에 의하면 “이 성은 마고선인麻姑仙이라는 한 노파가 축성했다고 하여 노고성老姑城, 할미성이라고도 한다.”고 적혀 있다.

1908년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고모성비국등록명 유폐성姑母城備局勝錄 有廢城’이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보물고적 조사자료』에는 “석루石臺 주위는 약 4백간(727.2m)이고 전부 붕괴되었다. 고려 때에 한 노파가 하룻밤에 축조하였다고 전해와 노고성老姑城 이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할미산성과 백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지정 문화재가 된 만큼, 용인 랜드마크로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레는 외측으로 약 7백m이며 면적은 약 9천 평이다. 현재 성벽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헬기장 부근 서북향 방향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축성방식은 편축법片築法이다. 거의 곧게 올려 축조한 자연석 외측과 그 안쪽으로 잔돌을 다져 넣고 마지막 안쪽 마무리는 산의 자연지형을 의지함으로써 튼튼하게 유지토록 하였다. 편편하고 20~30cm의 거의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가로길이가 30~80cm로 횡줄이 살아있는 장방형 쌓기를 했음을 보여준다.

지형에 따른 분류로 보자면 산정식 산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산의 정상을 중심

으로 7~8부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이 되게 한 바퀴 돌려 쌓는 것을 말하는데 마치 머리띠를 두른 형태와 같게 하여 테피식이라고도 하고 멀리서 보면 시루에 흰 띠를 두른 것 같이 보여 시루성이라고도 했다.

성의 내부 남쪽은 비교적 넓은 평지가 마련돼 있고 몇 점의 토기편土器片과 와편瓦片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90년대 용인향토문화연구회 박용익 회장과 용인무속보존연구회 유성관 회장이 15점의 토기와 와편을 채집했었다.

노고성老姑城이 쌓아진 것이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는 최근 경기도 박물관과 용인시가 공동으로 벌인 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요지는 “한국 고대의 석축산성으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신라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곽”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어, 앞으로 보존 및 복원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놓았다.

할미산성을 가 볼 때마다 거의 허물어지고 곳곳에 설치된 예비군 진지의 방벽으로 쓰인 돌조각들을 보며 아쉬운 생각이 차오른다. 지금처럼 방치와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자꾸 허물어져 그나마 남아있는 몇 십 미터도 안 되는 온전한 성벽이 언제 훼손될지도 모를 일이다.

마고할미 설화를 향토 창조신화로?

오래전부터 포곡의 이광섭 선생으로부터 즐기치게 들어 온 당부 말씀이 있었다. 마고할미 전설을 부활해서 용인의 창조설화로 만들도록 신경 써보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늘 새기고는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마고할미 전설과 유사한 것이 다른 지역에도 전해지고 있었다. 향토 창조 신화라 할 때는 우리만의 독창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좀 있었다. 그런데 생

각을 바꾸게 되었다. 유사한 내용들이 있긴 해도 이야기 구조와 결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제주도의 선문대 할망은 제주의 상징으로 부각되어 있다. 여러해 전 전국체전이 거기서 열렸을 때는 초대형 선문대 할망 모형에 올라가 성화 불을 붙이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제주처럼 용인에도 향토 창조신화를 만든다면 주민들의 자부심과 정서적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늘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신화에 등장하는 마고할미 전설이란 무엇인가? 먼저 용인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풀어보면 요지는 이렇다.

옛날 슬하에 남매를 둔 노부부가 용인 중심부인 석성산 자락에 살았다. 아홉해 동안 가뭄이 들었다. 하루는 현몽을 통해 슬하자손 중 하나를 죽여야 비가 온다고 했다. 노부부는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내기를 시켜, 지는 아이를 바치기로 했다. 아들은 성을 쌓게 하고 딸은 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하룻밤 사이에 다녀오도록 했다. 아들보다는 딸이 바쳐지길 원했던 것이다. 이들이 남쪽에서 성을 쌓기 시작하자 노모는 북쪽에서 성을 쌓았고 할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며 초조한 마음으로 흙을 한줌씩 쥐었다. 산성이 다 되어갈 즈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딸이 돌아와 버렸다. 이때 노모는 북쪽 성을 다 쌓았으나 아들은 남쪽 성을 다 못 쌓았기에 두 개의 성으로 남게 되고 죽게 됐다. 이때 천둥번개가 치며 장마가 져 가뭄은 해소되었으나 할아버지와 딸은 벼락을 맞아죽고 할머니만 남아 애를 애통해하며 살다 죽어 산신이 됐다. 용인의 산인 할미산성 수호신이 되어 지역 상신령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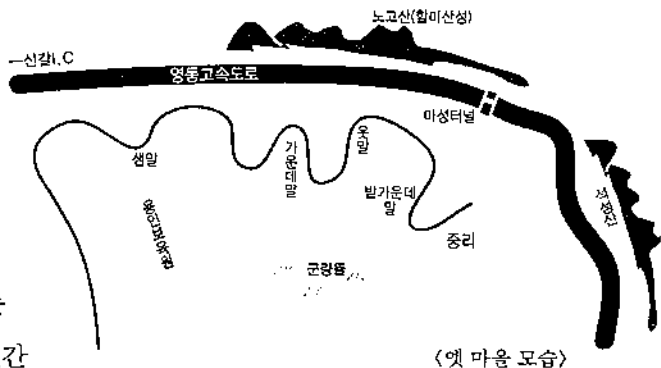
또 하나는 “마고할미가 하룻밤 사이에 성을 쌓은 것이 할미산성이다”라는 설

화도 동시에 전해진다. 이러한 전설을 가진 할미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의 단오굿 신앙의 중심지가 대관령이듯, 석성산 일대가 신령이 깃든 토속신앙의 중심지 구실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과거 동제(洞祭)를 행하던 곳을 살펴보면 마성 마가실, 포곡면 가마실, 둔전, 구성읍 동백리, 초당곡 등 동제가 근래까지 전승되던 곳은 어김없이 석성산과 할미산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할미(할망) 전설과 관련된 유사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경기도 양주에도 노고할미, 삼척에는 서구할미 등 여신에 얽힌 지역설화는 여럿이다. 이들은 비슷한 특징을 지녔다. 마고할미를 포함해 거대한 몸짓과 괴력을 가진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 설문대 할망이 흙으로 부어 날라 한라산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모현면 갈담리에 돌이 잔뜩 쌓여 붙여진 석담(돌대미)이란 마을이 있다. 그런데 그 돌대미는 마고할미가 치마폭에 돌을 나르다 흘린 것이라는 설이 전해진다.

할미란 말은 할머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한+어미’를 이른다. 다시 말해 ‘큰 어머니(大母)’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이 발견된다. 선문대 할망은 물에 들어가 키 자란을 하다

가 한라산 물장오리에 빠져 죽고 만다. 반면 마고할미는 끝까지 살아남아 인간 세상의 염원인 비를 주고 신령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볼 때 대부분의 패배적인 창조 여신과는 달리 용인의 마고할미 신화는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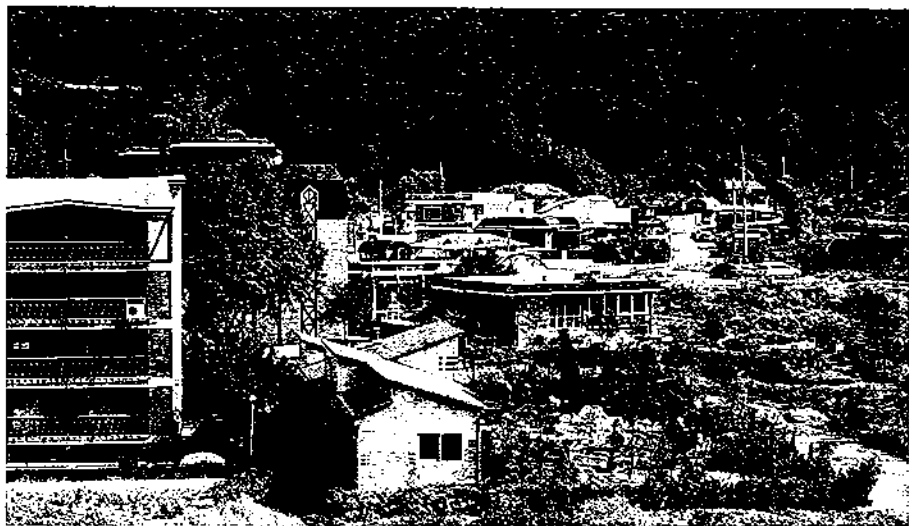
세상의 염원을 해결해 주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창조 여신임에 틀림없다. 이광섭 선생의 말이 설득력 있다는 얘기다. 용인 향토 창조신화와 관련해선 전문가들과 해당 기관 그리고 여러 시민들과 함께 실천 의지를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다시 석성산과 할미산성에 올라 바라본 백현마을은 아파트가 즐비한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비록 그 터전에 사는 사람들이야 바뀌었을지언정 백현이란 지명은 그대로 품고 살 것이다. 여전히 설화속의 마고할미는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주민들 역시 석성산과 할미산성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라 믿는다.

상하동 민재궁

마을지킴이 신앙의 완벽한 공간

대로변에 있는 마을치고는 웬지 어울리지 않는다. 웬만하면 뜰어 치우는 세상이다. 그런데 민재궁은 마을입구에 장승도 서있고 솟대가 있는가 하면 들무데기와 당산목까지 자리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아직까지 산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지만 그 엄격함에서 민재궁은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보통 마을지킴이 신앙에서 산재를 지내는 곳은 마을의 가장 중심된 지역으로 주산이 된다. 상당신을 모시는 곳이다. 마을입구는 거리신을 모시는 공간이다. 탑의 일종



상하동 민재궁 전경. 밀라와 전통농가가 혼재되어 있다.



마을입구에 있는 하당신 공간의 모습.

인 돌무대기, 솟대, 장승 등의 하당신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민재궁이야 말로 용인에서 전통 마을지킴이 신앙 구조를 살필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다. 그것도 대로변에 있는 마을로서 신기할 따름이다.

맨 앞에서 있는 것이 장승이다. 소박하고 자세히 보면 익살스럽기까지 한 우리의 얼굴 그대로다. 어쩌면 경계의 표시이기도 하고, 잡귀나 병마를 물리치는 수호신이기도 하고 허한 지형을 채워주는 비보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솟대가 서 있다. 높다란 장대 위에 새가 앉아 하늘을 날고 있는 형상인 솟대. 이는 하늘과 땅의 매개자로 세워졌다. 주로 오리형을 하는 이유도 나는 새이자, 물에 앉아 먹이를 잡아먹는 물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오리는 천상계와 하상계를 연결하는

중계자의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높이 치솟은 솟대를 연상하는 사람들은 이 앙증맞을 정도로 형식적인 솟대를 보면 아마 웃음이 나올 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평소에는 친근한 컴퓨터자 놀이터일 때 느티나무 고목은 그저 정자나무다. 질게 드리운 그들은 한 여름 더위에 지친 몸을 시원하게 씻어준다. 그러나 원새끼로 끈 금줄이라도 둘러쳐지는 날이면 그 순간은 친근한 놀이터가 아니다. 왠지 범접하기 어려운 당산 신목神木으로 변하고 만다.

신성시 되는 당산나무는 나뭇가지 하나라도 꺾으면 해를 입는다고도 한다. 대개 수 백 년 고목으로 보존되는 이유 중 하나도 거기에 있다. 때로는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를 건드렸다가 무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주위 어른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민재궁 느티나무 뒤로는 돌무더기가 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하나씩 던져 쌓여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법 규모가 있다. 우리가 소원을 비는 장소이기도 하고, 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왜 마을 입구에 왜 이처럼 마을지킴이 신이 돌보는 공간을 만든 것일까. 쉽게 생각하면 마을입구는 문이다. 문은 마음의 문도 있고, 대문도 있다. 그 문은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은 아치와 같다. 이로운 사람이나 신령, 좋은 것은 출입을 허용하고, 해로운 존재들이나 나쁜 기운을 막는 대문지킴이의 상징적 존재들이나 것이다.

민재궁 마을이 마을신앙의 원형질에 가깝다는 평가는 산제에서 더욱 확인된다.

민재궁 공동체를 끌어가는 가장 커다란 힘은 매년 음력 사월 초하루에 치러지는 산제다. 이때가 되면 마을의 모든 주민은 비린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 그

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당주’는 가리고 가려 뽑는다. 당주로 뽑히려면 일 년 간 흥사가 없었던 가장 깨끗한 사람이 맡는다. 그 집은 심지어 강아지 새끼 한 마리 태어나선 안 된다. 부정할 날, 달도 안 된다. 부정할 일이 있으면 다음 달로 넘어간다.

어느 정도로 가리고 정성을 다하는지는 주민들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9월 마을 노인정에서 할머니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이 같은 마을 지킴이신앙의 철저함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얼추 10여 년 전이지. 뜨내기가 동네에 들어왔는데, 10월이 아닌 9월에 정성을 들였다는 거여. 산제사를 지내기 위해 청소하려고 ‘산제사 우물’에 가보니까 물이 바짝 말라 있더라는 거여. 안절부절 못하다가 물을 떠 가지고 올라가보니, 그때서야 물이 가득 고여 있더라야”

감히 날도 못 지킨 정성에 신령이 노한 것이라는 생각을 주민들은 하고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제사를 지낼 때 밝히는 불은 기름그릇에 솥을 말아 붙여야 하잖어. 그런데 어느 해인가 미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올라갔데. 급한 김에 솥바지에서 솥을 꺼내 기름불을 만들었더니, 글썽 산신령이 불을 휘히 비추면서, 바람이 행하니 불게 해서 불을 꺼트려 버렸다는 거여.”

다음부터는 험곡식이나 새 것이 아니면 제수나 제구로 쓰질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먹는 것, 보는 것까지 가렸다. “이렇게 까지 하는 건 다 대중이 편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자면 그만큼 정성이 필요한 법이여.” 동네 어른의 말처럼 극도의 신성함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가리는 행동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가는 구도자의 그것과도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산제준비는 당주와 하주가 한다. 하주는 당주를 거들어 제사 음식 등을 준비하는 걸 함께 도와주는 역할

이다. 제수는 '소산'이라 하는데, 이는 비린 것을 안 쓰는 것을 일컫는다.

음식은 감, 메밀묵, 두부, 대추, 밤... 육류는 하나도 없다. 산제에 쓸 자리도 새로 짠다. 준비가 되면 때를 기다려 자정계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입구에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창호지로 만든 '소지'를 태워 올린다. 그렇게 끝날 즈음이면 대개 새벽닭이 울곤 했다. 지명까지도 '산제사 잡숫는 산' '산제사 골' '산제사 우물'이다.



숙종의 장모, 즉 인현왕후 민비의 어머니 풍창부부인(豊昌府夫人) 조씨의 묘 상석 받침돌에 새겨진 도깨비 상. 묘를 지키는 벽사 상징물이다.

영욕을 함께 한 두 역사 인물

민재궁 마을의 유래는 역사적 사연을 안고 있다. 이 마을 뒷산(현 흥국생명 연수원 서쪽)에 숙종의 장모, 즉 인현왕후 민비의 어머니가 되는 풍창부부인(豊昌府夫人) 조씨의 묘가 있다. 그리고 다음 능선에는 명성왕후의 오라버니 민승호(1830~1874)의 묘가 있다. 예전에 이 곳에 민씨 집안의 제사를 지내던 재실(齋室)이 있었다 하여 민재궁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임금님의 관을 뜻하는 재궁(棊宮)과의 연관성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즉 임금에 준하는 높은 인물인 민씨가 묻힌 마을이란 뜻으로 말이다.

아무튼 이곳에 잠든 풍창부부인 조씨와 민승호의 삶은 한 시대의 곡절과 함께 하며 기구한 것이었다. 먼저 조씨(1659~1741)의 본관은 풍양이다. 18세 때인 숙

종2년(1676), 민유중에게 출가했고, 부인이 낳은 딸이 숙종의 계비로 간택되자 부부인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숙종 15년(1689) 장희빈이 낳은 군(나중의 경종)의 세자책봉 문제로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이해 5월 희빈 장씨의 무고를 받아 인현왕후 민비가 폐위되었다.

이때 민비의 어머니에게 내려졌던 '부부인'이란 작위도 삭탈당한 채 불운의 윤패생활을 보냈다. 숙종 20년(1694) 갑술옥사가 일어나 장희빈이 몰락, 인현왕후의 복귀와 함께 조씨에게 다시 부부인의 작위가 내려졌다.

부부인 조씨는 민씨가문에 출가한 후 60여 년 간의 영욕이 엇갈리는 한평생을 살다가 83세의 수를 누리고, 이곳 민재궁에 안장되었다. 부부인 조씨의 묘가 있는 곳은 용인에서 3대지 8명당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라는 설이 있다.

민승호의 삶은 더욱 비극적이다. 아들이 없던 명성왕후明成皇后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 그의 양오라버니가 되었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나서 민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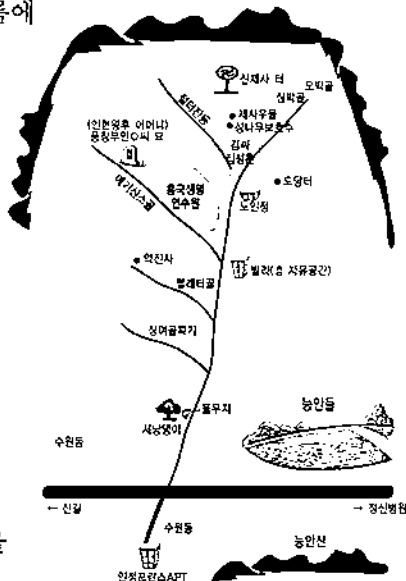
일문의 세도가 엄청났던 시절, 민씨 척족정치의 핵심이었다. 형제인 민겸호와 함께 인사권과 재정권을 쥐고 좌지우지 하던 어느 날, 그의 집에 어떤 사람이 보낸 함 하나가 배달됐다. 식구들이 함께 모여 풀어보다, 폭발하는 바람에 아들은 물론 부모와 양모인 명성왕후의 어머니와 함께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말았다. 역사적으로는 명성왕후가 대원군에 대한 미움을 더욱 키워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사건으



명성왕후의 양오라비로 구한말 한 때 정국을 주도했던 민승호(1830~1874) 묘. 비극적인 그의 삶은 권력무상을 느끼게 한다.

로 기록하고 있다. 그가 이곳에 묻힌 것은 마을이름에도 보이듯 명성왕후 친정의 소유인 때문이다.

국도변으로 근접해 있는 수원동은 한마을이나 다를 바 없다. 민재궁과 대소사를 함께 나누고 처리한다. 작은 공장들이 많고 집들은 산자락에 길게 늘어서 있다. 민재궁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공장용 건물이 들어서 마을이 잘 보이질 않는다. 일부 민씨들은 기와집말에 세거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두어 집만 남았다. 어려웠던 5~60년대, 대부분은 갈키나무를 해서 10동씩 한 마차를 채워 수원 화성역 부근 구천동 나무시장에 팔아 생활을 영위해 나왔다.



민병규(68)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새벽 4시 반에 마차를 끌고 출발해서 김치박물관이 있던 양지쪽말을 지나 수원까지 가면 환해졌어. 한 7시쯤 됐지. 밥은 싸 가지고 다녔는데, 양재기 보리밥을 도착하는 대로 먹었어. 나무를 팔면 생선뽕치 하나 사들고 구천동에서 막걸리 한 사발씩 하고 그 기운으로 돌아왔지”

그렇게 악착같이 나무를 팔아 농토를 살 정도로 근면 성실했다는 주민들이다. 영육을 함께 한 조씨 부부인이나 한 시대의 권력자로 끝내 비명횡사한 민승호 대감. 마을지킴이 신앙을 아직까지 깊이 간직하고 넉넉히 살아가는 노인들. 이들 중 누구 삶이 더 값지고 행복한 것일까. 마을을 나서며 영똥한 생각을 가져 보았다.

상하동 하지석말

할미지석제 이어가는 전통 깊은 마을

이중환의 『택리지』 복거총론卜居總論 편에 보면 사대부들이 살만한 조건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등 4가지를 들었다. 요즘 말로 옮기면 지형,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을 가거지 즉 살만한 곳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중환은 그 가운데 계거溪居를 제일이라 하였고, 강거江居를 그 다음으로, 해거海居는 가장 열악한 장소로 보았다.



하지석말 전경. 머잖아 개발 풍문이 돌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단합이 잘 되는 마을로 알려져 있다.



상하동 고인돌.
선사시대의 유
물 고인돌이 현
대문명에 의해
슬하게 시달려,
그 모습이 온전
하지 않다.

개울 주변은 토양이 비옥하고 수량이 풍부하며 관개시설이 편리하므로, 조선 시대의 농경지는 대개 계곡과 분지에 분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골짜기는 산수가 아름다우면서 아늑하고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아 종족촌을 이루고 살기에 적합했다. 실제 종족촌의 주거지를 살펴보면 큰길가에 나와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행히도 이중환은 용인을 두고 중급지로 규정해 사대부가 살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하지석 마을을 그 기준으로 볼 때, 살만한 곳이었을까. 널찍한 하천이 마을 양 옆으로 흐르고 비교적 완만한 산이 살짝 등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 그리 척박한 곳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모습은 어떠한가. 42번 국도를 따라

출·퇴근을 하며 하지석 마을을 지날 때면 늘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살기 참 힘 들겠구나” 하는 거다. 대로변에 입지해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데다 인근 물류시설 등으로 인해 주위가 어수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길가 철각과 시멘트 보호벽 속에 들어있는 고인들에 생각이 미치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가 된다. 몇 번을 도로 확장에 자리를 옮긴 것은 물론이요, 예전에는 푼하면 차량에 부딪혀, 지금 성한 상태가 아니니 말이다.

곡부 공씨 종족촌으로 자리 잡아

전통적인 종족촌을 살필 때는 처음 자리를 튼 입향조를 따지게 된다. 하지석말 역시 마찬가지다.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곡부공씨(曲阜孔氏)가 마을의 첫 주인이다. 인근에 산재한 묘석의 기록으로 보나, 족보를 살펴봐도 그렇다. 처음 터를 잡은 이는 공미수(孔眉壽)다. 그의 출생 년대를 알 수는 없으나 조광조와 같이 기묘사화에 연루돼 고초를 겪었던 공서린(孔瑞麟, 1483~1541)의 손자임을 확실하다. 비문에 따르면 “미수께서 서기 1580년경 공서린과 아버지 심궐이 살았던 (남사면) 완장리에서 구성면 상하리로 낙향하였으며, 덕일 등 자손이 번성하였다”고 돼 있다. 이로 볼 때 지금까지 400여 년간 마을의 터줏대감 노릇을 한 것은 곡부 공씨이며, 이들은 아직도 이 마을의 대성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한 근거가 아니라, 또 다른 물증에 따르면 이들보다 앞선 주인이 있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인들이다. 이름 그대로 고인들은 들을 고여 만든 청동기 시대, 즉 선사시대의 유적으로서 무덤방이다. 신석기 원시공동체 사회가 계급사회로 전환되면서 생겨난 고인들은 축조 당시의 인구수를 가정해 볼 때 권력자인 족장 뿐 아니라 일반민의 무덤이기도 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화된 인식이

다.

구성읍 상하리 하지곶 마을은 고인들을 마을 이름으로 쓰는 드문 경우이자, 동제洞祭의 대상으로 삼는 거의 유일한 마을이다. 42번국도 상에 접해있는 상하리 고인돌. 언제 도피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면과 후면의 면석은 훼손되고, 좌우의 면석 고인들은 덮개돌에 짓눌린 채 쓰러져 있다. 크기는 중형으로 장축은 남서형이다. 고인들은 대개 평지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구홍천 상류에 인접한다. 일제의 패망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도 이 마을에는 두 개의 지석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위에 있는 것은 상지석, 아래 것을 하지석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상·하지석의 두 음을 따서 '상하리'라고 하였다.

윗마을 지석은 일명 '할아버지 바위'라 했으나, 도피 된 후 멸실되었고, 현재 아래지석은 할미바위라 불려왔다. 하지석 마을의 고인들이 '할미바위'로 불리게 된 동기는 두 가지 설로 전해진다. 옛 이야기에 의하면 하룻밤 사이에 할미산성을 쌓았다고 하는 '마고 할머니'가 그곳 바위 가운데 하나를 현 위치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그때 그 할머니의 손바닥 자국이 바위에 나 있었다는 설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마을 지명 유래와도 관계가 있다. 이 고장엔 큰 고인들이 둘 있었다. 윗마을인 민제궁에 있는 상지석을 '할아버지 바위'라 하고, 아래 마을인 하지석 고인들을 '할머니 바위'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큰 고인들에 얽힌 설화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가 '할머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설화 중 오른 발은 동해에 왼발은 서해에 담긴 채 한라산을 베고 잤다는 전설 속 인물, 제주도 창조 여신 '설문대 할망' 역시 할머니다. 할아버지 바위에 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문대 할망' 전설과 유사한 경우로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하다.

이 지석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제의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지식묘에는 개인들이 약간의 미특신앙적 요소를 가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 마을의 지식묘는 개별적인 제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마을 차원에서 동제(洞祭)의 형태로 위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지식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짚으로 지붕을 엮어 보호했다. 그리고 터주를 받침돌 사이에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마고 할미의 집으로서, 또는 장사의 무덤에 대한 숭상의 개념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다. 마을의 토지신이기예, 이를 신봉함으로써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할미바위 고인돌 등제

최근 몇 년간 고인돌 등제만큼은 꼭 찾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를 순간순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왔는데, 물론 주민들도 제사를 한해도 거른 적이 없다. 택일하여 제사 준비를 했다가도, 동네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중지하고 뒤로 물린다. 다음에 다시 1년이 넘어가기 전에 택일하여 제사를 지내왔다.

예로부터 '바위 할머니'라 불리는 고인돌을 정신적 토대로 삼아 마을의 안녕과 화합,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바위할머니제의 역사는 임진왜란 때부터로 전해지고 있다. 6.25 전쟁 중에도 이 의식만큼은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먼 옛날에는 돼지를 잡아 제물로 하였으나 70년도 중반부터 소를 제물로 삼았다고 한다. 소를 잡으면 소머리를 제물상에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그 고기를 골고루 분배했다. 제사비용은 주민들이 추렴한 돈으로 소 한 마리를 사 길러서 제삿날에 제물로 사용했다고 하나 지금은 마을 기금과 일부의 협찬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마을 할미지석제 모습(2004년 10월).

매년 한번 씩 상달(음력 10월)이 되면 택일을 한다. 당주가 정해지고 집집이 돈을 거두어 소 한 마리를 잡는다. 그 만큼 최대한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일반제사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을 그 지석 앞에 올린다.

지난 해 10월 30일, 마을 할미지석제를 보고 기록한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음식을 할 장작이 마련되고 술이 고인돌 옆 너른 마당에 걸린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한기가 느껴온다. 누군가에 의해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아낙은 아낙대로, 동네 청년들은 그들대로 손놀림과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해 할미지석제(석제사)를 주관할 당주는 윤해성씨다. 윤씨는 보름 전 당주로 지명된 후 몸을 정갈히 해왔다. 매일 목욕재개는 물론이요, 잠자리와 외출도 삼갔다. 흥한 것이 있으면 애써 외면하며 지냈다. 이미 지난 밤 지장에 고인돌 밑에

모셔놓은 터주를 손보고 주위를 깨끗이 해 냈다.

8시경. 서서히 할미지석제 준비가 돼가고 있다. 오늘의 동제(洞祭)를 돕기 위해 선정된 유사 3명과 함께 의관을 새로 갈아입는다. 음식은 추렴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정성껏 마련한 것을 당주 집에서 상을 차렸다. 소머리와 고기, 과일이 올라 있다. 9시, 당주와 유사 등 선출된 몇 명만이 고인들 보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제례가 시작된다. 잔을 올리고 축문을 펼쳐든다. 한문으로 쓰인 글에 운을 띄워 읽혀지는 축문.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다. 제문을 푸는 데는 홍순석 강남대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유세차… 유학 윤희성과 동네 주민 거주민은 삼가 작은 소와 술, 과일을 갖추고 목욕 재개하여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삼가 아뢰옵니다. 지석묘의 신령, 창연한 큰 돌덩이, 평지에 우뚝 솟아 큰 마을을 진압하시고, 원대한 기상이 방박이라 할 만하더이다. 종신의 조화가 큰 고을에 미치나니, 진나라의 채찍이 어지럽게 움직이자, 한나라 복이 올리는 듯합니다.

경건히 도움을 받드나니, 재앙을 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을에 복이 있어, 신의 영험을 입었나이다. 목욕재개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나니, 영원토록 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가 나물과 떡을 갖추어 감히 길상을 바라나니, 높으신 신령께서는 이를 의지하고 들어주옵소서. 삼가 예를 갖추어 재배하나니, 신령을 보호하고 도와주소서. 신에게 경건하게 아뢰옵고, 또 아뢰옵나이다.”

9시 40분. 제사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모여 음식을 든다. 일추 100여명은 돼 보인다. 타지에 가 살던 이들도 마을을 찾았고, 먼 이국땅 출신으로 인근 공장

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소금 간을 치지 않은 백설기, 계수로 올렸던 고기를 넣어 끓인 국, 햅쌀로 지은 밥, 막걸리와 소주가 전부지만 모처럼 동네가 왁자하다.

11시. 타들어가던 장작더미 불길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거나해진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다. 2003년 하지석 마을의 할미지석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고인들마을인 상하3리의 주위환경은 많이 나빠졌다. 곡부 공씨들의 집성촌이었던 마을도 300여 호로 불어났고 30년 이상 된 토박이들은 고작 열서너 집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전통을 지키는 일은 쉬워 보이질 않는다.

외양만큼이나 주민 구성도 바뀌었지만 마을 단합이 잘 되는 이유는 바로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고인돌, 즉 할머니 바위가 있고 이를 마을신앙으로 모셔온 덕으로 생각하죠. 마을의 큰 어른격인 공달영 옹의 말이다.

당주로 선출돼 보름 여 동안 몸을 깨끗이 한 채 금욕생활을 했던 조상기(59)씨도 “종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도 사실” 이라면서도 “축문과 소지에 표현되듯이 마을 주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신앙인 만큼 앞으로도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마을 전통 계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대로 되지는 않을 모양이다. 택지개발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고인돌과 함께 수천 년을 이어온 권들 마을,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누대에 걸친 고인돌 동제. 과연 내년에도 그 동제를 또 치를 수 있을지, 매년 그 자리에서 드는 생각이다.

구성동 물푸레울(덕수동)

맑은 물에 인심도 따라 흘렀던 사라진 마을

택지개발이 한창이다. 동백리와 인접한 마을로 언남리에 있는 구성동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3km를 가야 한다. 구명區名이 되어도 아까울 옛 현縣 치소가 동사무소로 격하되고 보니, 좀 안타까운 생각이다. 203번 시도를 따라 구성에서 향하다 쌍 길에서 범무연수원을 따라하면 청덕리 덕수동이 나온다. 예부터 물이 좋기로 이름나 물푸레울(수청동) 맑은 물이 아래로 흘러 물덕을 보았다는 마을이다. 거기에서 비롯된 인심으로 덕수동德水洞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물푸레울(덕수동) 옛 모습. 북쪽의 범화산 계곡을 타고 흐르는 맑은 물과 남쪽으로 성산이 보인다. 이미 마을은 사라졌다(1997년).

이미 택지 개발로 민가는 없어졌다. 88골프장이 보이고 나머지는 기종기와 빨
경게 드리낸 흙 뿐이다. 10년 전인 1997년. 당시 주민은 1백 58세대에 약 1천 1백
여 명이었다. 주거형태도 다양했는데, 대개는 예전 농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
고 있었다. 개량주택으로는 90세대 정도가 됐다.

그 밖에 70년대 새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8동의 새마을 주택이
들어져 있었다. 영동고속도로가 마을 앞으로 나 있어 밤낮으로 자동차 소음이 끊
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이리저리한 문제로 어수선한 인근지역에
비하면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었다.

아마도 경찰대학이 인근에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88골프장과 범무원
수원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러 개발소문이 있긴 했어도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거의 유일한 곳이었다. 물론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
다. 개발논리는 그리 순진한 판단과 예측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향린 동산 같은 고급주택단지도 주변에 있고, 10여 군데나 들어선 가든 등 너
덕하고 소비성 짙은 주변의 모습과는 달랐던 마을이다. 예부터 그리 풍족한 삶을
누리던 마을은 아니었다. 좁은 농토에 그나마 대개는 비가 와야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천수답이었다. 좁고 경사가 많다보니 경지정리도 어려워 보편화된 기계화
영농은 더더욱 어렵기만 했다. 결국 몇몇 주민을 빼고 대개는 농사일을 접어두고
공장노동으로 나섰다.

서일포장, 아주전자, 우석 등 동네 내에도 공장이 서넛 있었지만 주민들은 거기
에 취업하질 않고 마북리 삼거리에 있는 서울우유 공장에 많이 다녔다.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단지에 직장으로 나가는 주민들도 여럿 있었다. 거리가 각각 5km,
10km 밖에 안 되어 자동차로 10~15분 안팎의 거리였다.

두 곳은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에서 오래 근무한 주민들도 꽤 되는 편이

었다. 산을 끼고 들어가는 열추 막바지 마을이긴 해도 청덕리~수원간 30번 시내 버스가 8차례 정도 운행되고 있어 교통은 편리한 쪽이었다.

농촌지역의 여느 마을처럼 젊은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젊은 분들이 40~50대로 10여명이 남아 있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주변에 큰 공공시설 등이 생겨나게 돼 유입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 주민구성은 원주민들과 유입인구와의 비율이 대략 반반 가량 되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주민구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니, 여느 인근 마을과 다를 바 없었다.

예로부터 정월 보름에 웃동네 수청동과 함께 농악을 앞세우고 달맞이를 한 다음, 마을 줄다리기를 매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사라졌다. 바뀐 것은 전래문화와 사람뿐 만이 아니었다. 밭 딛고 사는 대지와 생계수단이었던 자그마한 농토도 대부분 외지인에 팔아 넘겼으니, 이미 개발 수준은 그때 시작된 셈이었다. 개발 당시 절반이 넘는 땅이 주민들의 소유에서 떠나 있었다.

지금이야 허허벌판이 됐다. 하지만 옛 마을의 모습은 덕수동에서 어디를 봐도 시원하게 트인 곳은 없었다. 법화산이 북으로 누워있고 남쪽으론 웅장한 성산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마을중간으로 흐르는 시원한 냇물 줄기를 반대로 걸어 올라가면 법화산이다. 현재는 88골프장으로 편입된 곳으로 '성황당 마루'라 부르는 큰 고개가 있었다. 골프장 북쪽 끝으로는 작은 고개가 있었다. 동편에는 이름 없는 산줄기에 향린동산 별장이 나무숲 사이사이로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 보이는 곳이다. 마을 안쪽으로는 유독 감나무가 눈에 많이 띄었다. 법화산이 북쪽 바람을 막아 감나무 생장조건에 잘 맞는 곳이기도 했다. 묘한 것은 개발 바람 이야기가 들리면서부터 감이 잘 되질 않았다. 오래된 수명 탓도 있지만 88골프장이 생겨 북쪽의 법화산을 훼손하고 부터라는 이야기도 돌았다.

아마 괜한 억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자연은 이처럼 인간의 손이 타면 오히려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게 아닌가. 덕수동은 밤도 유명한 곳이었다. 요즘은 흔하지만 토종밤에 비해 굵은 일본산 개량종 밤나무를 일제 때부터 심어와 큰 밤알을 소출해 왔다.



윤섭과 그의 손자 윤계의 정려문과 위패를 모신 사당(1997년).

덕수동 마을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참고할만한 자료가 별로 없다. 경주 이씨가 10여 호 있었고, 월성 석씨(月城 昔氏)가 예닐곱 집이었다. 그리고 각성바지였다. 이 마을은 남원 윤씨와 인연이 깊다. 상당부분은 본래 남원 윤씨(南原 尹氏)의 사패지였다. 10여년 이장이었던 윤경호(66)씨가 그 종손으로 유일하게 마을에 남아 있는 후손이었다. 남원 윤씨 가운데 청덕리에 처음 자리를 잡은 이가 윤염(尹琰)이다. 그의 아들 윤행림은 조선 정조 때 문신으로 정조·순종 때 사람이다.

여러 문헌에 의하면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의 벼슬에 오르고 승정원 주서 등을 거쳤으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백성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탄핵을 받고 유배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듬해 복직된 후 순조가 즉위하자 도승지·조판서를 거쳐 대제학까지 올랐다. 그러나 수렴청정 하던 정순왕후 세력이 일으킨 신유박해(辛酉道害)에 관련되어 유배된다. 풀려난 그는 전라도 관찰사에 등용되었지만 김조순이란 사람의 상소로 투옥되어 결국 참형을 당했다. 후일



용인최초의 처녀 묘비. 조선조 한 시대의 풍운아 윤행림의 누이가 묻힌 작은 부덤. '處女尹氏'라고 적힌 묘비명이 이채롭다(1997).

현종 초에 복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윤행림의 인생역정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 격동기에 권력주변에 있었던 한 인간의 삶이 평탄할 수만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1997년 7월 더위에 그들이 잠들어 있는 청덕리 산언덕은 멀고도 으스스했다. 윤염, 윤엄, 상현으로 이어지는 종손들이 차례로 안장돼 있었는데, 다만 특이한 것은 윤행림 누이의 묘였다.

'處女尹氏 弟 行恧 題(처녀윤씨 제 행임 제)'라고 적힌 묘비가 묘역 하단부 북쪽 끄트머리에 외롭게 서 있었다. 당시 박용익 전 선생은 이를 보고 "용인 관내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이채로운 처녀묘비다"라고 하였다. 죽은 사연이야 알 수 없어도 윤행림에게서 누이에 대한 각별한 우애와 정이 느껴지는 묘석이었다.

마을에는 드문드문 빈터가 눈에 띄었다. 마을회관 맞은편에도 4백여 평되는 집터가 있었다. 들성들성 형식적 조경을 해 놓았을 뿐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흉한 모습이었다. 당시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이었음에도 알만 한 사람은 다 알았던 모양이다.

"터가 좋으면 서울사람들이 사 놓고 털끝하나 못 건드리게 해요. 남 빌려줘서 텃밭이라도 가꾸게 하면 좀 좋아요?" 한 아주머니의 원망 섞인 푸념이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막바지 동네래두 골프장이 들어

서니께 올챙이 하나 있구 손 씻을 물도 안 되어”라며 체념한 듯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난다.

아파트 단지 조성이 끝나면 그 옛 흔적을 얼마나 다시 볼 수 있을지, 약간은 두렵기조차 하다.

마북동 마골

세월앞에 변한게 어디 끊어진 산허리 뿐이라

구성면의 중심산으로 마북·청덕리와 모현면 오산리를 가르는 법화산이 마을을 포근히 감싸안고 있다. 탄천 상류를 이루는 마북천이 깊숙한 법화산 협곡에서 세 줄기로 뻗어내려 마을입구에 이르러 만난다. 용인현의 본래 관아가 있던 자리인 언남리와 이웃하고 있다. 멀리 서편 광교산을 안산으로 삼고 동남쪽 석성산을 진산으로 해 자리 잡았던 행정 중심지역으로 활기찼던 적도 있었다. 15세기 초반부터 1895년 용인군으로 개칭되며 김량장동으로 옮기기까지 무려 450여 년이었으니, 가장 오랫동안 용인의 심장부였던 셈이다.

따라서 당시 마북리 일대는 용인의 치소가 있던 읍내면 지역의 일부로서 그 기능을 다하였으며, 문화와 삶터로서도 앞서갔던 요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세기 들어 오래도록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던 곳이 바로 이 마을 마북리 일대다.

마북보다는 마골麻谷이라는 고유지명으로 불리는 이곳은 일설에 의하면 북향 하늘 팔 쪽에 있던 절집 이름이 마운사였다 하여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또 스님들이 삼베옷을 입고 다녀 지명이 되었다고도 하나, 이런 예는 없으며 좀 유치한 설이다. 다만 고려시대 때 마씨馬氏들이 집성을 이루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마을 연륜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용인 어디를 가든 변화 속도의 차이일 뿐, 향촌의 옛 모습이 차츰 사라지고 있

다. 특히 요즘 들어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곳이 바로 구성 일대다. 마을에 이르는 주변도 마찬가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옛길에 건축 구조물만 늘어났다. 매우 답답한 인상을 풍기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각종 연구시설이 산 속에 들어서 있다. 일반민들의 주택도 새마을 운동의 유물인 울긋불긋한 슬레이트지붕과 양옥이 뒤엉켜 있다. 그 틈틈이 들어선 아파트는 오히려 안온하고 정감 있는 마을모습을 압도해 버렸다. 그나마 옛 선조들의 지혜의 공간이자, 전통사상이 엿보이는 마을 숲마저 대부분 사라져 버렸으니, 치소로서 문화적 중심지였던 자부심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당혹스럽기만 하다.

개울을 따라 마을 숲을 이뤘던 풍치림은 포곡면 가마실과 몇몇 곳을 제외하곤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연 자산이었다. 수령 1백년이 족히 넘는 해나무 숲으로 동편 산까지 몇 백 미터나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뿔뿔히 나갔지만, 그나마 마을 입구에 수십 그루가 남아 크고 작은 새둥지를 되어 주었다. 그러나 편리를 가장한 우리 인간의 탐욕은 이마저도 내버려두질 못했다. 최근 동백-죽전간 신도로가 나면서 또 치고 나가,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떨고 있다.

등등배에 있던 풍치림(마을 숲)은 거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외롭게 도로 교각 사이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해나무 한 그루. 모습이 안쓰럽다.





구교동에 있는 장육전 화백 고택.

파평윤씨와 전씨 부인

마을은 작은 개울과 둔덕을 사이로 나뉘어 돌탑 모랭이와 셋말 그리고 하늘말로 이뤄져 있다. 돌탑 모랭이는 유독 돌이 많았던 곳으로 아직도 흙돌 담장이 눈에 띄는 곳이다. 하늘말은 서편 골짜기로 대개의 농토가 이곳에 있었으며 죽전으로 연결되는 길목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이 마을 대성인 파평 윤씨坡平 尹氏 집안의 자랑인 연안부부인 전씨延安府夫人 田氏의 묘와 묘비, 그리고 묘각이 있다. 본래 파평 윤씨는 마을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종족촌을 형성한 마을이었다.

요즘 들어 TV사극의 인기를 탄 탓인지 서점에 쏟아져 나온 조선왕조사 관련서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가 바로 부부인 전씨의 딸이다. 부부인 전씨는 영원부원군 윤호(尹壕)(1424~1496)의 아내로 조선 성종의 장모이자 중종의 외조모가 된다. 윤호가 1473년(성종 4년) 우의정으로 있을 때 딸을 성종의 후궁으로 들여보내 숙의에 봉해졌으며, 1479년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이자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씨가 폐출되자 이듬해 11월 왕비에 책봉되었다. 성종과 함께 강남구 삼성동 선릉에 묻힌 왕비 정현왕후는 '중종반정'으로 기록된 역사의 현장에서 뚜렷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연산군의 학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그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 중 먼저 거사를 준비하던 사람은 성희안(성희안)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다. 1506년 9월, 군사를 모아 거사를 결행한다. 거사에 돌입한 반란군들은 먼저 진성대군(후에 중종)에게 거사 사실을 통보하고, 권내를 장악하였다. 거사에 성공하자 성희안 등은 성종의 계비이자 진성대군의 어머니인 정현왕후 윤씨를 찾아가 연산군을 폐하고 진성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교지를 내려줄 것을 간언한다. 정현왕후는 처음엔 이들의 청을 거절하다가 결국 연산군을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강화도 교동에 안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튿날 진성대군이 근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거사는 완결된다.

박영규가 쓴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들녘)에 그려진 나오는 중종반정의 과정은 참으로 드라마틱하다. 연안부부인 전씨의 딸이 왕후가 되기까지 역시 극적이긴 마찬가지다. 본래 성종 비였던 공혜왕후 한씨(한명희의 딸)가 17세에 소생 없이 요절하고 말았다.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숙의가 계비가 되었지만 폐출되는 바람에 세 번째로 들어가 중종을 낳은 것이었다.

힘 빠진 하마비

하마비(下馬碑). 조선시대 종묘 및 대궐 앞이나 성현의 출생지, 무덤 앞에 세워 놓았던 비. 말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해야 했다.



묘각 뒤로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솔밭에 전씨부인의 묘가 보인다. 거대한 봉분에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2기의 문인석이 좌우로서 있다. 92년엔 도굴까지 당했던 전씨 묘앞 문인석은 관내 어느 석물보다 크며 정성드린 석장石匠의 흔적이 돋보인다. 무려 230cm에 이르는 키에 끝맛한 체형과 상큼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마치 세공품을 만들 듯 세밀하고 뚜렷한 윤곽이 드러난다. 도톰한 볼은 마

치 어린아이의 그것처럼 귀여워 한번 쓰다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든다. 묘각 옆에는 또 하나의 귀중한 역사유물인 하마비가 서 있다. 조선시대 종묘 및 궐문 앞에 세워놓기도 했던 하마비. 또는 왕이나 고관·성현들의 출생지나 무덤 앞에 서서 군기를 잡던 하마비다.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든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해야 했으니 말이다.

‘大小人 下馬(대소인 하마)’라 적혀 있는 이 하마비는 본래 멀리 마을 어귀에 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현재 한국 미술관 입구 민가 앞으로 옮겨졌고, 해방 이후 현재의 자리로 밀려났다 한다. 한때 이 하마비는 의심을 받았다. ‘연안부부인 전씨 묘 앞이니 예를 갖추어라’ 리는 뜻이 맞느냐는 거였다. 이유는 묘역으로부터 근 1km이상 떨



한국미술관 전경.

어져 있었던 탓이다. 그러난 이는 의심할 것이 아니다. 이인영 전 문화원장의 설명도 있었지만 포은 정몽주 묘가 있는 능골도 다소 거리가 있는 마을 입구에 하마비가 위치한다.

이 같은 사례로 보아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측면이다. 하마비의 이동 지점이다. 처음에는 멀리 있던 하마비가 점차 묘역 가까이 옮겨져 지금은 코앞이다. 뭘 뜻하겠는가. 힘이 빠졌다는 얘기다. 멀리서부터 말에서 내려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은 이제 코앞에 와서야 말에서 내리니 말이다.

마을주민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울물을 떠서 밥을 지어먹었다는 마골이다. 이제는 손조차 씻을 수 없는 물로 변했다. 10여년 전만해도 1백여 세대에 330여명의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지만, 지금은 유동 인구가 많다.



요즘 주민들은 자조 섞인 투로 ‘억대거지’란 말을 한다. 지기는 높아 명목상 부자지만 실제 생활상은 형편없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소인 가릴 것 없이 이 동구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해야 했던 위엄과 기풍을 지녔던 마을. 등등배 마을 숲에서 정성을 모아 주민들이 동제를 올렸던 마을. 한 때는 토착민들이 하나 둘 떠나 을씨년스런 폐가가 덩그러니 드러나 있었다. 끊어진 산허리와 투기성 조립건물이 들어차 자본의 위력과 탐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마치 폐수에 오염됐던 도랑물이 요즘 다시 살아나듯, 마을이 재생하고 있다. 수필가 송혜경을 비롯한 따뜻한 외지인들이 들어와 원주민들과 잘 섞이고 있다. 한국미술관 같은 문화공간이 있어 마을의 격을 새롭게 하고 있다. 비록 파헤쳐진 마을 숲이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마을의 새 주인들은 옛 전통을 잊지 않고, 오늘도 등등배 숲에서 동제를 올리고 있다. 마음의 숲이 쑥쑥 푸르게 자라고 있다.

신갈동 상미

교통 요충지 마을공간 변화의 상징

도로를 따라 사람들이 오가고 물자와 정보가 소통되니 문명발전의 핵심이 도로라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특히 고속도로는 용인지역, 그 가운데서도 기흥이나 수지 같은 곳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흥구 신갈동 상미마을. 제대로 된 가로망 없이 촘촘하게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책 없이 인구가 급증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상미는 본래 상촌桑村과 미동美洞이 합해져 탄생한 마을이다. 상촌이야 뽕나무밭이 많았으리라는 걸 대개 짐작하겠지만, 미동은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과거에 대시들이 모여 살았는데, 다른 마을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고 전해진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망이 현대화되기 이전인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장 큰 생활권역은 김량장동이었고 그 다음이 백암이었다. 너른 들을 가진 백암은 높은 농업 소득으로 상대적 풍요로움은 물론이요,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기흥 지역은 그 다음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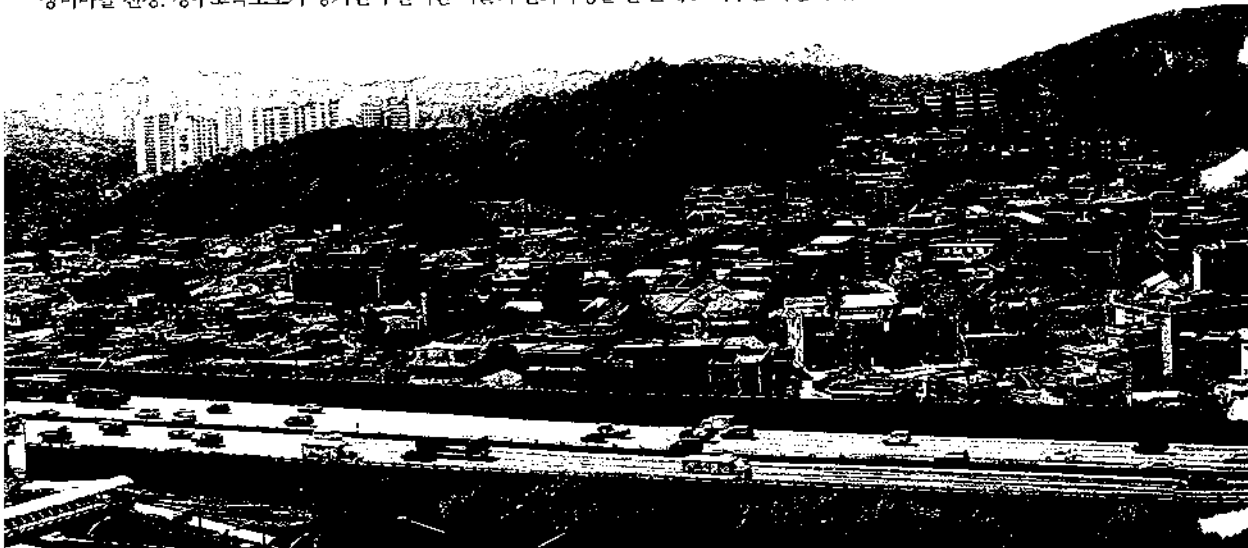
이동면 송전과 양지현 치소가 있던 양지 순이었으며, 구성과 수지는 가장 낙후 지역이었다. 신갈지역의 일부인 상미 역시 예전에는 여는 농촌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 일제 때는 현재 두진 아파트가 있는 잔다리 앞뜰과 고속도로에 편입된 들판, 그리고 역말로 가는 참이풀 등이 기름진 농토였다.

경계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고속도로를 넘어 신갈오거리에서 민속촌으로 우회전하면서 그 안으로는 상미마을이었다. 본래 현재 오거리 부분에 하천이 있던 것을 복개하여 도로를 냈기 때문이다.

옛날 역원이 있던 원기院基와 마주하고 있었다. 일제 시절에는 역을 중심으로 새로 마을이 발전하면서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았다. 일본인들은 주로 원기마을에 집촌을 이루면서 과수원을 경영하든지,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상미는 전형적인 농촌으로써 원기의 배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농사를 지어 공급했으며, 더러는 일본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값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또 하나 의미있는 기관이 있었는데, '마루보시'로 통칭되던 통운회사였다. 그만큼 물자가 움직이는 거점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주민들의 생계수단의 중요한 터전이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마을은 전주 이씨, 경주 김씨, 신창 맹씨新昌 孟氏를 중심으로 대성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나머지는 각성바지였다. 본격적인 변화는 60년대 말이었다.

상미마을 전경.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한적한 시골의 변화과정을 한 눈에 보여주는 마을이다.



고속도로 개통 후 마을 급변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1968년 2월이었다. 당시 서울 연지동 톨게이트에서 기공식을 한 후 착공 11개월만인 1968년 12월, 1차 구간이 완공되었다. 바로 서울-신갈까지였다. 개발독재로 일컬어지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거칠 것이 없었다. 당시 마을은 고속도로가 나는 곳에 일부가 포함되었으니, 집단 이주를 해야 했다.

마을 공간의 대변화가 일었다. 농업 중심의 직업구조도 농토가 줄어들면서 이사를 하든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의 급증이었다. 본래 80~90호 하던 마을은 점차 늘어 몇 배가 되었다. 과거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자기집을 가졌던 주민들은 이후 세입자의 증가, 다가구 주택으로 급격하게 변해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교통이 지역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 가운데 토지가의 급상승이야말로 가장 극적이다. 1977년 경 기흥의 중심지로 진입하는 주변 땅값은 대략 700원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딱 10년 후인 1980년대 말에는 600만원으로 뛰어들었다. 무려 1만 배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승률을 보여줬다.

전국의 명물 삼흥 한의원

40대 세대까지 '이명래 고약'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위생상태가 안 좋아 어린이들은 피부병의 하나인 굼기를 잘했다. 그 때면 꼭 필요한 것이 그 약이었으니, 굼는데 치료약은 이명래 고약이란 대명사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또 하나의 피부병이라면 바로 음이었다. 주로 집단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병은 매우 참기 어려울 정도로 가려운 것이 특징인데, 해방 전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흔했던 병이었다. 이 같은 증상에 특효약이 있었다. 삼흥 한의원 약이었다.

이 약을 개발한 이는 이회덕으로, 바로 상미에 거주하는 전주 이씨 종가였다. 그는 한의학에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음약 이외에도 무기단이라 불리는 식채용 한약과 훈으로 피워 치료하는 매독약 등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약이었다. 삼흥이란 상호도 한의원을 대표하는 3가지 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흥 한의원을 찾는 이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한 때는 만주일대에서 까지 찾는 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명약을 이은 것은 그의 자제인 이종영李鍾英(1900~1955)으로, 당

일제시절부터 전국적으로 '음약'을 개발해 명성을 날렸던 삼흥 한의원 원장 이회덕. '이명래 고약'과 쌍벽을 이루며 만주 일대까지 팔려나갔다고 한다.



시로서는 드물게 경성약학전문학교를 나와 비방약의 명성을 지켜갔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려 100년의 전통을 가진 삼흥한의원은 폐업을 한 지금까지도, 알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한다.

해방정국과 6.25 전후 혼란기와 맹두섭

상미마을을 특징지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해방정국과 6.25 한국전쟁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정치활동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그 격렬함에 비해 불행한 상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다. 먼저 이종영이다. 그는 이미 유명 한의원의 가업을 이어받은 상태에서 중앙무대와 연결된 백범 계열의 중진이었다. 그는 독립축성회에 관여하면서 1947년에는 독립신문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돌연 귀향했다. 이어 사돈 관계이자, 또 하나의 마을 유력 집안사람인 맹두섭(95)옹과 함께 '기흥 면민회'를 결성했다. 해방정국에서 치안 공백상태에 적극 개입하고자 함이었다.

당시 회원들은 1949년 백범선생이 암살되자, 장례일에 맞춰 마을 뒷산 두루봉에 올라 울며 제를 올릴 정도로 결속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곧이어 한국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던 기흥일대를 격한 이념



맹두섭(95)옹. 그는 한국전쟁 당시 극한 좌우대립 속에서 대동청년단장을 맡아 인명 피해를 없도록 하여 '용인의 선들리'로 불린다.

적 대립의 현장으로 내몰렸다. 일부 지역은 당시 좌익활동으로 유명한 상태에서 충들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 빛난 사람이 이종영에 이어 대동청년단장을 맡은 맹두섭이었다. 마치 광풍처럼 보복전이 전개되던 시절, 오히려 신갈만은 큰 희생 없이 넘어갔는데, 그의 확고한 ‘역지사지(易地思之)’ 신념의 결과라는 것이 당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대부분 강요된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생각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정규과정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가운데 배움의 열망에 가득했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배성중학교가 있었던 곳도 상미다. 수여선 기차 길 추억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택지개발 바람이 부는 마당에 마지막 미개발지 상미. 그 흐름에 못 이겨 다시 또 한 번 외양이 변할지도 모른다. 설령 그렇더라도 극한 상황에서조차 서로를 이해하고자 했던 ‘맹두섭 정신’ 만은 영원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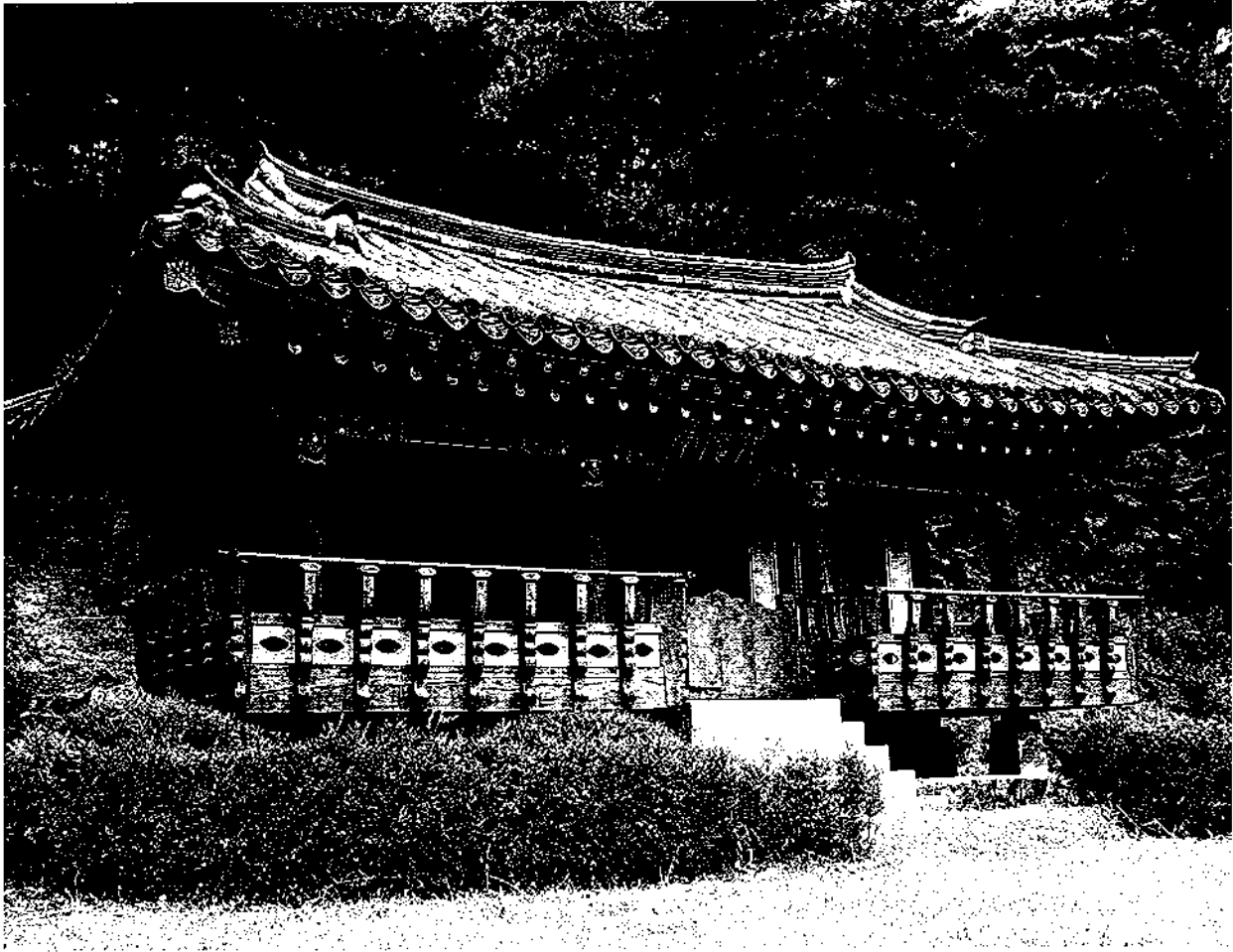
상갈동 지곡

음애 이자선생과 기묘명현의 숨결 다시 느껴져

“나와 정암(조광조), 자네 선친 형제의 의는 형제와 같았고 실로 도道가 부합하였다네. 정암과 나의 선산은 용인에 있었고, 방은(조광보) 형제의 전장田莊도 용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만나지 않는 날이 없었고, 향리에 내려오면 서로 어울려 두암에서 천렵하고 심곡深谷에서 화전을 해 먹었으며, 방동에서 꽃을 보곤 하였네… 정암(조광조)과 회곡(조광좌)의 불행은 끔찍하여 차마 말할 수도 없으며 나만 죄를 짓고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공자가 말한 ‘다행히 산 자’ 격이구나… 우리 넷은 한 칸 집을 두암斗巖 위에 지어놓고 여기서 낚시도 하고, 나물도 캐고, 나무도 하고, 농사도 하는 이 네 가지를 즐기기로 약속하고 정자 이름을 사은四隱이라 붙였다네.” (『음애 이자와 기묘사림』 231쪽, 정만조 외, 지식산업사)

여기서 ‘나’는 음애 이자(1480~1533)다. 음애는 끔찍한 기묘사화로 한 순간에 벼들을 잃고 은거해 있으면서 조광좌의 아들 조항趙沆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낸다. 그는 편지를 통해 사은정을 지은 이유와 네명의 우정을 위와 같이 술회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하니, 눈물을 금할 수가 없구나”라며 간신히 글을 이어간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사이였던가. 용인과 이들은 어떤 관계란 말인가. 몇 줄의 글을 통해서도 그 전말의 일단이 드러난다.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을 살피고 지곡동을 걸으며 역사 속에서 그들을 만나보자.



사은정(四隱亭). 정암 조광조, 음애 이자, 방은 조광보, 회곡 조광좌 등 네 명이 낚시도 하고, 나물도 캐고, 나무도 하고, 농사도 하는 이 네 가지를 즐기기로 약속하고 정자 이름을 사은(四隱)이라 붙였다. 기묘 사림과 연관된 역사적인 장소이다.

용인으로 맺어진 기묘사림

먼저 인물을 살펴보면, 정암 조광조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썩은 정치를 바로잡으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사약을 받고 죽어간 개혁주의자이자 이상주의자다. 상현동에 묻힌 그는 이미 중조부 조육이 용인이씨 이백찬의 사위가 되어 신갈에 묘를 쓰면서 용인과 연을 맺었다. 이어 조부인 조충손과 아버지 조강원이 심곡리(상현동)에 유택을 마련하니, 그에게 용인은 고향이나 다름없었다. 나이 19세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막을 짓고 서원말에서 공부를 깨울리 하지 않았던 그다.

음에 이지는 지곡이 고향이다. 32세 되던 1511년(중종 6)에 아버지 대간공 예견(禮堅)의 상을 치룬 후 머문 것은 물론 수시로 고향에 드나들었다. 고향집 기와집말 앞 다래울 계곡 바위틈에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었는데, 그는 이를 좋아하여 풍림거사(楓林居士)라는 자호를 가질정도였다. 중종반정 후 개혁세력 모태인 기묘사림의 중심인물로서 사림계의 대표가 거치는 홍문관 부제학 - 승정원 승지 - 우참찬의 코스를 거친 기묘사림 좌장이었다.

다음으로 방은 조광보과 회곡 조광좌는 형제다. 형 조광보는 스스로 벼슬에 나가길 마다하고 숨어살면서 조광조, 이자와 교류했다. 이를 두고 후일 음에는 “우리보다 몇 수 위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기묘사화에서 그만 화를 피할 수 있었다. 동생 조광좌는 중종 14년 사헌부 지평이 되었는데,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당하고, 1521년 28세의 나이로 끝내 옥사하고 만 인물이다. 이들의 고향은 이웃한 보라리다. 민속촌 내 양반가 일대를 ‘방은골’이라는 부르는데, 바로 조광보의 호를 딴 것이며, 그가 말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기와집말에 있는 음에 이자 (1480~1533) 고택.

이들은 이처럼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용인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친구로서의 우의와 함께 동지이기도 했다. 중종반정 이후, 중종은 연산군 때의 폭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람들을 대거 등용한다. 이 때 중심인물로 떠오른 조광조 등 신진개혁세력은 향약 보급운동, 반정공신위훈삭제, 현량과 실시 등 각종 개혁정치를 추진하였다. 이 때 신진사류를 대표하는 얼굴이 조광조였다면 기묘사림의 좌장은 이자였던 셈이다. 연령과 과거급제, 관직 면에서 이자 위는 없었다.

이처럼 이들은 정국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이면서 용인이라는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가까이 모일 수 있는 두암4巖에 사은정을 지은 것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낚시도 즐기고 나물도 캐는 등 유희자적 한가로움을 즐기면서도 학문과 정국을 논했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이없이 사라진 두암이여!

그럼 음애집과 사은정 중수기에 등장하는 두암은 어디를 말하는가. 나는 민속촌에서부터 천천히 차를 몰았다. 민속촌에서 넘어가는 고개를 산정고개라 한다. '사은정 고개'의 변음임을 알 수 있다. 10여 년 전, 이 길을 넘던 때가 생각났다. 당시 동행했던 박용익 선생은 대뜸 "이곳을 피난골이라고 불렀어."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산길을 오르듯 높은데다가 좁아 차 한 대가 길만했다. 그 고개를 넘으며 드러나는 마을 모습은 마치 신천지같이 아늑했다. 어쩔 산 속에 이처럼 큰 마을이 있다니! 나는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었다.

지금은 평지와 다름없는 고개를 넘어 좌로 남부골프장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은정이 보인다. 사은정이 있는 동네는 두암산을 경계로 하여 민속촌과 맞닿아 있는 마을로 '한촌韓村'이라 불리는 곳이다. 청주 한씨 종족촌이기 때문이다. 마을 앞으로 지곡천이 감돌아 나가는 수려한 풍치를 자랑하는 곳이다. "두암에 사은정을 지었다"는 음애 일기를 바탕으로 주변을 살폈다. 큰 바위는 물론이요, 아름다운 풍치를 자랑할 만한 절벽도 없었다. 대신 사은정 앞에는 넓게 마련된 주차장이 있었다.

대체 명현들이 노닐 던 두암은 어디란 말인가! 그날은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나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두암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다. 지곡동 출신으로 음애 후손이기도 한 수지중학교 역사 교사 이종구 선생을 통해서였다. "사은정 앞에 계곡이 흘러나가는 벽면 바위가 '두암斗巖'이었는데, 1961년 신갈저수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돌이 필요하다하여, 그 바위를 깨서 보를 막는



민속촌 - 지곡간 사은정고개의 옛모습. 왼쪽이 옛길, 오른쪽이 새길이다. 새길을 닦은 후 구길까지 넓혀 큰 도로가 됐다. 몇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난다.

데 썼다”는 기막힌 설명이었다. 당시 사은정을 관리하는 후손들이 있었건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망연해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며 즐거움을 얻겠다 던 네 명 명현들의 흔적은 어이없는 우리의 무지에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다. 그들이 낚시질을 했던 장소가 바로 두암이었기 때문이다.

사은정 동지와 기묘사화

이자가 조광조 등과 사은정을 지은 건 그의 나이 37세 되던 1516년(중종11) 10월이다. 그로부터 기묘사화가 난 것은 3년 후인 1519년 11월 12일. 3년 동안 그들

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종의 신임을 받은 이자와 조광조는 정난공신 삭훈과 소격서昭格署 혁파 등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펼쳐 나갔다. 중종반정에 공로를 세웠다는 이유로 받은 공신위훈은 훈구세력의 물질적 기반 확대로 이어져 기묘사림의 입장에서는 개혁의 걸림돌이었다. 또 소격서는 도교 신앙을 관장하는 관서로서 신진 사림들은 미신으로 간주하여 혁파를 주장한 것이다. 중종실록에 근거해 작성한 이자의 연보年譜에는 3년 동안 상소와 왕인 중종이 참여하는 강론자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주창하는 장면들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1517년 3월 16일) 정난공신 녹훈 시정을 윤택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차자를 올린다. (동년 7월 30일) 경연이 늦게 끝나 식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경연을 식사 뒤에 하거나 식사를 하며 하자는 중종의 제안을 반대하다. (동년 12월 19일) 주장叢講에서 바른 말하는 신하를 미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다. (1519년 11월 2일) 조광조 등이 주도하는 정국공신의 개정 즉, 위훈삭제를 요구하는 대간의 상소가 계속되었다. …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조광조와 이자 등 대신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임금을 불러내 강론을 했다는 점이다. 조강朝講, 석강夕講, 주장叢講까지 보이니 말이다. 군신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는 의외의 장면이다. 그런데 결국 이처럼 공세적인 개혁요구와 왕이 짜증을 낼 정도의 강의를 나중 엄청난 화를 당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1519년 11월 15일(중종 14년). 의금부에 의해 조광조(대사헌), 김정(형조판서), 유인숙(도승지) 등 기묘당인이 체포되고 만 것이

다. 조광조는 능주(현 전남 화순)로 유배를 떠난 직후 사약을 받아 죽었다. 함께 체포됐던 이자는 파직된 후 풀려나 고향 용인의 지곡으로 돌아온다. 조광조는 역시 삭탈관직 후 장살(杖殺) 당해 옥사한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풀려 날 수 있었을까. 《음애선생 연보》에 따르면 당시 영의정 정광필은 “이자는 비상한 인물이며 국가의 훗날 크게 쓸 사람입니다. 관대하게 처분하시기를 간청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죽음의 길에서 다시 만난 이자와 조광조

기묘사림의 좌장 이자는 풀려나 조광조를 만났던 모양이다. “능주 유배 길을 떠나는 조광조와 용인에서 작별하다.(11월 18일)” 사은정에서 은거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자던 이자와 조광조는 정치의 냉정한 현실 앞에서는 생사의 다른 길에 서게 된 것이다. 이때 이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조광조는 7일 후인 22일, 사약을 받고 죽어 선대가 묻힌 심곡리(상현동)에 들어와 영편하게 됐다. 그의 나이 37살 이었다. 회곡 조광좌도 장살(杖殺)당한 후 고향마을(현 쌍용아파트 자리)에 묻혔다가 아파트단지 개발로 현재는 운학동 버마강굴에 잠들어 있다. 그의 형 방은 조광보는 엄청난 충격에 고향에 은거하며 노모를 모시고 살다가 곧 세상을 떠났다.

결국 남은 것은 제일 연장자인 이자였다. 그는 다시는 사은정을 쳐다보며 살 수가 없었으리라. 41세 되던 1520년 음성 음애(陰崖)로 거처를 옮긴다. 그의 호 음애는 지명이자, ‘어두운 절벽’이란 뜻이니, 그의 심정을 능히 헤아릴 만하다. 이후 또 다시 충주 토계(兜溪)로 거처를 옮긴 후 세상을 등졌다. 당시 그 먼 곳으로 기쁨 찾아오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기묘사림의 일원으로 귀양을 갖다 온 용인 사람,

십청헌 김세필이었다.

조선조 개혁정치와 상징이자 시대의 풍운아 정암 조광조, 중종 조의 유학자로 기묘사림의 좌장이자 목은 이색의 후손 음애 이자, 학문이 높았던 방은 조광보, 회곡 조광좌, 그리고 사람의 철학적 바탕이었던 성리학의 시조 포은 정몽주, 기묘사화를 함께 겪고 유배되었다가 훗날 복권되어 형조판서까지 올랐던 십청헌 김세필.

이렇게 볼 때 조선조의 역사적 줄기와 중종조의 한 시대는 용인을 근거로 살았거나 유택이 매개가 된 이들에 의해 쓰여 졌다고 한다면 과장일까. 사은정으로 맺어진 한양 조씨 회곡공파와 한산 이씨 음애공파 후손들. 이들은 선대의 뜻을 받들어 형제의 연을 맺었다. 그 후 이들은 결혼조차 하지 않는다. 사은정 관리와 유지 계승도 함께 하고 있다.

기묘명현으로 역사에 기록된 4인의 용인 명현. 이들이 걸었던 역사적 흔적을 따라 그 숨결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바른 역사의식과 용인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영덕 덕골 · 잔다리

흥덕지구 택지개발에 흔적마저 사라지고

용인과 수원의 거의 경계를 이루는 서쪽 끄트머리, 덕골마을. 생활권은 수원, 행정구역은 용인에 속해 있는 어중간한 입지조건 탓일까. 외양으로 보여 지는 이 마을의 모습은 그리 푸근한 안정감이나 정감 있게 다가오진 않는다. 아마 번들번들 윤기가 흐르던 애완전이 털갈이를 막 시작할 때의 새드새드한 모습이다. 가을 건이가 끝난 이후의 스산한 황량감이 이런 느낌을 부추기는 것 같다. 태평양화학 공장 담장을 따라 올라가 태광 골프장이 있는 서북방향으로 마을이다.

동서로 길쭉하게 늘어서 남으로 향해 있고 그 앞을 국수봉이 가로막고 있다. 비교적 야트막한 구릉을 타고 언덕을 가르며 곧게 나 있는 시멘트 포장길. 이 길이 바로 40여 년간 주민들의 친구로 그들 가슴속에 애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철로다. 수여선(水麗線)으로 불렸던 경동철도.

주민들의 향수어린 추억이 담긴 수여선을 일제가 부설한 이유는 효과적인 식민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에서는 일본의 조선 내 철도

덕골 전경(2002년). 영덕리의 으뜸 마을로 덕수이씨(德水李氏)가 세거하던 곳이다. 이경중(1595-1648)의 묘가 있기도 하다. 흥덕지구에 포함되어 마을이 없어졌다.



부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왜놈 발에 발동 달기지... 왜놈덜이 발동 달았다 하면 조선천지를 활취고 땡길 참인디 그리되면 세상 어찌 되겄소.

마을에는 궤도만 걸어내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당시의 운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다. 성토를 해서 10여m이상 다지고 철길을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흠집 없이 성한 모습이었다. 이를 보면 목적에 있어서의 수탈성을 떠나 그 시대의 장인정신이 느껴진다. 덕곡에는 임시역이 있었다. 당시 학생들은 물론 뉴시터로 유명했던 원천과 신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

철로를 따라 신갈로 학교를 다니던 그 길이 태광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이와 함께 추억의 덕굴마저 매워져 버렸다. “발길 가는데 길 낸다”는 말도 있건만 본래 있던 길마저 없애버렸다. 신갈로



수역선 철길.





이경중(1595~1648)의 묘

다니던 초등학생들은 수원 매원초등학교를 다녔다. 택지 개발이 되기 훨씬 전부터 생활권은 물론 도시계획마저 수원에 편입되어 있었다.

덕골은 대대로 이 나라의 충신들의 혼령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옛 철길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뒤편으로 커다란 신도비와 함께 너른 묘 터가 마주 보였다. 이경중(1595~1648)이다. 본관이 덕수(德水)로, 절도사 원(院)의 증손이다. 강화(講和) 성립에 이르러 청 태종이 명나라에서 보낸 금보(金寶)를 가져오라고 하자, 이경중은 왕에게 허락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조종의 3백 년 동안 전해오던 금보를 오랑캐에게 실어 보낸 다음 천하 후세에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신도비에 적혀 내려오는 내용이다. 그가 주화파(主和派)와 주전파(主戰派) 사이에서 주전파의 입장을 가까이 했던 것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결국 그는 “왕의 장자와 제2자, 그리고 대신의 자녀를 인질로 보낸다”는 왕복의 조건에 따라 인질로 갔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후에 효종)과 함께 그의 두 아들도 동행했다.

그의 후손들인 덕수 이씨 효종공파가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면서 김해 김씨, 광산 김씨 등과 함께 대성을 이뤄 살아왔었다.

턱턱지 않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부지런했다. 60년대부터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등 고품품을 생산해 소득을 올렸다. '새끼들'은 가가호호 있을 정도여서 40여 대에 달했다. 10년 년. 주민은 540여명, 가구 수는 142가구였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영농의 다각화를 이룬 일부 주민들은 양송이 재배로 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항암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신비의 버섯 '아가리쿠스'는 영덕의 특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용인이씨 발상지 잔다리

신갈에서 영릉으로 넘어가는 돌 고개를 사이에 두고 양편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수원인터체인지를 막 지나면 왼편으론 1천5백여 세대의 두진 신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잔다리 마을 전경(2004년).



용인의 토성土砦이자, 조선조를 통 털어 용인 최대 재지사족으로 자리 잡았던 용인 이씨 시조始祖 이길권李吉權 발상지비.



용인 이씨 재설.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예전에는 새말과 합쳐 석현石峴으로 통칭되던 곳이다. 마을 이름을 잔다리, 한자로는 細橋라고 불렀다. 한자가 억지스럽다. 한편에서는 용인 이씨 중시조 이중인李中仁의 인품이 자애롭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자은교慈恩橋라 한데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그 보다는 잔들 또는 잔다랭이의 변음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지형적인 여건을 봐도 그렇다.

이 마을은 용인 이씨의 발상지로 알려졌다. 지금은 실전되어 그 분묘는 남아있지 않지만 나말여초羅末麗初이 지역 실력자였던 시조始祖 이길권李吉卷이 태어나 묻힌 곳이다. 신라 헌강왕 6년인 서기 880년에 난 그는 고려건국에 공훈이 커 고려 태조가 즉위한 후 그 공로로 5백호戶와 산성군山城君을 봉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사한 녹을 사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태조는 그의 공덕을 숭모해 다시 승록대부 태사를 제수하였다 한다.

용인이씨 족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신라의 국운이 쇠하여 혼미를 거듭하던 난세의 때인 신라 경명왕 2년, 혁명으로 왕건이 고려를 개국하였다. 그간 누차 태조의 부름을 받아왔던 공이 용인지방의 토호로서 태조를 도와 고려건국을 전후하여 궁예와 견훤을 평정하고 동예의 고부 이오환 등을 격파하여 삼한을 통합하는데 크게 공을 세웠다.”

그러나 천년세월이 흐르고 병란과 정란으로 인하여 장구한 세월동안 자손들이 흩어지다 보니 시조로부터 13세째에 걸친 묘가 실전 된지 오래됐다. 14세손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 이중인의 묘를 찾은 것도 일제 때였다. 하루는 후대 산소 묘지가 꿈을 꾸었는데 땅이 날아가 쫓아가니 현 이중인의 묘 자리에 숨더란다. 이상해서 파보니 그곳에서 묘와 석물이 발견됐다. 멀리까지 뻗어나간 산줄기가 겹겹이 처진 높은 이 터를 두고 자손들은 용인의 3대 대지大地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중인은 고려 충숙왕 2년(서기 1315년) 송경(개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에 나갔으나 이성계가 나라 세우면서 불사이군不仕二君의 정신으로 머리를 풀고 설거산에 들어가 벼슬을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죽으면서 “이씨왕조 밑에서는 벼슬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후손에게 하였단다. 이에 받아들인 사영도 공양왕 2년 남원으로 귀양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 백찬도 초지일관 조부의 유언을 따라 삼세불사三世不仕 했다. 반면 둘째 아들 사위는 벼슬길에 나서 조선개국 후 개성 유후를 지냈다.

삼세불사했던 그들의 충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뜻으로 스스로의 기득권을 쥐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역사의 도도한 변화흐름을 읽지 못한 명분론에 치우친 것이었을까.

기흥동 공세울

고난의 역사에도 천년을 살아 숨쉬는 석탑

기흥지역에서 걸으며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옛 농촌의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세울도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변신하여 주변이 정돈된 모습도 아니다. 농경사회의 유물인 가옥구조, 산업화 시대의 상징인 대기업 연구소와 대형 창고, 인구가 밀집 한 수도권 지역의 특징인 아파트가 뒤섞여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기흥에서 공세울에 이르는 도로는 23국지도다. 신갈-동막간 4차선 도로가 새로 개통되어 이르는 길은 더 늘어났다. 정자 마을 앞에서는 외통수 길이니, 막히고 혼잡스럽긴 마찬가지다. 기흥 일대에서는 농지가 비교적 널찍한 편이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냈을 뿐 아니라 러 조세를 바치는 공세창貢稅倉이 이곳에 있었다.

‘공세울’이라는 지명은 여기서 연유한다. 마을은 크게 둘로 나뉜다. 탑안마을과 큰말이다. 경부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면서 동서 양편으로 갈랐다. 서편이 탑안이다. 바로 ‘공세리 5층 석탑’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문화재자료 42호인 공세리 5층석탑은 우리나라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탑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그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가 담장 밑에 바짝 근접해 초라하기 그지없다. 나만 마치 빌붙어 웅색하게 사는 천덕구러기 같은 인상을 받았을까 싶다.



공세울 큰밭 전경. 밀성 밖씨 종족촌으로 원주민이 20여 호에서 10년 사이 그나마도 줄어 4호에 불과하다.



탑안마을 전경. 민가는 몇 채 안된다. 멀리 가흥호수가 아름답다.

주위 돌레망도 언제 손을 보았는지 녹슨 채다. 쇠락하여, 뭔가 새로운 대안을 기다리고 있는 마을 모습과도 닮았다. 가만히 살펴보면 기단부를 이루는 지대석에는 연꽃무늬가 아직 선명하다. 상층기단을 이루는 빔돌 중 동서방향의 두 쪽이 분실된 모습이다. 상륜相輪이라 불리는 탑머리는 없어졌다. 탑지붕을 뜻하는 옥개屋蓋의 완만한 낙수 면과 간단한 지붕받침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식이라는 설명이 안내판에 붙어있다.

수난의 역사와 함께 한 공세울 5층석탑

담장을 따라 5층 석탑에서 6m쯤 북쪽에 석불상이 나왔어 있다. 좌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있는 단아한 모습의 석불상은 안타깝게도 머리 부분이 멸실되었다. 불교조각의 새로운 부흥기였다고 전해지는 고려시대 중기의 석불답게 단순하면서도 부드러운 옷 주름이 뚜렷하다. 뛰어난 입체감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좌대 세로면 정면에 새겨진 3개의 연판문과 15판의 연꽃무늬가 좌우로 감싸고 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왼손은 가운데 놓고 무언가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올려놓았다. 음양각이 정교하고 도드라진 석불의 조형미는 감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유려함을 갖추고 있다.

이토록 균형 잡힌 몸매와 편안한 자세를 한 석불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자세만큼이나 편인하고 너그러우면서도 근엄함을 잃지 않은 잘 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란 상상을 해본다.

석탑과 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이곳에 절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듯싶다. 민족유산 말살에 열을 올렸던 임진왜란 때 왜적들에 의해 폐사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이다. 석불은 주민들에 의해 간단한 당우堂宇를 짓고 연연히 주



경기도문화재 자료 42호인 '공세리 5층석탑' 우리나라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탑 가운데 하나다.

몸체와 연결된 채 있었던 것을 80년대 중반 경 누군가 거둬 가버린 것이다. 고려시대 불교조각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석불사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다.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다. 10여 년 전만해도 주민들은 이를 끔찍하게 위했다.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떡을 해 탑과 불상 앞에 올렸다. 종교적 의례라기보다는 마치 마을로 내려온 머릿처럼 생각했으리라.

관계당국이 보존에 대한 무관심속에 주민들은 오래도록 돌아오던 석탑과 석불상을 경기도 박물관이 생기자 그리로 옮기도록 건의하려는 계획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 황연

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버텨왔다 한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또 한번의 수난을 겪고 말았다. 시집을 와 줄곧 석탑과 석불을 위하여 살았다는 최옥래(78)씨에 의하면 1951년 1·4후퇴를 하던 당시 공세리 일대는 격전지였다고 한다. 그는 멀지 않은 피난지에서 마을을 바라보았는데, 이곳에 비행기가 폭격을 하면서 별정계 불길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불바다였다는 것이다. 돌아와 남은 것은 없었고 덩그러니 석탑과 석불뿐이었다고 한다. 그나마도 성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석불상의 머리 부분이 아예 없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쇠심으로

수씨(1929~1991)가 꿈을 꾸었다. 어느 집을 들어갔는데 마루선반에 석불좌상의 두상부분이 덩그러니 얹혀져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두상을 가슴에 안다가 깨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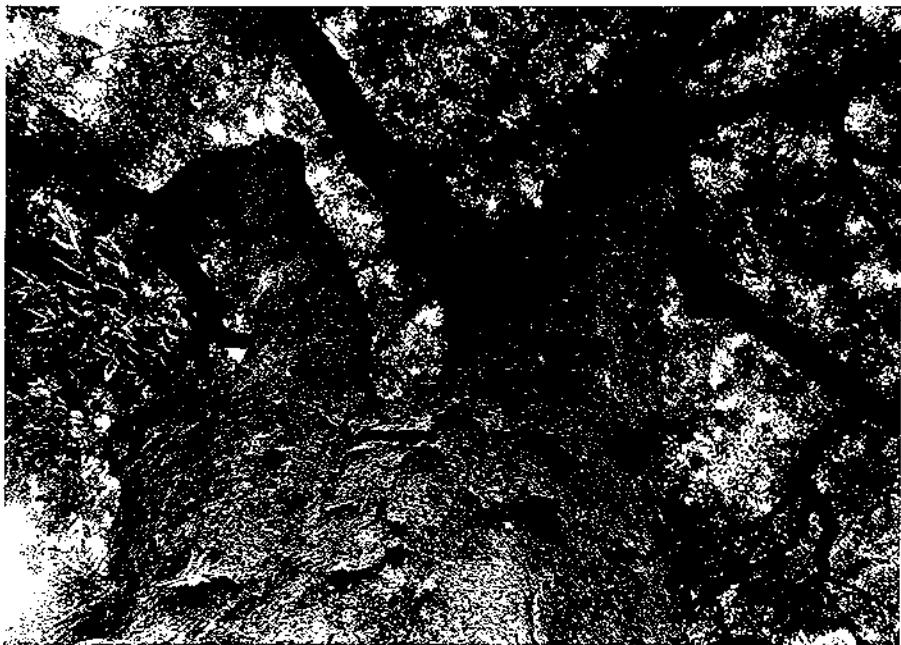
기다리면 없어진 머리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박물관 이전 건의 계획을 이내 거둬들였다.

밀성 박씨 증족촌 큰말

23번 국가지원지방도호가 큰말(大村)을 가로지르는 관계로 공세골이 아늑한 느낌을 주진 못한다. 큰말은 반쯤 도회화 된 동네다. 마을이 이처럼 변한 것은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다. 제일빌라를 필두로 4동이 들어선 다음 새마을 공장으로 지어진 도자기 공장이 옮겨간 자리에 고층 세원아파트가 지어졌다.

본래 큰말은 밀성박씨密城朴氏가 집성을 이루어 살던 곳이다. 이제는 원주민이 20여 호에서 10년 사이 그나마도 줄어 4호에 불과하다. 농사가 주업이었지만 본래 물이 귀했다. 공세천이 고매리와 경계를 이루며 신갈저수지로 적은 수량이 흘러들 뿐이다. 현재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물이 귀했던 만큼 물을 위하는 우물제사井祭를 매년 올렸다.

가을추수가 끝나고 음력 10월 상달에 날을 잡아 음식을 차리고 공동우물 5곳에서 제가 올려졌다. 임경래(69·공세리 155)씨댁 마당, 문형규(49·공세리 173)씨댁 앞, 최영식(60·공세리 174-4)씨댁 뒤, 기건우(71·공세리 204-7)씨댁 마당, 황희연(공세리 290)씨댁 앞마당이 우물이 있던 자리다. 마을 골골이 지명이 없을 리 없다. 동북쪽으로 메주골이 가까이 있고 다음이 꼽수골, 품수골이다. 능안골이라 부르는 큰골이 제일 멀고 예전에 가마터가 있었다는 동막골은 지금



3백년 느티나무. 큰말에는 두 그루가 2백여m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있다. 돌팔매질로 상대편 느티나무를 맞추면 '장사' 칭호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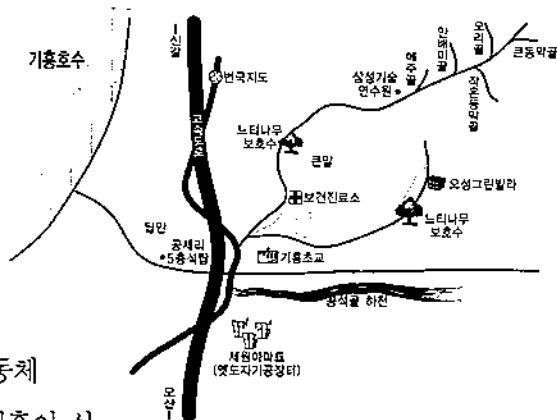
도 땅을 파보면 검은 고령토가 나오기도 한다.

3백년이 족히 넘는 느티나무 두 그루도 이 마을을 상징한다. 동서방향으로 2백여m의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옛날 추석명절이면 이곳에 모여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장사를 가렸다. 방법은 간단해 돌팔매질로 한 쪽 느티나무에서 상대편 느티나무를 맞추는 거였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멀리 던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어른들 기억으로는 한 사람만이 그 나무를 맞추어 '장사' 라는 칭호를 얻었다 한다.

공세골은 수원생활권에 가깝다. 용인시청 소재지에서 보자면 변방에 다름 아

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사무와 관련한 주민생활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기관이 하나있으니, 보건진료소다. 단순한 간이 의료기관 역할을 넘어서 주민사랑방이기도 하다.

오르는 땅값과 물려드는 외지인으로 과거의 오랜 농경사회 중심의 기초공동체는 거의 무너진 실정이다. 그로 인한 내홍이 심한 인근지역에 비해 마을은 차분하다. 주민들은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한다. 마을 서편의 잔잔한 호수 물결처럼, 천년 가까이 인재와 천재에도 견뎌내며 옛 자취를 전해주는 석물처럼,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영원하길 기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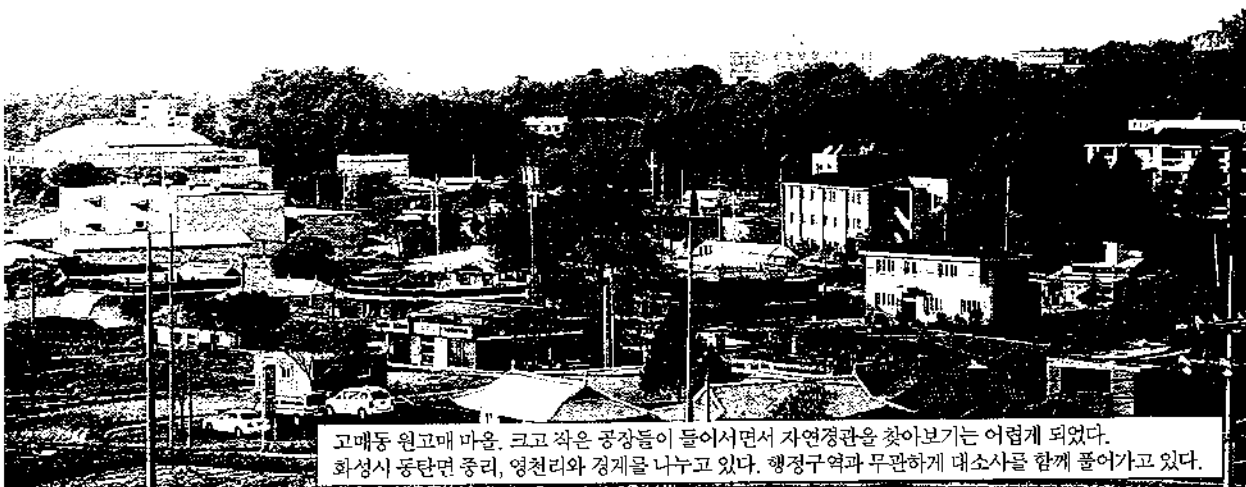


기흥동 원고매

지역가림 뛰어넘은 용광고 공동체

골매굴이란 지명에 간혀 한참을 씨름했지만, 어느 문헌에도 그 어원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는 것은 없었다. 골매골, 원고매 마을. 지명과 숲을 보면 마을 안정을 꾀하기 위한 풍수적 조치를 해 놓은 터라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다. 골매가 되었든, 매골이 되었든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 형국론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이 많다. 예로부터 그 형세가 매화꽃이 떨어져서 향기를 낸다는 매화낙지형은 길지(吉地)로 여겼음을 볼 때, 원고매 마을의 깊은 연조가 느껴진다.

더구나 마을 앞에 이르면 큰 숲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은 개방과 폐쇄가 적당히 혼합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풍수개념을 원고매는 충실히 따른 느낌이다. 만약 숲이 없었다면 분명 허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매 숲은 보통 숲이 아니다. 마을도 숲을 중심으로 그 안과 밖으로 구분되는 기준이다. 더불어 화성과 용인을 가르는 경계가 되기도 한다.



고매동 원고매 마을.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자연경관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화성시 동탄면 중리, 영천리와 경계를 나누고 있다.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대소사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

규모 또한 대단하다. 단일 규모로는 용인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편인데,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방대한 크기였다고 한다.

10년 전 당시 80세인 금세영 노인 회장에 따르면 “수천 평까지 났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짧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이 이것을 파서 사흘을 먹고 살았다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먹을 보물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얘기다. 더러는 금괴가 나왔다고도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일설도 들려주었다. 각기 다르긴 하지만, 이곳 마을 숲은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곳이자, 마을의 풍요와 관련된 풍수적 공간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느티나무와 신부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숲은 주변의 거센 개발 바람 속에서도 꾀꾀하게 버티고 있었다. 아니 이를 넘어 숲은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키워가고 있는 중이었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가운데 수명을 다한 수 백 년 고목이 한 편에서 쓰러지고 그보다 더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니, 원시림 자연 생태계가 멀리 있지 않았다.

용인 · 화성사람, 한마을 주민

용인이 도로망이 잘 발달돼 있음은 고속도로 나들목 만 봐도 확인된다. 수원IC로 불리는 신갈 나들목과 용인, 양지, 기흥 등 4개에 이른다. 원고매 마을은 기흥 나들목을 나와 바로 연결된다. 기흥구 남쪽 끄트머리다.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충리와 맞닿아 있다.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긴 했지만, 3백여 년 전에 들어온 수원 백씨(水原白氏)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어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들어왔다. 지금 이 마을 대성을 이루는 남양 홍씨(南陽洪氏)가 약 2백 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다. 지금은 홍씨 외에 봉화 금씨(奉化琴氏)와 김해 김씨가 많은 곳이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행정구역의 벽을 넘어 자연적 생활 울타리를 이루며 살

고 있다는 점이다. 그 상징성은 용수 대동회다. 용인 고매리와 화성시 동탄면 중리, 동탄면 영천리 주민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친목 모임이다. 이들은 마을의 대사로 할 수 있는 동제, 즉 산제사를 주관함으로써 생활공동체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동제뿐만 아니라 품앗이 등 노동단위로서도 같이하는 마을이다

그러나 공장들이 대거 마을에 입주하면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원주민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유입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만나는 노인들은 대개가 이 마을에 오래도록 살며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다. 대신 젊은이들은 거의 유입주민으로 보면 된다. 일터를 찾아 들어온 주변 공장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도 대개의 인근 여느 마을처럼 전통적 마을 공동체의 강한 유대와 질서는 많이 무디어졌다. 오래도록 내려오는 전래문화를 유지하고 상호부조하며 이웃을 챙기는 모습은 정주해 사는 사람들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편에선 공장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문화가 한 동네에 상존하는 것이다.

마을 앞에는 빈장산이 있다. 높지 않지만 깊숙한 마을 산이다. 그 봉우리를 마을에선 '당집봉'이라 한다. 산제당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매년 10월 1일 주변 3개 마을이 용수대동회 주관으로 산신제를 올린다.

깊은 골 맑은 물에 인재도 많아

이 마을에는 인물도 많이 났다. 원로 문인 목원牧園 홍대춘洪大春(1902~2006) 선생도 그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태어나 소년기를 보내고 외지에 나가 중·장년기를 보냈다. 그는 70여세가 되어 고향에 돌아와 정주하며 시를 썼다.

이러한 작업의 결실이 『해동명시선집부목원문고海東名詩選集附牧園文稿』이다. 신라, 고려, 조선의 선배 문인들의 주옥같은 글을 선택해서 신희 문우들의 시, 그



원고매 마을 숲. 최대 수천 평에 이를 정도의 규모였으나 지금은 일부가 훼손되었다. 갓가지 전설까지 안고 있다.

리고 목원 자신의 시를 한데 묶은 것이다.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이었다. 14세까지 글방에서 한문을 배워 익히면서 시작됐다. 경기사범대를 졸업하고 잠시 안성에서 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역임한 그는 오산에서 양약방을 오래도록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가천佳泉 송요중 선생 등과 함께 한시를 쓰며 동인지 『백구시단白駒詩壇』을 만들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백구시단을 지역향토 문학의 원조 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시집에 들어있는 많은 시 가운데 문학과 동료를 사랑했던 그의 심정이 절절히 배어 있는 시구 하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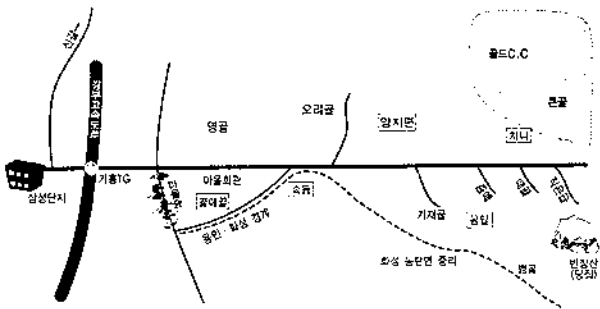
文星昨夜落駒城 문학계의 별이 어젯밤 구성에 떨어지니

金嶺山川豈不明 금령의 산천이 낮인지 분명치 않구나
 交誼永終海愁 우의가 두터웠던 벗이 가니 바다와 같이 수심에 잠기어
 哀惜無陽成 애석하기 그지없어 눈물은 샘을 이루니
 時風月生前事 글짓기 풍월은 생전의 일이며
 世代文後名 한세대의 문장은 죽은 뒤에나 이름 떨치네
 孝子孝孫哀裡 효자효손의 애끓는 곡소리
 歌斜日水禽鳴 상두꾼소리에 해 기울니 물새가 운다.

오랜 동인인 가천 선생이 돌아가자 이를 슬퍼해 지어 바친 시다. 귀가 어두워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치열한 삶의 모습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늘 독서로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는 선비와 예인의 기품 그대로였다.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남북 양쪽이 번갈아 거쳐 갔지만 다행스럽게도 마을 주민들 가운데 화를 입은 이가 없었다는 골매골. 이념적 대립으로 편은 갈리었지만 주민들은 이를 뛰어 넘을 정도로 깊은 공동체 의식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인위적으로 나뉜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골맷골로 통칭되는 원고매. 여전히 고향을 지키는 주민들과 일터를 찾아 모여든 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이다. 용인

과 화성사람들이 지역가림 없이 서로 나 공존하는 공간이다. 각기 다른 쇠붙이도 용광로에서 녹이면 쇳물이 되어 하나가 되듯, 용광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보기 드문 마을이다.



죽전동 대지

상전벽해 속에서도 십청헌 흔 길이 남아

수지에서 상전벽해라는 말은 이미 식상하다. 어느 한 구석 옛 것을 찾아보기 어려우니 말이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것이 산하라 했건만 수지에서는 이마저 통하지 않는 소리다. 어디인지를 가늠할 만한 지형물로서의 산조차 고봉이 아니고서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살아남은 기적 같은 곳이 있으니, 죽전 안대지 경주 김씨 세장지다.

되 돌아보면 그 후손들과 지역 문화계가 그 자연공간을 지키기 위한 고투는 눈

'백호 대촌'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던 대지. 오랜 전통을 가진 고팜놀이와 농업기반은 사라지고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



물거울 지경이었다. 아무리 관계 기관에 호소를 해도 개발부지로 넘어갈 처지가 되자, 묘안을 짜내기 시작했다. 그 방법은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화재 보호 관련법에 따르면 일단 지정이 되면, 해당 시설물은 물론 반경 일정거리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1999년, 죽전동 산 23번지 일대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이 도지정 자료 92호로 지정되어, 개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실 문화재적 가치는 대단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미 고즈넉한 향촌의 모습은 없는 대지마을은 고려시대 때 어씨魚氏가 살았다고 한다. 풍수지리상 큰 연못을 파야 잘 살 수 있다하여 대지大池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전해진다. 또 죽전竹田이 뜻하는 대나무밭을 소리 내어 읽어 '대지大池'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의 대성을 이뤘던 경주김씨 집안의 선대 묘 터가 천하명당 '대지' 여서 마을이름으로 굳어졌다고 그 후손들은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설이 있지만, 본래 마을 뒤로 모현과 연결되는 지점에는 예로부터 큰 고개가 있었다. 현재 대지고개로 불리는 대치大峙다. 마을이름은 그 대치에서 변음 된 대지로 보여지며, '대지' 를 영뚱하게 한자화 된 음을 붙여 '죽전竹田' 이 됐다는 것이 향토사학계의 시각이다.

6.25 최대의 수난지

탄천이 마을 앞을 흐르고 교통요지이면서 너른 들이 풍덕천 일대에 펼쳐졌던 옛날만 해도 대지는 그야말로 용인관내 가장 큰 몇 개 마을 중 하나였다. 일제 때도 '백여 호 대촌' 으로 불렸던 이곳은 마을이 커서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

전쟁 당시 농가호수만 83호였다는 이 마을은 51년 1·4후퇴 당시, 밀집됐던 민가가 거의 파괴되었다. 인명손실도 컸다.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하도 호수가 많아 마을을 뱅뱅 돌다가 간신히 찾곤 했죠. 동네가 커 비행기 폭격을 맞았는데 가지도 구, 문헌 등 당시 제대로 건진 게 없을 정도였어요.” 김홍산옹의 들려준 얘기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기에 의해 일가족이 몰살당했던 홍원기(69)씨 등 피해자들이 당시 현장을 찾아 증언하고 있다.

도대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우연히 지난 2000년, 홍원기(69·메트로신문사 고문)선생을 만나 그 엄청난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용인 죽전 일대에서 미군기 폭격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동생과 간신히 살아남은 그였다. 당시 노근리 사건이 AP통신 최상훈 기자에 의해 세계적으로 부가된 시점이기도 했다. 홍씨는 용인 죽전 사건도 노근리 사건과 같은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니 만큼, 우선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호소를 여러 기관과 미국에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나는 서울로 그를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은 이런 것이었다.

1951년 1월 12일, 나이 12살 때 부모님과 고모, 누나 등 4남매, 진외할아버지 댁 5명 모두 13명이 피난을 떠났다. 용인 대지마을은 진외 당고모 친정이어서 일단 거기서 잠시 집을 풀었다. 그런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 중공군에 마을이 포위가 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여 2~3일이 지나자, 미군 무스탕 전투기 편대가 날아들었다. 피난민들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모두 집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늘로 솟구친 비행기는 내리박으면서 사정없이 기관총을 퍼부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다.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다행히 가족 피해가 없었던 이들은 여기서 죽겠다 싶어 짐을 꾸려 풍덕천 사거리를 지난 무렵, 세이버 제트 전투기 편대가 남쪽에서 날아왔다.

피할 겨를도 없이 기관총을 쏘아대는데, “저것 봐라” 소리치는 순간 이미 가족을 포함한 피난민들이 쓰러졌다. 거기서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을 다 잃고 오로지 4남매만 살아남았다….

나는 이런 사연을 듣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서는 한편 <용인시민신문> 지면에 수차례 보도를 하였는데, 전 농촌지도소장을 하던 이병훈씨 등 많은 피해자들이 확인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 상처의 흔적은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얼마나 폭격이 심했던지 김세필 선생 신도비에도 탄흔 자국이 지금까지 선명하게 남아있다.

도시화가 삼켜버린 전통의 고딴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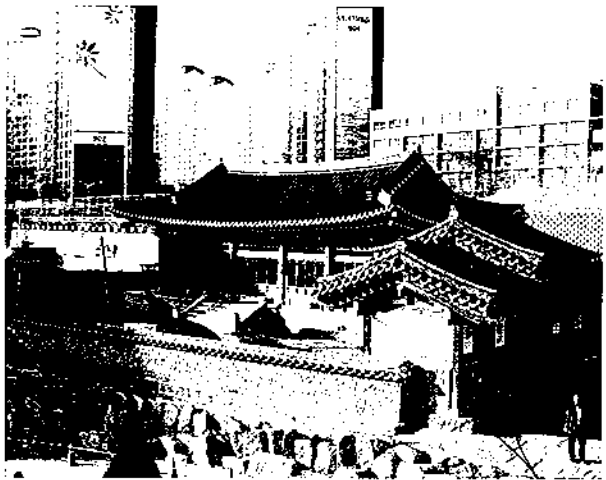
대지라는 지명이어서일까, 여전히 관내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마을중 하나이지만 예전엔 골골이 이름을 달고 있었다. 그중 얼음 박골 물탕이 유명하다. 대지 26번지로 대지고개 중간계 있어 얼음바위氷岩로도 불리는 이 물탕은 피부병에 좋다는 소문이 나 멀리서도 찾아왔던 곳이다. 웅달진 바위에 매달려있는 얼음을 봄까지 볼 수 있었는데 “고드름이 떨어질 즈음이면 봄보리 심고, 감자 심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또 늦은 봄 얼음 떨어지는 소리에 개들이 놀라 짓곤 하면 풍년이 든다는 얘기가 함께 내려오기도 한다. 얼음박골은 직선거리 약 십리쯤 떨어진 동천리 동막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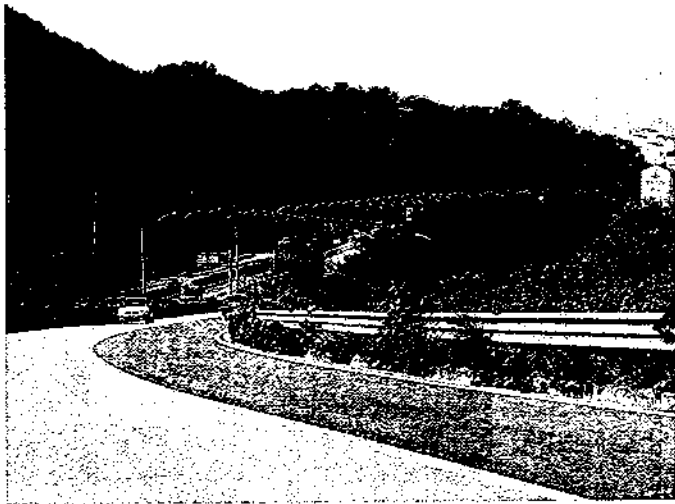
을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었다. 그곳 주민들은 멀찍이 있는 이곳을 바라보며 날씨를 짐치곤 했었는데 얼음박골에 안개가 끼었다 사라지면 사흘 안에 꼭 비가 왔다고 한다.

서당골은 현재 대신 아파트자리를 이룬다. 묘하게도 옛날 학동들이 글을 익히던 서당골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 단국대학교가 들어서는 곳은 불당골로 불렸다. 예부터 절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방아골은 내대지 전면인데 현재 고급연립아파트와 남곡빌딩이 있는 27-52번지 일대를 이룬다.

강만호골이라는 곳도 있는데 만호萬戶 벼슬을 지낸바 있는 굉장한 부자 강씨가 있었다. 겨울에는 남쪽 양지인 이곳에서 보내고 여름이 되면 북쪽 방아골에서 살았다는 얘기다. 아마 직위를 이용해 착복을 많이 했던지 그는 금배



죽전동 산 23번지 일대 '문간공 김세필 묘역' (도지정 자료 92호). 묘역을 지키기 위한 예피소드가 전해지는 묘역은 지금 시민들의 산책길로 최고다.



대치고개.

틀까지 감춰두고 있었다. 156번지 2호, 서북 끄트머리 땅에 유명한 샘물이 있었다. 부정축재가 드러나 삭탈관직을 당하고 망해가면서도 끝까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우물에 금배들을 포함한 금은보화를 묻었다는 전설이다.

대능재는 심청헌 김세필선생을 비롯한 경주김씨 종중 묘가 있는 곳이다. 천하대지라 전해지는 것처럼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혈을 호위하는 좌청룡 우백호 활개가 양편으로 뚜렷이 뻗어 내린 지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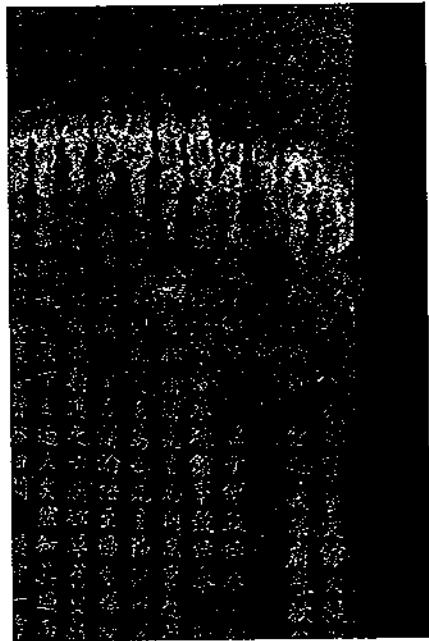
큰 고개, 즉 대치大峙에 길이 닦인 것은 일제 때였다. 1939년인가 한 해 동안 몹시 가물어 만주에서 좁쌀, 콩깻묵, 수수, 좁쌀 등을 들여와 근근이 연명할 때였다. 주민들의 일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취로사업 차원에서 길을 닦은 것이 대치고개다. 가래질 등 거의 인력에 의존하면서 바위를 뚫기 위해 남포질을 했는데 그 소리에 놀라 나무에 올라 아이가 떨어져 죽는 일마저 있었다 한다.

군량뜰로 불렀던 대지. 기름진 농토는 아니었어도 들판이 넓었던 대지마을은 고쌈놀이가 유명했던 곳이다. 1940년대 초반부터 해방 때까지 끊겼을 뿐 누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던 이 민속놀이는 인근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이어졌다. 이곳 고쌈놀이는 남사 산정의 줄다리거나 한터의 동해놀이와는 또 다르다. 제 의식이 혼합돼 치러지던 두 곳과는 달리 진행방식 자체는 단순하다. 그러나 규모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컸다. 줄을 만드는데 만 동네 장정들이 나서 일추 열흘이 걸린다. 어른 두 사람이 양팔을 벌려야만 안을 수 있을 정도로 굵었다. 정월보름을 전후로 약 1주일가량 행해지는데 광주군의 낙생, 들마면(현 분당)과 능골은 물론 구성과 신갈, 수원 땅에서도 모여든다.

“수지면 인구가 약 5천명일 때인데 ‘대지동네 줄다리다’ 하면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인근 각지에서 구경삼아 모여 들었지여.” 한 마을노인의 회고다.

줄은 용인과 광주사람으로 편을 갈라서 땀다. 수백 명이 서로 줄을 매려고 나서는데 줄을 매면 한 해 동안 건강하다는 얘기가 있기도 했거니와 겨우내 휴식을 취하던 농민들이 일 년 농사를 준비하는 일종의 준비운동이기도 했다. 동네 아낙들은 쌀 견어 밥 짓고, 술내고, 음식을 마련하는 그야말로 안팎행사였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놀이

삼청헌 김세필(1473~1533) 신도비. 탄흔 자국은 한국 전쟁 당시 폭대밭이 되었던 대지마을 참상의 흔적이다.



가 있는 곳엔 두레패농악이 빠질 리 없다.

10여개 농악패가 오곤 했는데 가장 유명했던 것이 오리뜰(현 오리역 부근마을) 농악으로 전문놀이꾼 수준이었다는 게 그때를 기억하는 어른들의 얘기다. 일 후 20여 년 전, 젊은이들이 고향을 많이 떠나면서 사라졌는데 수지지역에서 꼭 복원해야 할 민속대동놀이로 주민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농가중심의 향촌의 모습은 없어졌어도 그나마 단독주택이 많고 빌라가 들어선 죽전 1리, 대지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상가와 고층아파트촌으로 변모해 가는 6동, 안대지라 불리며 구주택과 고층아파트가 뒤섞인 3동이 대지마을을 이룬다. 3동에는 수백 년간 못자리처럼 집성촌을 이뤄 살아오는 경주김씨 문간공파 십청헌 김세필(1473~1533)의 묘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기묘사림과 연결 지어 여러 차례 적은 바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으로 연산군 1년(1495)에 사마시로 수찬修撰과 지평持平에 올랐다. 성종 비 윤씨가 왕비의 체모에 벗어난 행동을 하였다하여 폐위된 후 연산군이 왕위에 올라 어머니 윤씨의 복위문제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참화 갑자사화(1504). 십청헌은 이 사건에 연루돼 거제도도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에 의해 풀려 전라도관찰사, 대사헌, 이조참판 등을 지냈다. 후에 기묘사화(1519·중종 14년)로 정암 조광조를 사사賜死한 과오를 규탄하여 또다시 유배되었다가 돌아와선 벼슬에 오르지 않았다. 만년에 충주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두문불출한 사람이다. 당시 충주 토계에 은거하고 있던 용인 지곡 출신 음애 이자를 만나 시문 짓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김세필은 음애 이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1533년 3월 3일, 음애 나이 54세 때 일기를 보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은 김세필, 신한광과 셋이 모여 개산에 올라 풍광을 감상하였는데, 김세필이 사망하여 이를 슬퍼하는 시를 남겼다”

고 적고 있다.

김세필은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충주 팔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연산군에서 중종에 이르기까지 가히 사회의 시대를 산 십청헌(十淸軒) 김세필(金世弼). 그는 논어를 강하면서 정암의 사사(賜死)를 큰 과오로 규정, 중종에게 이렇게 용기있는 진언을 했다는 것이 「십청헌 김선생실록(十淸軒 金先生實錄), 십청헌선생개념사업회」 문헌에 전해진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過勿不憚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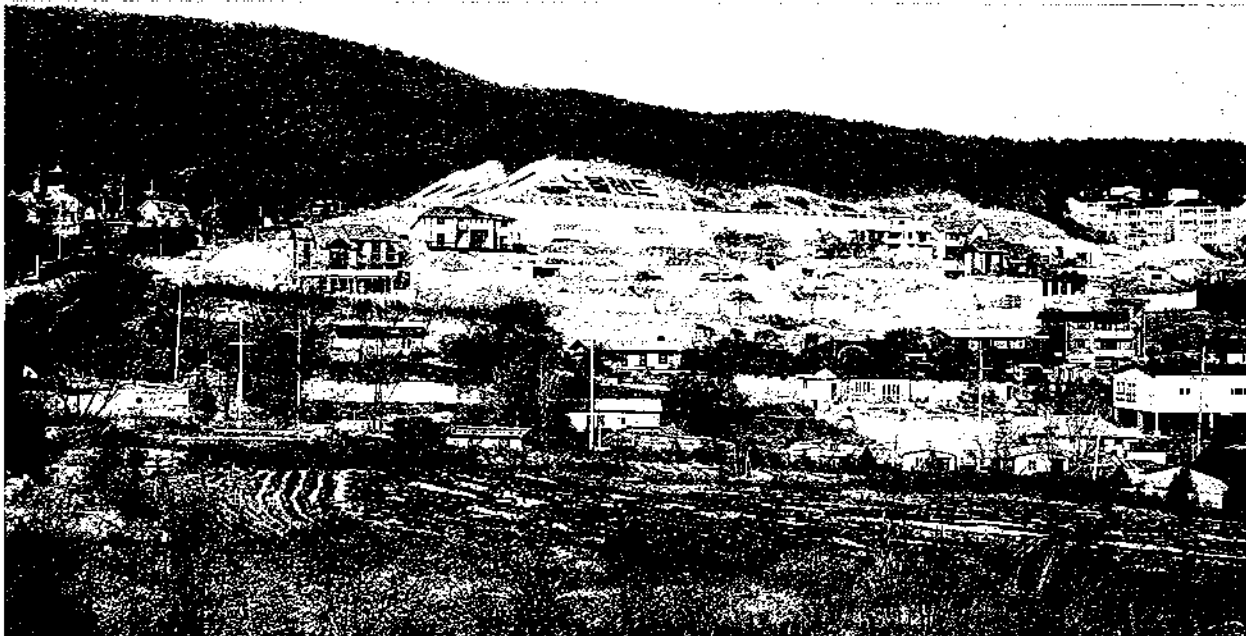
그는 이 일로 또 다시 유배의 길로 떠났지만 바른말보단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해 나랏일을 그르치게 했던 역사의 많은 시류 영합형 인물들과는 달랐다. 십청헌의 끝은 처신과 기개가 오늘날에도 새삼 가슴에 젖어 드는 이유가 왜일까.

신봉동 서봉말

광교산 발치 법기도량의 혼 서린 마을

“서운瑞雲이 감돌아 정기가 솟는 광교산 뒤편 발치에 터 잡은 등지 법기도량法起道揚 혼이 서린 마을, 평화롭게 뻗어서 조화롭구나. 호원 성곽 수원 벌 이웃을 하고 정암靜菴 선생 개혁사상 근본을 삼아 서로 돕고 즐기는 충효정신을 슬기롭게 갈고 닦아 길이 전하세.

유서 깊은 곳의 마을 유래는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어진 재상이 아쉽고 집안이 어려울수록 양처良妻가 그림다는 청수淸秀하고 강직한 선비정신을 가진 우리들. 선대가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감탄感歎하여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이념으로 입향入鄕,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고진감래 대물려 살아왔으나 이 고장 토양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나 현인달사(賢人達士)가 제대로 자라나기 힘든 척박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시대조류에 따라 광고산 정기를 이어받은 이 고장 가가호호 자손이 창성하고 대를 이어 태평성세를 누려오고 있는 곳이다.”

지난 93년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회관 앞에 세운 '마을의 유래' 비문 내용이 다. 조상들의 유구한 흔적과 함께 마을의 긍지를 새기고 이를 길이 이어가 번창하기를 염원하는 마을 유래비는 그리 흔하지 않다.

특히 수지처럼 급변하는 주변마을인 만큼 마을 유래비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뒷면에는 한 가족씩을 대표하는 가장 이름과 마을 관련 통계지수까지 그 시대를 영원히 후대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꼼꼼히 새겨놓았다. 훌륭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풍덕천 사거리에서 수원방향으로 43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쪽 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다. 나도 0여러 차례 수지에서 길을 잘못 찾아 헤매고는 했다. 스스로 다른 것은 몰라도 용인지리만큼은 좀 아는 체를 해왔던 나로서는 자부심에 금이 간 곳이 바로 수지다.

서봉말 전경. 시골마을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광고산 89개 절과 보물 제9호 서봉사지

유래비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서북쪽으로는 광고산, 남쪽으로는 형재봉이 우뚝 솟아 있다. 그 사이사이 계곡에서 맑은 물이 폭포수를 이루기도 하며 굽이굽이 돌아 흘러내리는 흔치않은 경관을 간직한 곳이다.

군데 군데 뒤섞인 전통가옥과 고급스런 주택 사이를 걸어 발길을 먼저 마을의 자랑인 현오국사탑비로 향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축축하게 젖은 몸으로 물길을 따라 계곡에 들어서자 청량한 물소리와 함께 바람에 실려 달려드는 찬 기운이 그보다 상쾌할 수는 없었다. 벗어던지고 물속에 담그고 싶었지만 해가 떨어지면 서봉사지를 카메라에 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밀려오는 마음 속 유혹을 물리치고 쟁걸음으로 발길을 늘렸다.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5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 맨 위로 계곡 초입에 있는 성광기도원에서 약 15분을 오르는 동안 보물 제9호인 현오국사 유적과 서봉사지는 어디에도 안내 팻말 하나 보이질 않았다. 정말 귀신이 라도 나올 지경이었다. 아예 길은 보이질 않아 허리춤까지 올라오는 풀숲을 헤치고 뒤희다 간신히 구조물을 보고 서야 찾을 수가 있었던 곳이다.

서봉말 마을 유래비. 지명유래 뿐만 아니라 가구수, 각 호주 이름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후대 자료로 남겼다.



고려 시대 때 지어진 서봉사瑞峰寺터는 아마도 축대로 보이는 정교하게 쌓은 석축물이 아직까지 온전한 편이다. 가운데 절 마당에는 들기둥이 서 있다고 하나 풀숲에 가려 볼 수는 없었다. 현오국사가 거처하면서 국왕을 강학講學했다는 설이 있는 서봉사에서는 인천안목人天眼目), 불조삼경佛祖三經 등 10여종의 불경을 인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록에 의하면 이 절은 임진왜란 때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10여 년 전 공사도중 현자총통이 발견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지구청 앞 임진산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이 일대에서 관군 6만 명이 왜적 1500명에게 참패한 적이 있는 격전지이자, 역사적인 아픔을 지닌 곳이다. 아마도 관군이 숨어들만한 사찰을 모두 불을 지르는 가운데 절이 없어진 듯하다.

약 4백년이 넘게 홀렸지만 당시의 기와조각이 마을에 이르도록 땅바닥에 뿔군다. 광교산을 중심으로 한 서



(위) 보물 제9호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아래) 일제 당시 세웠던 보물 표석, 조각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1997년).



영험사 뒤뜰에 있는 해인당 영철대사탑. 장마에 쓸려 평굴던 탑재를 수습해 세운 것이다.

봉리 일대는 옛날 89개의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절 구경하려고 새 짚신을 신고 나서 돌고 나면 어느새 짚신이 다 닳았다.”는 말과 함께 “하루씩 절에 머물며 4바퀴를 돌면 한해가 어느덧 흘러갔다.”는 얘기가 아직도 전해질 정도다.

그 가운데 서봉산장 쪽 계곡은 절능안으로 불린다. 큰 절터가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는 지명이다. 이곳에서 그간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귀중한 불교 유물을 보게 됐다. 부도浮屠。 영험사(수지읍 신봉리 690번지) 뒤편에 모셔진 이 부도에는 해인당 영철대사탑海岸堂 靈哲大師塔이란 글자가 기단부 8각 하대석에 새겨져 있다. 불교사전을 뒤져 보았지만 해인당에 대한 기록은 없다. 영험사에서조차 정확한 연대와 영철대사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다만 부도탑의 양식을 보고, “추정컨대 조선초기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 박용익선생의 얘기였다.

고승의 시신을 화장한 납골솥을 모신 건조물 부도는 선종의 유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고승의 죽음이란 그저 죽음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소승불교의 정신은 성불을 했다고 믿어지는 고승들에게 그만큼 예우가 필요했고 이의 표시가 부도다. 이 부도를 시대별로 비교해보면 초기 시대의 것일수록 그 공들의 멋이 깊어 보이고 아름다움이 빛난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그간 우리 용인지역에서 발견된 백련암의 도원대사 부도

탑과 백암 가창리 정원사 터 입구에 있는 부도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면서 훨씬 앞서 세워진 것이 분명할 듯싶다. 조선중기의 단조로운 석종형石鍾形과는 달리 대개의 탑 형태인 기단부와 탑신부, 상륜부가 뚜렷이 구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조형미 또한 가히 으뜸이

다. 기단부 지대석엔 연꽃무늬가 새겨져 사방 16개가 있다.

중심부인 탑신은 둥근 원형으로 그 둘레가 175cm쯤 되는 것으로 아담하며 기계로 뽑은 듯 정교하다. 두터운 지붕들을 얹고 있는 이 부도의 탑신고임과 맨 위에 올려진 꽃병모양의 석물은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난 84년 영협사 건립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계곡 냇가로 떠내려 온 구슬처럼 둥근 탑신을 김종석(75)씨가 처음 발견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의 탑 일보가 분리된 채 덩굴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영협사 해안당 부도뿐만 아니라 이곳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불교 유물에 대한 발굴과 보존방법이 연구되길 기대해 본다.



고기동 고분재 · 배나무골 · 셋말

천혜의 자연조건 갖춰 전원주택지 주류

“배나무골이요? 글쎄요…”

나중 이 마을에 고향을 둔 이석순 수지농협조합장을 통해서야 그 사정을 이해하게 됐다. “요즘은 마을 이름으로는 통하질 않아. 그 쪽 유명한 음식점을 대고 물어보면 금방 알걸.” 그만큼 변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다. “산00라는 음식점 있는 동네 아세요?” “아 거기요? 그럼요.” 이랬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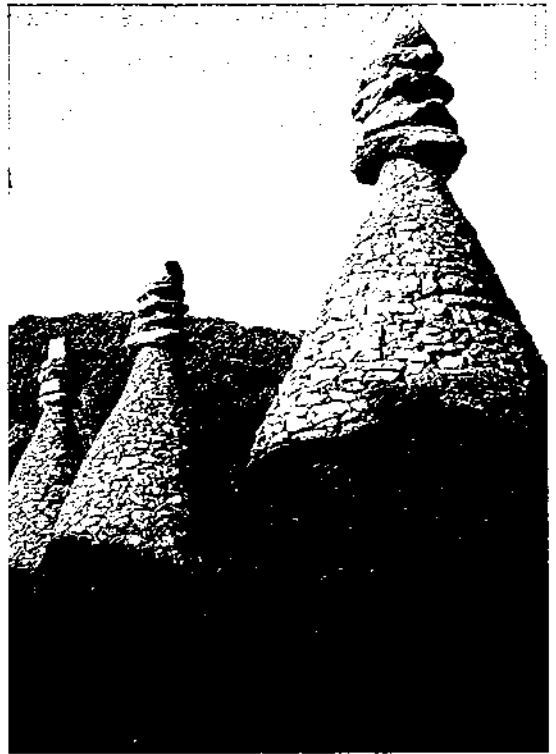


셋말에서 배나무골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서 바라 본 주택단지. 전통가옥들은 이제 마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고분제, 셋말, 배나무골로 이루어진 이곳은 더 이상 주민들 삶터로서의 마을개념으로는 설명하기 힘들게 되었다. 민가를 속속 사들인 외지인들이, 살림집이 아닌 음식점종으로 영업허가를 내고 집을 대개 개조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주거공간으로서의 마을이 아닌 먹거리촌으로 대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지도상으로 보면 돌출된 뿔 모양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수지읍 고기리 고분재다. 마을 중심으로 남서방향은 의왕시 고천이고, 남향으로는 광교산을 경계로 수원과 맞닿아 있다. 서북향으로는 바라산이 있어 성남·의왕·용인이 경계하고 있다. 이곳은 용인시 중심에서는 반대편에 위치한 백암면 옥산리와 더불어 최고로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수지 중심지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12km정도다. 고분제는 곡현曲峴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봐 ‘굽은 고개’의 변음으로 보인다.

수지일대의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이석순 조합장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 놓은 『수지향토문화답사기』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예전 이 마을에서 질



돌밭이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린다.

그릇을 만들었다” 하여 고분동이 되었다는 설도 함께 전하고 있다. 의왕시 학의동 송말로 넘어가는 그 밑 동네인데 백운산 왕이굴 계곡에서 수 킬로미터 이어져 낙생 저수지로 담수되는 발원지가 된다. 흔히 보는 농가의 모습이 산 밑으로 서너 채가 웅색하게 자리하고 있을 뿐, 널찍하고 산뜻하게 단장된 가든과 별장식 주택이 단연 돋보인다.

널찍하게 팔을 벌린 백운산의 단풍이 과연 절경인 가운데 관음사 안에 있는 돌탑이 잘 어울린다. 산허리를 잘라내 계단식 전원주택단지 공사장 굉음소리를 들던 것이 어제인 것 같은데 천혜의 자연계곡을 긴 좋은 자리에 여지없이 새집들이 들어섰다.

화전민촌에서 먹거리촌으로 탈바꿈

셋말은 고분재에서 배나무골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가파른 언덕을 넘어 들어간다. 주변의 현대화된 건축물 일색인 이곳에서 고풍스런 한 건물에 눈에 띄는데, 광주이씨 석탄공파 부위공 재실이다. 배나무골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 광주 이씨는 입향조인 덕린(德麟)의 후예들이다.

군데군데 별장을 지어 놓아 빈한한 농가와 어색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분들래 고개를 넘으면 배나무골이다. 배나무골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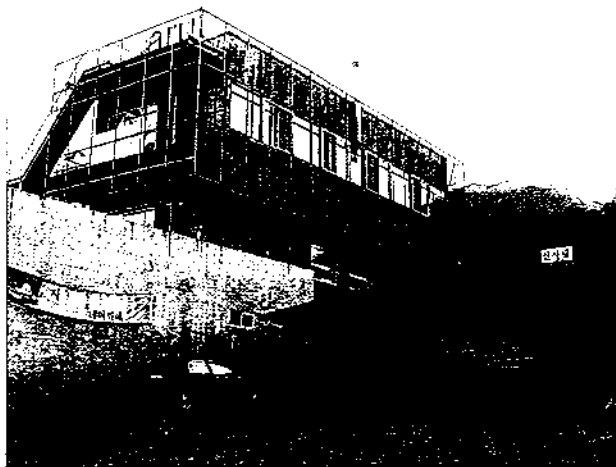
약 250년 전, 이 마을에 살던 이진영의 집 뒤에 큰 배나무 한 가루가 수명을 다해 고목으로서 있었다. 죽은 이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은 것은 원래 이 나무가 커서 평소 신목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우연하게도 도총부 도사 벼슬을 버리고 이진영이 낙향해 있던 그 해, 죽었던 배나무 꼭대기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더니, 가을

에 가서 보니 꼭 수박하나 크기의 배가 달렸다. 죽었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이라 이를 신기하게 생각한 그는 사연과 함께 배를 임금에게 진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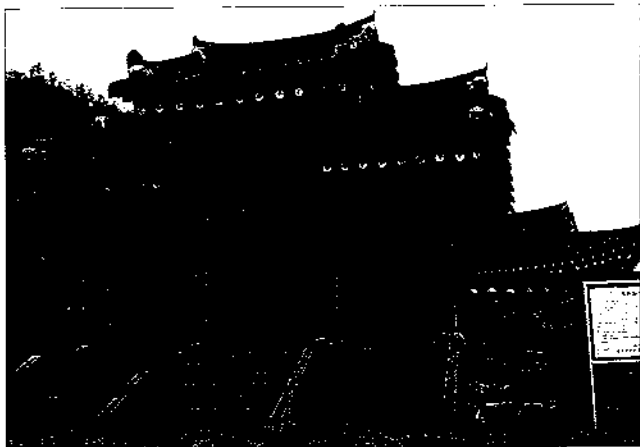
사연을 들은 임금은 그의 덕으로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하며 배나무골이라 지명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나마 있던 민가 10여호가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카페 또는 한정식집으로 바뀐 마을 모습은 참으로 묘한 변화의 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논은 아예 없고, 비탈에 있는 밭을 제외하면 마치 강원도 외진 산촌을 연상할 만큼,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다보니, 도시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선호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고, 찾게 되는 것이다. 고기 2리로 통칭되던 3개 마을은 3백 50여년 전부터 광주이씨가 세거한 곳인데, 땅이 거칠고 척척지 않아 오로지 농토에 삶을 의지 했던 많은 주민들이 떠났다. 오히려 천혜의 자연조건을 수단 삼아 많은 외지인들이 역으로 찾아들었다. 그래서 현재는 원주민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유입 주민이다.

옛날 오지였던 이곳의 생활수단은 화전을 일구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솥을 끓고 뿔감을 내다 팔아 생활을 이어갔다. 뿔감을 지고 수원시장은 물론이고 안



농가를 사들여 개조한 후 먹거리집으로 영업하는 사례는 마을에서 흔하다. 배나무골 시골농가와 대형 레스토랑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 이씨 제선.

양과 멀리 영등포시장까지 갔었다. 참 어려운 동네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이 마을은 급격한 변화물결에 휩쓸렸다. 백운산과 광교산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고기리 계곡이 알려지면서 행락객들이 찾아들었다.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처음에는 계곡을 따라 임시포장 천막을 치고 먹거리 장사를 했다. 그러던 것이 행정당국의 무분별한 건축허가가 나면서 우후죽순 고급 먹거리 집을 짓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 동네에만 50여 채가 넘는다. 수량도 많고 메기 등 고기도 흔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떠서 먹을 정도의 청정수는 지금은 오염되고 말라버렸다. 널려있는 좌판과 쓰레기더미 옆에서 있는 캠페인성 간판이 그저 무색할 따름이다. 고요한 계곡이 갑자기 홍청대면서 이 마을은 다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토지는 이미 외지인 손에 들어갔지만 대대로 내려온 터전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요즘도 지계를 지고, 소를 부려 쟁기를 끌기도 한다. 수지지역 대부분의 현상처럼 땅값도 올라 땅뽕기 깨나 있던 이들은 손에 돈뽕이나 만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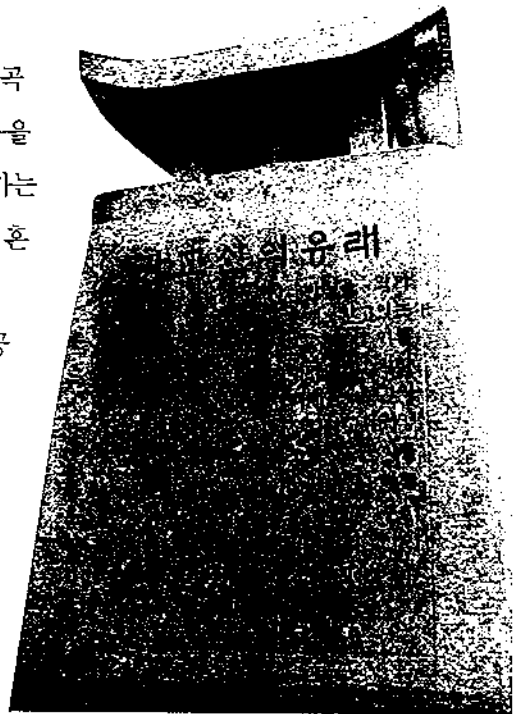
도 했다. 토착민간 경제적 간격도 생기고 유입주민과의 문화적 차이도 느낀다. 하지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어느새 익혔다.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처음에는 사소한 마찰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동네 큰일에도 가능한 찾아갑니다.” 10여 년 전 이사해 살고 있는 천영덕(56)화백도 나무꾼로 ‘우리동네’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 가운데 하나였다. 다만 최근에는 그 근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광교산은 용인 땅, 수원시 유래비 잘못돼

7월 칠석날을 전후로 3개 마을은 광교산 계곡 금성굴에서 산제사를 올려왔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구심력을 만들고 공동체를 추슬러 나가는 것이다. 외양은 변한 듯하지만 이곳은 역사의 흔적과 조상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고기 2리 산 79번지, 여기에는 유명한 양후공 襄厚公 이종무 장군(1360~1425)이 모셔져 있다. 백운산과 광교산 사이에 자리 잡아 빼어난 형을 타고 난 자리로 보인다. 이종무 장군은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한 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고려 공양왕 6년에 태어나 14세 때부터 장군이던 부친을 따라 강원도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친 ‘소년장수’이었다 한다. 조선 태조 때도 서해안과 의주 등지에서 왜



수원시가 세운 광교산 유래 비. 현재 이곳은 풋대봉으로 용인 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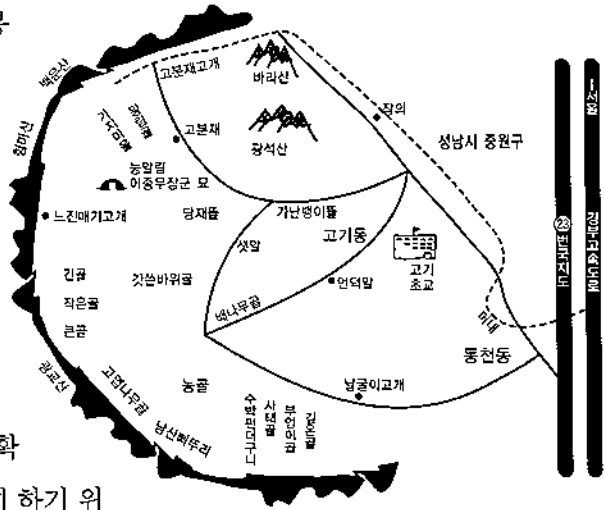
이종무 장군 묘. <임효정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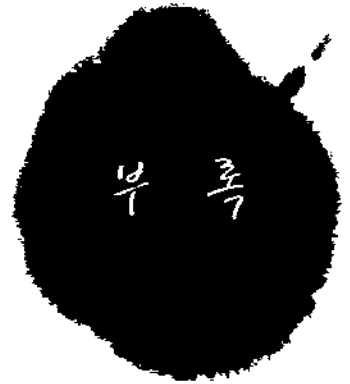
구를 물리쳐 공을 세웠다. 1418년 대마도에 흉년이 들어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또다시 왜구가 대거 출몰해 약탈을 자행했다. 세종 1년(1419) 6월 우군총제右軍總制 이종무는 삼도도통사 유정현과 더불어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우리가 배운 내용이다.

그의 분묘는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제 25호로 지정돼 있는데, 한때 실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2년 장수이씨 문중에 소장되었던 양후공산도襄厚公山圖에 의하여 그의 후손 이길현씨와 이인영 전 문화원장이 현지를 조사하고 비문을 판독함으로써 확인되었다. 400고지가 넘는 바라산과 백운산·광교산 자락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계곡은 깊고 유려하다. 어디에 서든 산을 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산과 봉우리는 광교산 꽃대봉 (582m)에서 뻗어 나온 자락일 뿐이다. 그 꽃대봉에는 수원시에서 세워놓은 광교산 유래비가 서서 등산객들을 맞이한다. 화성의 형상을 따서 만든 유래비다.

그런데 정확히 해야 할 사실은 광교산 정상은 분명 용인의 산이다. 이는 국립지리원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다. 1996년 경,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석순 조합장, 박용익 전 문화원장, 이제학 전 용구산악회장 등과 함께 등반을 한 후 이를 지역사회에 이슈화 한 적이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선지 여전히 그대로다. 자연을 두고 내 것 네 것 따지는 것이 옹졸해 보일지 몰라도 과연 그럴까. 내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먼저 반성부터 할 일이다. 얼마나 우리가 광교산을 아껴왔는지를. 그리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사랑하고 가꾸는 만큼 내 것이 된다는 것을.





- 참고문헌

-- 용인 관련 문헌자료

《단행본》

- 고석규·고영진, 1996 『역사속의 역사읽기 2·3』 풀빛
- 국립국어연구원, 2002 『우리문화 길라잡이』 학교재
- 김재홍·송연, 2005 『영남대로 950리 삼남대로 970리 옛길은 가다』 한얼미디어
- 김학범·장동수, 1994 『마을 숲』 열화당
- 김형주, 2002 『민초들의 지킴이신앙』 민속원
- 김호일, 2004 『한국의 향교』 대원사
- 배우리, 2006 『배우리의 땅이름 기행』 이가서
- 배우리, 1994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1,2』 토담이병철, 1968 『湖巖自傳』
- 이석순, 2005 『수지 향토문화 답사기』 연인M&B
- 윤용이, 2004 『우리 옛 도자기』 대원사
- 이영권, 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 이이화, 1988 『역사풍속 기행』 역사비평사
- 이재운, 1992 『소설 토정비결』 해냄출판사
- 이제환, 1997 『용인의 산수이야기』 흥문당
- 이필영, 2000 『마을신앙으로 보는 우리문화이야기』 웅진닷컴
-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 이하우, 2003 『잃어버린 신화 바위문화 이야기』 민속원
- 정만조의, 2004 『음에 이자와 기묘사림』 지식산업사
- 정승모, 2000 『시장으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 정종수, 2000 『풍수로 보는 우리문화 이야기』 웅진닷컴
- 조병로·김주홍, 2003 『한국의 풍수』 눈빛
- 趙聖熙, 1981 『龍仁天主敎會史』 용인천주교회사편찬위원회
- 조홍윤, 2001 『한국문화본』 동문선
- 조홍윤, 2002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현철, 2006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 주강현, 1996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1.2』 한겨레신문사
- 주강현, 1995 『마을로 간 미륵』 대원정사
- 최운식 외, 2002 『전설과 지역문화』 민속원
- 최인호, 2005 『유림 1』 열림원
- 최연준, 2004 『한국의 옛길 영남대로』 고대문물문화연구소
- 허균, 2005 『한국의 정원』 다른 세상
- 홍순석, 2004 『박은 시문학연구-자료편』 한국문화사
- 홍순석, 2002 『김세필의 생애와 시』 경주김씨문간공심정헌과총회
- 한국역사연구회, 2000 『역사문화수첩』 역민사

《논문》

- 김성운, 1999 <경조의 사회개혁과 예술> 『기전문화예술』 7호, 경기문화재단
김우립, 2001 <용인지역 분묘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이해준, 1989 <朝鮮後期 村落構造의 變化背景> 『대구사학』 37집
정만조, 1996 <朝鮮時代 龍仁地域 士族의 動向> 『한국학 논총』 19
정진영, 1990 <16,17세기 제지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3, 한국학연사
최원석, 2001 <龍仁地域의 陰宅風水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연구회
홍순석, 2005 <閔陞先生이 龍仁地域에 끼친 影響> 『龍仁繼土文化研究』 6집.

《조사연구 보고서 / 민족지(도지·시지·읍지·면지 등) / 그 외》

-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 김재철, 1998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龍仁市史 3·4』 <사림과 마을>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용인 처안정 시물조사 보고서』 용인시·용인문화원·시사편찬위·충북대중원분화연구소, 2002
『용인 입전산성』 경기도박물관 외, 2000
『용인군지』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용인향토대관』 강창희, 1986
『내고장 용인地名·地誌』 이인영·김성환 편저, 용인문화원, 2001
『竹軒集』 김명호 저, 김홍연 편, 경주김씨 경기도총친회
『陰崖集』 음애 이자 저, 음애선생기념사업회
『용인의 분묘 문화』 용인시 외, 2001
『용인의 역사지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외, 2000
『龍仁郡邑誌』 홍순석 편역, 용인향토문예진흥회, 1982
『胸城面誌』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1998
『水枝邑誌』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02
『陽智面誌』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01
『鶯興邑誌』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00
『포곡면지』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04
『원삼면지』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05
『도현면지』 용인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 2003
『高麗時代 文人 陳 進화』 매호공 기념사업회·용인전승문화연구소
『尾錄 上·下』 오희분 작, 해주오씨추단공파 종중
『민중정공 유교(전)』 민중기 편, 일조각
『한국지명총람』 한글학회, 1986
『삼성50년사』 삼성버서설, 1988
『탄계 유형원·남표 논문집』 용인시·용인문화원, 1999
『원삼면 전화번호부, 이장단협의회, 2006
『擇里誌』 이충환저음, 이익성 옮김, 승유문화사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남규, 2003
『譯註 經國大典』 (번역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내고장 용인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사』 이인영 편저, 용인문화원, 1989
『安城郡邑誌(중보판)』 안성문화원, 1997
『梅原野錄』 황현 / 『牛峯 李氏 慶尙公旅 門中 寶鑑』 제2집, 이인영, 1996.
고지도 : 1/15,000 (조선총독부 간행, 1921년도) / 大東輿地圖 외, 김정호
『용인연합신문』, 『용인신문』, 『용인시민신문』

〔용인사 일반: 건치연혁〕

- 『三國史記』卷 35 雜志 4 地理 2 漢州
- 『高麗史』卷 56 地理志 1 廣州牧 龍駒縣
- 『世宗實錄』卷 148 地理志 龍仁縣, 陽智縣
- 『新增東國輿地勝覽』卷 10 龍仁縣
- 『新增東國輿地勝覽』卷 8 陽智縣
- 『新增東國輿地勝覽』卷 8 竹山縣
- 『東國輿地志』(1656) 龍仁縣, 陽智縣, 竹山縣
- 『輿地圖書』(1757-1765) 龍仁縣, 陽智縣, 竹山府
- 『大東地志』(1862) 卷 4 龍仁, 陽智, 竹山
- 『京畿誌』(1842-1843): [竹山府邑誌], [龍仁]
- 『京畿邑誌』(1871): [龍仁縣邑誌], [陽智縣邑誌], [竹山府邑誌]
- 『陽智縣邑誌』(1891; 高 915.12-Y171 [陽智邑誌])
- 『畿甸邑誌』(1894-1895) 竹山府邑誌
- 『龍仁郡誌』(1899; 규장각도서 No. 10706 [龍仁郡地圖邑誌])
- 『龍仁郡誌』(1899; 高 915.12-Y8g)
- 『陽智郡邑誌』(1899; 규장각도서 No. 10723)
- 『龍仁縣邑誌』(규장각도서 No. 17357; [경기지] 용인현읍지의 일제시기 편사본)
- 『陽智縣邑誌』(규장각도서 No. 17365; [경기지] 양지현읍지의 일제시기 편사본)

〔한국고대사〕

▶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용인출토 신수유물 자료
- 國立博物館, 1908, 『青銅遺物圖錄-八-一五後 蒐集-(國立博物館 學術資料集 一)』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覽』 上卷.

▶ 논문

- 余吉姬, 1959, 『龍仁郡 駒城面 所在 Dolmen 調査報告』 [梨大史苑] 1.
- 金武龍, 1961, 『龍仁 葛賢面 支石塚』 [考古美術] 14.
- 文甲株, 1964, 『龍仁 龍德寺의 石像 數例』 [考古美術] 45.
- 李殷昌, 1965, 『龍仁 瓦稅里 五層石塔』 [考古美術] 58.
- 李殷昌, 1965, 『龍仁 漁肥里의 三層石塔』 [考古美術] 67.
- 鄭良謨, 1967, 『龍仁出土 梵鐘과 飯子』 [考古美術] 84.

▶ 조사보고서

- 京畿道·漢陽大博物館, 1986, 『京畿道百濟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
- 국립중앙박물관, 1988, 『용인군 지표조사』 (新岩里) 1.
- 서울大學校博物館·龍仁市, 1996. 8, 『龍仁市의 文化遺蹟-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경희대학교, 1997. 4,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문화유적 지표조사 약보고서』.
- 한신대학교, 1997. 11,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산 23-2 아파트 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요약보고서』.
- 한신대학교, 1998. 2, 『용인 수지 동촌 아파트 개발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한신대학교, 1998. 2, 『용인시 구성면 바북리 삼호건설 아파트사업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 한신대학교, 1998. 3,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신정아파트 개발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 한신대학교, 1998. 3, 『기흥 구갈 2지구 택지개발지역 문화유적 확인 시굴조사 보고서』.
- 한신대학교, 1998. 3,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39-2번지 31필지 대명해저산업 아파트 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요약보고서』.
- 한신대학교, 1998. 4,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대진종합건설 아파트 예정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 한신대학교, 1998. 4,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상운종합건설 아파트 개발예정지역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 한신대박물관, 1998, 5, 『용인시 수지를 상현리 기와가마터 발굴조사 약보고서』.
 한신대박물관, 1998, 6,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주)신원 개발지역 1차 사업부지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附 2차 사업부지 조사 결과』.
 한신대박물관, 1998, 6, 『수지 상현 취락지구사업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세종대학교박물관, 2001, 『龍仁 彦南里 遺跡』.

【고려시대】

▶사료(고려사), (고려사전요),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명현집) -

지명: 陽良(1건), 龍駒(6건), 竹州(12건), 處仁(6건)

인명: 金若恒(4건), 金允侯(2건), 南圃(14건), 李光時(3건), 李士穎(6건), 李士渭(5건), 李釋之(3건), 李世華(1건)
 李珍(7건), 鄭文(7건), 鄭夢周(78건), 崔瑞(4건), 崔有應(5건)

누정: 南谷(1건)

관방시설: 日長城·晝長城(1건), 處仁城(9건)

역원: 金領(2건), 白院院(1건)

▶금석문

[瑞峯寺玄悟國師塔碑銘], [鄭夢周神道碑], [南圃墓表], [鄭夢周墓表], [李中仁墓表], [李釋之墓表]

▶논문

周采赫, 1977, [札刺와 撒禮塔] 『史叢』 21 - 22.

周采赫, 1979, [金允侯-스님 殞擊手] 『歷代人物韓國史』 2, 信和出版社.

崔柱昊, 1979, [몽고 侵略과 民族의 抵抗-金允侯] 『歷史의 人物』 2, 日新閣.

尹龍麟, 1980, [蒙古의 2차 侵略과 處仁城 勝捷-특히 廣州民과 處仁部曲民의 抗戰에 주목하여] 『韓國史研究』 29.

金秉模·沈光注·許美經, 1986, [京畿道 行濟文化遺蹟], 漢陽大學校·京畿道, pp. 114-128.

李仁寧, 1992, [蒙古侵入과 處仁城 大捷 小考] 『제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한국문화원연합회.

車勇杰, 1998,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周采赫, 1998, [撒禮塔(Sartai)와 몽골-고려전쟁-處仁部曲 大捷의 의미]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尹龍麟, 1998,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전]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李仁寧, 1998, [蒙古侵入과 處仁城 勝捷小考]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李蘭暎, 1975, [韓國駐客의 形式分類] 『歷史學報』 67. 역북동 고려시대 고분 관련

李鍾宣·金載悅·朴淳發,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發掘調査報告 Ⅰ], 三丘文化財團 湖巖美術館.

李鍾宣·金載悅·朴淳發, 1987, [龍仁 高麗白磁窯의 窯業變遷에 대한 試考-計量的 屬性分析을 통해 본 窯業形態 變遷의 研究-]
 (三佛 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美術史學·歷史學·人類·民俗學 篇).

金載悅, 1988,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 概要] 『용주문화』 14.

김재열, 1998,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신철식·염익성, 1994, [龍仁 佐恒里 高麗墳墓群 發掘調査報告], 明知大學校 博物館.

김성태, 1997, [용인 마곡리 정광지구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97 京畿道博物館 發掘調査概報』, 京畿道博物館.

洪鍾·嚴翼成, 1998, [기흥상갈지구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명지대학교박물관 외.

嚴翼成, 1998, [高麗時代 古墳에 대한 一考察-좌향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梁正錫, 1998, [龍仁 瑞峯寺地 玄悟國師塔碑에 대한 考察] 『고려시대의 용인』, 학연문화사.

윤갑식, 1965, [鄭夢周] 『朝鮮名人傳』, 文叢社.

河炫綱, 1969, [鄭夢周] 『韓國의 人間像』 1, 新丘文化社.

[조선시대]

▶사료

- 〔備邊司啓錄〕(60건), 〔各司啓錄〕(1건)
李緯, 〔陶菴集〕 - 〔入城後陳所懷疏〕, 〔忠烈書院學規〕, 〔龍仁鄉塾節目〕, 〔忠烈深谷兩院講儒勸諭文〕
〔韓國文集叢刊〕 내 용인, 양지, 죽산 관련 기사(101건)
〔龍仁縣令爲牒報事〕(1830), 〔古文書〕 2, 서울대.
〔陽智縣朱西鶴村里洞任等爲牒報事〕(1875), 〔古文書〕 4, 서울대.
〔陽智縣朱西鶴里頭民報狀〕(1881), 〔古文書〕 4, 서울대.
〔龍仁縣水餘血風憲將校爲牒報事〕(1839), 〔古文書〕 4, 서울대.
〔大典會通〕(3건) - 卷 1 史典 京畿, 卷 4 兵典 禁衛營保探營聯總夜廳
〔經世遺表〕(4건) - 卷 3 郡縣分隸, 卷 4 郡縣分等, 卷 12 倉 之儲 3, 卷 15 科舉之規 1
〔增補文獻備考〕(38건)
〔戶口總數〕 龍仁, 陽智, 竹山
〔陞役實摺〕 龍仁, 陽智, 竹山
〔司馬榜目〕 내 용인, 양지, 죽산 출신 인물 명단 - 용인(139명), 양지(42명), 죽산(95명)

▶논문

- 鄭萬祚, 1996, 〔朝鮮時代 龍仁地域 士族의 動向〕 [한국학논총] 19.
李仁寧, 발행연도 미상(1998?), 〔조선시대 음호강등 및 혁읍제도에 관하여 - 양지, 용인현 사례를 중심으로〕
[계재 논문집 미상].
안승준, 1998, 〔1822년 龍仁 吳達濟家所藏 禮曹立案의 分析〕 [京畿郡土史研究] 2, 경기향토사연구협의회.
文叔子, 1998, 〔解題 - 古文書들 통해 본 龍仁 海州吳氏 가문의 사회적 기반〕 [古文書集成]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李成廷, 1998, 〔朝鮮中期 柳希春家의 문물구매와 그 성격〕 [한국학연구] 9, 仁荷大 韓國學研究所.
李成廷, 1999, 〔조선중기 吳希文家의 庶行爲와 그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8.
李成茂 · 鄭萬祚 · 李迎春 · 崔鳳永, 1999, 〔朝鮮時代 近畿地方의 文籍 · 遺物 · 道蹟 調査研究 - 龍仁 · 廣州 · 始興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10.

▶조사연구 보고서

- 鄭萬祚 외 11명, 1999, 〔朝鮮時代 近畿地方의 文籍 · 遺物 · 道蹟 調査研究 - 龍仁篇-〕
(학술진흥재단 96년 자유공모과제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1).

▶인물

- 정암 조광조(성종 13년, 1482 ~ 중종 14년, 1519)
申爽銘, 1965, 〔趙光祖 - 士禍 속의 眞哲人政客-〕 [韓國의 人間像], 新丘文化社; 1996, 〔신석호 전집〕 (하).
姜周鏞, 1975, 〔朝鮮 前期 性理學者의 政治思想〕 [韓國思想] 13.
尹南漢, 1977, 〔中宗代의 道學과 心學化運動〕 [史叢] 21 · 22합집.
李秉然, 1977, 〔賢良科及第者의 性分〕 [大丘史學] 12 · 13.
金其玆, 1979, 〔趙靜庵의 道學觀〕 [民族文化研究] 14.
金鎬城, 1982, 〔靜庵趙光祖의 政治思想論究〕 [論文集] 15, 서울교육대학

- 金光普, 1983, [靜庵趙光祖의 政治思想] [釜山史學] 7.
- 반계 유흥원(광해군 14년, 1622 원종 14년, 1673)
- 千寬宇, 1952, [濶溪 柳馨遠 研究 (上)-實學發生에서 본 李朝社會의 一斷面-] [歷史學報] 2; 1976, [조선사논문선집] V, 일조각; 1979,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 千寬宇, 1952, [濶溪 柳馨遠 研究 (下)-實學發生에서 본 李朝社會의 一斷面-] [歷史學報] 3; 1976, [조선사논문선집] V, 일조각; 1979,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 千寬宇, 1958, [濶溪柳馨遠 研究 疑補] [歷史學報] 10; 1979,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 趙璣滄, 1958, [柳馨遠論] [思潮] 1-2.
- 宋柱永, 1963, [濶溪柳馨遠의 經濟思想] [논문집] 1, 서강대; 1979, [한국실학사상대요], 박영사.
- 千寬宇, 1965, [柳馨遠-새 學風의 先驅者] [한국의 인간상] 4, 신구문화사; 1974, [실학의 개척자 10인], 신구문화사.
- 趙璣滄, 1965, [柳馨遠] [人物傳史] 6, 博友社.
- 李天杓, 1966, [李朝經濟와 實學派-濶溪 柳馨遠을 中心으로-] [商大評論] 23, 서울대商科大學.
- 鄭昌烈, 1966, [柳馨遠의 田制論] [青脈] 3-8.
- 鄭求福, 1970, [濶溪 柳馨遠의 社會改革思想] [歷史學報] 45.
- 元裕漢, 1971, [濶溪 柳馨遠의 肯定的 貨幣論] [柳洪烈博士學甲紀念論叢], 探求堂.
- 金彩潤, 1973, [柳馨遠의 階層觀念에 對한 社會學的 考察] [公三閣兩台博士學甲紀念論叢].
- 宋正炫, 1973, [實學派의 軍制改革案에 對하여-濶溪錢錄을 中心으로-] [호남문화연구] 5.
- 李家源, 1974, [濶溪先生年譜] 解題 [人文科學] 32, 연세대.
- 李載, 1975, [濶溪 柳馨遠] [實學論叢], 전남대출판부.
- 李元浩, 1976, [濶溪 柳馨遠의 實學觀 構想] [恐溪李寅恭博士古稀紀念 教育論叢], 형선출판사.
- 權榮翼, 1976, [柳馨遠의 貨幣思想에 關한 研究-貨幣의 管理的 및 實踐的 思考를 中心으로-] [大東文化研究] 11.
- 신용하, 1976, [유형원의 官制제 拓改혁사상과 17, 18세기의 토지문제] [한국사상사대계] 2; 1977, [조선후기 실학파의 사회사상연구], 지식산업사.
- 姜周鎭, 1980, [經世家로서의 濶溪] [한국학] 22, 중앙대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 金根洙, 1980, [濶溪의 人物과 學問] [한국학] 22, 중앙대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 李民樹, 1980, [濶溪와 實學思想] [한국학] 22, 중앙대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 金彩潤, 1981, [濶溪 柳馨遠의 福祉觀]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3-1, 서울대.
- 宋復, 1982, [柳馨遠 官制改革論의 現代的 照明-京官職을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16, 韓國政治學會.
- 安在諄, 1983, [유형원 心學사상의 理論적 기초] [동방사상논고], 종로서적; 1988, [조선조 유학사상의 탐구], 이강출판사.
- 劉元東, 1983, [濶溪 柳馨遠] [韓國實學概論], 正音文化社.
- 千寬宇, 1984, [柳馨遠의 實學思想] [한국의 사상], 연음사.
- 元裕漢, 1984, [濶溪 柳馨遠의 商業振興論] [弘大論叢] 15(人文社會科學篇).
- 이원호, 1984, [반계 유흥원의 교육론연구] [부산대사범대논문집] 8.
- 이이화, 1985, [유형원] [한국 근대인물의 해명], 학민사.
- 李存賢, 1985, [濶溪 柳馨遠의 官職論考-外官職을 중심으로-] [반대설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삼영사.
- 金武翼, 1985, [濶溪 柳馨遠의 郡縣胡論] [韓國史研究] 49.

- 김권길, 1986, [유형원의 행정개혁론 연구, 중앙대학교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 李佑成, 1988, [初期 實學과 性理學과의 關係 - 樞溪 柳馨遠의 경우 -] (東方學志) 58.
- 이훈구, 1988, [유형원] (조선명인전) 2, 조선일보사.
- 朴仁篤, 1989,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에 대한 一考察] (淸溪史學) 6.
- 金正姬, 1990, [樞溪 柳馨遠의 制度論 研究] (사회과학연구) 17, 전북대.
- 吉昌根, 1990, [柳馨遠의 教育思想에 관한 考察] (長安論叢) 10, 장안전문대.
- 양보경, 1992, [樞溪 柳馨遠의 地理思想 - 東國輿地志와 郡縣制의 내용을 중심으로 -] (문화역사저널) 4.
- 金駿錫, 1992, [柳馨遠의 變法觀과 實理論] (東方學志) 75.
- 金洛寅, 1993, [柳馨遠의 性理 思想] (東洋哲學) 4, 한국동양철학회.
- 윤용출, 1993, [유형원의 역제 개혁론] (한국문화연구) 6.
- 吳永教, 1994, [樞溪 柳馨遠의 地方制度 改革論 研究] (國史館論叢) 57.
- 李文遠, 1995, [반계(樞溪) 유형원(柳馨遠)의 교육관] (教育研究) 29,誠信女大.
- 나만수, 1995, [柳馨遠의 田制에 대한 研究] (경기대학교 논문집) 36.
- 강세구, 1995, [유형원 煥然叩 · 안경복의 학문적 전승관계] (실학사상연구) 50106 ; 1996, [순암 안경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 제언.
- 김남진, 1996, [유형원 실학 사상의 철학적 성격] (실학의 전파, 예문서원.
- 金駿錫, 1996, [柳馨遠의 公田制理念과 流通經濟育成論] (인문과학) 74,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정행, 1997, [樞溪 柳馨遠의 教育思想 - 學校科目을 中心으로 -] (사회과학연구) 7, 광주대.
- 申炳周, 1997, [17세기 중후반 近畿南人 학자의 학풍 - 허목, 윤희, 유형원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19.
- 조병노, 1997, [반계 유형원의 역제개혁론] (조선시대사학보) 3, 조선시대사학회.
- 金泰永, 1998, [實學의 國家 改革論], 서울대출판부.
- 姜勝浩, 1998, [樞溪 柳馨遠의 奴婢改革案 - 奴婢의 代案으로 제시한 雇工論을 중심으로 -] (동국역사교육) 6.
- 全道雄, 1998, [樞溪 柳馨遠의 教育制度改革論과 經學思想] (人文社會科學研究) 2, 용인대.
- 박시형, 1948, [선학자 유형원의 정치개혁론] (역사재문계) 2.
- 정성진, 1974, [류형원의 철학 및 사회정치 사상] (실학과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사회과학출판사; 1989, 백의.
- 渡部學, 1962, [樞溪 柳馨遠의 學制論 - とくにその 郡縣論について -] (武藏大論文集) 10-2; 1969, [近世朝鮮教育史研究], 蕪山閣.
- James B. Palais, 1996,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 Institutions: Yu Hyong Won and Late Chosun Dynast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유희(柳愷; 영조 49년, 1773~헌종 3년, 1837): 유학자, 음운학자
 - 劉昌佑, 1958, [謚文志註解], 新丘文化社.
 - 趙健相, 1978, [해선역주 謚文志], 榮雪出版社.
 - 李萬桂, 1937, [柳翁先生略傳] (한글) 5-4.
 - 金敏洙, 1964, [柳愷의 傳記] (陶南趙東濟博士回甲紀念論文集), 新雅社.
 - 康允浩, 1965, [柳愷] (韓國의 人間像) 4, 新丘文化社.
 - 김운경, 1988, [유희] (조선명인전) 2, 조선일보사.
 - 김대건(순조 22년, 1822~헌종 14년, 1846)
 - 가톨릭출판사, 1961, [朝鮮殉教者傳].
 - 金九鼎, 1961, [聖德金大建傳], 京郷雜誌社.
 - 李元淳, 1975, [金大建의 葬翰], 正音社.

[개황기]

▶ 용인의병 관련 자료 -

[독립운동사자료집] [의병항쟁지관기록]

▶ 구장각 소장문서 -

[京畿道 陽智郡 量案](광무 6년, 1902) - 古東南, 古西面, 朱西面, 邑內面, 木岳面

[京畿道 陽智郡 量案](광무 5년, 1901) - 古北面, 朴谷面, 蹄村面, 高安面, 朱北面, 朱東面

[龍仁郡道村屯田畝成冊]

[龍仁郡水餘面廣州屯田畝成冊]

[龍仁郡壯屯田畝成冊]

[秋收記]

[秋收記] [龍仁縣賢屯, 官內府內藏可龍仁縣賢屯]

[經理院秋收記] [龍仁司僕屯忠勤府屯收摺冊]

[經理院秋收記] [龍仁陽城親軍營忠勤府屯秋收成冊]

[各郡驛土成冊] [陽智郡補軍租成冊] [陽智郡忠勤府田畝成冊]

[經理院驛屯土成冊] [龍仁郡蒲谷面釜谷屯田畝成冊]

[經理院驛屯土成冊] [陽智郡各屯土查檢案]

[陽智郡甲午更張以後本年五月至經費用下區別成冊]

[龍仁縣甲午年清人日兵各營兵丁過去時供饋所入錢及戰亡兵丁撫軍履價錢成冊]

[龍仁縣時留教反閩成冊]

[龍仁縣日兵京軍馬兵過去供饋所入錢成冊]

[龍仁郡水餘面金良理致死女人趙召史獄事應問各人等囚徒成冊]

[龍仁縣邑誌成冊]

[陽智縣邑誌]

▶ [皇城新聞]

광무4년(1900) 1월 25일 : 도시 측량 보고

융희 6년(1910) 6월 3일 : 민유지 분쟁

▶ [司法彙報]

광무2년(1898) 6월 23일, 9월 5일 : 용인군 상동촌면 두장리 韓召史 사방 사건

광무2년(1898) 11월 22일 : 용인군 宋谷 姜萬祿

광무3년(1899) 7월 23일, 7월 31일 : 죽산군 李成汝

광무3년(1899) 7월 24일 : 죽산군 朴化實

광무3년(1899) 8월 8일, 8월 18일 : 龍仁郡民 소요 사건(金秉夏)

광무3년(1899) 12월 8일 : 죽산군 金圭復

광무3년(1899) 12월 20일, 12월 31일, 광무4년(1900) 1월 27일 : 양지군 崔元永

광무4년(1900) 1월 14일 : 용인군 朴熙宗

[各司彙報] : [京畿各郡訴狀], [京畿道各郡報告存案], [本府大皇橋作禁罪人等行查文案]

▶ 논문

李榮奭, 1990, [대한제국시기의 토지제도과 농민승문화의 양상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光武量案)과 [土地調査簿]의 비교분석.] [韓國史研究] 69.

▶ 인문

李漢應 : 순세창, 1957, [列國烈士李漢應先生遺史], 문예홍보사.

呂 華 : 애국동지원호회, 1966, [한국독립운동사].

鄭日永 : [國朝榜日]

[일제시기]

▶ 자료

- 朝鮮總督府·京畿道, 1915, [京畿道案内]; 1995, [韓國地理風俗誌叢書] 257, 경인문화사.
京畿道 內務部 社會課, 1924(1927 再版), [京畿道農村社會事情].
朝鮮總督府·京畿道, 1926, [京畿道要覽].
京畿道, 1936, [京畿道道勢概要].
朝鮮總督府, 1929, [朝鮮の市場經濟].
京畿道, 1927. 4 7, [京畿道報].
朝鮮總督府, 1927, [朝鮮の物産].
鮮滿研究協會, 1926, [朝鮮各都邑の經濟].
김유동, 1929, [朝鮮各都邑志], 朝鮮博文館.
京畿道, 1942, [京畿道教育と宗教要覽].
문정창, 1965, [軍國日本 朝鮮占領 36年史] (上), 栢文堂.
田内武, 1925, [朝鮮施政15年史], 朝鮮每日新聞社.
京畿道農會, 1937, [小作=關スル實情調査書].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簡易國勢調査結果表], 1925(1권, 1990, 民俗苑)
全鮮編 계1권, [결과표], 1930(13권, 1990, 民俗苑)
[人口調査結果報告], 1944(15권, 1990, 民俗苑)
道編 계1권, 1930(1993, 국학자료원)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1918,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1919,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録].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1990, 亞細亞文化社.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月報]; 1989, 高麗書林.
內務局第一課, 1917, [地方廳建物台帳].
內務局地方課, 1931, [面積 v 泄◎味茶得早器枕 .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2, [獨立運動史資料集] 5.
國史編纂委員會, 1966, [韓國獨立運動史] 2.
國史編纂委員會, 1988,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1.
國史編纂委員會, 1988,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12.
金正明, 1980, [朝鮮獨立運動] I (民族主義運動編), 國學資料院.
朝鮮總督府, 1986, [警務統計(1915-1917)], 民族文化社.
京畿道種苗場, [事業報告] 제4호(1921), 제13호(1930).
京畿道, [農事統計], 1934, 1937, 1938, 1940.
朝鮮總督府, 1940, [朝鮮農地年報] 1.
朝鮮總督府, 1932, [朝鮮の小作慣行] 上, 下; 1977, 以文社.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上(1934), 下(1939).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政課, 1941, [農地關係統制法令要覽].

[京畿道金融組合關係規則 附錄], 1933.
 京畿道, 1935, [昭和10年 露業統計]/1938, [昭和12年 露業統計].
 京畿道商工經濟會, 1945, [京畿道內商工業組合名簿].
 京畿道, 1932, [京畿道の林業].
 京畿道, 1932, [昭和六年 商工水産統計].
 朝鮮總督府, 1925, [大正八年 朝鮮旱害救濟誌].
 京畿道, 1932, [道地方費事業ノ概況].
 朝鮮總督府, 1914, [大正二年 朝鮮總督府京畿道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15, [大正三年 朝鮮總督府京畿道統計年報].
 朝鮮總督府, 1918, [大正五年 朝鮮總督府京畿道統計年報].
 京畿道, 발행년도 미상, [京畿道ノ教育ト宗教, 昭和七年].
 京畿道, 발행년도 미상, [京畿道の教育と宗教, 昭和十二年].
 京畿道, 1936, [昭和十年 人口統計].
 朝鮮農會, 1923, [朝鮮農會報] 第18卷 第6號; 1985, 以文社.
 朝鮮農會, 1920, [朝鮮農會報] 第15卷 第6號; 1985, 以文社.
 朝鮮農會, 1913, [朝鮮農會報] 第8卷 第12號; 1985, 以文社.
 朝鮮總督府殖産局, 1927, [朝鮮の農業].

▶ 신문·잡지

[地方通信] [半島時論] 1-1, 1917. 4. / [寂然無開龍仁郡] [지역] 48호., 1924. 6, pp. 98-99.

▶ 논문 -

趙榮錫, 1975, [1920年代 京畿地方의 青年運動] (畿甸文化研究) 6.
 趙榮錫, 1976, [1920年代 京畿地方의 少年運動] (畿甸文化研究) 7.
 白淳在, 1978, [[해제] 龍仁明倫學校日記에 對하여] (韓國學報) 11, 인지사.
 趙榮錫, 1995, [1920年代 京畿地方의 青年運動에 관한 一研究] (畿甸文化研究) 24.
 李榮安, 1990, [대한제국시기의 토지제도과 농민층 문화의 양상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光武量案]과 [土地調査簿]의 비교분석] (韓國史研究) 69.

[현대]

[分配農地簿]: 농지개혁 관련자료

[駒城面 面政文書]: 1950-1980년대 면정 관련문서

京畿道誌編纂委員會, 1956, [京畿道誌] 中卷: 1950년대 용인군 경제관련 자료.

國史編纂委員會, [資料 大韓民國史]: 해방 직후 용인 지역의 정치·경제관련 신문자료

國防部, [韓國戰爭史] 제1권, 제2권: 6·25 전쟁 때 용인읍 중심지로 한 지역의 전황 상황 및 작전 상황에 관한 자료

인천신문사[연합신문사]경기신문사, [京畿年鑑][京畿要覽] 1965년, 1971년, 1973년, 1975년: 1960-70년대 용인지역 연보[경기통계연보] 1962년, 1964년, 1975년

더 국무성, (Internal Affairs): 1949년 용인지역 포함한 남한 인구상황 통계자료

韓國政經社, 1972,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 總覽: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용인지역 대의원 명단

國會發刊社, [大韓民國 議政四十六年] (1): 9·14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지역 당선자 명단 및 신상명세에 관한 자료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49, 大韓行政學會.

[大韓民國 現行行政區域一覽表], 1954, 文研社.

[大韓民國 行政區域名鑑], 1956.

[1979 韓國行政區域變遷], 1979, 廣東書館.

〔분배 농지 상환 대장〕: 龍仁 勸城面, 內四面(陽智面)

〔G2 보고서〕 / 〔新朝鮮報〕 / 1945년 10월 7일, 1945년 11월 12일, 1945년 12월 18일, 1945년 12월 20일

〔민속〕

이장로, 1976, 〔용인군 모현면(慕賢面)의 땅이름 조사 연구〕(畿甸文化研究) 7, 仁川教育大學 畿甸文化研究所.

김계곤, 1976, 〔경기도 방언 채감 -용인군 모현면 방언-〕(畿甸文化研究) 7, 仁川教育大學 畿甸文化研究所.

孫東仁, 1976, 〔龍仁郡 慕賢面의 傳來童話 -특히 그 內容面을 中心으로-〕(畿甸文化研究) 7, 仁川教育大學 畿甸文化研究所.
化研究) 7, 仁川教育大學 畿甸文化研究所.

박중수, 1997, 〔龍仁地域의 口碑傳承 研究 -東部地域 傳說을 中心으로-〕(論文集) 13, 용인대.

朴鍾洙, 1998, 〔龍仁地方의 地名考察〕(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 2.

〔문집·일기·고문서〕

李緯, 〔陶菴先生集〕

柳愔, 〔諫文志〕

李 , 〔陰崖日記〕

趙光龍, 〔靜庵先生文集〕

趙成來, 〔册曆日記〕

〔龍仁明倫學校日記〕(李容健, 1978, 〔세 자료〕龍仁明倫學校日記)〔韓國學報〕 11.)

柳馨遠, 〔隱溪隨錄〕(영인본 - 東國文化社 刊 1958; 景仁文化社 刊 1974)

趙熙龍, 〔小塘李在寬傳〕(崑山外史). (영인본 - 아세아문화사)〔里鄉見聞錄〕과 합쳐 1974년刊)

〔古文書集成〕 35 龍仁 海州吳氏篇,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海州吳氏 愼濼 吳允謙 宗家고문서;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용인군읍지〕

규장각소재 용인군補整仄편죽산군 읍지

龍仁郡土文藝振興會(洪順錫 편), 1983, 〔龍仁郡邑誌〕(郷土文化資料 1).

한국학문헌연구소, 1983, 〔읍지 : 경기도(권2권)], 아세아문화사.

龍仁郷土文化研究會, 1987, 〔龍仁郡邑誌(增補版)〕(郷土文化資料叢書 1).

〈금석문〉

龍仁郷土文化研究會(朴鍾益·洪順錫), 1990, 〔龍仁郡金石遺文資料集(上)〕(郷土文化資料叢書 2).

경기도, 1982 1994, 〔京畿金石大觀〕 1 7.

이인영·김성환편, 2000, 〔내고장 龍仁 金石文總覽〕, 龍仁文化院 郷土文化研究所.

〔지도〕

李穡, 1995, 〔서울의 옛 地圖〕,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경북대 출판부, 1998, 〔東輿備攷〕(경북대 고전총서) 3(용인 해당 부분: 〔江濟疆域北邊之圖〕, 〔高麗南邊兩都疆域圖〕, 〔高麗關內海陽等道後爲楊廣西海道圖〕, 〔高麗中原河南江南海陽等道圖〕, 〔京畿道左右州郡攷圖〕).

【지명】

- 손성우, 1974, 《한국 지명사전》, 경인문화사
建設部 國立地理院, 1982, 《韓國地名要覽》
內務部, 1982, 《地方行政地名史》.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한국지명총람》.
내무부, 1983, 《지방행정구역요람》.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4, 《한국지제》.
한글학회, 1985,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 상).
한글학회, 1986, 《한국지명총람》 18(경기편 하).
韓國觀光公社, 1985, 《韓國觀光資源總覽》.

【용인사】

- 국중인, 1958, 《용인사 -상고 중고 근고-》.
반행처 미상, 발행년도 미상, 《龍仁郡 河川 一覽表》.
최영의, 발행년도 미상, 《처인성대첩기념바춤》, 발행처 미상.
李炯鎬, 1967, 《壬辰倭亂史》 상, 임진왜란사간행위원회, '용인전투' 관련항목.
강창희, 1986, 《龍仁郡土大觀》, 시사문화사.
강창희, 2005, 《龍仁郡土大觀》개정판, 용인교육청.
이인영 엮음, 1995, 《내고장 용인 -獨立抗爭史-(광복 50주년 기념 증보판)》, 용인군.
홍순석, 1997, 《용인사문화재총람》, 용인사.
용인군지편찬위원회, 1990, 《龍仁郡誌》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龍仁市史-1- 2》(역사와 문화유산)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龍仁市史-3- 4》(사당과 마을)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龍仁市史-5- 6》(현대사회)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龍仁市史-7- 8》(용인현대사 연표)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자료총서】

- 李仁寧·洪順錫, 1983, 《내고장 民謠》, 용인문화원.
李仁寧, 1984, 《내고장 龍仁》, 文學思想社.
洪順錫, 1984, 《내고장의 얼 -人物編-》, 용인문화원.
李仁寧·洪順錫, 1985, 《내고장 옛이야기》, 용인문화원.
李仁寧, 1986, 《내고장의 얼 -遺物·遺蹟編-》, 용인문화원.
河周成, 1987, 《내고장 民俗》, 용인문화원.
李仁寧, 1989, 《내고장 龍仁 -義兵抗爭 및 獨立運動史-》, 용인문화원.
朴鎭益·洪淳錫 編著, 1990, 《龍仁郡金石遺文資料集(上)》, 龍仁郡土文化研究會.

李仁寧, 1991, [내고장 龍仁-地誌總覽], 용인문화원.
 李仁寧, 1994, [龍仁郡 時事年表], 용인문화원.
 용인문화원(共編), 1995, [내고장 龍仁-人物總覽].
 박종수·강형모·이용준, 1996, [내고장 용인-동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문화원.
 이인영, 1997, [내고장 龍仁-文化遺産總覽], 용인문화원.
 박종수·강형모, 1997, [내고장 용인-북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문화원.
 박종수·강형모·이용준, 1998, [내고장 용인-남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문화원.
 李仁寧 著, 1999, [朝鮮時代 龍仁 棟梁 名 實 錄], 용인문화원.
 李仁寧·김성환 著, 2001, [내고장 용인 地名·地誌], 용인문화원.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6, [騎塚面誌].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0, [器興邑誌].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1, [陽智面誌].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2, [水枝邑誌].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3, [모연면지].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4, [곡곡면지].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05, [원삼면지].

【용인시사총서】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1998, [고려시대의 용인](용인시사총서 1), 학연문화사.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1999, [용인 옛 절터-서봉사지·문수사지·박곡리사지 외 정밀조사 보고서](용인시사총서 2·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학술조사보고 8), 다보기회.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한신대학교박물관, 1999, [용인의 도요지-지표조사 보고서](용인시사총서 3), 학연문화사.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9, [용인의 옛성터-처인성·할미산성·보개산성 지표조사 보고서](용인시사총서 4), 학연문화사.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용인의 마을의례-마을신앙과 놀이](용인시사총서 5), 학술문화사.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0, [용인의 역사지리](용인시사총서 6), 서경문화사.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1, [용인의 불교유적](용인시사총서 7), 월달기회.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01, [용인의 분묘문화](용인시사총서 8), 그래픽네트.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1,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용인시사총서 9), 경기출판사.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용인처인성](용인시사총서 10), 학연문화사.
 용인시·용인문화원·용인시사편찬위원회·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용인시사총서 11), 학연문화사.

【용인향토문화연구】

- 龍仁鄉土文化研究會, 1988, 《龍仁鄉土文化研究》創刊號.
龍仁鄉土文化研究會, 1992, 《龍仁鄉土文化研究》2.
龍仁鄉土文化研究會, 1998, 《龍仁鄉土文化研究》3.
龍仁鄉土文化研究會, 2002, 《龍仁鄉土文化研究》4.
龍仁鄉土文化研究會, 2003, 《龍仁鄉土文化研究》5.
龍仁鄉土文化研究會, 2005, 《龍仁鄉土文化研究》6.

【용구문화】

- 용인문화원, 발행년도 미상, 《龍丘文化》1 5.
용인문화원, 1986, 《龍丘文化》6.
용인문화원, 발행년도 미상, 《龍丘文化》7 12.
용인문화원, 1987, 《龍丘文化》13.
용인문화원, 1988, 《龍丘文化》14.
용인문화원, 1988, 《龍丘文化》15.
용인문화원, 1988, 《龍丘文化》16.
용인문화원, 1989, 《龍丘文化》17.
용인문화원, 1989, 《龍丘文化》18. (일부만 비치)
용인문화원, 1989, 《龍丘文化》19.
용인문화원, 1989, 《龍丘文化》20.
용인문화원, 1990, 《龍丘文化》21.
용인문화원, 1991, 《龍丘文化》22. (일부만 비치)
용인문화원, 1991 1996, 《龍丘文化》23 25.
용인문화원, 1996, 《龍丘文化》26.
용인문화원, 1997, 《龍丘文化》27.
용인문화원, 2005, 《용인문화》겨울호
용인문화원, 2006, 《용인문화》여름호

【지방사, 일반】

- 역사문화학회, 1998, 《지방사와 지방문화》1, 학연문화사.
한국도지공사 토지박물관·용인시,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토지박물관 학술조 사총서 17집.
國史編纂委員會, 2001 《數編齋日記》韓國史料叢書 卷44.

【경기도사자료집】

- 京畿道史編纂委員會, 1998, 《京畿道史資料集-高麗篇 II-》.
京畿道史編纂委員會, 1998, 《京畿道史資料集-高麗篇 III-》.
京畿道史編纂委員會, 1999, 《京畿道史資料集-高麗篇 IV-》.

- 京畿道史編纂委員會, 1999, 『京畿道史資料集-文獻目錄 I-』.
 京畿道史編纂委員會, 1999, 『京畿道史資料集-文獻目錄 II-』.
 京畿道史編纂委員會, 2001, 『京畿道史資料集-朝鮮時代篇 I-』.
 京畿道史編纂委員會, 2001, 『京畿道史資料集-朝鮮時代篇 II-』.
 京畿道史編纂委員會, 2002, 『京畿道史資料集-朝鮮時代篇 III-』.
 京畿道史編纂委員會, 2002, 『京畿道史資料集-朝鮮時代篇 IV-』.
 京畿道史編纂委員會, 2002, 『京畿道史資料集-朝鮮時代篇 V-』.
 京畿道史編纂委員會, 2002, 『京畿道史資料集-韓末篇 I-』.
 京畿道史編纂委員會, 2002, 『京畿道史資料集-韓末篇 II-』.

【경기도사】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79, 『경기도사』.
 경기도교육위원회, 1975, 『경기도교육사(1883-1959)』.
 경인일보사, 1985, 『京畿年鑑』.
 경인인물지편찬위원회, 1991, 『경인인물지(상)』.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경기도 향일독립운동사(경기도사연구총서 1)』.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경기도 역사와 문화(경기도사연구총서 3)』.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 1998, 『京畿郷土史研究』 2.
 경기도사사편찬위원회, 2004, 『경기도사-선사시대』.
 경기도사사편찬위원회, 2004, 『경기도사-고대편』.
 경기도사사편찬위원회, 2004, 『경기도사-조선전기』.
 경기도사사편찬위원회, 2004, 『경기도사-한말』.

【통계연보 · 상품총람】

- 용인군청, 1984-1997, 『용인 통계 연보』.
 용인상공회의소, 1995, 『'96 용인상공총람』.
 용인상공회의소, 1997, 『'97~'98 용인상공업체총람』.
 경기도, 1986-1990 · 1996-1998, 『경기통계연보』.

【사전 · 기타】

- 편자 미상, 발행년도 미상(일제시대), 『寺塔古蹟攷』.
 발행처 미상(조선총독부), 발행년도 미상(일제시대), 『朝鮮道府郡面町改正區域表』.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洞名稱一覽』.
 朝鮮總督府, 191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대한행정학회, 1949, 『지방행정 구역 명칭 일람』.
 孫世昌, 1957, 『殉國烈士李漢應先生遺史』, 文藝弘報社.
 신태선, 1959, 『삼국사기지리지의 연구』, 우중사.
 발행처 미상, 발행년도 미상(1961?), 『龍仁郡 數理的 位置』(관보) 제2837호.
 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道蹟總覽』 上卷.
 경기도, 1987, 『龍仁郡 地名 由來』.

【용인지역 예술 · 일반】

- 용인문학회, 1997 《용인문학》 창간호, 용인연합출판사.
 용인문학회, 1998 《용인문학》 2. / 용인문학회, 1999 《용인문학》 3.
 용인문학회, 2000 《용인문학》 4. / 용인문학회, 2001 《용인문학》 5.
 용인문학회, 2002 《용인문학》 6. / 용인문학회, 2003 《용인문학》 7.
 용인문학회, 2004 《용인문학》 8. / 용인문학회, 2005 《용인문학》 9.
 용인문학회, 2006 《용인문학》 10. /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 1998 《용인문壇》 창간호.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 1999 《용인문壇》2. /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 2000 《용인문壇》3.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 2001 《용인문壇》4. /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 2002 《용인문壇》5.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 2003 《용인문壇》6. /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 2004 《용인문壇》7.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 2005 《용인문壇》8. / 한국문인협회 용인시지부, 2006 《용인문壇》9.
 수주문학회, 2000, 《수주문학》 창간호
 수주문학회, 2002, 《수주문학》 2. / 수주문학회, 2004, 《수주문학》 3.
 글이랑 동인, 1996, 《이야기 하나》 창간호.
 글이랑 동인, 1997, 《이야기 둘》 2. / 글이랑 동인, 1998, 《이야기 셋》 3.
 글이랑 동인, 1999, 《이야기 넷》 4. / 글이랑 동인, 2000, 《이야기 다섯》 5.
 글이랑 동인, 2001, 《이야기 여섯》 6. / 글이랑 동인, 2002, 《이야기 일곱》 7.
 글이랑 동인, 2003, 《이야기 여덟》 8. / 글이랑 동인, 2004, 《이야기 아홉》 9.
 글이랑 동인, 2005, 《이야기 열》 10. / 용인여성문학, 2006, 《글이랑》 11.
 오옥자, 2002 『우물에 있던 자리, 가리나무 시선』 16.
 박해람, 2006 『남은 침대의 배후가 되어가는 사내』 문예중앙시선15.
 이경, 2004 『용인의 푸른 숲소리, 용인문화원 / 박남, 2005 『용인, 용인사람들』 문학관
 박현수, 2004 『수지사랑 동심, 와우벨리 / 이상경, 1999 『그대 아는가 당신은 나의 시라는 것을』 예림원
 우태주, 2000 『강각의 재곡에서』 시집 / 유성희, 2003 『노구봉에 정을 두고』 동양비즈니스출
 남궁석, 2006 『사회이동의 총각 원더랜드』 랜덤하우스 중앙
 김학민, 2000 『564세대를 위한 변명』 학민사 / 김윤식, 2000 『사람보다 단견』 도서출판 탄과 글
 이우현, 2006 『이우현이 만난 사람들』 서울마시공간프레스 / 김학규, 1995 『시인을 꿈꾸는 정치인』 십자
 홍영기, 2004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변한다』 한글스 / 金允植, 1983 『苦難의 길을 따라』 《교회 기념 문집》.
 자광스님, 2004 『명칭구리 부처님』 도피안사 / 이제학, 1996 『용인의 산수 이야기』 흥분동
 이석순, 2005 『수지 향토문화 답사기』 열인 M&B / 박영숙, 2006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 안락
 박주현, 2000 『쏟아진 속에 숨어있는 바람』 정은 출판사 / 박수자, 2002 『붉은 열매의 성』 도서출판 영하
 박순자, 2004 『그대에게 가는 길』 순수문학사 / 이혜숙, 2002 『나는 팝핀이다』 도서출판 문학관
 이명준, 1994 『운어라 강물아』 도서출판 민 / 김경화, 2004 『귀초』 정은 출판사
 김태호, 1998 『해돋이』 도서출판 미디어 / 송장섭, 2005 『그녀는 지금 출근 중이다』 제3의 문학
 정영자, 2006 『미쳤다 어쩔래』 도서출판 파란 / 이미숙, 2006 『햇살 바르던 날』 도서출판 파란
 김중경 외, 2005 『지역신문 취재보도 길라잡이』 도서출판 한운
 김숙경, 1992 『차라리 없음은 있음이여라』 성광석두부가서원
 심태영, 2006 『천령의 나그네 되어』 경인출판사 / 이향란, 2002 『안개시』 제3의 문학
 이훈식, 1996 『등불 하나 가슴에 달고』 창조문화사 / 이훈식, 2000 『온민한 속삭임』 도우미출판사
 한태호, 1992 『집없는 지붕』 삼광사 / 한태호, 2006 『여름의 환희』 민음사
 송혜경, 2006 『행복은 노래하는 펜선』 모시는 사람들 / 신호순, 2004 『한마리 새가 되어』 도립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서 많은 목록을 제공하였음〉

내고장 삶의 뿌리를 찾아서
용인 자연마을 기행 2

1권 1쇄 인쇄 2006년 11월 10일
1권 1쇄 발행 2006년 11월 14일

저자인 우상표
펴낸이 이홍근
펴낸곳 (주)용인시민신문

출판등록일 2005년 11월 30일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01-3
대표전화 031)283-2258
팩스 031)284-2257
홈페이지 www.yongjin21.co.kr

편집 이규선 정민희

필름출력 세원출력
인쇄및제본 뿌리인쇄

© 우상표, 2006

- * 값은 표지에 있습니다.
- * 이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없이 내용의 전부든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 이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출판되었습니다.

ISBN 89-957532-1-8 03090

내고장 삶의 뿌리를 찾아서

용인자연마을

기행 1

| 우상표 지음 |

- | | |
|-----------------|-----------------|
| 1) 원삼면 사암리 안골 | 26) 이동면 덕성리 원덕성 |
| 2) 원삼면 맹리 맹골 | 27) 이동면 어비울 방목 |
| 3) 원삼면 미평리 미죽돌 | 28) 이동면 천리 노루실 |
| 4) 원삼면 문촌리 문촌 | 29) 이동면 묵리 굴암 |
| 5) 원삼면 두창리 굴안 | 30) 이동면 어비리 장울 |
| 6) 원삼면 학일리 고초골 | 31) 남사면 창리 꽃골 |
| 7) 백암면 백봉리 백동 | 32) 남사면 완정리 상동 |
| 8) 백암면 박곡리 상촌 | 33) 남사면 방아리 아리실 |
| 9) 백암면 용천리 율리 | 34) 남사면 봉무리 산정동 |
| 10) 백암면 근창리 비두 | 35) 삼가동 궁촌 |
| 11) 백암면 고안리 아곡 | 36) 유림동 지장실 |
| 12) 양지면 제일리 개나리 | 37) 고림동 이진말 |
| 13) 양지면 정수리 | 38) 운학동 내어둔 |
| 14) 양지면 추계리 내추계 | 39) 구갈동 갈곡 |
| 15) 양지면 대대리 웃한터 | 40) 영덕리 오평 |
| 16) 양지면 남곡리 배매실 | 41) 중리 내외촌 |
| 17) 포곡읍 전대리 기미실 | 42) 중리 연목 |
| 18) 포곡읍 마성리 마가실 | 43) 보정동 독정 |
| 19) 포곡읍 유운리 소운 | 44) 보정동 이현 |
| 20) 포곡읍 금어리 쇠내실 | 45) 보정동 연원 |
| 21) 모현면 왕산리 돌지개 | 46) 서천리 안서그네 |
| 22) 모현면 갈담리 파담 | 47) 동천동 손골 |
| 23) 모현면 일산리 내개일 | 48) 상현동 원촌 |
| 24) 모현면 능원리 능골 | 49) 신봉동 신봉말 |
| 25) 이동면 덕성리 심배울 | |

마을은 인위적으로 만든 단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짜여진 조직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 삶의 터전을 일구는 자연공간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를 벗어나 처음 속하는 곳이고,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기초 공동체다.
통제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구성원들 모두가 직접 참여해
스스로 자기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적 의미이다.



9 788995 753217

ISBN 89-957532-1-8

값 : 12,000원